



중구향토사자료 제19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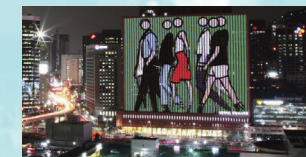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중구향토사자료 제19집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退溪路



www.junggucc.or.kr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02) 775-3001



서울 중구문화원
SEOUL JUNG GU CULTURAL CENTER

서울 중구 퇴계로(退溪路)를 걷다

서울 중구 퇴계로(退溪路)를 걷다

발간사

서울 중구향토사 자료 제19집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를 발간하게 된 것을 문화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조선의 한양 천도(1394년) 이래로 서울의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며 발 닿는 곳마다 선열의 자취가 스며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중구문화원은 1995년 개원 이래 향토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퇴계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는 서울역에서 시작하여 신당 5동 도로교통공단 사거리에 이르는 서울의 간선도로로, 길이 4.7km에 왕복 6차선 도로로서 왕십리로로 직결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소화통’이라 불리다 광복 이후 1946년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인근의 서소문동에 사셨던 근거로 퇴계로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의 관문인 서울역을 기점으로 전통 재래시장의 대명사인 남대문시장, 퇴계로 2가의 호텔과 업무시설, 글로벌 관광지구인 명동, 퇴계로 3가 한옥마을, 충무로역과 대한극장, 애견거리, 서애 유성룡 집터, 오토바이상가거리, 광희문, 충무아트센터, 중앙시장, 도로안전공단 등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간선도로로 긴 역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여 왔습니다.

퇴계로는 시대별로 우리나라 발전사의 한 측면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구 향토사연구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서양호 구청장님, 조영훈 구의회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토사 발간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서울중구문화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사자료집 총서

제01집	중구 향토사 관계 자료집 - 중구 관련 논문 모음집
제02집	중구사화(史話) - 중구의 문화유적에 얹힌 이야기
제0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제04집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제05집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제06집	중구의 구전설화
제07집	명동 변천사
제08집	중구의 축제
제09집	영화의 메카 충무로
제10집	중구의 세시와 풍속
제11집	정동, 역사의 뒀안길
제12집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제13집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제14집	서울 중구 12경, 살아있는 전통을 만나다
제15집	한류의 중심 서울 중구, 그 뿌리를 찾아서
특별호	서울중구문화원 20년 발자취
제16집	서울 번영의 상징 을지로
제17집	서울 중구의 문화예술인을 찾아서
특별호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刻字城石)
제18집	서울 중구, 동네방네 이야기
제19집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축간사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중구문화원의 향토사자료 제19집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조선시대 한양 정도 이후 오늘날까지 수도 서울로 가는 곳곳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고 사료를 수집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계로의 기점인 서울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허브 관문역으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인 퇴계로·을지로 도로변은 서울 메이커스 파크(도심 제조산업 허브 공간)로 탈바꿈하여 도심산업 활성화로 우리 구의 산업·문화·주거 형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역향토사는 국사의 뿌리로서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진 특유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구 향토사자료집은 귀중한 자료로 지역 발전과 애향심 고취 등 많은 효과를 수반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집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중구문화원 임직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구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수집·보존을 통하여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구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중구문화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우리 중구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께 우리 중구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향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양호

축간사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의장 조영훈입니다.

서울 중구 향토사자료 제19집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권의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고생이 많으셨던 중구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들어와 사람들은 동네의 매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률적인 개발 논리에 밀려 지역 특유의 개성과 멋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도 명소로 자리 잡은 지역의 동네를 일부러 찾아가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적 경험의 확장이 된 ‘동네’는 SNS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많은 이들과 확산·공유되며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오랜 역사의 수도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종로와 함께 현대화를 거치며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이 살아 있는 한옥마을, 산업화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도심지대와 최신 공법의 빌딩 등이 한데 섞여 젊은 층의 주목을 받으며 중구의 ‘동네’는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중구의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지역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구민들에게 우리 지역이 걸어온 길을 가늠해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록이 미래의 어느 시점엔 역사로 남기에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의 발간은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후대에도 전해질 이 책을 통해 퇴계로의 개성 넘치는 명소와 깊은 역사가 끝없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중구 곳곳의 멋과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담아낸 중구향토사 자료집이 구민들의 애정과 관심 속에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조영훈

발간사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축간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축간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조 영 훈

제1부 _____ 2019, 퇴계로를 걷다

1. 퇴계로의 기점 서울역 • 18

꿈의 광장, 희망의 광장 서울역
'지천사'와 '남지'
산업화의 상징 대우빌딩(서울스퀘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플랫폼 '문화역 서울 284'
교육으로 민족혼을 일깨운 강우규 의사
광장에 핀 민주화의 물결 '서울의 봄'

2. 도심의 공중정원 '서울로 7017' • 48

'사람길'로 탈바꿈한 서울역 고가도로
산책과 쇼핑, 테마도 다양한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을 따라 걷는 역사문화 도보여행
장미부터 희귀종까지, 도심의 수목원 '서울로 7017'
서울의 선을 바꾼 퇴계로의 스카이라인

3. 대한민국 전통재래시장 1번지 남대문시장 • 64

구한말의 남대문시장
한양의 상업중심지 칠패시장
우리나라 최대 종합시장
600년 전통의 도깨비시장, 아바이시장

4. 낭만의 공간 회현 사거리, 명동 • 72

'미쓰코시백화점'과 이상의 『날개』
한국 최초의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고려대연각타워'
12 정승을 배출한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마니아의 천국 '회현지하쇼핑센터'
퇴계로의 대표 호텔들
대중문화의 꽃 퍼시픽 호텔 '홀리데이 인 서울'
문학의 공간 '호텔 프린스'
퇴계로 2가 랜드마크 '세종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
예술인들의 안식처, 문화의 산실 명동

5. 영화문화를 꽃피운 대한극장, 극동극장 • 94

'벤허극장'으로 통한 대한극장
'활동사진'에서 '유성영화'까지
대형 스크린 시대를 연 대한극장
한국 최초의 청소년 전용관 '아테네극장(극동극장)'
퇴계로 대표 웨딩홀 '행복예식장'

6. 풍류가 숨 쉬는 남산골 한옥마을 • 110

옛 정취를 고스란히 살린 '한옥마을'
선조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한옥 다섯 채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타임캡슐 광장'
남별영 · 남소영 터
남학당 터
균역청 터
주자소 터
남산골 선비의 지조와 절개
난세를 극복한 충신 유성룡
신의와 절개의 표상 박팽년
우리의 미(美)를 알리는 복합문화 공간 '한국의 집'

7. '사람길'로 재생되는 퇴계로 대표 상가 • 136

서울 양대 꽃시장 '진양상가'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건물 '세운상가군'
영화 '도둑들'의 무대 진양상가
입체보행 랜드마크로 변신하는 진양상가
애완동물의 메카 '애견거리'
대한민국 오토바이 1번지, 세계 최대 '오토바이거리'
내가 찾는 오토바이, 오토바이거리에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
걷기 편한 거리로 변모하는 퇴계로

8. 예술통, 서애로의 푸른 밤 • 160

필동 골목 축제 '예술통'
선비의 마을 필동 골목에 피어난 예술꽃
흥겨운 예술 마을 필동
청춘이 빛어내는 '서애로의 푸른 밤'
아스팔트 걷어내고 '대학문화거리'로 변신한 서애로

9. 한국 대표 · 최초 · 원조가 많은 퇴계로 • 172

한국 침례교단의 모교회 '서울침례교회'
한국 교회의 토착화운동을 선도한 '경동교회'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광희문교회'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제일병원'
고향의 맛 살아 있는 '오장동 냉면거리'

10. 퇴계로 대표 역사유적 광희문 • 180

물이 나가는 '수구문', 상여가 나가는 '시구문'
광희문에 어려 있는 숨은 이야기들
인조가 피신한 통한의 문
광희문에 서려 있는 영혼들

11. 광희문 달빛로드 • 194

광희문 문화마을 달빛거리
천주교 순교성지 '현양관'

사람 사는 냄새가 흐르던 '시구문시장'
벽화를 즐기며 도란도란 걷는 즐거움, '광희문 벽화거리'
근대를 뚫고 피어난 현대의 꽃 '(구)서산부인과'
역사와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놓칠 수 없는 색다름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풀무재, 신당동 대장간거리
축구 명가 '한양공업고등학교'
'기능 한국' 위상을 떨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병자와 빈민을 구제한 '동활인서 터'
무당들이 많이 살았던 '무당천'
석전, 무당천에서 벌어졌던 민속놀이
떡볶이의 대명사 '신당동 떡볶이거리'
청소년들의 성지 떡볶이거리
지역민과 더불어 문화 예술을 창조하는 '충무아트센터'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전문 공연장
'공공극장'으로 변신하는 문화예술센터

12. 서울 3대 전통시장 '중앙시장' • 232

전국을 먹여 살렸던 '성동중앙시장'
맛따라 길따라 '먹깨비투어'
천하일미가 따로 없는 '보리밥 골목'
어머니의 숨결이 배어 있는 '포목부 골목'
국민의 밥상을 책임졌던 '미곡부 골목'
신혼의 추억 '왕십리 가구거리'
세상 만물은 다 모여라, '황학동 벼룩시장'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주방기구 거리'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생길의 벗 '곱창 골목'
영세민의 희망 등불 '옛 포장마차 제작거리'
재래시장의 미래를 그리는 시장 예술촌 '신당창작 아케이드'
중앙시장의 대표 얼굴 '신중앙시장'

제2부 _____ 퇴계로 변천사

1. 서울 도시계획 역사 • 262

조선시대 이전의 서울
조선 건국과 한양의 도시 설계
한양도성의 가로망
한양도성의 가로망 체계
도성의 관리
도성의 파괴와 복구
일본의 도성 훼손과 도시 변화

2. 일제강점기 경성 도시계획 • 278

도성 파괴와 도시 개조
경성시구개정사업
경성도시계획
경성시가지계획

3. 광복 이후 서울 도시계획 • 286

1960년대 서울 도시계획
1970년대 서울 도시계획
1980년대 서울 도시계획
1990년대 서울 도시계획

4. 2000년대 서울 도시계획 • 29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5. 퇴계로의 변천 • 300

소화통, 퇴계로의 탄생
광복 이후의 서울
한국전쟁 이후의 퇴계로
퇴계로 가로명 제정
퇴계로의 구간 변천
퇴계로의 재탄생

- 퇴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1단계)
- 퇴계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2단계)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 남산옛길 탐방로 조성사업
-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 황학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퇴계 이항

서울의 대표적인 ‘사람길’ 퇴계로

서울의 도심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퇴계로는 서울역부터 남대문시장, 회현 사거리, 명동역과 충무로역을 지나 진양상가, 애견거리, 오토바이거리, 광희문과 중앙시장, 도로교통공단 사거리에 이르는 간선도로다. 길이는 4.7km이며, 왕십리로로 직결된다.

퇴계로는 일제강점기에 ‘소화통(昭和通)’으로 불렸다. 이 지명은 광복 이후 1946년 일제의 잔재인 동명과 가로명을 우리 이름으로 개정하는 ‘가로명 제정위원회’에서 퇴계 이황의 호를 따 퇴계로로 개칭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이황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서소문동에서 살았는데,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지하철 시청역 10번 출구 한산빌딩(서소문동 47-2) 앞에는 이황이 살았던 집터를 알리는 표석이 있다.

퇴계로는 한국전쟁 이후 파괴된 서울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역부터 신당동(광희문)까지 길이 3,500m 너비 35m로 확장되며 지금의 퇴계로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2010년 왕십리로였던 한양공고 삼거리부터 도로교통공단 사거리까지 구간을 편입하여 현재에 이른다.

퇴계로는 일상으로 지나치는 공간 곳곳에 과거와 현대의 역사

문화 자원이 다양하게 숨 쉬고 있다. 또한 서울로 7017, 남대문시장, 남산과 명동, 중앙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 등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들이 이어져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이에 중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퇴계로를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하고 있다.

도시 재생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더불어 사는 서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도시 재생은 다채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서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의 바탕이 된다. 퇴계로 재생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사람길’로 새로이 탄생하고 있는 퇴계로를 걸어보자. 서울의 관문 서울역,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남대문시장과 중앙시장, 역사의 숨결이 오롯이 배어 있는 광희문 달빛로드까지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무궁무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이황 집터 표석(서소문동 47-2 한산빌딩 앞 시청역 10번 출입구)

제1부

2019, 퇴계로를 걷다



1. 퇴계로의 기점 서울역

꿈의 광장, 희망의 광장 서울역

꽃피는 봄날, 서울역 광장에 섰다. 퇴계로의 기점이다. 이른 아침 분주한 사람들, 그 위로 한가로이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

봄,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봄이라는 말은 ‘보다’에서 나왔다. 모든 걸 새롭게 바라봄을 뜻한다. 그래서 봄은 희망찬 앞날을 상징한다.

대지를 깨우며 푸른 새싹이 새 생명을 틔우는 희망의 봄.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한 봄이 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꿈틀거리며 기지개를 켜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만물이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며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한다. 겨우내 살을 에는 추위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새봄에 돌아나는 새순을 꺾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다. 봄은 희망이다, 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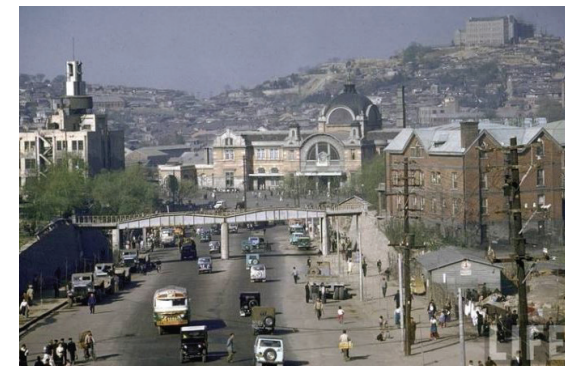
그 시절 청운의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한 청춘들. 보따리 하나 부여안고서 밤새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온 희망의 도시 서울, 그 서울역 광장에 내딛은 그들의 첫 걸음도 희망이었으리라.

저마다의 사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빛보다는 그늘에 눌러 서울로 가자, 결심한 순간 미래의 희망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터.

그러나 청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두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성공이라는 열망 하나로 ‘서울 드림(Seoul Dream)’을 찾아 올라온 청춘들에겐 거칠 게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일지라도 꿈의 관문인 서울역을 통과해 광장에 선 순간 짜릿한 희열과 전율에 젖어 성공이라는 열차를 타고 금의환향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서울역 광장은 그 시절 꿈의 광장이었다. 삶의 굴레를 박차고 햇살처럼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춘들의 희망의 광장.

하지만 그들의 희열과 전율은 앞을 가로막고 선 거대한 벽에 부딪쳐 순간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이방인이 되었다.



서울역(1960년)
서울역 맞은편 왼쪽에 있는 하얀 건물 자리에 지금은 서울스퀘어가 들어서 있다. 퇴계로 진입로에는 육교가 있었다.
(출처-LIFE 자료집)



서울역(1996년) (출처-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열여섯의 나, 모내기가 끝나던 마지막 날 밤기차를 타고 집을 떠난다. 그날 새벽에 봤던 대우빌딩을 잊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나와 그때까지 봤던 것 중의 제일 높은 것. 거대한 짐승으로 보이는 저만큼의 대우빌딩이 성큼성큼 걸어와서 엄마와 외사촌과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 여명 속의 거대한 짐승 같은 대우빌딩을, 새벽인데도 벌써 휘황찬란하게 켜진 불빛들을, 어딘가를 향해 질주하는 자동차들을 두려움에 찬 눈길로 쳐다본다.

- 신경숙 장편소설 『외딴 방』 중에서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청춘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처음 맞닥뜨렸을 거대한 황갈색 건물. 탈향의 종착역이자 서울 생활의 시발역이었던 서울역 앞에 우뚝 선 대우빌딩(서울스퀘어), 이 ‘거대한 짐승’은 찬란한 내일을 꿈꾸며 달려온 청춘들을 압도하며 한순간 발걸음을 붙잡았다.

‘지천사’와 ‘남지’

광장에 서서 서울스퀘어를 바라본다. 예나 지금이나 위풍당당하다. 이제 주변에 들어선 빌딩들로 홀로 우뚝 서 있지 않지만 충분히 압도적이다. 장엄하기까지 하다.

이 빌딩을 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을 청춘들은 다 어디로 향했을까. 가슴 깊이 꼭꼭 새긴 저마다의 푸른 꿈은 이루었을까. 광장에서 마주한 거대한 벽에 길을 잃고 허물어지지나 않았을까.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 허물어지지 않고 꽃을 피웠다. 하나밖에 없는 몸뚱이를 불태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 서울역 일대는 연꽃이 만발한 연못이었다.

‘지천사(支天寺)’라는 절이 있었다. 1232년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도읍을 개성에서 강화도로 옮긴다. 그리고 1245년 고려의 실권자 최우(崔瑀)는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서울역 광장에 서면 제일 먼저 마주하는 서울스퀘어 빌딩. 예나 지금이나 압도적이다.
(출처-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선원사(禪源寺)’를 창건해 대몽항쟁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만들어 선원사에 봉안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은 1011년에 처음 만들었다. 이를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 한다. 초조대장경은 1232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말았는데,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고려는 몽골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1251년 팔만대장경을 다시 만든다. 이를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라 한다.

강화도 선원사에 봉안된 팔만대장경은 조선시대에 지천사를 거쳐 합천 해인사로 옮겨진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1398년(태조 7년) 팔만대장경을 한양의 지천사로 옮겼다가 1456년(세조 2년)경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봉안한 것이다.

지천사가 정확히 어디에 자리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남대문 안에 있

었고, 그 절에 큰 연못을 두었다.

남대문 밖에 못을 파고 문 안에다가 지천사를 두었다.

(南大門外鑿池 於門內置支天寺)

- 세종실록 15년(1433) 7월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것으로 보아 지천사는 국가에서 창건하여 운영하는 국찰(國刹)이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선원사에서 한강을 따라 옮겨온 대장경을 지금의 원효로 앞 한강이었던 용산강(龍山江)으로 태조가 군사 2,000명을 이끌고 직접 나가 지천사로 옮겼다고 한다.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부분(1629년)

남대문 밖 남지에서 연꽃을 감상하는 관료들을 그린 그림. 남대문보다 더 크게 그린 남지의 풍광을 볼 수 있다.

(출처-서울대학교 박물관)

지천사에 두었다는 연못은 ‘남지(南池)’다. 연못 안에는 연(蓮)을 심고 주위에는 버드나무를 배치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옛 그림을 보면 남대문보다 더 크고 화려해 보이는데 운동장처럼 규모가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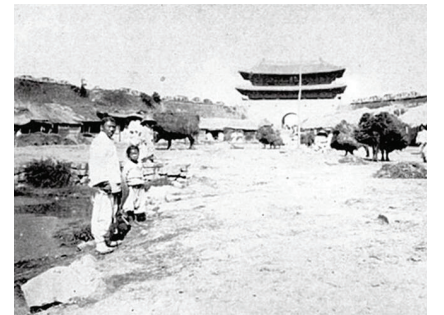
남지 이름은 ‘한양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또 연이 매우 아름다워 ‘연지(蓮池)’라고도 불렀다.

남지는 예부터 그 모습이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이라 화산(火山)이라 불렀던 관악산의 화

기(火氣)를 누르고자 만들었다.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할 때 제일 먼저 경복궁을 지었다. 그런데 경복궁을 지을 때 불이 자주 났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에 따라 한강 남쪽의 화산인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 송례문 현관을 세로로 쓰고 화기를 누르는 방편으로 남지를 만들었는데, 이후 남지의 연꽃이 무성하면 남산 아래 기반을 둔 남인 세력이 성한다는 속설 때

문에 메웠다가 다시 파기를 반복했다.

남지는 1900년대에 들어 송례문 주위의 성곽을 헐고 도로를 만들면서 메워졌다. 1907년 일본 황태자의 경성 방문을 앞두고 조선 침탈의 주역이었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남지를 매몰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유는 남지가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남지(1900년대 초)

서울역 쪽에서 남대문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 왼쪽의 사람 뒤로 남지로 추정되는 연못이 보인다. (출처-국가기록원)

어떤 사람이 고니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마을 사는 이가 10냥을 주고 사다가 송례문 앞 연못에 넣어주었다. 고니는 날아갈 생각을 않고 주야로 노니는데, 그 유유자적인 정취가 어느 새와 달라 격이 높아 보인다 했다.

- 독립신문, 1896년 4월 11일자

고니가 노니는 남지의 풍경, 아름다운 동양화 한 폭이 그려진다. 그런데 전염병의 온상이라니, 남지를 없애기 위한 거짓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남지에서는 중요한 유물이 하나 발견되었다. 용머리를 한 청동 거북, ‘청동용두(靑銅龍頭)’의 귀(龜)라는 유물이다.

이 유물은 1926년 메워진 남지 터에 건물을 짓다가 지하 3m 깊이에 있던 석실(石室)에서 발견되었다. 거북 속에는 ‘불 화(火)’를 중앙에 두고 사방에 ‘물 수(水)’를 그린 태극 문양의 ‘팔괘도’가 들어 있었다. 종이에 그린 팔괘도가 연못 속에서도 물에 젖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석실에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이를 감정한 전문가는 흥선대원군 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팔괘도는 2012년 문화재청이 새롭게 만들었다. 2008년 방화로 소실된 남대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



청동용두의 귀
(출처-문화재청)



청동용두의 귀에서 발견한 팔괘도



팔괘도 원본과 문화재청이 새롭게 만든
팔괘도 도안

아 새로이 만들어 남대문 가운데 칸에서 가장 높은 종도리 아래 뜬창방에
상량문과 함께 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화기로부터 남대문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팔괘도가 남대문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청동용두의 귀는 남지의
수호신이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 남지는 신성한 연꽃이었을 텐데, 이런 연
꽃을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명목으로 메워버렸다니.

만약에 남지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어떠할까. 대도시로 변모
한 서울 한복판에 연꽃 만발한 남지가 있다. 해질 무렵 붉은 노을에 물든
연꽃들, 그 은은한 장관에 빠져드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황홀하다. 실제로
2008년 남대문이 불탄 뒤 새로 지으면서 남지를 복원하자는 논의가 있었
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위에 그쳤고, 현재는 길가에 표석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남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지의 화려한 연꽃도 사라졌다. 그 연꽃
처럼 서울역 광장의 청춘들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 청춘의 피와 땀은 사라
지지 않았다.

공순이, 공돌이라는 말이 있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그렇게 불
렀다. 그들은 오직 꿈을 이루기 위해 가난에 쫓겨 도망치듯 밤차를 타고 서
울로 올라왔던 청춘들이다. 서울역 광장에서 거대한 대우빌딩과 마주하고
그 압도감에 주춤했던 청년들이다.

그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하루 종일 미싱처럼 돌아가며 젊음을 바쳤
다. 개발경제시대 꿈과 희망을 잃은 채 산업전사가 되었다. 그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역사를 이룬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그들의 피땀은 연꽃으로 승화되어 피어났다. 남지 연꽃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서울역 광장에 첫걸음을 내딛었던 청춘들은 사라지지 않고 연
꽃으로 피어났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

산업화의 상징 대우빌딩(서울스퀘어)

서울역 일대에 지금도 연꽃이 만발해 그 향기로 서울이 물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남지 연꽃과 청춘의 연꽃을 떠올리며 잠시 생각해본다.

퇴계로로 들어서는 진입로를 바라본다. 그 옆에 선 대우빌딩. 산업화시
대를 말하자면 이 건물을 빼놓을 수 없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지금 봐도 거대하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다. 부드러운 둥근 모
서리 하나 없는 사각형 건물, 빈 틈 하나 없이 싸늘하고 차갑기만 하다.

산업화시대 대우빌딩은 서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었다. 누구
라도 서울역 광장에서 이 건물과 맞닥뜨리면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
들었다. 그래서 대우빌딩은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건물을 보고 움츠러들거나 주눅 드는 사람
은 없다. 그저 수많은 고층 건물 중 오래된 하나의 빌딩일 뿐.



준공을 앞둔 대우빌딩(1976년)
(출처-국가기록원)

그래서 더 좋아 보인다. 아니, 기교 없이 각진 이 건물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다.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어진 첨단의 빌딩들, 건물이라는 말 보다는 반드시 빌딩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각양각색의 빌딩들,形形色색 교태를 부리며 서 있는 그 무수한 빌딩들보다 아름답다.

결코 잘난 체를 하지 않는다. 그저 투박하게 서 있다. 산업화시대의 역사를 관통하며 우직하게 서 있을 뿐이다.

대우빌딩은 1968년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철도청이 7층 규모의 '교통 센터'를 지어 청사로 쓸 목적으로 착공했다. 그런데 교통부는 공사 도중에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3년 대우그룹에 47억 1,000만 원에 부지를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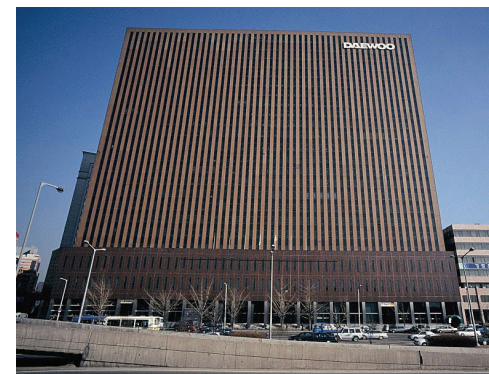
대우빌딩의 역사는 이때 시작된다. 부지를 인수한 대우그룹은 설계부터 전면 수정해 공사를 했는데, 7층 규모에서 현재의 규모로 설계를 변경한 뒤 1977년 사옥으로 준공한다.

대우빌딩은 지하 2층 지상 23층, 대지 면적 1만 583㎡, 건축 연면적 13만 2,330㎡에 달한다. 가로 100m 세로 80m의 사각형 건물로 완공 당시 국내 최대 오피스 빌딩이었다.

그 시절 이 건물은 장안의 화제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였다. 당시 5층만 넘어도 고층 건물이었으니 당연했다. 준공식 날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북새통을 이루었다. 항간에는 촌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으면 "이 빌딩은 25층짜리인데 한 층 보는데 100원씩 2,500원을 내야 한다"면서 사기꾼들이 돈을 뜯어간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이런 비화도 있다. 대우빌딩이 완공되었을 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건물 옥상에서 청와대를 볼 수 있었다. 그러자 청와대 경호실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우빌딩은 청와대 방향으로 난 창문을 모두 가려야만 했다. 또 빌딩 옥상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공포 4대를 설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대우빌딩은 개발경제시대 고도성장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대우그룹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대우자동차를 비롯해 대우건설, 대우전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 등 모든 계열사가 입주해 대우그룹의 '성공신화'를 써 나갔다. 그룹의 총수인 김우중 회장은 맨 꼭대기 25층에 집무실을 두고서 계열사를 진두지휘했다. 대우빌딩은 23



대우빌딩(1995년) (출처-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층인데, 4와 13을 불길한 숫자라 하여 4층과 13층이 없다. 그래서 대우빌딩은 실제로는 23층이지만 층수로는 25층이다.

대우그룹이 승승장구하던 시절 대우빌딩은 가장 먼저 불이 켜지고 가장 늦게 꺼지는 건물로 유명했다. 그 시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빌딩이었는데,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로 불렸다.

그러나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대우그룹의 성공신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대우빌딩도 그룹이 해체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팔렸다. 이후 대우빌딩은 2007년 모건스탠리가 인수해 2년 동안 무려 1,00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뒤 2009년 현재의 ‘서울스퀘어’로 재개장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도 부동산경기 침체와 입주기업 감소로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며 싱가포르계 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말았다.

40여 년 영욕의 세월, 그 시간을 과시라도 하듯 지금 서울스퀘어는 밤이 면 더 화려하다. 현재 이 빌딩은 디지털 아트로 서울의 밤을 수놓고 있다.

서울스퀘어 빌딩 전면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스퀘어 디지털 아트
미디어 파사드로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힌 줄리안 오피의 디지털 아트.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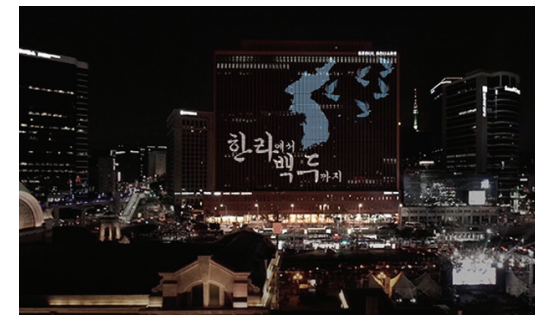
‘가나아트갤러리’가 4만 2,000개의 LED 전구를 사용해 가로 99m 세로 78m의 세계 최대 단일 미디어 파사드(facade)를 만든 것이다. 이 전광판은 빌딩을 첨단 디지털 아트 캔버스로 만드는데, 이 거대한 캔버스에서 영국의 팝 아티스트 줄리안 오피(Julian Opie) 같은 세계적인 미술가의 디지털 아트가 펼쳐진다. 국내 최대의 오피스 빌딩에서 디지털 아트가 펼쳐지는 예술적 빌딩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렇게 재탄생한 서울스퀘어는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드라마 ‘미생(未生)’ 덕분에 ‘장그래 빌딩’으로 불리며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미생은 만화가 윤태호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2014년에 방영된 케이블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수많은 직장인의 공감 속에 미생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바둑만이 인생의 전부였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 바둑기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종합상사에 입사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는 매회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랑을 받았다. 러브스토리가 없으면 망한다는 드라마의 속성을 깨고 그 혼한 사랑 이야기도 없이 성공한 이유는 정글 같은 사회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바로 서울스퀘어다.

치열하게 움직이는 대기업 직원군을 그리기 위해 상징적인 건물이 필요했다. 서울스퀘어는 성처럼 보이면서 고독해 보이는 건물이기도 하다. 또 한국 경제에 상징적인 건물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 이재문(드라마 '미생' 프로듀서)



서울스퀘어 디지털 아트
2018년 9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 한반도와 비둘기로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았다.
(출처-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이 말처럼 서울스퀘어는 그 어떤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면서도 일면 외롭고 고독해 보인다. 고층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황량한 도시에 홀로 우뚝 서 있었을 초고층 건물을 상상해보라. 그야말로 거대한 성처럼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쓸쓸하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그 시절 낯선 풍경이었을 것이다. 산업화시대를 거쳐 온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는 대우빌딩의 모습, 드라마를 만든 프로듀서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서울스퀘어는 드라마 미생의 배경이 되기에 맞춘다. 서울스퀘어는 대다수 빌딩이 직사각형 형태인 데 비해 정사각형에 가깝다. 외벽도 짙은 갈색이고, 창문도 자로 잰 듯 일정하게 배치돼 있다. 마치 바둑판 같다. 드라마의 소재가 바둑이었으니 이보다 좋은 배경이 또 어디 있을까.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서울스퀘어가 반짝인다. 가지런히 난 창문이 반사하는 햇살에 눈이 부시다. 그 눈부심이 좋다. 1980년대 서울의 랜드마크, 산업화시대의 상징. 지금은 그 지위를 잃었지만 어쨌거나 살아 있다. 산업화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이 빌딩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다. 만약 이 거대한 건물이 지난 시대와 함께 스러져 홍물이 되었다면 그걸 어찌 볼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리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플랫폼 '문화역 서울 284'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서울역을 바라본다. 서울역에는 두 개의 시계가 있다. 역사 정면 출입구 위에 하나, 역사 안 중앙홀에 하나. 둘 다 서울역을 상징하는 시계다. 파발마는 서울역 출입구 아치형 창문에 있다.

파발마, 이 시계는 1925년 서울역을 지을 때 설치했다. 지름이 1.6m나 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계였다. 파발마라는 이름은 1968년 서울역에서 근무했던 최종철 부역장이 붙였다. 한시도 쉬지



서울과 전국의 철길을 잇는 시간기준점 서울역 파발마
(출처-문화역 서울 284)



서울역 중앙홀 시계
(출처-문화역 서울 284)

않고 달리는 역마 파발마처럼 부지런하다는 뜻에서 붙였단다. 파발마는 한국전쟁 때 3개월 정도만 빼고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 1951년 1·4후퇴 때는 그 피난길에도 파발마를 해체해 가져갔다고 한다. 100년 가까운 오랜 세월 서울과 전국의 철길을 잇는 시간기준점 역할을 한 파발마, 서울역 상징물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

파발마를 보고 있으니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망설일 것 없이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긴다. KTX가 오고가는 신역사가 아니라 서울역의 옛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여행을 위해 '문화역 서울 284'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이다. 1896년 고종은 미국인 모스(James R. Morse)에게 경인철도 부설권을 허가한다. 모스는 이듬해 3월 기공식을 올리지만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1898년 일본의 경인철도합자회사에 부설권을 양도한다. 이후 일본은 1899년 9월 18일 제물포와 노량진 구간(33.2km)을 개통한 데 이어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 준공과 함께 경성역까지 3km를 더 연장해 그해 11월 12일 경인선 전 구간을 운행한다.

당시 경성역은 지금의 서울역 자리가 아니라 이화여고 근처에 있던 서대문역이었다. 현재의 서울역에는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1900년 문을 연 남



경성역의 전신인 남대문정차장(1910년대)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이카이프')



준공 당시의 경성역(1925년)
(출처-문화역 서울 284)

대문정차장이 있었는데, 원래 위치는 지금보다 남대문에 좀 더 가까운 염천교 부근에 있었다. 용산역과 서대문역을 잇는 간이역이었고, 40평 정도의 목조 바라크 건물이었다. 남대문정차장은 1905년 남대문역으로 개칭되었다가 1915년 목조 건물을 철거하고 역사와 승강장, 부대시설을 새로 지은 뒤 1923년 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의 서울역은 1925년 9월 30일 지금의 자리에 새로운 역사를 준공하면서 탄생했다. 1922년부터 3년 동안 르네상스식 건축물로 신축해 경성역이라 이름 붙였고, 규모는 물론 붉은 벽돌과 청동색 돔, 화강암 바닥, 인조석을 붙인 벽 등 이국적인 유럽식 외관으로 장안의 화제였다. 역사적인 첫 운행은 경성역 준공 보름 뒤인 10월 15일에 했다. 이후 광복 후인 1947년 11월 1일 서울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긴 세월 숨 가쁘게 달려왔다.

문화역 서울 284 출입구를 통과해 중앙홀 앞에 섰다. 기분이 묘하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이 일순 차단되면서 고요하다. 방음막도 없는데 밖에서 들던 사람들 소리 자동차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다. 어린 시절 보았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처럼 마치 신비한 마법세계로 속 빨려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찬찬히 중앙홀을 둘러본다. 12개의 석재 기둥과 대형 원형 돔, 역사의 중

심 공간답게 웅장하다. 특히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한국전쟁 때 파손돼 태극무늬와 네 마리 봉황, 무궁화가 어우러진 모습으로 다시 만들었다. 2011년 서울역 복원 공사를 하면서는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강강술래를 형상화하여 새로이 만들었다.



서울역 중앙홀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
(출처-문화역 서울 284)

서울역은 2011년에 다시 태어났다. 2004년 KTX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현대화한 신역사를 개장하면서 구역사를 폐쇄한 뒤 2008년부터 2년 동안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 복원 공사를 하여 경성역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복합문화 공간인 '문화역 서울 284'로 새롭게 개장한 것이다. 이름에 붙은 '284'는 사적 번호다. 한국 철도의 상징인 서울역사는 군산세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과 함께 국내에 현존하는 3대 근대 건축물로 인정받아 1981년 사적 제284호로 지정되었다.

기차역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역 서울 284는 100년에 이르는 시간과 세월이 커커이 쌓인 역사의 장이면서 새로운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공간이다. 르네상스 장식과 붉은 벽돌로 상징되는 과거의 공간에서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플랫폼인 것이다. 이 플랫폼에서 젊은 문화예술인들은 공연과 연극, 전시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창작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옛날 모더니즘 중심지로 르네상스를 쫓피운 서울역에서 21세기 첨단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쫓피우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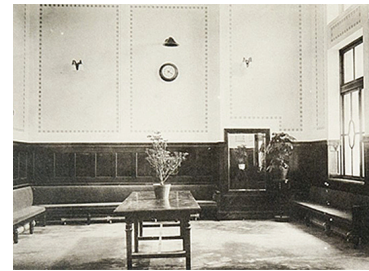
중앙홀은 근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최동훈 감독



경성역 1·2등 대합실
(출처-문화역 서울 284)



경성역 3등 대합실
(출처-문화역 서울 284)



경성역 부인 대합실
(출처-문화역 서울 284)

의 '암살'과 김지운 감독의 '밀정'에서는 의열단원들이 경성으로 잠입해 들어오는 경로로 나온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역은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눈을 피해 활약한 무대였다.

대합실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서울역은 모두 4개의 대합실을 두었다. 1·2등 대합실과 3등 대합실, 부인 대합실, 귀빈실이다. 중앙홀에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3등 대합실이, 왼쪽으로 1·2등 대합실과 부인 대합실, 귀빈실이 차례로 있다.

1·2등 대합실은 특실인 1등석과 2등석 승객이, 3등 대합실은 일반실인 3등석 승객이 머물렀다. 그래서 1·2등 대합실은 3등 대합실보다 고급스럽고, 3등 대합실은 서울역 광장에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다.

부인 대합실은 가장 작은 대합실이었다. 하지만 여성이 머무르는 공간인 만큼 다양한 문양으로 멋을 냈다. 1·2등석 승객 중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그러니까 1·2등 대합실은 남성 승객만 이용했다.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다지만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던 시대였으니 남녀 구분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녀 구분은 기차를 타면 하지 않았다.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 친소 다 같이 익히 지내니

조그마한 댄 세상 절로 이루었네

- 최남선의 '경부철도가'(1908) 중에서

기차를 처음 보고 사람들이 가장 놀라고 신기해했던 것은 길고도 큰 첫덩이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달린다는 것만은 아니었다. 남녀노소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대합실은 남녀 구분을 하면서도 막상 기차를 타면 한데 섞여 있으니 그야말로 '댄 세상'이었을 것이다. 남녀칠세부동석에 반하는 새로운 세상, 아마도 사람들은 기차보다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기차 안 풍경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귀빈실은 역장실 바로 옆에 있다. 귀빈실답게 대리석 벽난로와 거울, 고급 벽지로 마감한 벽면, 거기에 스테인드글라스까지 꾸며놓았다. 대한제국 황실과 국가의 귀빈이 이용했으니 그에 맞는 품격은 당연할 터.

귀빈실을 역장실 바로 옆에 둔 것은 역장이 귀빈을 모시기 위해서였다. 귀빈실은 출입구도 별도로 두었는데, 귀빈이 자동차를 타고 오면 문 앞에서 바로 내려 귀빈실로 갈 수 있도록 포치(porch) 구조로 만들었다. 또 귀빈실 맞은편에는 귀빈을 위한 식당 겸 수행원들이 머무는 귀빈 예비실을 두었다. 귀빈실은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도 이용했다.

잠시 귀빈실에 머물러본다. 화려한 귀빈실, 이 그림과는 어우러질 수 없



경성역 귀빈실
(출처-문화역 서울 284)



경성역 귀빈 예비실
(출처-문화역 서울 284)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출처-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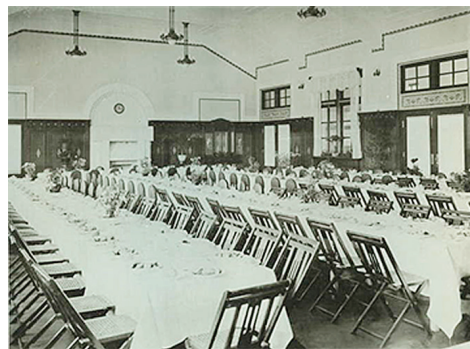
는 한 사람이 떠오른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나라 잃은 식민치하 일본으로 볼모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귀빈실에 머물렀다. 그때 나이 열네 살이었다. 지금 같으면 한창 꿈을 먹고 살았을 어린 소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본으로 떠나기 전 경성역 기차 테라스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 기모노를 입고 있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다. 슬픔도, 두려움도 없이 마치 주검처럼 생기 없는 얼굴로 앞만 보고 있다.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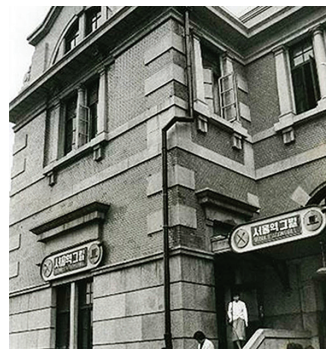
덕혜옹주, 일본으로 건너가 외로움과 향수병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광복 후 38년 만에 귀국했지만 오랜 치료 끝에 결국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 참으로 아픈 역사다.

스멀스멀 번져오는 슬픔을 털어내기 위해 귀빈실을 나선다. 조금은 묵직한 걸음으로 천천히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한다.

2층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 '그릴'이 있었다. 1925년 10월 25일 문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 '그릴'
(출처-문화역 서울 284)



대통령부터 유명 배우들까지 애용한
문화 공간 '그릴' (출처-문화역 서울 284)

을 열었다. 넓은 홀과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은그릇과 은촛대, 40명의 요리사가 근무한 최고의 사교장이었다. 당대의 고위 관리와 귀족들이 이용한 그릴은 훗날 서양식 레스토랑 자체를 '그릴'이라고 명명해 통용할 정도로 인기였다. 또한 배선실에는 지하층의 서양 요리장과 일식 요리장을 연결하는 음식용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이 역시 국내 최초다.

서울역 그릴은 광복 후에도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은 물론 최무룡, 김지미, 도금봉 등 유명 배우들까지 애용한 문화 공간이자 유행의 첨단이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근에 고급 호텔이 들어서면서 1988년 막을 내리고 역사가 되었다.

그릴로 들어서는 통로 앞에는 이발실이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라면 용모도 가꾸기 마련, 그 시작은 머리부터 단정하게 다듬는 것일 터. 현재 이발실은 복원전시실로 꾸며놓았다. 배관부터 나무로 만든 스위치 함, PVC 소재가 없던 시절 천으로 감은 전선 등 당시의 시공 방법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또 서울역을 복원하면서 나온 부자재 등 역사적 사료들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공간 전체가 생생한 전시물이다.



지금은 복원전시실로 바뀐 경성역 이발실
(출처-문화역 서울 284)

복원전시실까지 둘러보고 1층으로 내려온다. 마음이나마 그 옛날 사람이 되어 플랫폼으로 나가보고 싶다. 대합실에서 머물던 승객들이 기차를 타러 승강장으로 가던 길은 '서측 복도'라 한다. 중앙홀 바로 뒤로 길게 나 있다.

이 복도를 통과해 사람들은 기차에 올랐다. 한국 여성 최초로 유럽 여행 길에 오른 서양화가 나혜석도 여기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갔고,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 선수도 여기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베를린까지 갔다.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한의 기상



서울역 플랫폼으로 가는 통로 '서측복도'
(출처-문화역 서울 284)



서울역 승강장(1960년)
(출처-국가기록원)

을 만방에 떨쳤다.

플랫폼으로 나가는 복도는 유리로 막아놓았다. 이제는 유리 너머로 기차를 봐야 한다.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데 어우러져 앉아 있는 모습도 그려진다.

행선지는 저마다 다르다. 가는 목적도 다르고, 사는 삶도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다. 다른 세상인 듯 같은 세상 속에.

교육으로 민족혼을 일깨운 강우규 의사

시간여행을 마치고 다시 광장에 섰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올랐다. 맑게 부서진 햇살이 광장 바닥에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다.

광장에 서 있는 강우규 의사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그쪽으로 걸어가 앞에 섰다.

서울역 광장은 역사의 광장이다. 식민 치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대한독립 투쟁의 광장, 광복 후 산업화시대를 거쳐 민주화시대로 흐르면서는 '서울의 봄'을 갈망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의 광장.

1919년 9월 2일 경성역, 이날은 아침부터 경비가 삼엄했다. 경성역과 광장에는 보병 2개 대대와 기병 1개 중대의 의장대가 배치돼 있었고, 경찰들이 깔려 있었다. 제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광장에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그 중에는 두루마기 차림의 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허리춤에 명주 수건으로 감싼 폭탄을 숨기고 있었다.

오후 5시, 부산에서 출발한 특별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섰다. 열차 문이 열리고 사이토 총독이 내려 마차가 대기하고 있는 광장으로 향했다. 도열한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마차에 오르는 사이토, 순간 노인이 사이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광장은 피로 물들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사는 실패했다. 폭탄이 마차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한 것이다. 사망으로 된 파편이 사이토의 현대에 날아가 박혔지만 총독은 무사했다. 광장에 있던 수행원들과 경찰, 신문기자 등 37명의 사상자를 냈을 뿐.



서울역 의거 후 수감되어 얼굴이 가려진 채 법정으로 끌려가는 강우규 의사(1920년 4월 14일)
(출처-독립기념관)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고 있는 강우규 의사(왼쪽)
(매일신보 1920년 2월 27일)



강우규 의사 수형 기록 카드
(출처-국가보훈처)

노인은 강우규(姜宇奎) 의사다.

강우규 의사는 1855년 평안남도 덕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흰칠한 체구에, 집안이 가난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익힌 한방의술로 한약방과 잡화상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1908년 함경남도 흥원군에 영명학교(靈明學校)를 세우고 구국교육 운동을 펼쳤다.

1910년 8월 강우규 의사는 한일병합으로 국권을 상실하자 곧바로 가족들을 러시아로 이주시키고 자신은 1911년 봄 북간도로 건너가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지린성 라오허현(吉林省 繞河縣)에서 농토를 개간해 신흥동(新興洞)이라 이름 짓고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하고, 1917년에는 이곳에 광동학교(光東學校)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며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신흥동 동포 500여 명과 독립만세 시위를 벌였다.

서울역 의거를 실행할 당시 강우규 의사는 '대한국민노인동맹단(大韓國民老人同盟團)'의 라오허현 지부장이었다.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은 독립운동을 펼치는 청년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3·1운동 직후에 결성된 단체였다. 46세부터 70세까지의 노인들이 활약한 단체였는데, 이때 강우규 의사는 65세였다. 그러니까 고령의 나이로 폭탄 하나를 품에 안고 서울로 들어와 거

사를 한 것이다.

강우규 의사는 민족교육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애국지사다. 그는 영명학교와 광동학교 외에도 30여 년간 러시아와 만주에 협성학교(協成學校)와 조선민회(朝鮮民會), 교회 등 6개의 학교와 3개의 교회, 민회 2개를 설립해 청년이 바로 서야 조국이 바로 선다는 일념으로 청년교육에 매진했다.

이런 그가 조선 총독을 암살할 결심을 한 것은 안중근 의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4년 강우규 의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때 강우규 의사는 자신을 찾아온 계봉우(桂奉瑀)와 두 달을 함께 살았는데, 계봉우는 여기서 「만고의사 안중근전」을 썼다.



계봉우 지사

계봉우 지사는 북간도와 상해, 시베리아에서 활약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다. 구한말 의병운동을 최초로 쓴 「의병전(義兵傳)」을 비롯해 북간도의 한인 생활상과 독립운동을 담은 「북간도(北壘島)」, 「아령실기(俄領實記)」, 「김 알렉산드라 소전」 등을 독립신문에 연재하며 독립운동사 연구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이 저술들은 사학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계봉우 지사는 1959년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국어와 역사를 가르치며 『조선문학사』, 『조선문법』, 『조선역사』 등 국어국문학과 한국사에 많은 저술과 업적을 남겼다. 일생을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연해주 한인사회에 일깨우며 교육자로 헌신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국이 광복된 후에도 머나먼 이국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쳤는데, 다행히도 2019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할 때 국내로 유해를 봉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했다.



독립유공자 계봉우 · 황운정 지사 내외 유해봉환식(2019년)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던 계봉우 · 황운정 애국지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현재 국외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는 모두 152위다.

「만고의사 안중근전」, 강우규 의사는 이를 읽고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이때부터 의거를 결심했고, 훗날 서울역에서 거사를 했다.

의거는 실패했다. 그러나 강우규 의사는 일본의 극악한 조선 통치를 세계에 폭로하고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했다.

강우규 의사는 거사 후 보름 뒤 일제의 앞잡이에게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1920년 11월 29일 사형을 당했다.

단두대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斷頭臺上 猶在春風)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오 (有身無國 豈無感想)

- 강우규 의사의 '사세시(辭世詩)'

사형 직전 강우규 의사가 남긴 시다. '단두대에 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죽는 순간까지 초연함을 잃지 않았던 강우규 의사. 6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조선 총독을 폭살하기 위해 폭탄 하나를 품고 조국으로 돌아와 거사를 단행한 기개가 느껴진다. 이 의거는 3·1운동 이후 조직이 아닌

개인이 단독으로 감행한 최초의 의열투쟁이었다. 또한 이 의거는 '의열단(義烈團)'으로 계승되어 1920년대 의열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2019년, 강우규 의사가 서울역 광장에서 의거를 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 광장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이 의거와 강우규 의사의 행적을 과연 몇이나 알까. 서울역 광장에 외로이 서 있는 동상을 보며 강우규 의사를 기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저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스쳐 지나갈 뿐이다.

우리는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등 널리 알려져 있는 독립투사들만 기억한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독립투사들은 알지 못한다. 영화 '암살'과 '밀정'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숨은 영웅들을 이제야 비로소 재조명하고 있다.

서울역 광장은 독립투사들의 무대였다. 전국 각처로,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떠날 때 그들은 이 광장을 거쳐 갔다. 마지막으로 딛고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조국의 땅, 식민 치하 서울역 광장은 민족의 비원인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간절한 생명의 땅이었다.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회장 장원호)의 강우규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2019년)



동상을 바라본다. 왼손을 불끈 쥐고 오른손에는 폭탄을 들고 있다. 굳게 다문 입, 형형한 두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서 조선 총독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려고 한 걸음 나서고 있다.

오늘의 행복은 선열들의 피로 얻었다. 이들의 피와 눈물, 고통과 희생이 없었다면 광복은 없었을 것이다.

어디선가 함성이 들려오는 듯하다. 저 멀리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들려오는 함성은 어느새 광장을 꽉 메우며 꺾가에 생생히 살아난다. 선열들

의 함성이다.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외쳤던 함성.

그 속에서 또 다른 함성이 터져 나온다. 선열들의 함성에 더하여 봇물이 터지듯 밀려오는 함성.

광장에 핀 민주화의 물결 '서울의 봄'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로 국민을 억눌렀던 철권독재시대가 종말을 맞았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분출되었다. 국민들은 독재의 시대가 가고 희망의 민주화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민주화는 헛된 꿈이 되고 말았다.

이듬해 봄, 사람들은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 선두에는 청년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를 규탄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인 학생들의 요구는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 민주화 일정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시위는 1980년 5월 15일 최고조에 달했다. 4·19혁명 이후 최대 인파인 10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과 그 일대에 집결해 민주헌정체제를 회복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민주화의 외침에 돌아온 것은 탄압과 억압이었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선포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대학은 물론 국회도 폐쇄하고 민주화



서울역 광장에 핀 '서울의 봄'
1980년 5월 15일 '서울의 봄'은 절정을 이루었다. 서울역 광장에 운집한 10만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성토대회를 열고 남대문으로 행진을 한 뒤 자진 해산했다.
(출처·김대중평화센터)

운동 세력과 신군부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두고 잡아들였다.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리고 전국 각 대학과 주요 도시에는 공수특전단을 비롯한 군부대를 투입했다. 김대중과 김종필, 김영삼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인사들을 체포하고 가택에 연금하는 등 모든 정치적 행위를 봉쇄했다. 또한 신군부는 이에 항거해 광주에서 일어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 박정희 독재 종말과 함께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한다.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시작돼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과 라틴아메리카까지 세계적으로 확산된 '68혁명'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프라하의 봄'에 비유해 이렇게 부른다.

서울의 봄은 장기독재의 유신체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거스를 수 없는 민주화의 물결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피로써 진압한 뒤 권력을 장악하면서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서울역 광장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창(窓)이다. 광장에는 당대의 시대상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묻어 있다. 식민치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굵직한 역사가 스며 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꽃으로 피어난 선열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 그들은 산업화시대 고도성장을 이루는 거름이 되었다. 그 거름으로 대한민국이 꽃을 피웠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과 학생들, 그들은 민주화의 꽃이었다. 그들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민주사회를 열었다.

그래서 서울역 광장은 꽃의 광장이다. 선열들의 목숨 꽃, 청년들의 푸른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 구역사(문화역 서울 284)와 신역사(KTX 역사)

거름 꽃, 시민 학생들의 민주주의 꽃이 숨 쉬는 생명의 광장이다.

오늘도 서울역에는 저마다의 희망으로 광장을 딛고 서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꿈 하나로 광장에 선 도시의 이방인들, 그들은 또 어떤 꽃을 피울까.

연꽃 향기가 나는 듯하다. 그 옛날 만발했던 연꽃이 서울을 온통 향기로 물들이는 듯하다. 서울이 거대한 연꽃 한 송이로 피어나는 듯하다. 그 거대한 꽃을 봄날의 햇살이 따사로이 비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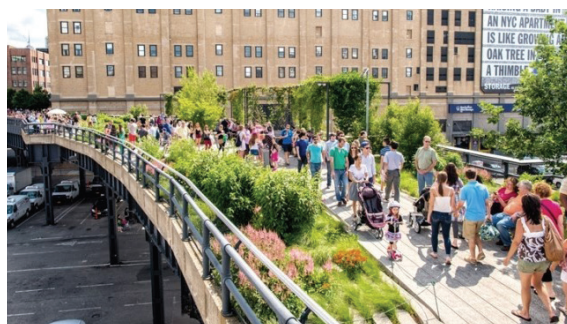
2. 도심의 공중정원 ‘서울로 7017’

‘사람길’로 탈바꿈한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로 7017’에 올라 퇴계로 쪽으로 거닌다. 봄별 가득한 서울로 7017, 행운의 ‘럭키 세븐’이 앞뒤로 돌이나 있다.

서울로 7017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단장해 만든 공중정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중정원을 꼽자면 뉴욕 맨해튼의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를 들 수 있다. 하이라인 파크는 수명이 다한 고가철로를 새로이 단장해 만든 공원이다.

예전에 맨해튼은 공장지대였다. 고가철로는 공장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1934년에 설치했는데, 뉴욕이 대도시로 성장하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면서 빌딩들이 들어서고 1980년에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고가철로는 기능을 잃은 채 잡초만 무성한 흉물로 전락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사람들은 ‘하이라인 친구들(Friends of High Line)’을 결성하고 2009



뉴욕의 공중정원 ‘하이라인 파크’

년 고가철로를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하이라인 파크는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와 자연을 살린 공중정원이다. 지상에서 10m 높이에 2.3km에 이르는

이 공원은 뉴욕커뿐 아니라 해마다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그러니까 과거 맨해튼 경제를 살리고 생명을 다한 철로가 다시금 부활해 뉴욕을 새로이 부흥시키고 있는 셈이다.

하이라인 파크와 같은 공중정원 서울로 7017은 이름에 세 가지 의미를 담았다.

먼저 1970년에 만든 고가도로를 새로이 단장해 2017년에 재탄생시켰다는 의미를 담았다. 1970의 ‘70’과 2017의 ‘17’을 따서 7017이다. 거기에 더해 차량이 다니는 길을 17개의 ‘사람길’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 만들어진 17m 높이의 고가라는 의미까지 담았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서울역을 끼고 퇴계로와 만리재로, 청파로를 잇는 고가차도였다. 1970년 총길이 938m, 폭 10.3m, 높이 17m 규모로 개통했다. 이 차도는 개통과 함께 1980년대까지 서울역 동부와 서부를 이으며 남대문시장과 청파동, 만리동의 봉제공장을 비롯해 상인들의 든든한 다리 구실을 하며 경제성장에 큰 몫을 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해마다 차량 운행 조정과 통제, 보수공사를 반복하다가 2015년 12월 13일 결국 폐쇄했다.



준공 당시의 서울역 고가도로(1970년)
(출처-서울역사편찬원)



폐쇄 직전의 서울역 고가도로(2015년)
(출처-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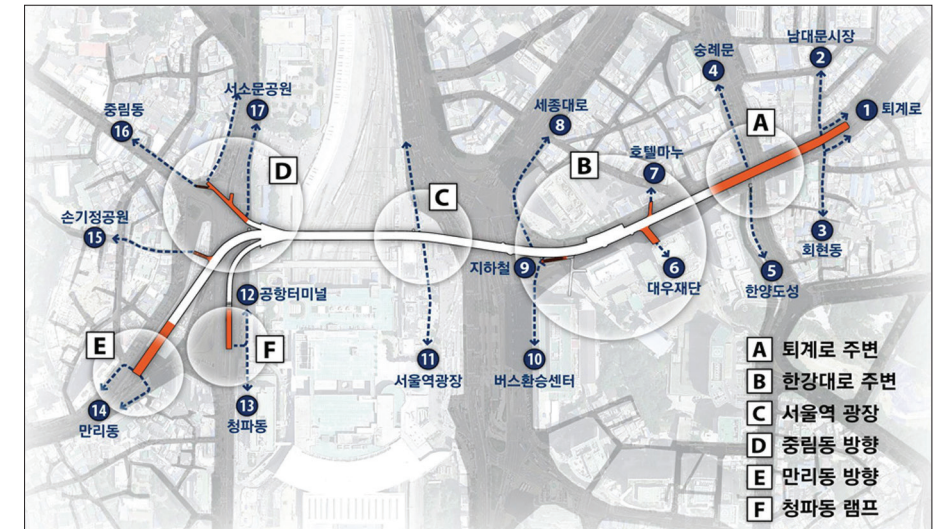


서울로 7017 당선작 비니 마스의 '서울수목원'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철거 운명에 놓인 고가차도를 공중정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가 하이라인 파크를 모델로 삼아 낡은 고가차도를 녹색 보행 공간으로 재생해 주변의 남대문과 한양도성, 남대문시장 등을 연계한 도심 속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국내외 설계 공모를 통해 2015년 네덜란드 건축·조경 전문가 비니 마스(Winy Mass)의 '서울수목원(The Seoul Arboretum)'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했고, 2017년 5월에 완공해 시민에 개방했다.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길이자 공중정원으로 재탄생한 서울로 7017의 총 길이는 1,024m다. 퇴계로(회현역 5번 출구)에서 시작해 만리동 방향으로 나 있다. 이 길은 다양한 수목으로 꾸며진 '꽃나무길'이다. 곳곳에는 카페와 꽃집, 상점과 도서관, 박물관과 전시관, 목련무대, 달팽이극장, 장미무대, 방방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고, 서울역 일대의 역사문화 유산과 관광명소를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산책과 쇼핑, 테마도 다양한 '서울로 7017'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 서울로 7017의 17개 보행길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서울로 7017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17개의 보행길을 걷는 것이다. 기점인 퇴계로 주변과 한강대로 주변, 서울역 광장, 중림동, 만리동, 청파동 등 각각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연결된 동선을 따라 걷는 즐거움은 매우 크다.

걷는 코스도, 테마도 다양하다. 걷기를 즐기는 이들은 산책 코스를, 쇼핑을 즐기는 이들은 쇼핑 코스를 동선을 따라 걸으면 된다.

산책 코스는 명동스토리 코스, 한양도성 3코스, 남산 코스, 서울 역사 코스, 남산골 한옥마을·남산공원 코스, 성지순례로 코스 등 크게 6가지 코스다.

명동스토리 코스는 명동역에서 출발해 유네스코길, 롯데백화점 스타의 거리, 원구단,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신세계백화점 본점, 남대문시장, 송례문을 차례로 돌아본다. 대한민



서울로 7017 산책 코스에서 만나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사적 제280호)
(출처-한국은행 화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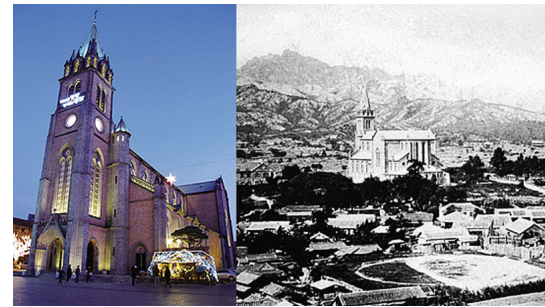


서울로 7017 산책 코스에서 바라본 남산

국 관광 1번지 명동과 대한제국의 시작을 알렸던 원구단, 예부터 서울 경제의 중심이었던 남대문시장, 국보 제1호 숭례문까지 과거와 현재의 낭만과 역사가 공존하며 숨 쉬는 명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양도성 3코스는 광희문에서 출발해 장충체육관, 우주조망소, 남산자유센터, 국립극장, 남소문터, 소나무탐방로, N서울타워, 팔각정, 남산봉수대, 잠두봉 포토아일랜드, 조선신궁 터, 안중근의사기념관, 백범광장, 숭례문을 돌아본다. 한양도성 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조선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이 코스는 전문 해설사가 함께 한다.

남산 코스는 장충동 남산공원의 3·1독립운동기념탑에서 출발해 유관순 열사 동상, 장충단공원,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 케이블카, 남산봉수대, N서울타워, 안중근의사기념관, 백범광장을 돌아본다. 남산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래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한 산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함께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냈다. 그런 남산을 걸으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을 기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 가톨릭의 발상지 명동성당 현재 모습과 초기 모습
(출처-VISITSEOUL 서비스 아카이브)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 집터 표석(을지로 2가 KEB 하나은행 명동사옥 앞)과 집에서 신앙 집회를 여는 모습(1784년)
(출처-VISITSEOUL 서비스 아카이브)

서울 역사 코스는 한양도성 숭례문부터 덕수궁, 회현동 은행나무, 남산골 한옥마을, 이간수문, 광희문을 돌아본다. 서울 중구는 조선의 도읍 한양의 흔적이 가장 많은 곳이다. 조선시대 이후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울은 슬프고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왔다. 그 발자취를 중구의 역사유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남산공원 코스는 한옥마을부터 남산공원, 타임캡슐광장, 팔각정, N서울타워, 남산봉수대를 돌아본다. 이 코스는 우리의 옛 정취를 한껏 즐기며 남산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다.

성지순례로 코스는 광희문, 명동성당,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김범우 집터, 이벽 집터, 서소문역사공원, 약현성당을 차례로 순례한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 천주교 박해로 희생된 교인들의 시신이 버려졌던 광희문과 한국 가톨릭의 발상지 명동성당,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 집터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 이벽 집터, 천주교 박해로 피바람이 불던 조선시대 교인들의 처형지였던 서소문 밖 형장(서소문역사공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물 약현성당으로 이어지는 성지순례로는 종교인이 아니라도 한번쯤 순례할 만한 코스다.

쇼핑 코스는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수입상가, 명동, 회현쇼핑센터, 소공지하쇼핑센터 등 어디랄 것 없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즐거운 코스가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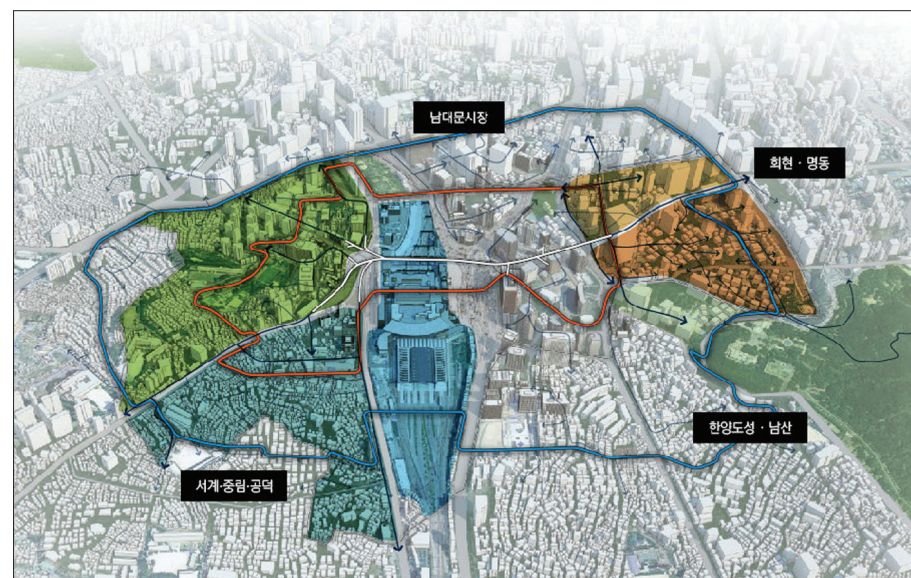
모든 종류의 수입품을 총망라하고 있는 만물상 '송래문 수입상가'

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래시장 남대문시장과 우리나라 모든 종류의 수입품을 총망라하고 있는 송래문 수입상가는 가히 만물상이라 할 수 있는데, 시장에 들어서면 벗어날 수 없는 마력에 사로잡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명동, CD와 레코드판, 우표, 미술 작품, 손뜨개류 재료 등 흔치 않은 품목들을 판매하는 마니아들의 천국 회현쇼핑센터는 아이쇼핑만으로도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서울로 7017’을 따라 걷는 역사문화 도보여행

서울로 7017은 산책 코스와 쇼핑 코스 말고도 서울역을 중심으로 회현·명동, 남대문시장, 한양도성·남산, 서계·중림·공덕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역사문화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권역이 넓어 다 돌아볼 수 없다면 남산·회현 코스, 중림·충정 코스, 청파·효창 코스, 서울역 통합 코스 등 4가지 코스로 즐기면 된다.

먼저 남산·회현 코스는 문화역 서울 284, 남대문교회, 백범광장, 서울성곽, 송래문을 차례로 둘러본다. 서울의 600년 역사를 돌아보는 이 코스는 남대문교회와 서울스퀘어 사이에 자리한 공원과 백범광장에서 싱그러운 자연을 벗 삼아 일상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서울로 7017 역사문화자원 코스(4개 권역)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중림·충정 코스는 문화역 서울 284, 염천교 수제화거리, 약현성당, 성요셉 아파트, 이명래 고약방, 충정각을 둘러본다. 이 코스는 염천교 수제화거리부터 지난 시절 향수를 자극한다.

염천교 수제화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제화거리다. 이 거리에 들어서면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낡은 건물이 어서 오라며 반긴다. 건물 1층에는 길게 이어진 상가가, 2~4층에는 구두를 만드는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상가에는 구두 만들기라면 제일이라 자부하는 장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화들이 저마다 뿔을 내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신사숙녀화부터 등산화, 골프화, 댄스화, 기능화, 특수화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캐주얼화와 샌들까지 없는 신이 없다.

이 거리는 일제강점기 경성역 주변에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가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광복 후에는 미군들의 전투화를 수선해 신사화를 만드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수제화거리로 발전했는데, 산업화시대에는 우리나라 구두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그 시절 이 거리는



남산·회현 코스에서 만나는 '백범광장'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중림·충정 코스에서 만나는 '염천교
수제화거리'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중림·충정 코스에서 만나는 '이명래
고약방'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청파·효창 코스에서 만나는 '개미슈퍼'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청파·효창 코스에서 만나는 '성우이용원'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최고는 물론 최대의 구두시장이었고, 주변으로
는 덩달아 양화점도 속속 들어서며 호황을 누렸
다. 1974년에 자장면 한 그릇이 50원일 때 남화는
14,000원, 여화는 9,000원 정도로 고가였으니 얼
마나 호황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아무리 빠듯한
살림이라도 장안의 멋쟁이라면 필수품처럼 꼭 한
결례씩은 근사한 구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
절이었으니 이 거리가 얼마나 활기에 차 있었는
지 생생하게 그려진다.

이 코스에는 수제화거리만큼 반가운 곳이 또
있다. 바로 이명래 고약방이다. 어렸을 때는 집집
마다 반드시 갖추고 있는 상비약이 있었다. 종기
약이다. 이 종기약이 이명래 고약이다.

이명래 고약은 1906년에 처음 나왔다. 이름 그
대로 지금은 고인인 이명래 선생(1850~1952)이
프랑스 선교사 드비즈 신부한테 서양 약학을 배
운 뒤 한방의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의약 환경이 열악해서 종기로 죽는 사람도 있었
는데, 이명래 고약은 없어서는 안 될 상비약이었
다. 훗날 이 약방은 이명래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명래한의원'으로 맥을 이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
고 그 시절 추억만 남아 있다.

서울 중구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중림동은 조
선시대에 '약전현(藥田峴)'이라 했다. '약초가 많
은 언덕'이란 뜻인데, 『동의보감(東醫寶鑑)』으로
유명한 명의 허준이 내의원에서 일하며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이명래 고약방이 이곳에 자리를 잡았던 것은
우연이 아닌 듯싶다.

청파·효창 코스는 문화역 서울 284, 국립극단, 개미슈퍼, 만리시장, 성
우이용원, 효창공원을 둘러본다. 개미슈퍼와 성우이용원 등 이름만 들어도
오래된 추억과 사연이 가득한 이 코스는 서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
계동 골목을 돌아서 만리재를 지나 중림동 손기정체육공원을 산책하는 코
스다.

서계동은 본래 '푸르른 언덕'이라는 뜻의 '청파(靑坡)'라는 지명을 썼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한성부 서부 9방 중 하나인 반석방(盤石坊)의 서쪽에
있다 하여 '서계(西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05년 경성역이 들어서면서
는 역 주변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일본인 주택가가 들어섰는
데, 아직도 당시의 적산가옥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 코스의 명소는 개미슈퍼와 성우이용원이다. 개미슈퍼는 100년이 넘
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아주 작은 구멍가게다. 마당이
있는 한옥을 개조해 담배나 딱지를 팔던 구멍가게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층까지 확장해 올리고 1층은 슈퍼로 2층은 한때 댄스 교실로 사용했다. 내
부에는 아궁이가 있었던 부엌에 연탄보일러를 놓고 사용하다 싱크대를 갖
춘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집주인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생활했던 방에는 오래된 반닫이와 낡은 나무 책상이
그대로 있다.

성우이용원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용원이다. 1927년부터 지금까지
90여 년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발도 옛 방식을 선호하는 단골
들을 위해 면도칼을 손수 갈고 식초로 머리를 감는 등 다른 데서는 볼 수 없
는 추억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중에서 두 번째
로 이발사 면허증을 받은 고 서재덕 씨부터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1970
년대에나 볼 수 있는 낡은 간판, 페인트칠이 벗겨진 나무 문과 얇은 창문,

거기에 어울리는 문 앞의 아담한 화분들, 소박한 실내에는 노란 스펀지가 뺨죽 나와 투명 테이프로 붙인 접이식 의자, 세면대와 가위, 면도칼 등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서울시는 그 생활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성우이용원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서울역 통합 코스는 문화역 서울 284부터 남대문교회, 백범광장, 한양도성, 숭례문, 염천교, 약현성당, 손기정체육공원, 만리재로, 개미슈퍼, 국립극단을 차례로 돌아본다. 이 코스는 서울역 서부와 동부를 모두 아우르는 코스로, 남산·회현 코스, 중립·충정 코스, 청파·효창 코스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종합 코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코스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이 코스를 따라 산책하면 된다.

장미부터 희귀종까지, 도심의 수목원 ‘서울로 7017’

봄바람이 서울로 7017을 거닐고 있는 이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툭툭 치고 지나간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그런지 인근의 직장인들이 많이 보인다. 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커피를 들고 산책을 하거나 군데군데 앉아서 망중한을 즐긴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이만한 휴식처도 없으리라.

잠시잠깐이지만 한낮의 여유를 누리는 시민들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인다.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 길을 따라 걸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빌딩을 찍기도 하고, 전망대에 올라 푸른 하늘을 찍기도 한다. 연신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이 반가운지 솜사탕 같은 구름이 둥실 떠 있는 하늘이 오늘따라 더 맑고 파랗다.

길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 초대형 화분들이 눈길을 끈다. 두어 명이 양팔을 벌려야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무게도 엄청날 것 같다. 동그란 화분들에는 많은 수목을 모아놓았다. 굳이 야외로 나가 수목원을 찾을 필요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 사진공모 수상작, 구본일 작품 2018년)

가 없을 듯하다.

서울로 7017에는 모두 645개의 대형 화분이 있다. 화분에는 228종 2만 4,085주의 식물이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배치돼 있다. 그 중 대표 식물은 꽃의 여왕 장미다. 장미는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 종류만 7,000종에 이르는데, 서울로 7017에는 31종의 장미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다.

또 다른 대표는 미선나무다. 열매가 선과 모양이 아름다운 부채 미선(尾扇)을 닮아서 미선나무라 한다. 이 나무는 잎보다 먼저 꽃이 난다. 개나리 꽃 모양 같은 흰색 꽃이 피는데, 그 향기가 아주 좋다. 그런데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토종식물이다. 희귀종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보호종이기도 하다. 충북 진천과 괴산, 영동군에서 자생하는데 이런 나무를 서울로 7017에서 볼 수 있다.

풍년화와 대왕참나무도 빼놓을 수 없다. 풍년화는 이른 봄에 꽃이 많이 피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해서 풍년화다. 이 꽃도 잎이 나기 전에 꽃이



서울로 7017 풍경들
(출처-서울로 7017 홈페이지)

먼저 핀다. 모양도 독특한데, 4장의 꽃잎이 마치 노란 국수처럼 꼬부라져 있다. 풍년화는 서울로 7017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봄꽃이다.

캐나다가 원산지인 대왕참나무는 키가 40m까지 자라서 대왕참나무라 부른다. 이 나무는 우리의 아픈 역사에 등장한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승자는 전통에 따라 월계관을 쓴다. 그런데 독일은 월계수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월계수와 비슷한 대왕참나무 잎으로 월계관을 만들어 씌워주었고, 부상으로 대왕참나무 묘목을 주었다. 이 묘목은 지금 중립동에 자리한 손기정체육공원에 심어져 있다. 서울로 7017의 만리동광장 일대에는 대왕참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는 손기정 선수를 기리고자 심은 것이다.

이밖에도 서울로 7017에는 대추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회향목, 황금측백, 수수꽃다리, 개나리 등 화사한 봄꽃부터 푸르른 수목, 화려한 낙엽, 새하얀 눈꽃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수목들이 계절별로 늘어서 있다.

꽃을 보는 즐거움에 빠져 거닐다가 전망대로 올라가본다. 전망대 바닥에 서울로 7017 밑으로 달리는 차들을 볼 수 있도록 유리가 설치돼 있다. 그걸 통해 도로를 내려다보니 지금 있는 이곳이 공중에 떠 있는 공원이라는 실감이 난다.

분주히 오가는 차들을 보고 있으려니 조금 어질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그 하늘 밑으로 이어진 빌딩들, 그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

서울의 선을 바꾼 퇴계로의 스카이라인

‘도시는 선(線)이다. 선! 선! 선!’, 한때 이 표어가 거리를 장식한 적이 있다. 그렇다, 도시는 선이다. 선을 보면 그 도시를 알 수 있다.

선이 곧으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도시다. 또 선이 굽으면 대도시다. 선이 아름다운 곡선이면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다. 그러나 선이 굽지 않고 불규칙하면 예술의 향기가 없는 도시다. 바로 이런 선이 윤곽을 이루고 만든다. 그 윤곽은 도시가 된다.

도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길도 선이다. 찾길이든 인도든 다 선이다. 길가의 가로수와 각양각색의 건물들, 차들의 행렬과 사람들의 행렬, 하다 못해 보도블록의 무늬까지 모두 선이다. 이처럼 다양한 수직 수평의 선들이 도시를 이룬다.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본 퇴계로의 스카이라인
(서울로 7017 사진공모 수상작, 이가람 작품 2018년)



서울로 7017에서 바라본 퇴계로의 스카이라인



서울 시내 동서를 가로지르던 삼일고가도로와 삼일빌딩
(출처-국가기록원)

이런 선 중에서 도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스카이라인(Skyline)이다. 뉴욕 하면 제일 먼저 마천루가 떠오른다. 뉴욕에 가보지 않은 사람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록펠러센터 등 마천루부터 연상한다.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장관을 연출하는 스카이라인.

산업화시대 우리는 잘 닦은 삼일고가도로를 질주하는 차들과 이를 내려다보기라도 하듯 우뚝 솟아 있는 삼일빌딩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홍보하는 데 단골로 썼다. 그 시대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그 사진을 선명히 기억할 것이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중구 일대의 고층 빌딩군도 단골 소재였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산이 이루고 있는 선이었다. 그러나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빌딩들이 연출하는 선으로 바뀌었다. 특히 중구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제는 서울스퀘어로 새롭게 단장한 대우빌딩이 40여 년 전 준공되었을 당시 서울은 고층 건물이 별로 없었다. 대우빌딩 주변도 황량했다. 이 황량함은



서울로 7017의 화려한 야경
(서울로 7017 사진공모 수상작, 구본일 작품 2018년)

서울역에서 퇴계로를 따라 속속 들어선 고층 건물들이 밀어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금융회사와 무역회사 등 각종 오피스 빌딩이 퇴계로 진입로부터 남대문로, 태평로, 서소문로, 을지로, 청계천로 등 주요 도로와 그 주변의 회현동, 명동, 무교동, 장교동 일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변화를 거듭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바꾼 중심지는 일찍부터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중구였다.

서울로 7017 양 옆으로 늘어선 빌딩들을 천천히 둘러본다. 빌딩 위 하늘로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이 멋스럽다. 서울스퀘어와 나란히 서 있는 세브란스 빌딩이 눈에 들어온다. 그 바로 뒤로는 공사를 하고 있다. 우뚝 서 있는 타워크레인이 조금은 아찔하게 보인다. 공사가 끝나면 또 어떤 빌딩이 자태를 뽐내며 이 거리의 스카이라인을 바꿔놓을까.

퇴계로 쪽으로 걷는다. 공중정원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보면서 걷다보니 어느새 남대문시장이다.

3. 대한민국 전통재래시장 1번지 남대문시장

구한말의 남대문시장



구한말의 남대문시장
1414년(태종 14년) 시전으로 출발한 남대문
시장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출처: 남대문시장 홈페이지)

회현역 출입구 앞에서 남대문시장을 바라본다. 초입부터 ‘골라 골라, 사모님도 골라 미스 김도 골라, 골라 골라’ 이런 소리로 떠들썩하다.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도 스톱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정겨운 소리.

남대문시장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조선시대에는 구멍가게처럼 규모가 작은 점포를 ‘가가(假家)’라 했다. 임시로 허

름하게 지은 노점이었다. 가가는 속칭 ‘가게’라고도 불렀는데, 대부분 도로까지 차지하며 장사를 했다.

시중의 주민들이 전(廛)을 열고 물건을 파는 것을 가가(假家)라고 한다. 처음에는 처마 끝에 차양만을 쳐서 집안으로 옮겨 들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차츰 흙을 바르고 쌓아서 드디어 길을 차지하게 이룬 것이다. 그리고 문 앞에는 나무까지 심어 말을 탄 사람이 서로 만나면 길이 좁아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 박제가(朴齊家)의 『북학의(北學議)』(1778) 중에서

이를 보면 조선시대 가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가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길을 막을 정도로 성업을 했다. 구한말 서울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 조지 길모어(George W. Gilmore)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노점과 가게들이 길을 차지하여 겨우 우차(牛車)가 다닐 만한 좁은 길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길 양편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금씩 길을 침범해 들어와서 자주 내어 지은 땅이 점유한 사람의 권리가 되어 필경 도로가 침식되고 길을 막게 된 것이다.

- 조지 길모어의 『서울에서 본 한국(Korea From Its Capital)』(1892) 중에서

일제가 서울의 역사를 기록해 발행한 『경성부사(京城府史)』(1934)에는 대한제국 말에 가가를 10년간 묵인해 주었다고 기록돼 있다. 1896년에 법령을 제정해 경성의 도로 폭을 줄인 뒤 가가를 건조물로 인정하고 10년이 되면 영구 건물로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 10년이 넘는 가가는 원하는 경우 5년간 연장을 해주었다.

그러나 5년 연장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상인들이 가가를 기와나 석조(石造) 가옥으로 개조해 장사를 계속했던 것인데, 이로 인해 남대문로와 종로의 가가는 준비한 점포로 변모했다.

물건은 가게 속 시렁 위에 쌓여 있었는데 손님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 주인은 팔을 벌려 이를 꺼내왔다. 두 손이 어떻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아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상품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 19세기 말 서울에 왔던 미국인 공군 하사 에드먼드의 기행문에서



광복 이후의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비롯해 크고 작은 화재 등으로 다사다난한 고초를 겪어왔지만 발 빠르게 회복하며 국내 최고·최대 시장의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출처: 남대문시장 홈페이지)



현재의 남대문시장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최철출 작품 2014년)

개방적인 가게는 일본의 가게를 연상케 하는데, 길옆에 생활필수품을 진열해 놓아 행인이 언제든지 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 아손 그렙스트(W. A : son Grebst)의 『!KOREA』(1912) 중에서

이 기록들을 보면 길가에 즐비한 점포들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상품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04년 12월에 들어와 1905년 1월까지 짧은 시간 한국을 여행하고 기록을 남긴 스웨덴 신문기자 아손 그렙스트의 글을 보면 점포들이 규모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렙스트는 점포들이 파는 상품을 세세히 열거해 놓았는데 낚시로 만든 물건부터 무명, 비단, 신발, 자개가 박힌 보석함, 은세공품, 형형색색 그림이나 자수로 수놓은 병풍, 아름다운 한식 장롱까지, 그에 더해 중국과 일본의 상품과 골동품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품들을 적어놓았다.

한양의 상업 중심지 칠패시장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남대문시장은 오랜 역사를 지나왔다. 남대문시장은 1414년 조선 태종이 남대문 언저리에 가게를 지어 상인들에게 빌려준 것이 그 기원이다. 이후 1608년 선조 대에 이르러 포(布)와 전(錢)의 출납을 담당하던 선혜청(宣惠廳)을 남창동에 설치하면서 지방의 특산물 등을 매매하는 칠패시장(七牌市場)이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칠패시장 터
서울의 가장 큰 상업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칠패시장은 서소문 밖에 있던 난전이였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6(봉래동 1가 48-3) 일대에 해당한다.
(출처-서울 중구청)

칠패는 조선시대 군영의 순찰구역을 뜻한다. 1670년 조선은 도성을 수호하는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으로 하여금 한양을 순찰하며 변란과 도적, 방화 등을 예방했는데, 각 군영에서는 8패로 나누어 해당 구역을 순찰했다. 이때 남대문 밖 봉래동이 7패였다.

칠패는 한양도성의 정문인 남대문이 바로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물화가 가장 많이 집산되는 마포, 용산, 서강과 연결하기도 좋은 위치였다. 게다가 선혜청까지 들어서자 자연히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객사와 주막이 번성하면서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칠패시장은 조선시대 이현(梨峴)·종가(鍾街)와 함께 한양의 가장 큰 상업중심지였다. 조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난전이었지만 지리적 이점으로 미곡과 포목, 어물 등을 비롯해 각종 물품을 매매하며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종합시장

근대적인 남대문시장은 1921년 3월 친일파 송병준이 칠패시장 터에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주로 미곡, 어류, 잡화, 과일 등을 팔았고, 곡물류를 비롯한 농산물이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그러나 1922년 경영권이 일본인 소유의 중앙물산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이름도 '중앙물산시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어도 조선인들은 여전히 남대문시장이라 불렀다.

광복 후에는 일본인들이 물러나면서 상인들이 '남대문상인연합회'를 구성해 남대문시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서울 수복과 함께 미군의 군용 물자와 원조 물자를 취급하며 다시 활기를 띠는가 싶더니 1953년 화재가 일어나 모두 불타고 말았다.

불에 탄 시장은 1958년 약 3만 9,670m²의 대지에 건평 약 6,612m² 규모로 건물을 세우고 1963년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발족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다. 1968년과 1975년 화재가 발생하는 불행도 겪었지만 이후 남대문시장은 전국의 도소매 상인들이 새벽부터 달려와 불야성을 이루는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시장으로 명성을 이어갔다.



퇴계로변의 남대문시장 입구
(출처-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남대문시장은 19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시장에 가면 전국의 사투리를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패션업이 발전하면서 의류와 액세서리 상가는 대호황이었는데, 남대문시장에서 나온 의류를 '남문 패션'이라 불렀다. 그리고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이자 여행지로 발돋움한 남대문시장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박한나 작품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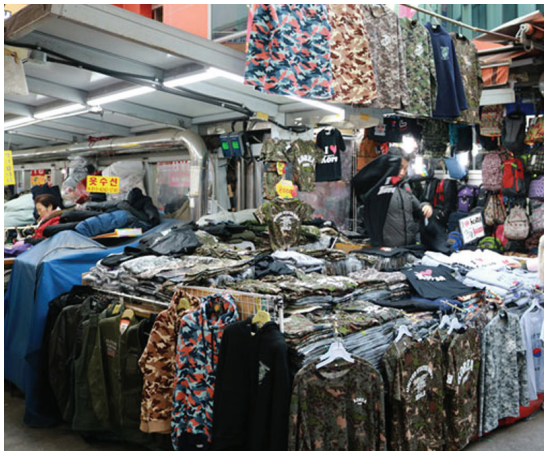
림픽을 거치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 떠올랐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류 열풍을 타고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시장이자 여행지가 되었다.

600년 전통의 도깨비시장, 아바이시장

남대문시장에 없으면 서울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 떠오른다. 정말 그렇다. 남대문시장은 노점부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을 고루 갖추고 있다. 의류와 식품, 청과, 잡화 등 모든 업종을 총망라한다. 노점이라고 해서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도깨비시장'이다. 생필품은 물론 없는 물건이 없다는 뜻에서 도깨비시장이라 부른다. 남대문시장에 없으면 서울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괜히 나왔으랴.

남대문시장을 도깨비시장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 한국전



의류와 식품, 잡화 등 모든 업종과 먹자골목까지 총망라한 남대문시장
(출처-남대문시장 홈페이지)

쟁이 끝난 직후 생필품이 부족했던 시절 수입품과 밀수품 거래가 활발했다. 으뜸은 남대문시장이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 단속반이 뜨면 재빨리 도망가고 단속반이 사라지면 금방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한때는 초콜릿과 껌 등 미군부대에서 흘러든 물건들이 많아서 ‘양키시장’이라고도 불렸다. 도깨비시장은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 있다.

남대문시장은 또 ‘아바이시장’으로도 불렸다. 한국전쟁 때 빈손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이 잣더미가 된 이곳에 몰려들어 천막을 치고 판잣집을 짓고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면서 붙은 이름이다. 당시 남대문시장의 상권 70%를 실향민들이 쥐고 있었다고 하니 아바이시장의 모습이 그려지고도 남는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 아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강산에의 노래가 떠오른다.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소주 한잔으로 슬픔을 달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와 장사를 했을 실향민들. 눈물은 사치였으리라,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하나만으로 죽기 살기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으리라. 그러나 분단의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그리운 고향은 가볼 수 없다. 생각만 해도 찢히다. 한숨과 눈물로 보냈을 세월, 그 큰 슬픔은 알 수 없지만 가슴이 시리다.

4. 낭만의 공간 회현 사거리, 명동

‘미쓰코시백화점’과 이상의 「날개」

다시 길을 걷는다. 초여름의 달큰한 햇살이 좋다. 햇살에 실려 오는 바람도 좋다. 그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걷다보니 어느새 회현 사거리다.

신세계백화점 앞에 섰다. 그 옛날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 이 앞에 서면 언제나 떠오르는 한 구절.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 이상(李箱)의 단편소설 「날개」 끝 구절



시인 이상

무기력한 ‘나’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미쓰코시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간다.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불현듯 거드랑이가 가렵다. 날개가 돋았던 자리다. 하지만 지금 날개는 없다. 날아보지는 열망뿐. 기형적인 삶, 비정상적인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뿐.

식민지시대 무력한 지식인의 자기해체적인 모습을 그



세계 최초의 백화점 '봉 마르세백화점'(2008년)
(출처-위키피디아)

린 이상의 단편소설 「날개」, 1936년 『조광(朝光)』에 발표한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심리주의 소설로 평가받는다. 문법을 파괴한 시 「오감도(鳥瞰圖)」로 당시 문학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이상은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이자 초현실주의적 시인이었다.

아내에게 기생하며 무의미한 삶을 사는 ‘나’, 주인공은 옥상에 올라 한번만 더 날기를 갈구한다. 본래의 자아를 찾기 위해. 그런데 왜 백화점 옥상이었을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에밀 졸라(Émile Zola)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 ‘봉 마르세(Le Bon Marché)’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모습을 그린 소설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에서 백화점을 ‘현대 상업의 대성당’이라 했다. 그리고 백화점이 탄생한 순간 여인들의 욕망도 탄생되었다고 했다.

백화점은 욕망의 시공간이다. 한 공간에서 풍요로움을 쇼핑하며 문화와 예술까지 향유하는 욕망의 환기구다. 1852년 프랑스 파리에 봉 마르세백화점이 처음 생긴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는 변함이 없다. 「날개」의 주인공 ‘나’가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욕망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 욕망이 여인들의 욕망과는 달랐겠지만.

한국 최초의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일제 치하의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지점(1930년대)



미쓰코시백화점 개점 광고
(조선일보 1930년 10월 24일)

신세계백화점은 일본의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지점으로 세워졌다. 원래는 1906년 충무로 1가에 세웠으나 1927년 지금의 자리로 옮긴 후 1929년 3월 신축 공사를 한 뒤 1930년 10월에 준공했다.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관은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호는 광복 후인 1963년 삼성그룹이 인수하면서 신세계로 바꾸었다.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이 건물은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었다. 당시 1층은 중앙 객실과 일반판매장·쇼윈도·사무실, 2층은 일반판매장·휴식소·미용실·탈의실·전화교환실, 3층은 일반판매장·부인사교실·가봉실·응접실, 4층은 일반판매장·미쓰코시홀·대식당, 5층은 옥상

정원·미쓰코시갤러리·사진실·다실, 6층은 전망대, 지하층은 판매장과 창고·이발실·식당·설비실 등으로 꾸몄다. 판매장부터 갤러리와 공연장, 이·미용실, 사진관, 옥상정원, 전망대는 물론 구두를 닦는 곳(구두닦이소)까지 두었고, 현재의 백



1930년대 사교 공간이었던 미쓰코시백화점 옥상 카페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화점처럼 다양하고 모던한 서비스를 했다. 특히 옥상 카페와 정원은 상류층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유명했다.

미쓰코시백화점이 개장할 당시 아마도 사람들에게겐 지금의 이름처럼 신세계였을 것이다. 백화점 특유의 화려함에 사교장과 연회장, 갤러리와 사진관, 하다못해 머리를 다듬고 구두까지 손질할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바로 옆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신관을 두었다. 옛 모습 그대로인 본점과 현대적 건물인 신관 두 동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본점으로 들어가 본다. 1층은 '럭셔리 부티크'다. 외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 번쩍번쩍 럭셔리하다. 2·3층 디자이너 컬렉션, 4층 컨템포러리, 5층 전문식당가를 차례로 훑고 6층으로 들어선다.

「날개」의 주인공이 그토록 날기를 갈망했던 옥상, 지금은 조각공원의



제프 쿤스 'Sacred Heart'

로 꾸며진 '트리니티 가든'이다. 모더니즘 미술의 거장 헨리 무어, 호안 미로, 제프 쿤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그 중 커다랗게 초콜릿 하나를 포장한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미국 현대미술의 대표적 작가 제프 쿤스(Jeff Koons)의 작품 '성심(聖心, Sacred Heart)'이다. 대중매체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다양한 재료로 재현하는 그는 강아지, 인형, 장난감, 꽃, 보석 등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대상을 선택해 크기와 재료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선보인다. '성심'이라는 작품도 가톨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속죄를 상징하는 초콜릿을 거대하게 확대해 만든 작품이다.

정원에 꾸며진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하고는 멀리인 듯 가까이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본다. 서울의 랜드마크답게 우뚝하다. 그 원편으로 시선을 돌리니 '고려대연각타워'가 잡힌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고려대연각타워'

고려대연각타워는 1968년 5월 '대연각호텔'로 준공했다. 1971년 화재 이후 '대연각빌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현재의 이름인 고려대연각타워가 되었다.

이 건물은 화재 사건으로 유명하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아침에 22층 건물에서 일어난 이 불은 당시 세계 호텔 화재 사상 가장 큰 화재였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만 166명이었는데,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린 대참사였다.

화재 원인은 1층 호텔 커피숍의 프로판 가스 폭발이었다. 불길은 가연성 소재로 마감된 호텔 내부를 순식간에 태우고는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건물에는 비상계단도 몇 없었고, 옥상 출입문까지 닫혀 있었다. 또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없어 헬기 구조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항공대와 공군, 경찰, 미 8군 헬리콥터까지 모두 15대를 동원했지만 워낙 바람이 강해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또 당시로는 국내 최고인 32m 사다리차를 동원했지만 이마저도 7층밖에 미치지 못했다.

화재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젖어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사태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길을 피해 창가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사람, 탈출하지 못하고 방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은 사람 등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대연각호텔 화재는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 1974년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고와 함께 서울 3대 화재 사고로 꼽힌다. 아직까

지 이 사건은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 화재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연출하며 가속도가 붙은 빌딩 고층화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많은 희생자를 내며 텔레비전 중계까지 된 이 사건 이후 고층 건축물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전엔 일상으로 보았던 표어가 생각한다. 불조심 강조 기간을 두고 학생들은 교복에 '불조심'이란 리본을 달고 다녔다.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불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



세계 최대의 호텔 화재로 기록된 대연각호텔 화재 (출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고려대연각타워

남대문시장과 신세계백화점 일대는 도심지가 아니었다. 남대문 밖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길도 없었다. 그런 지역이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 칠패시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시장이 생기고 남대문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길이 생기고 점차 중심지가 되어 갔다.

이 일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와 철도가 생기면서부터다. 특히나 경성역이 개통되고 나서는 인구가 집중하며 발전을 거듭했다. 그리고 불과 100년 만에 이렇게 화려한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거니와 그에 따른 발전 속도는 더 빠른 것 같다.

12 정승을 배출한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신세계백화점을 빠져나와 우리은행 본점 쪽으로 길을 건넜다. 회현역 1번 출구 우리은행 본점 뒤로는 수령이 522년(2019년 현재)이나 된 은행나무가 있다. 서울시에서 지정보호수로 관리하는 나무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면 중구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진다. 그중 하나는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다. 5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시간의 흐름을 지켜본 은행나무에 주민들 건강과 행복을 비는 축제다.

이 은행나무는 조선시대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문익공 정광필(文翼公 鄭光弼) 집터에 있었다 하는데, 전설이 하나 전해온다.

어느 날 곤히 잠든 정광필의 꿈에 흰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온 선인이 나타났다.

“문익공, 문익공. 일어나시게.”

“어르신, 누구시기에 소인을 이리 찾으시는지요.”

“자네의 미래에 서대 열두 개를 은행나무에 걸 날이 곧 올 것이네.”

“서대라면, 관료들의 허리띠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네, 자네가 은행나무를 잘 보호하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2016년)



12명의 정승을 배출한 정광필 집터(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기이한 꿈에서 깨어난 정광필은 마당의 은행나무를 보았다. 선인이 말한 서대는 종 1품 이상의 관복에 착용하는 허리띠다. 그렇다면 높은 벼슬을 한다는 계시나 다름없는데, 헛꿈이 아니었는지 정광필은 영의정에 올랐다. 그리고 훗날 이 터에서 정승 열두 명이 배출되었다.

12 정승을 배출한 명당 정광필의 집터에 있었다는 은행나무, 이 나무 또한 복을 주는 신령한 나무일 터. 그래서 회현동 주민들은 2012년부터 은행나무 축제를 시작했다.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행복, 걸출한 인재 배출을 기원하며 해마다 신명난 축제를 벌인다. 그리고 보면 회현동(會賢洞) 지명이 이 일대에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데서 유래하는데, 은행나무 축제와 잘 어우러지는 이름이다.

마니아의 천국 '회현지하쇼핑센터'

축제, 하면 제일 먼저 흥겨운 노래와 춤이 떠오른다. 사람들과 더불어 막걸리에 취해 부르는 노래. 잠시라도 걱정 근심 내려놓고 취하다 보면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흘러간 유행가 노랫말처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며 그렇게 부대끼며 살면 되는 것이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날들이 봄날이다.

추억의 LP판을 하나 사야겠다. 노래를 떠올리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든다. 걸음을 옮긴다. 길 건너 회현지하쇼핑센터로.

회현동 지하에 조성된 회현지하쇼핑센터의 대표 상품은 지금은 구경하기 어려운 LP 레코드판이다. 진기하고 정겨운 LP 가게의 풍경으로 가득한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추억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명동에서 30년, 여기서 20년, 이렇게 대를 이어 50년째 장사를 하는 가게, 30만 장의 LP를 소장



회현지하상가

한 가게 등 마니아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쇼핑센터다.

그렇다고 LP 레코드 가게만 있는 게 아니다. 오래된 카메라를 비롯해 우표, 미술품, 헌책, 의류, 신발, 손뜨개 재료 등 결코 흔치 않은 다양한 물건과 더불어 서울 여행 기념품도 팔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곳은 처음에 우표와 기념화폐 상점들이 문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상가가 되었다. 인근에 한국은행과 서울중앙우체국이 자리해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후 LP 레코드와 골동품 가게 등이 몰려들면서 수집 마니아의 천국이 되었고, 명동의 화려함과는 다른 소박한 명소가 되었다.

퇴계로의 대표 호텔들

LP판을 두어 장 사고서 회현지하쇼핑센터를 나섰다. 지나간 시절 잊었던 추억 한 토막을 되살린 기분이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다. 이제 곧 저녁 어스름이 깔릴 것이다.



뉴오리엔탈 호텔



퍼시픽 호텔

밖으로 나오자마자 뉴오리엔탈 호텔이 보인다. 온통 유리로 된 호텔 정면이 저녁노을 속에 고즈넉하다. 여기서부터 퇴계로 2가 교차로까지 이 거리를 대표하는 호텔이 몇 있다. 뉴오리엔탈 호텔과 퍼시픽 호텔, 호텔 프린스, 세종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 한류 문화를 타고 외국 관광객들이 북적이면서 신생 호텔들이 속속 들어섰지만 누가 뭐래도 이 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호텔들이 대표다.

뉴오리엔탈 호텔은 1970년에 개관했다. 회현 사거리와 명동길 중간에 자리해 지리적인 이점이 많다. 쇼핑과 먹거리, 즐길 거리를 다양하게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는 최적지이지 싶다. 이 호텔은 2015년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이 단장하고 Bed & Breakfast 형태의 비즈니스 호텔로 거듭났다.

퍼시픽 호텔은 1975년에 개관했다. 2017년 인테리어 리뉴얼을 한 뒤 한층 모던한 객실로 단장하고 업그레이드했다. 규모는 아담하지만 남산의 조깅 코스와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어 남산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맞춤하다.

대중문화의 꽃 퍼시픽 호텔 '홀리데이 인 서울'

퍼시픽 호텔은 한때 '극장식당'으로 유명했다. 극장식당, 쇼도 보고 식사도 즐기는, 한마디로 지금의 호텔 디너쇼와 같다. 다른 점이라면 디너쇼는 대부분 연예인 한 사람이 공연을 하지만 극장쇼는 여러 명의 연예인이 등장한다. 가요와 민요 등 노래는 물론이고 코미디와 쇼까지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연을 펼친다. 디너쇼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마도 1970년대를 지나온 이들이라면 다 알 것이다.



'홀리데이 인 서울' 공연 광고
(매일경제 1989년)

퍼시픽 호텔은 개관과 함께 2층에 극장식당 '홀리데이 인 서울'을 오픈했다. 이곳은 같은 해 문을 연 종로 2가의 '물랭루즈', 북창동의 '초원의 집'과 더불어 서울의 3대 극장식당이였다. 그런데 물랭루즈와 초원의 집은 1985년과 1986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각각 문을 닫았다. 그때부터는 극장식당 하면 홀리데이 인 서울이 대표였다.

홀리데이 인 서울은 혜성처럼 등장해 '코미디의 황제'로 등극한 이주일이 1989년 인수해 운영하면서 더 유명세를 탔다. 물론 그 전까지도 다양한 공연으로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

1975년 10월 홀리데이 인 서울에서는 ‘신중현 잼 인 퍼시픽(Jam in Pacific)’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콘서트와 같은 리사이틀(recital)이 열렸다. 일간스포츠가 주최한 이 공연에는 김추자, 김정미, 장현 등 ‘신중현 사단’이라 불리는 그룹의 가수들 외에도 박상규, 정미조, 윤항

기, 옥희 등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출연했다.

성황리에 펼쳐진 이 공연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1970년대 한국 대중가요와 그룹사운드의 절정을 볼 수 있는 이벤트였다.

1975년은 한국 대중가요사에 암흑기였다. 유신체제로 장기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벽두부터 긴급조치 1호를 공포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한편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문화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공권력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청년문화를 짓밟으며 젊은이들이 갈망하는 자유와 민주의 싹을 잘라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1975년 정부는 대중가요 227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명분은 퇴폐문화와 왜색문화를 근절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그해 연말인 12월부터는 이른바 ‘대마초 파동’을 연출하며 연예인들을 대량으로 잡아들이면서 순식간에 대중음악계를 암흑 속으로 밀어 넣었다.

지금도 대마초가 향정신성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하지만 당시 ‘해피 스모크’라고 불렀던 대마초는 담배처럼 피울 수 있는 기호식품이었다. 대마초 파동 전까지는 의약품관리법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아서 대마초를 불법이라 여기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대마관리법은 대마초 파동 후인 1976년 4월에 제정되었다.

대마초 파동은 연예계를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신중현, 이장희, 김세환, 김추자, 윤형주 등을 비롯한 가수들과 연주자, 작곡가 54명을 잡아들여 구속했고, 라디오 음악방송 10개 중 7개 프로그램을 정지시켰다. 대마초 파동으로 구속된 연예인들은 훗날 풀려나서도 정상적인 방송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음악은 금지곡으로 묶여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대마초 파동은 ‘대중음악 발전의 맥을 끊은 사건’으로 기록된다.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던 대중음악인들을 탄압해 자유로운 청년문화를 풍비박산 낸 사건이었다. 1960년대 말부터 서서히 끓어오르던 한국적 포크와 록의 지형도는 이때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대마초 파동으로 고초를 겪은 가수들이 설 무대는 유흥업소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홀리데이 인 서울과 같은 극장식당은 최고의 무대였다. ‘눈물 젖은 두만강’, ‘바다의 교향시’ 등 700여 곡을 남긴 원로가수 김정구부터 한국 록의 살아 있는 역사 신중현, ‘회심곡’으로 유명한 국악인 김영임, ‘후라이 보이’라는 애칭으로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최고의 사회자(MC)로 활약한 광규석, 가수 겸 MC 박상규, 뒤통뒤통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특유의 오리춤으로 이주일과 콤비로 활약하며 코미디의 절정을 구가했던 이상해, 그리고 혜은이, 주현미, 전유성, 임하룡, ‘쓰리랑 부부’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김미화, 김한국 콤비에 이르기까지 친구 세대를 아우르며 당대 내로라하는 연예인들은 모두 홀리데이 인 서울 무대에 올랐다. 특히 1980년 대중가수 최초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가수 김정구는 1976년 2월 홀리데이 인 서울에서 열흘 동안 대중가요 사상 최초로 회갑 기념 공연을 열어 주목을 받았다.



가수 김정구
대중가수 최초로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그는 국
민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등 많은 노래를 남기
고 1998년 세상을 떠났다.
(출처-연합뉴스)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못생긴 외모를 코미디 소재로 활용해 스타덤에 오른 뒤 사회 풍자와 해학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는 2002년 유명을 달리했다.
(출처-연합뉴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친근한 이 말이 떠오르면 서 절로 미소가 피어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주일, 입만 열면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말하던 그가, 그 얼굴 덕에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나중에는 코미디의 황제가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절정의 인기를 누리며 나중에는 국회의원에 선출될 줄 그 자신도 몰랐으리라.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리데이 인 서울이 최정상을 지키며 영업을 할 때 이주일이 직접 출연한 광고 멘트다. 그 뭔가를 보여주려고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깐요’ 그랬다. 이 얼마나 꾸밈없이 소박한 유혹인가. 그 끝림에 사람들은 홀리데이 인 서울을

찾았다. 웃고 떠들고 환호하며 공연을 즐겼다.

그렇게 홀리데이 인 서울은 추억의 한 장면이 되었다. 고인이 된 이주일처럼.

문학의 공간 ‘호텔 프린스’

홀리데이 인 서울이 지난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한다면 문학의 향기가 흐르는 호텔 프린스는 현재의 멋진 추억을 선사한다.

호텔 프린스는 1970년에 개관했다. 주로 일본인 관광객이 애용하는 호텔이었다. 리뉴얼로 새롭게 단장한 이 호텔은 지금 색다른 이벤트로 호텔의 고정관념을 깬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책이 된 호텔, '소설가의 방'에 재크인하다!
호텔이라는 공간을 관통하는 젊은 작가 8인의 내밀한 서신

호텔 공간에서의 인간 내면을 그려낸 작품집 『호텔 프린스』(2017년 출간)

제작년 새해 아침 서점에 특이한 책이 하나 나왔다. 제목은 『호텔 프린스』.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공간, 또 누구에게는 사색의 공간이자 일탈의 공간인 호텔을 소재로 한 테마소설집이다. 안보윤, 서진, 전석순, 김정희, 김혜나, 이은선, 황현진, 정지향 등 여덟 명의 젊은 소설가들이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변주하는 인간의 내면을 그려낸 작품을 담았다. 이들은 소설을 통해 호텔이 단지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닌, 인간과 인간, 이야기와 이야기들이 교감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호텔 프린스가 제공한 룸에 묵으며 호텔에서 얻은 영감을 모티프로 소설을 썼다. 프랑스어 ‘hospital’에서 파생

된 ‘Hotel’은 ‘여행자’ 혹은 ‘떠도는 사람들의 쉼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처럼 여덟 편의 소설에는 방랑의 정서가 묻어 있다. 기텔 만한 곳도,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이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소리 없이 분출되어 떠돈다. 각기 다른 여덟 개의 룸,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각기 다른 등장인물들, 이 책의 재미는 이들 등장인물들을 통해 투영되는 젊은 소설가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호텔이라는 공간을 음미해보는 것이다.

호텔 프린스의 문학적 발걸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호텔 프린스는 지금도 ‘소설가들의 방’을 운영하며 독자와 작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호텔에 ‘문학창작집필실’을 마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입



호텔 프린스



호텔 프린스 '단편소설 릴레이 낭독회'(2017년)

호텔 프린스 '소설가의 방' 북 콘서트(2018년)

주 작가를 선정해 창작을 지원한다. 거기에 더해 호텔 로비에서 '단편소설 릴레이 낭독회' 등 북 콘서트를 열어 작가와 독자가 함께하는 문학 공간을 만들어 호평 받고 있다.

퇴계로 2가 랜드마크 '세종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

세종 호텔과 아스토리아 호텔은 퇴계로 2가 교차로 일대의 랜드마크다. 세종 호텔은 1966년에 특급 호텔로 개관했다. 지상 15층에 객실이 333실이며, 서울시의 '관광호텔 종합평가 최우수업체'에 여러 번 선정될 정도로 최고의 호텔이다.



세종 호텔

세종 호텔은 1층의 '세종갤러리'가 유명하다.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는 생활 속 예술 공간 세종갤러리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가진 중견작가들부터 참신한 젊은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선으로 발굴해 전시를 한다. 2003년과 2005년에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참가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는데, 이는 예술 공간을 운영해 빛을 본 결과다.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문화를 더욱 향유하고 싶어 한다. 늘 보고 즐기는 것보다는 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문화를 누리고 싶은 것이다. 세종 호텔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갤러리를 통해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 로비와 레스토랑에도 작품을 전시해 찾는 이들의 오감을 만족시킨다. 호텔 전체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갤러리 문화는 세종 호텔만의 멋이자 맛이다.

아스토리아 호텔은 1959년에 개관했다. 지금까지 6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며 퇴계로를 지켜왔다. 지상 15층 규모에 112실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 3인부터 6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를 완비하고 있다.

이 호텔은 서울 3대 탕수육집으로 이름난 전통 중식 레스토랑 '대가방'이 유명하다. '수요미식회', '생활의 달인' 등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 번 소개된 대가방은 미술평가이드에 선정된 맛집이다. 또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스카이라운지 'A VIEW & TERRACE'에서는 남산은 물론 퇴계로 중심가 일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아스토리아 호텔은 2018년 'DOUBLE A'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이름 DOUBLE A에는 'ASTORIA'의 A, 최상의 A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평범한 일상의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부드러운 손길로 빚어내 고객에게 전한다는 호텔의 경영철학 '손길경영'을 담은 것인데, '천년을 꿈꾸는 호텔'을 만들자는 신념과 고객의 마음에 다가가는 서비스로 최상의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DOUBLE A로 표현했다.



호텔 DOUBLE A(구 아스토리아 호텔)

예술인들의 안식처, 문화의 산실 명동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길가의 상점과 빌딩들의 조명이 환하게 켜진다. 밤을 밀어내는 불빛들, 서두르는 퇴근길.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을 간다.

명동 '차없는 거리' 입구에 섰다. 명동역 출입구 앞 밀리오레 불빛이 휘황찬란하다. 잠시 서서 지그시 명동길을 감상한다. 명동(明洞), 이름 그대로 밝은 거리다. 밝은 만큼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다.

명동 일대는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충무로 일대를 상가로 만들면서 더 발전했다. 일본에 상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던,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지켰던 북촌(北村)의 심장 종로의 상권을 견제하려고 남촌(南村)의 충무로와 명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름 그대로 밝은 거리 명동길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김윤재 작품 2015년)

명동과 충무로는 1930년대부터 '메이지자예술극장[明治座]'과 스카라극장의 전신인 '약초극장' 등 예술극장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명동의 메이지자예술극장은 이후 '명동극장', '시민관', '국립극장', '명동예술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75년에 금융기관에 팔리면서 맥이 끊겼다. 그러면서 영화사들이 충무로와 남산으로 옮겨갔는데, 이때부터 명동은 문화예술 중심지라는 타이틀을 잃고 쇼핑의 중심지로 변해 갔다. 하지만 다행히도 명동예술극장은 2003년 문화관광부가 건물을 인수한 뒤 2009년에 복원해 연극 전문 공연장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메이지자예술극장(1937년)

어쨌거나 명동 일대는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서울의 문화예술 중심지였다. 광복의 기쁨과 한국전쟁의 황폐함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인들은 명동의 다방과 술집에 모여 인생을 논하고 문학과 예술을 토해냈다.

명동, 하면 다방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나 명동의 다방문화는 소시민부터 지식인 룬펜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은 개항 직후인 1888년 인천에서 문을 연 '대불(大佛) 호텔'과 '슈트워드 호텔'의 부속 다방이다. 대불 호텔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었다.

서울 최초의 다방은 구한말 독일인 통역사 손탁(Henriette Sontag, 孫澤)이 1902년 정동에서 운영한 '손탁 호텔'의 부속 다방이다. 이 호텔은 고종이 덕수궁 바로 옆에 객실 25개를 갖춘 2층 건물로 지었는데, 손탁에게 운영을 맡겨 손탁 호텔이라 불렸다. 커피를 즐겼던 고종은 덕수궁 정관헌에서 손탁 호텔에서 배달해 온 커피를 왕세자와 함께 마시며 휴식을 즐기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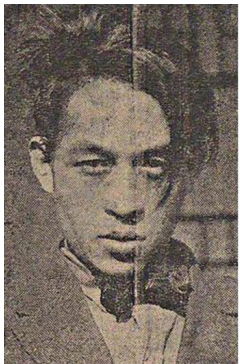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다방 효시는 1923년 명동에서 일본인이 개업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 '대불 호텔'



손탁 호텔(1900년대)



한국인 최초로 다방 '카카듀'를 개업한 영화감독 이경손

한 '후타미[二見]'다. 우리나라 사람이 개업한 최초의 다방은 1927년 관훈동 입구 3층 벽돌집 아래층에 있었던 '카카듀'다. 카카듀는 한국 최초의 영화감독이자 소설가 이경손(李慶孫)이 주인이었다. 이경손은 1925년 영화 '심청전'을 통해 주연인 심봉사 역으로 훗날 한국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나운규를 발탁한 감독이다.

전문적인 다방은 1929년 종로 2가 YMCA 근처에 있던 '백시코다방'이다. 그리고 1931년에는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나온 이순석이 소공동에 '낙랑파라'를 개업하는데, 이 다방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다방이었다. 당대 유명한 문인들과 예술인들은 이 다방에 모여 예술을 논했는데, 나중에 유명 여배우 김연실이 인수해 1940년대까지 이어갔다.

다방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시인이자 소설가 이상이다. 그는 다방 개업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이상은 다방 '썩스나인 69'를 실내 시공을 하고는 팔았는데, 1933년에는 그의 아내와 함께 종로에서 '제비다방'을 개업했다.

제비다방은 일반 다방처럼 실내를 복잡하게 꾸미지 않고 간결하게 꾸몄

다. 이상의 건축가적 안목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제비다방에서는 가배(커피)와 홍차, 인삼차 등을 팔았고, 주로 화가나 문인들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 다방은 경영 미숙으로 문을 닫고 말았는데, 그 뒤로도 이상은 인사동에 '쓰루'라는 카페를 인수해 운영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상은 1935년 명동에 '무기[麥]' 다방을 직접 설계해 짓기도 했다. 개업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이 다방은 명동에 다방이 밀집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다방은 이상이 제비다방을 문을 연 1933년을 전후로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영화연극인, 화가, 문인들이 너도나도 유행처럼 문을 열었던 것이다.

광복 후 다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명동과 충무로, 종로, 소공동이었다. 그 시절 다방은 광복과 한국전쟁을 지나온 지식인들의 허무와 애수를 발산하는 문화의 산실이었다.

쇼핑의 중심지 명동, 그러나 1960년대까지 명동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의 안식처였다. 또 1970년대에는 통기타와 청바지 문화를 탄생시킨 낭만의 거리였다.

지금 명동 일대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지난 추억은 사라지고 없다. 추억의 그림자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향수로 남아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그림자, 이 그림자를 음미하며 걷는 것이야말로 다른 데서는 누릴 수 없는 명동만의 즐거움이다.



이상이 설계했다는 다방 '제비'에서 포즈를 취한 이상, 소설가 박태원, 시인 김소운(왼쪽부터)

5. 영화문화를 꽃피운 대한극장, 극동극장

‘벤허극장’으로 통한 대한극장

대한극장 하면 영화 ‘벤허(Ben-Hur)’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1959년 미국의 윌리엄 와일리(William Wyler) 감독 작품이다. 뉴욕에서 처음 개봉된 이 영화는 당시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등 모두 11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 기록은 1997년 ‘타이타닉’이 깬 때까지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벤허는 1998년 미국 영화연구소(AFI)가 선정한 최고의 영화 100선에 이어 2004년에는 문화·역사·심미적으로 의의가 큰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미국국립필름등록부(National Film Registry)에 등재되었다.

벤허의 원작은 루 월리스(Lew Wallace)의 『벤허 :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로마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배신과 복수를 그린 장대한 역사소설이



1962년 ‘벤허’ 개봉 당시의 대한극장과 포스터



1962년 ‘벤허’ 포스터부터 2016년 재개봉 포스터

왼쪽부터 1962년, 1964년, 1972년, 1973년, 1975년, 1977년, 1981년, 1984년, 2016년
(출처·네이버 블로그 ‘세상키의 극장개봉사’)

자, 유대 청년 벤허의 고난을 통해 예수 of 존재 의미를 깨달아가는 종교소설이다.

벤허는 20세기 최고의 종교영화로 손꼽힌다. 영화는 예수의 삶을 조명하는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 벤허의 삶을 따라간다. 친구의 음모로 노예가 된 벤허가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휴머니즘을 통해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영화의 백미는 단연 전차 경주 장면이다. 당대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경주 장면은 관중들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로 박진감을 극대화했다. 이 장면은 세계 영화사에 명장면으로 남았다.

벤허는 1962년 2월 대한극장에서 상영되었다. 이때 대한극장은 그해 연말까지 벤허를 상영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서울의 인구가 250만여 명이었던 당시에 70만여 명의 관객이 들어 장기 상영을 한 것이다. 그 덕에 대한극장은 ‘벤허극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이후 대한극장은 1964년 다시 한 번 앙코르 상영을 한 데 이어 1972년, 1973년, 1975년, 1977년, 1981년, 1982년, 1984년, 1997년, 2016년 등 여러 번 벤허를 상영해 그때마다 흥행을 이루었다.

‘활동사진’에서 ‘유성영화’까지



대한제국 궁내부대신 이재순

대한극장은 1960년에 70mm 시설을 최초로 도입해 대형 화면 시대를 연 선구적인 극장이다. 이는 한국 영화 100년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우리나라에 영화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99년이다. 그해 여름 미국의 여행가이자 사진가, 영화제작자인 버튼 홈스(Burton Holmes)는 카메라와 영사기를 들고 한국에 들어와 서울 풍경과 사람들을 필름에 담았다. 1900년대 초 서울의 옛 모습과 희귀한 사진을 담은 그의 책 『1901년 서울

을 걷다』(이진석 옮김, 2012년 출간)를 보면 그가 찍은 영상을 왕족인 이재순(李載純)이 보고는 크게 감탄한 나머지 고종에게도 보기를 권유했고, 고종은 진기한 ‘활동사진’에 흠족해하며 홈스 일행에게 하사품을 내리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활동사진은 영어의 모션 픽처(motion picture)를 그대로 직역한 것인데, 영화의 옛 명칭이다. 그러니까 이재순은 영화를 본 최초의 한국인인 셈이고, 1895년 뤼미에르(Lumière) 형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을 상영한 지 불과 4년 만에 한국에 영화가 들어온 것이다.

활동사진을 최초로 상영한 곳은 지금의 을지로 1가 사거리 근처에 있었던 영미연초회사(英美煙草會社, 전 한성은행 자리) 창고였다. 연초를 선전할 목적으로 화차(火車, 당시 기차의 이름)와 풍경 등을 보여주고 담배 한 개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인기가 좋아 10개까지 받았다고 한다. 활동사진을 처음 본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한 나머지 포막(布幕, 지금의 스크린)을 들춰 보기도 했다.

그러나 기록으로 전하는 최초의 상영은 1903년 6월 23일이다.

동대문 내 전기회사 기계창(器械廠)에서 시술하는 활동사진은 일요 급(及) 음우(陰雨)를 제하는 외에는 매일 하오 8시부터 10시까지 설해(設解)되는데 대한(大韓) 급(及) 구미 각국의 생명도시(生命都市) 각종 극장의 절승(絶勝)한 광경이 구비(具備)하되다. 허입요금(許入料金) : 동화 10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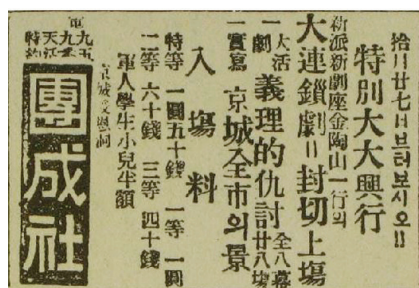
- 황성신문(皇城新聞) 1903년 6월 23일자 광고

동대문에 있는 전기회사 창고에서 비만 오지 않으면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도시 풍경을 상영하며, 요금은 10전이라는 말이다. 10전이면 당시 설렁탕 한 그릇 값이었는데, 하루에 100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07년에 최초의 전문상영관 ‘단성사’가 개관하면서 극장시대를 열었다. 1920년에는 지금의 외환은행 본점 자리에 ‘경성고등연예관’이 세워지면서 영화문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영화는 1919년에 상영된 김도산(金陶山) 감독의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다.



한국 최초의 영화관 단성사(1955년)와 재개관 당시의 단성사(2005년)



영화 '의리적 구토' 광고
(매일신보 1919년 10월 28일)



김도산
한국 최초의 영화를 만든 김도산 감독은 31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출처-한국영상자료원)

조선에 활동사진극이 없어 항상 유감스럽게 여기던 바, 한번 신파 활동사진을 경성의 제일 명승지에서 촬영 흥행할 작정으로 본인이 오천 원의 거액을 투자 (중략) 27일부터 대대적으로 상영하오니 활동사진을 좋아하는 여러분께선 한번 보실만한 것 올시다. 조선 신파의 활동사진은 요즘이나 옛을 통해 처음입니다.

- 매일신보 1919년 10월 26일자 광고

이는 단성사를 운영한 박승필(朴承弼)이 낸 광고다. 일제강점기에 영화를 제작하며 한국 영화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그는 '한국 영화의 창시자'라 불린다. 광고를 한 영화는 '의리적 구토'였고,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이전까지의 활동사진은 3~4분짜리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일본인과 서양인이 들여온 게 전부였다. 도시의 모습이나 기차가 달리는 모습, 춤추는 모습 등 영상도 극적인 요소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의리적 구토'는 한국인이 돈을 대고 연출하고 연기한 최초의 '연쇄극(連鎖劇)'이었다.

연쇄극은 연극과 영화를 합한 것으로, 연극 공연 중에 영화를 상영하는 극이다. 무대에서 표현하기 힘든 장면이나 정경을 미리 촬영한 뒤 필요한 순간에 무대의 불을 끄고 스크린을 통해 장면을 보여주면서 줄거리를 이어가는 극인 것이다. 그래서 연쇄극은 단순히 장면만을 보여주는 활동사진과

는 달리 스토리와 연출, 거기에 극적인 요소까지 있어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의리적 구토'는 극단 '신극좌(新劇座)'를 이끌던 김도산이 쓴 신파극이었다. 1891년 서울 충무로 초동에서 태어난 김도산은 1917년 신극좌를 조직하고 연극(신파극)을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의리적 구토' 역시 1919년 7월 4일부터 5일 동안 공연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이 연극은 단성사 사주 박승필의 눈에 들어 단성사 무대에 올려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김도산과 박승필은 연쇄극으로 만들어 상영을 하면서 한국 영화 100년사의 첫 발자국을 찍었다.

'의리적 구토'는 권선징악을 다룬 영화다. 사악한 계모 밑에서 오로지 가문의 체통을 위해 갖은 수모를 참으며 살던 아들이 계모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가문을 더럽히자 응징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도산은 주연(아들)까지 했다. 촬영은 주로 명월관, 한강철교, 장충단, 홍릉 등에서 했고, 35mm 흑백 무성 필름 1권 정도의 분량이었다.

이 영화는 5,000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상영했다. 요금은 특등석 1원 50전, 1등석 1원, 2등석 60전, 3등석 40전이였다. 당시 연극 요금인 40전에 비해 매우 비쌌는데, 그럼에도 흥행은 대성공이었다.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를 만든 김도산은 31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영화는 이후 연쇄극 붐을 일으켰고, 한국 영화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갔다. 영화계는 이 영화가 개봉된 1919년 10월 27일을 1966년 '영화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단성사 1층 천장에 그려진 박승필 초상
박승필은 한국 영화 개화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출처-한국일보)



불후의 명작 '아리랑'을 남긴 민족
영화의 선각자 나운규
(출처-국가보훈처)



영화 '아리랑' 출연진과 제작진
(출처-국가보훈처)

활동사진으로 시작해 연쇄극으로 나아간 영화는 이후 무성영화에서 발성영화로 진보하며 발전을 거듭했다. 1923년 '월하의 맹서(月下의盟誓)'로 무성영화 시대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제작·자본·시나리오·연출·연기·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영화 '장화홍련전'을 상영했다. 이어 1926년에는 뜨거운 민족정신을 형상화하여 항일정신을 고취시킨 '아리랑'으로 한국 영화는 영상에서 예술로 올라섰다.

'아리랑'은 춘사 나운규(春史 羅運奎)가 시나리오를 물론 감독·주연까지 한 일제강점기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다. 나운규는 한국 영화의 정점을 이루며 1935년 한국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이 나올 때까지 10년 동안 무성영화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춘향전'은 올 토키(talkye), 즉 영상과 동시에 음성과 음악이 나오는 최초의 유성영화다. 이 영화는 변사의 진행으로 영상만 나오는 무성영화를 넘어 획기적인 기술혁명을 이룬 영화였는데, 단성사에서 개봉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의 진보와 더불어 극장도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유성영화 '춘향전'

광복 이후 국도극장, 스카라극장, 대한극장, 명보극장, 극동극장 등 충무로 일대의 극장에서 영화문화를 꽃피우면서 충무로는 영화의 메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대한극장이 있었다.

대형 스크린 시대를 연 대한극장

대한극장은 1956년 설계를 시작해 1958년 4월 18일 개관했다. 설계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20세기 폭스사가 했다. 20세기 폭스사는 기자재까지 협조했는데, 세계적인 메이저 영화사가 설계한 극장답게 창이 없는 무창(無窓) 건물로 만들었다. 당시로서는 독특하고 획기적인 디자인이었고, 대한극장은 무창 극장 제1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대한극장은 개관 당시 1,900여 개의 좌석을 갖춘 국내 최대의 극장이었다. 첫 개봉작은 '눈물'이었고, '소낙비', '애련의 꽃송이', '백의천사와 꿈추', '72호의 죄수' 등의 영화를 상영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극장이란 명성에 걸맞지 않게 큰 히트작 없이 처음에는 고전을 했다. 이에 대한극장은 과감히 외화 전문관으로 변신했다.



대한극장 개관 기념 안내서
(출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극장 일러스트
(출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우리가족 역사일기 2012년)

1960년 대한극장은 국내 최초로 70mm 필름을 원형 그대로 상영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도입하고 대형 스크린 시대를 열었다. 외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극장으로 거듭나면서 가로 24m 세로 19.5m의 초대형 스크린에 고음질 음향시스템으로 관객들을 압도한 것이다. '왕

중왕', '벤허', '클레오파트라', '로마제국의 멸망', '사운드 오브 뮤직', '닥터 지바고', '킬링필드', '마지막 황제', '아라비아의 로렌스', '강강', '남태평양', '도라, 도라, 도라'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작 외화는 거의 다 대한극장에서 상영했다.

대작 외화를 독점으로 상영하다시피 한 것은 대한극장을 외화수입사인 '세기상사'에서 운영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북창동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했던 세기상사는 대한극장 개관과 함께 극장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외화 수입과 상영을 병행하며 단숨에 극장업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특히 벤허가 크게 성공하면서 대한극장은 국내 최고의 극장으로 군림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는 3년간 관객동원 1위였으니 그 위세를 짐작할 만하다.

외화를 통해 성공한 세기상사는 이후 방화제작부를 만들어 '귀로', '별아내 가슴에', '메밀꽃 필 무렵' 등의 영화를 제작해 한국 영화 발전에 한 몫을 했다.

대한극장은 2000년 5월 '징기스칸'을 끝으로 잠시 문을 닫았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화는 물론 쇼핑과 식사까지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대한극장은 2001년 11개의 상영관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8층 현재의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영화 '징기스칸'을 끝으로 멀티플렉스관으로 전환하기 직전의 대한극장 (2000년)



멀티플렉스관으로 재개장한 현재의 대한극장

시절은 가도 추억은 남는 것, 대한극장을 보고 있자니 그리운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영화를 보려고 극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개봉일 상영작 홍보를 위해 극장 앞에 등장했던 은막의 스타들.

지금이야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상영시간에 맞춰 극장에 나와 콜라와 팝콘을 사들고 여유롭게 입장하지만 단일극장 시절에는 좋아하는 영화나 인기작은 일찍부터 서둘러 나와 매표소에 줄을 섰다. 멀티플렉스관 시대인 지금은 한 극장이라도 상영관이 많지만 그 시절엔 한 극장에서 영화 하나만 상영해서 좋은 자리를 잡고 남들보다 빨리 보려면 아침 일찍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스타들도 출연작의 흥행 여부를 극장에 나와서 확인했다. 지금처럼 최첨단 시스템으로 개봉스코어를 보고 박스오피스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시대가 아니었던 그 시절에는 개봉일에 관객들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서 있는지가 흥행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였다.

개봉일에 등장한 스타는 비단 흥행 여부만 가늠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관객들과 만나는 '무대인사'를 겸해서였다. 지금은 상영관 안에서 영화가 끝나면 무대인사 자리를 만들어 관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 그때는 개봉일에 등장하는 배우를 보는 것이 곧 무대인사였다.

한국 최초의 청소년 전용관 '아테네극장(극동극장)'

극동극장은 1961년 11월에 개관했다. 학생 전용 극장으로 문을 열었고, 이름도 '아테네극장'이었다. '극동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건 일반 관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63년이다.

아테네극장은 오랜 논의의 산물이었다. 개관하기까지 난관도 많았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외국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문화시설이 풍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화시설이 거의 없었다. 한국전쟁의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진 극동극장(2015년)

참화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어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한 1960년대, 보릿고개로 먹을 것도 부족했던 그 시절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을 그리는 데 바탕이 되는 문화시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대한교육회 제15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세계교육연합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많은 고비를 넘긴 끝에 마침내 아테네극장을 개관했다.

아테네극장은 대한극장 맞은편에 자리했다. 아담하고 산뜻한 3층 건물이었다. 학생 전용 극장답게 우리 학생들도 외국에 못지않은 시청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참신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로 꾸몄다.

설계는 서울대 공과대학 이광로 교수가 했다. 당시 기술 분야에서 앞서 있던 '동양전파사'가 음향장치를 설치했고, 뉴미크니 영사기를 비롯해 입체 음향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와 인성을 위해 150장의 LP 레코드도 구비하고 있었다.

영화는 청소년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아테네극장은 대한교육연합회가 운영했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했다.

- 청소년 학생을 불건전한 오락 영화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 예술적인 향취가 높은 정서적인 영화와 학습의 연장으로서의 교육영화 현장에서 구실을 한다.

- 청소년 학생으로 하여금 영화를 정당하게 감상하고,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학부형에게 자녀를 동반 관람하도록 한다.
- 교육 · 문화 · 영화 '센터'의 기초를 닦는다.

극장에는 학생지도부도 두었다. 운영 원칙대로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고 교외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였다. 상영작도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영화를 주로 상영했다.

아테네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전용관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한 장르이며, 교육은 물론 과학과 산업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영역과 이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면에서 아테네극장은 시대를 앞선 극장이었다.

그러나 아테네극장은 2년 만에 이름을 바꾸고 일반 관객을 받아들임으로써 청소년 전용관으로서의 막을 내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환영하고 반응이 좋았지만 이에 수반하는 영화 수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극동극장은 대형 스크린으로 압도하는 대한극장과는 차별화하여 주로 저예산 영화들을 상영하며 관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2015년 8월에 건물이 철거되었고, 2018년에는 그 자리에 '스테이락 호텔'이 들어섰다.

대한극장에서 길을 건너 극동극장이 있었던 골목으로 들어선다. 이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는 인쇄골목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기도 하다.

흔적 없이 사라진 극동극장 자리에 작지만 세련된 호텔이 우뚝 서 있다. 호텔 앞 조형물이 특이하게 보인다. 다른 호텔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색다름이 눈길을 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영사기와 필름 원통 등 영화 도구들이



극동극장 자리에 들어선 '스테이락 호텔'



영사기와 필름 등 영화 도구들이 유리막 안에 전시돼 있는 스테이락 호텔 앞 조형물



스테이락 호텔 바로 옆에 새겨 놓은 '극동극장 옛길'

투명한 유리막 안에 불규칙하게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옆에는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이 서 있다.

‘이곳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개공지 공간입니다.’

이 문구와 함께 ‘시설물 : 조형물, 영사기(극동극장 유물)’이라고 안내한다. 또 호텔 바로 옆길에는 ‘극동극장 옛길’이라고 새긴 동판을 바닥에 깔아놓았다.

지금은 저예산 독립 영화가 빛을 보는 시대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젊은 배우들을 보면 거의 다 독립 영화관에서 수련하고 나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잘 만든 독립 영화가 수십 수백억을 쏟아 부은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보다 훨씬 더 좋고, 마니아가 튼튼할 정도로 팬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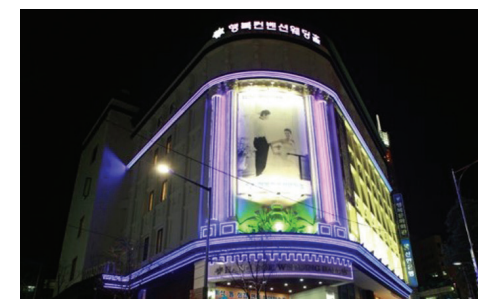
청소년 전용관에서 독립 영화 상영관으로 탈바꿈한 극동극장, 독립 영화 마니아 전용관으로 변신했으면 어땠을까. 경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운영만 잘한다면 명소로 길이 남지 않았을까?

길을 돌아서 나오면서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거기에 문득 ‘행복예식장’도 사라졌다는 생각이 겹치면서 마음이 조금 쓰리다.

퇴계로 대표 웨딩홀 ‘행복예식장’

대한극장 바로 옆 유물처럼 오래된 건물. 지금은 ‘호텔 도마’로 바뀐 행복예식장이다.

행복예식장은 1976년 4월에 문을 열었다. 이후 결혼문화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에 맞추어 행복웨딩문화원, 행복컨벤션웨



1976년 개장 이래 퇴계로의 대표 웨딩홀로 자리를 지킨 ‘행복예식장’

딩홀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2014년 ‘HB컨벤션웨딩홀’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 2009년에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조금은 촌스러운 ‘예식장’이 아닌 현대적인 ‘웨딩홀’에 걸맞게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변신했다.

행복예식장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퇴계로를 대표하는 예식장이었다.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자리해 교통이 아주 편리한 이점으로 인생의 새 출발이자 축복인 결혼을 준비하는 청춘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런데 행복예식장은 상호와 관련해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다.

‘행복’하러거든 ‘항복’하라?

대한극장 옆 행복예식장은 ‘hangbok(항복) wedding hall’이라고 써져 있다.

왜 ‘행복’을 ‘항복’으로 영문 표기를 했을까, 그 사장이 상당히 철학적이진 않나, 하는 궁금함으로 몇 번 지나치다가 한 날엔 기어이 물어보려고 들어갔다.

사무원이 “어서오세요”라고 상냥히 인사하고는 예약하실 거냐고 물었다. 아이들 결혼 예약을 물었을 거라는 생각에 ‘다른 일’이라고 말하고는, 밖 간판에 영문 표기가 ‘항복’으로 돼 있는데 맞는 거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의외로 싱거웠다.

사장이 미국 생활을 해서 미국식 발음이라나?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나는 행복합니다’를 ‘나는 항복합니다’로 말한다는 얘기가.

항복합니다…. 나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이 사회의 가부장제가 개판돼서 이혼이 증가하고 가정이 불안해져가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아니, 어쩔 여권 신장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항복하지 않아서일지도…!

-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또 일상의 잡다한 생각 몇 개’, 2010년 9월 28일자



지금은 ‘호텔 도마’로 바뀐 행복예식장 건물

지금 생각해봐도 재미있다. 예식장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려면 차라리 ‘Happy wedding hall’이라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행복’은 우리말 영문으로, 예식장은 영어로 표기했다. 예식장을 개장할 당시에 1970년대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서였을까? 그렇다면 ‘행복’처럼

‘웨딩홀’도 우리말 영문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재미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 살려면 서로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신랑이든 신부든 상대방에게 hangbok(항복)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happy(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행복’을 ‘항복’으로 표

기한 게 오묘한 선택인 것도 같다.

퇴계로, 하면 행복예식장이었다. 그리고 행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마치면 대한극장 맞은편 한정식집 ‘대림정’에서 피로연을 했다. 55년 전통의 대림정은 상견례부터 회갑연, 돌잔치는 물론이고 소규모 모임과 단체 회식까지 각종 연회로 유명한 퇴계로 터줏대감이다. 한정식집이지만 저렴한 점심 메뉴로 인근의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높고, 충무로 영화인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단골 맛집이었다.

이제는 사라지고 호텔로 바뀐 행복예식장, 왠지 청춘의 한 장면을 잃어버린 기분이다. 그나마 위안인 건 호텔로 바뀌어도 모습은 그대로 살렸다는 것이다. 극동극장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 있어 반갑다.

추억에 젖어 호텔을 바라본다. 건물의 고풍스러운 정취가 이 거리의 멋을 살리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최첨단으로 변해가는 시대, 조금은 쉬면서 천천히 가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55년 전통의 퇴계로 터줏대감 ‘대림정’

6. 풍류가 숨 쉬는 남산골 한옥마을

옛 정취를 고스란히 살린 '한옥마을'

충무로역 인근에 오면 한옥마을 나들이는 퇴계로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필수 코스다. 예전엔 행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마치면 일부 하객들은 시간을 쪼개 한옥마을로 나들이를 갔다.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기왕 서울에 왔으니 구경이라도 하고 가자고 들러서 그날만큼은 농사일을 잊고 하루를 즐겼다.

진입로를 따라 한옥마을 정문 쪽으로 걷는다. 주말 오후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꽤 많다. 정문 앞 한복대여소에서 한복을 빌려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정문으로 들어서자 너른 광장에 웅장하게 서 있는 천우각(泉雨閣)이 제



경술국치 직전의 조선헌병대사령부(1910년)



한옥마을 터에 자리했던 수도경비사령부(1979년)



한옥마을 가을 야경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김용희 작품 2014년)



천우각
(출처-한옥마을)

일 먼저 반긴다. 천우각 광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다. 주말이면 우리의 옛 놀이와 춤, 연극 등을 공연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옥마을은 1989년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원래 이 터에는 일제강점기 무단통치의 거점이었던 조선헌병대사령부가 있었다. 광복 후에도 1962년부터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가 있었는데,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매입해 이후 설계와 지형 복원, 전통 정원과 남산골 한옥촌 조성 공사를 하여 1998년에 개장했다.

예부터 남산은 경치가 아름다워 골짜기마다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 수려한 경관을 찾아 선남선녀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나 한옥마을이 들어선 남산 북쪽 기슭의 필동(筆洞)은 맑게 흐르는 계곡과 천우각으로 여름이면 피서를 겸한 놀이터로 이름나 있었다. 필동은 신선들이 푸른 학을 타고 목욕을 하러 온다고 할 정도로 풍치가 아름다워 '청학동(靑鶴洞)'이라 불렀는데, 삼청동(三清洞)·인왕동(仁王洞)·쌍계동(雙溪洞)·백운동(白雲洞)과 더불어 한양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한양 5동(漢陽五洞)'으로 손꼽혔다.

이렇듯 아름다운 곳에 들어선 한옥마을은 7,934m²에 달하는 너른 대지에 골짜기를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정자를 짓고 나무를 심어 옛 정취를 되살려 놓았다. 그리고 사대부가부터 평민의 집까지 서울시 지정 민속자료인 한옥 다섯 채를 옮겨서 복원해 놓았다.

선조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한옥 다섯 채

이 한옥들은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규모는 물론 가구에 이르기까지 예스럽게 배치해 놓았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옥인동 윤씨 가옥’으로 들어가 본다.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純貞孝皇后尹氏親家)’라고도 한다. 구한말 순종의 황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가 열세 살 어린 나이로 황태자 계비에 책봉될 때까지 살았던 집이다. 순정효황후는 친일파들이 순종에게 한일합병조약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자 이를 막으려고 치마 속에 옥새를 감추고 있다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
(출처-한옥마을)

가 강제로 빼앗긴 일화로 유명하다. 1910년대에 종로구 옥인동에 지었던 이 집은 한옥마을로 옮길 때 너무 낡고 손상이 심해 세밀하게 고증하여 새로 지었다. 전체적인 집의 평면이 ‘ㄱ자형’으로 규모가 크고, 당시 상류층이 살았던 집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이 집 바로 뒤로는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海豐府院君尹澤榮齋室)’이 있다. 순종의 장인인 해풍부원군 윤택영이 동궁(東宮)의 계비로 책봉된 딸(순정효황후 윤씨)이 창덕궁으로 들어갈 때 지은 집이다. 제기동에 있던 것을 옮겨서 복원해 놓았다.

이 집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으뜸 元(원)’자 모양이다. 집의 제일 윗터에는 사당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는 몸채를 두었다. 사당은 원래 임금이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임금이 제사를 지내려고 행차할 때 불편을 덜기 위해 경운궁을 헐고 남은 부재를 사용해 지었다고 한다. 이 사당은 1960년 4·19혁명 때 불에 타서 소실됐지만 한옥마을로 집을 옮기면서 복원했다.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출처-한옥마을)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옆으로는 ‘관훈동 민씨(閔氏) 가옥’이 있다. 이 집은 민영휘(閔泳徽)의 저택 가운데 일부였다. 민영휘는 일제강점기에 병조판서와 이조판서, 한일은행 은행장 등을 지낸 친일파였다. 그래서 관훈동 일대에 여러 채의 집을 짓고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친일파로 잘 살아서인지 이 집을 보면 당시 일반 가옥과는 다른 최상류층의 주택 모습을 볼 수 있다. 넓고 큰 목조 구조에 여섯 칸에 달하는 부엌, 마루 밑에 뚫려 있는 벽돌 통기구 등 으리으리하다. 원래는 안채와 사랑채, 별당채, 대문간채, 행랑채가 있었는데 나중에 안채와 여기에 연결된 중문간채만 남고 모두 헐렸던 것을 한옥마을로 안채를 옮겨 지으면서 건넌방을 되살리고 사랑채와 별당채도 새로 지었다. 특이한 것은 보통 서울의 주택 안채는 안방 앞쪽에 부엌을 두고 ‘ㄱ자형’으로 꺾어 배치한다는데, 이 집은 드물게 부엌과 안방을 나란히 놓았다.



관훈동 민씨 가옥
(출처-한옥마을)

이 집 옆으로는 민영휘의 집과는 다르게 소박한 집이 자리하고 있다. ‘오위장 김춘영 가옥(五衛將金春榮家屋)’이다. 삼청동에 있던 것을 옮겨서 복원해 놓았다. 오위장은 조선 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에 속한 무관으로, 이 집은 1890년대에 지었다고 한다. 평민들이 살았던 주택을 볼 수 있는 집인데, 특징이라면 서울의 전형적인 집의 형태인 ‘ㅁ자’가 아닌 ‘ㄷ자’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또 안방의 뒤쪽 벽, 즉 길가에 면한 부분에 화방벽(火防壁)을 쌓아 집의 격조를 높였다.



오위장 김춘영 가옥
(출처-한옥마을)



도편수 이승업 가옥
(출처-한옥마을)

오위장 김춘영 가옥 앞으로는 ‘도편수 이승업 가옥(都邊首邊李承業家屋)’이 있다. 이승업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도편수, 즉 목수의 우두머리였다. 1860년대에 지은 이 집은 청계천 부근 삼각동에 있던 것을 옮겨서 복원해 놓았다. 원래는 대문간채와 행랑채가 안채와 사랑채를 둘러싸고 있었다는데, 지

금은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다. 이 집은 안채의 부엌과 안방의 지붕 길이를 다르게 한 것이 특징이다. 대청과 건넌방 쪽은 옛날 양식인 일고주오량가(一高柱五樑架), 즉 평기둥보다 높은 기둥으로 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를 품고 있는 ‘타임캡슐 광장’

차레로 집을 둘러보고 나서니 천우각에서 공연을 하는지 한창 무대를 꾸미고 있다. 한옥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공연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한다. 벗과 함께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피금정(被襟亭)’, 한가로이 유명하는 물고기들을 보는 운치가 기가 막힌 ‘관어정(觀魚亭)’, 임금이 있는 북쪽 경복궁 근정전을 향해 서 있는 ‘망북루(望北樓)’, 흐르는 물소리가 맑고도 시원한 ‘청류정(聽流亭)’, 느릿느릿 걸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정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잠깐 청류정에 앉아 하늘하늘 살랑이는 가을바람에 몸을 맡긴다. 그렇게 앉아 있자니 시 한 수가 절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보면 피금정, 관어정, 망북루, 청류정,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다. 이름만 들어도 그 뜻을 금방 알 수 있으니.



피금정
(출처-한옥마을)



관어정
(출처-한옥마을)



망북루
(출처-한옥마을)



청류정
(출처-한옥마을)

피금정 마당에서는 땅따먹기와 윷놀이, 비석치기 등 잊혀져가는 우리 옛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청류정 둔덕에서는 단오 날이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행사를 한다. 어렸을 땐 땅따먹기와 비석치기가 최고의 놀이였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 놀이들을 모르겠지?

일어나 다시 걷는다. 이왕 왔으니 타임캡슐 광장도 보고 가야지.



한옥마을 마당에서 열리는 추석 떡 만들기 행사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김은준 작품 2015년)

한옥마을의 타임캡슐 광장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한 지 600년이 되는 1994년에 만들었다. 이 광장에는 서울 정도(定都) 600년을 맞아 서울의 모습과 시민들의 생활을 대표하는 문물 600점을 담은 캡슐이 묻혀 있다. 서울 정도 1,000년이 되는 2394년 11월 29일에 개봉할 예정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천년 서울의 문화유산을 전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 광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작품을 선정해 만들었다. 4,959m²에 달하는 광장은 달의 분화구를 본뜬 모습이고, 그 한가운데에는 시간의 영속성을 의미하는 동심원 판석이 놓여 있다. 태극 마크가 여러개 새겨진 판석에는 영어와 일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타임캡슐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지하 15m 깊이에 묻은 캡슐은 보신각종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 안에는 삶의 양식을 나타내는 수장품 71점을 비롯해 제도 205점, 환경 70점, 산물 78점, 가치 52점, 행태 60점, 삶의 표현 64점 등의 수장품이 들어 있다. 이것들은 실물과 축소 모형, 사진, CD, LD 등의 형태로 특수하게 보존처리가 되어 있다.



타임캡슐 광장
(출처-한옥마을)

타임캡슐 광장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 거대한 분화구 모습이 꼭 다른 세계를 보는 느낌을 준다. 신비한 기분도 들고, 저 아래 묻혀 있는 캡슐 안에 들어 있을 수장품들도 궁금하다.

광장을 한 바퀴 빙 돌아본다. 어느 곳에서 봐도 똑같은 모습이라서 그런지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만 같다. 그래서 더 신비한 느낌이다.

광장을 다 돌고는 천우각으로 가기 위해 언덕길을 따라 내려온다. 그러다가 문득 걸음을 멈춘다. 광장 밑 인도 옆 화단에 설치된 표석을 보았기 때문이다.

남별영과 남소영은 수도방위의 임무를 띤 조선 후기의 군사 주둔지이다. 남별영은 금위영, 남소영은 어영청의 분영으로 각각 설치되었다. 남별영의 남쪽과 남소영의 북쪽에

는 큰 군수 창고가 있었다.

- 남별영 · 남소영 터 표석 문구

아하 그렇지, 이곳에는 남별영이 있었지! 한옥마을에 취해 깜박 잊었던 것을 표석 문구를 보고 기억해낸다. 그리고 보면 충무로역 인근 퇴계로에는 이런 표석들이 심심찮게 있다. 남별영(南別營) · 남소영(南小營) 터, 남학당(南學堂) 터, 균역청(均役廳) 터, 주자소(鑄字所) 터까지. 그러니까 이 일대는 조선시대 중요 기관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먼저 이 표석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남별영 · 남소영 터

조선시대 남산은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방패였다. 봉수대를 비롯해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었는데, 왕을 호위하며 한양을 수호했던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분영(分營)인 남별영과 남소영, 무기고와 군사창고 등이 있었다.

1730년(영조 6년) 지금의 필동 2가인 낙선방(樂善坊)에 설치된 남별영은 101칸 규모의 남창(南倉)과 104칸 규모의 하남창(下南倉)을 두고 있었고, 남창 서쪽 기슭에는 17칸 규모의 화약고가 있었다. 남별영은 조총 훈련과 사습(私習) 등 금위영 군사들의 군사훈련장이기도 했다. 금위영 별시사(別試射)와 관무재(觀武才) 등 금위영 군사들이 시험을 치렀던 곳이다.

1695년(숙종 21년) 지금의 장충단공원 일대인 남소문 동쪽 명철방(明哲坊)에 설치된



남별영 · 남소영 터 표석(한옥마을 내 왼쪽 언덕길 따라 약 70m 지점 화단)

남소영은 화약 등 각종 군기를 보관하는 창고였다.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각종 무과의 시험 장소로 썼는데, 정조가 직접 행차해 각종 무과를 시행하기도 했다. 현재 남소영 터에는 조선 최초의 국립묘지라 할 수 있는 장충단이 들어서 있다.

남학당 터

남학당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成均館)에 소속된 중등교육기관이다. 1411년(태종 11년) 지금의 필동 1가에 세워졌다. 성균관에서 교관을 파견해 관리했고, 8세 이상의 양반과 서인의 자제를 대상으로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가르쳤다.

남학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10년(광해군 2년) 이후에 중건되어 1894년(고종 31년)까지 존속했다. 지금은 충무로역 4번 출입구 앞에 표석만 남아 있다. 중구 남학동(南學洞)은 그 이름이 남학당이 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남학당 터 표석(충무로역 4번 출입구 앞)

균역청 터

남학동에는 1750년(영조 26년)에 설치해 병역세를 관장하던 균역청도 있었다.

조선시대 균역(軍役)은 천인을 제외한 양인 모두에게 부과했다. 그런데 양반들이 균역에서 빠져나가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등 여러 군영이 설치되면서 평민만 균역을 부담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균역법을 실시해 균역 부담액을 1인당 매년 벼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

한 재정은 어업과 제염에 부과했던 어염세(魚鹽稅)와 선세(船稅), 징집대상자에게 부과했던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으로 보충했다. 균역청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다.

일제강점기 균역청이 있었던 자리에는 히노데소학교[日出小學校]가 있었다. 이 학교는 광복 후 일신국민학교로 변경되었는데 학생이 감소하면서 폐교되었고, 지금의 남산스퀘어 빌딩인 '극동빌딩'이 들어섰다. 그래서 남산스퀘어 빌딩 화단에 균역청 터 표석이 있다.



균역청 터 표석(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앞 화단)

주자소 터

주자소는 조선시대에 활자를 주조해 책을 인쇄하던 관청이었다. 지금의 중구 주자동(鑄字洞)에 있었는데, 주자소가 있던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1403년(태종 3년)에 설치된 주자소는 그해 10만여 개에 달하는 활자를 주조했는데 이를 '계미자(癸未字)'라 한다. 계미자는 조선시대 최초의 구리 활자였다. 그 뒤 1796년(정조 20년)에는 큰 활자 19만 자, 작은 활자 14만



조선시대 최초의 구리 활자 '계미자'



'계미자'에 이어 만든 '정리자'



주자소 터 표석(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앞 화단)

자를 주조했는데 이는 ‘정리자(整理字)’라 한다.

주자소는 인쇄와 관련된 전문 장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금속활자를 만드는 야장(冶匠) 6명, 글자를 나란히 배열하는 균자장(均字匠) 40명, 인쇄를 담당하는 인출장(印出匠) 20명, 글자를 주조하는 각자장(刻字匠) 14명, 구리를 주조하는 주장(鑄匠) 8명, 주조된 활자를 다듬는 조각장(雕刻匠) 8명, 인쇄 판형에 필요한 화양목을 다루는 목장(木匠) 2

명, 종이를 재단하는 지장(紙匠) 4명이 소속돼 있었는데, 이를 보면 활자를 만들고 책자를 인쇄하는 과정이 전문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충무로 일대에 인쇄소가 밀집해 있는 것은 주자소가 있었던 데에서 연유한다. 주자소 터 표석도 남산스퀘어 빌딩 화단에 있다.

남산골 선비의 지조와 절개

한옥마을 인근에는 우리나라 국어학 연구에 큰 획을 그은 일석 이희승(一石 李熙昇)의 기념비가 있다. 『국어학개설』과 『국어대사전』 등 탁월한 업적을 남긴 그는 남산골 선비들의 별칭인 ‘딸깍발이’를 수필로 써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청계천 북쪽을 ‘북촌’, 남쪽은 ‘남촌’이라 했다. 북촌에는 세도가 양반들이 모여 살았고, 남촌에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양반들이 모여 살았다. 그런데 남촌 중에서도 남산 계곡에 사는 선비들을 ‘남산골 선님’ 또는 ‘남산골 딸깍발이’라 불렀다. ‘선님’이나 ‘생원님’은 가난하면서도 오기만 남은 양반을 비아냥거릴 때 그렇게 불렀고, 딸깍발이는 가난한 남산골 선비들이 신발이 없어서 마른날에도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나막신을 신고 다녔다는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연구한 일석 이희승



일석 이희승 기념비(퇴계로 34길 28 한옥마을 내)

하지만 이렇게 궁핍하게 살았던 남산골 선비들은 지조와 절개만큼은 남달랐다. 이는 시문과 글씨로 이름이 높았던 조선 후기 문신 송곡 이서우(松谷 李瑞雨)의 이야기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숙종 때 병조참의와 함경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한 이서우는 벼슬길에 오르기 전까지 몹시도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 어려운 남산골 선비 중 하나였다. 하지만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는데, 어느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도 아침에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는 종일 굶으며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들창 너머로 보자기가 날아들었다. 보자기에는 약식 한 그릇이 싸여 있었고, 약식 속에는 놀랍게도 말굽 은 [馬蹄銀·마제은] 한 덩이가 들어 있었다.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이서우가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훗날 이서우는 과거에 급제해 숙종을 모시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정월 대보름날 저녁, 숙종은



조선 후기 문신 이서우
(출처·원주시 역사박물관)

신하들과 대보름 연회를 가졌다. 그러다가 문득 4년 전 암행에 나섰다가 이
숙한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있던 남산골의 한 선비가 측은해 들창으로 몰래
약식을 건네준 일을 떠올리고는 그 선비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서
우는 그 선비가 자신이라고 밝히고는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말굽 은을
내보였다. 그날 밤 이서우는 약식은 먹었지만 말굽 은은 쓰지 않고 간직하
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본 숙종은 이서우를 크게 칭찬하며 벼슬을 높여 주
었다.

참된 선비라면 다 이서우와 같을 것이다. 흔들림 없는 지조와 절개, 가난
을 벗 삼아 학문에 정진하고, 충(忠)과 효(孝)와 신의(信義)를 지키고 받드
는 것이야말로 선비의 표상이다.

남산골에는 이처럼 참된 선비들이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유성
룡(柳成龍)과 박팽년(朴彭年)이다.

대한극장을 지나 퇴계로 4가로 건다보면 주유
소가 하나 있다. 그 주유소 앞 화단에는 ‘유성룡
집터’ 표석이 있다. 유성룡 집터는 주유소를 바라
보고 왼쪽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나온다. 흔
히들 무심코 지나치는 길이 이순신을 앞세워 왜
적을 물리치고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유성룡
이 살았던 집이었다.



유성룡 집터 표석(퇴계로 228 SK주유소 앞 화단)

난세를 극복한 충신 유성룡

유성룡은 1542년(중종 37년) 외가인 경상도 의성현 사촌리에서 황해도
관찰사 유중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스물한 살 되던 해에 안동 도산서원
(陶山書院)에서 글을 배웠다. 퇴계 이황(退溪 李滉)이 열고 제자들을 기른

도산서원 문하였으니 퇴계학파의 줄기를 이은 것이다. 이
황은 3년 남짓 유성룡을 가르치면서 “이 젊은이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그렇게 글을 배우고 벼슬길에 나선 유성룡은 도승
지, 대제학, 이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마흔여덟인
1590년(선조 23년) 우의정에 올랐다. 그런데 그즈음은 조
정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 대립할 때였다. 동인도 강
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상대
당파에 대해서도 온건하고 부드러운 유성룡은 남인에 속해 있었다.



서애 유성룡

이런 성품은 왕위를 찬탈할 목적으로 일어난 ‘정여립의 난’ 때 빛을 보았
다. 이 사건으로 동인들이 무수히 죽거나 귀양을 갔지만 유성룡은 쫓겨나
지 않았던 것이다.

천재(天資)가 총명하고 기상이 단아했다. 학문을 열심히 익혀 종일 단정히 앉아 있
면서 몸을 비틀거나 기댄 적이 없으며, 남들을 대할 적에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수가 적었다.

- 이이화의 『인물한국사』 중에서

훗날 유성룡이 죽은 뒤에 사관이 평했다는 글이다. 이를 보면 유성룡의
성품을 대변에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한다.

어느 날 조정에서 선조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조 : 과인을 예전의 성군인 요 · 순과 폭군인 걸 · 주에 비한다면 어느 쪽이겠는가?

정이주 : 요 · 순과 같은 군주올시다.

김성일 : 걸 · 주와 같사옵니다.

선조는 안색이 확 변하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유성룡이 나섰다.

유성룡 : 둘 다 바른말입니다. 정이주는 장차 전하의 성덕을 바라는 뜻이요, 김성일은 전하께 경계를 드리는 말인 줄 아옵니다.

- 이이화의 『인물한국사』 중에서

자칫하면 화를 당할 수 있는 선조의 우문(愚問)에 유성룡은 부드러운 현답(賢答)으로 불편한 심기를 누그러뜨렸다. 이 역시 유성룡의 성품과 인물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온건한 성품과 총명한 판단력은 임진왜란이라는 난국을 수습하는 바탕이 되었다. 유성룡은 왜적이 쳐들어올 기미를 보이자 선조에게 이순신과 권율을 천거해 나라를 지키게 했다. 그때 이순신은 낮은 벼슬이었던 정읍현감에서 전라좌수사가 되었고, 형조정랑이었던 권율은 의주목사가 되었다. 이순신에게는 바다를, 권율에게는 육지를 지키게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한양도성을 공격하는 왜군들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결사항전을 벌이는 전투도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떠난 선조를 수행하며 의주에서 병력을 모으고 명나라 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수복하는 등 조정을 이끌었다. 전란 중에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탄핵되었을 때는 다시 천거해 왜적을 물리치게 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영의정에 올라 민심을 달래며 천민들에게도 면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과감한 정책은 백성들의 두터운 신임과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유성룡은 이 때문에 반대파의 시기와 모함 속에 벼슬에서 물러났다 기용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끝내는 선조의 변덕으로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고 말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성룡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후학을 기르며 임진왜란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 『징비록』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이 일어나 끝날 때까지 7년의 전쟁을 기록한 것으로, 전란의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썼다. ‘징비(懲毖)’는 ‘미리 잘못을 뉘우치고 경계해서 뒤의 환란을 대비한다’는 뜻인데, 다시는 참담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미리 대비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현재 『징비록』은 임진왜란 연구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국보 제132호 『징비록』



유성룡은 65세를 일기로 운명을 달리했다. 유성룡이 세상을 떠나자 한양에서는 백성들이 그의 집이 있는 남산골로 달려가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주인도 없는 빈집에 물려와 통곡을 하고, 벼슬을 내려놓은 뒤로는 살림이 가난해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없는 주머니를 털어 돈을 모아 장례비에 보탬다고 한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장례를 치렀을 백성들의 마음을 그려본다. 민중의 고통을 살피고 헤아리며 청렴하게 살았음을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유성룡은 이황의 수제자로, 난국을 헤쳐나간 충신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사람으로 역사의 귀감이 될 것이다.

신의와 절개의 표상 박팽년



박팽년 표준 영정(윤여한 화백 작품)

유성룡이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난세를 극복한 충신이라면 박팽년은 대쪽 같은 지조와 절개로 군주를 섬기는 신하의 표상을 보여준 충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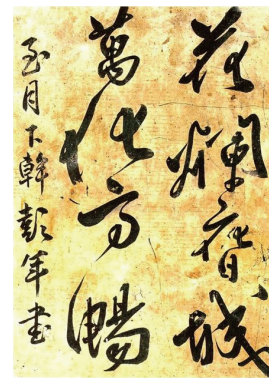
박팽년은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1434년(세종 16년) 문과에 급제한 뒤 조정에 들어와 집현전 학사로 시작해 우승지, 부제학, 좌승지, 형조참판, 충청도관찰사를 역임하며 세종과 문종, 단종에 이르기까지 세 명의 임금을 섬겼다. 그러나 문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수양대군의 야망을 익히 알고 있던 문종이 박팽년을 비롯해 황보인, 김종서, 성삼문 등에게 어린 단종의 보필을 당부

했는데, 1455년 수양대군이 기어코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면서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자 제도를 개편해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집현전 출신의 유신들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며 세조를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등이었다.

1456년 6월, 이들은 마침내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해 베푸는 연회를 이용해 세조를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그날은 상왕인 단종도 참석을 하므로 명나라 사신들 앞에서 세조를 없애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명분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그날 장소가 협소하다는 한명회의의 주장으로 연회가 일부 변경되면서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이 틀어지면서 모의에 참여했던 일부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사람들을 밀고했고, 박팽년과 성삼문 등 모두가 잡히고 말았다.



박팽년 친필

이 사건으로 박팽년은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옥사했다. 대역부도의 죄로 아버지와 동생, 아들들까지 3대가 처형되었고, 어머니와 아내는 노비가 되었다.

이후 박팽년은 1691년(숙종 17년)에 신원되어 관작이 회복되었다. 1758년(영조 34년)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또한 생육신의 한 사람인 남효온은 시가와 산문을 엮어서 낸 『추강집(秋江集)』에 박팽년, 성삼문,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를 ‘6신전(六臣傳)’으로 적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은 6명의 충절을 기렸다. 현재는 서울 노량진에 ‘사육신묘역’을 두고 기리고 있다.

박팽년의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충정’은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스럽고 참된 정’을 뜻한다. 이 한마디로 박팽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도 남는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한 뒤에도 박팽년을 형조참판으로 중용했다. 그러나 박팽년은 세조에게 올리는 문서에 ‘신(臣)’이 아니라 ‘거(巨)’라고 쓰고, 세조를 나으리(進賜)라 하고 상감(上監 : 왕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 부르지 않았다. 거사가 실패한 뒤 모진 고문을 당할 때도 “그대가 나에게 ‘신’이라고 칭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세조가 묻자, “나는 상왕(上王 : 단종)의 신하이지 나으리의 신하는 아니므로 충청감사로 있을 때에 한 번도 ‘신’자를 쓴 일이 없다”고 답하며 끝내 굽히지 않았다.



서울 노량진 사육신 공원에 있는 박팽년 묘. 이름 없이 '박씨지묘(朴氏之墓)'라 새겨져 있다.

우리의 미(美)를 알리는 복합문화 공간 ‘한국의 집’

신의와 절개의 표상 박팽년, 그 역시 남산골에서 살았다. 박팽년이 살았던 집터에는 지금 ‘한국의 집’이 들어서 있다.

대한극장 뒤편 필동주민센터로 가는 길 초입에 자리한 한국의 집은 1957년 문을 열고 정부에서 영빈관으로 활용했다. 그래서 ‘Korea House’라고도 불렸다. 이후 한국의 집은 1978년부터 3년간 신축 공사를 한 뒤 1981년에 새로이 개장했다. 무형문화재인 대목장 신응수가 경복궁의 자경전을 본떠서 전면 개축을 했고, 쓰임도 영빈관이 아니라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 생활과 문화를 알리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한국의 집은 우리의 전통 가옥에서 궁중음식과 전통무용, 전통혼례, 민속음악, 수공예품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한국의 집을 들여다보면, 먼저 본관인 ‘해린관’은 세계의 사람들이 친교를 하는 공간으로 한국의 집에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서 가장 먼저 반긴다. 해린관은 오른쪽의 ‘소화당’과 ‘환벽루’, 왼쪽의 민속극장과 이어져 있다.

한국의 집에서 가장 큰 소화당과 아름다운 연못 위에 세워진 누각 환벽루에서는 한정식 만찬과 결혼식 피로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전통공연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민속극장은 아담하고 고풍스럽다. 이 극장은 한국의 집에서 1981년에 창단한 예술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우리 전통공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해린관과 소화당, 환벽루, 민속극장은 마당을 품고 있다. ‘중정’이라 부르는 이 아늑한 마당에서는 식사와 전통공연을 결합한 전통연회는 물론 전통혼례까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마당을



박팽년 집터 표석(한국의 집 정문 앞)

둘러싼 건물들에는 멋스러운 현판과 기둥마다 옛 사람들의 주옥같은 시 구절을 적은 주련(柱聯)이 붙어 있는데, 이 현판과 주련의 글씨는 지금은 고인이 된 임창순(任昌淳)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임창순은 한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로 금석문, 서예, 그림,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마당을 지나 셋길을 통해 건너편으로 들어서면 ‘문향루’, ‘녹음정’, ‘청우정’이 차례로 나온다. 마루와 방으로 구성된 문향루는 ‘향기를 맡는 누각’이란 뜻이다. 이름 그대로 자연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풀숲의 아름다운 경치, 녹음방초를 시로 읊는 정자라는 의미의 녹음정은 조그마한 툇마루가 한옥만의 운치를 더한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모든 소음이 차단된 공간 속에 오직 후원 뜰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정자 청우정은 이름처럼 운치 좋은 팔각정이다.

한국의 집은 2009년 정문 바로 옆에 4층 규모로 ‘취선관’을 새로 지어 개관했다. 취선관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더불어 비즈니스와 연회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취선관 1층에는 ‘카페사랑’을 두었다. 아늑한 공간에서 담소를 나누며 무형문화재들의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문화 상품을 볼 수 있다. 2층은 비즈니스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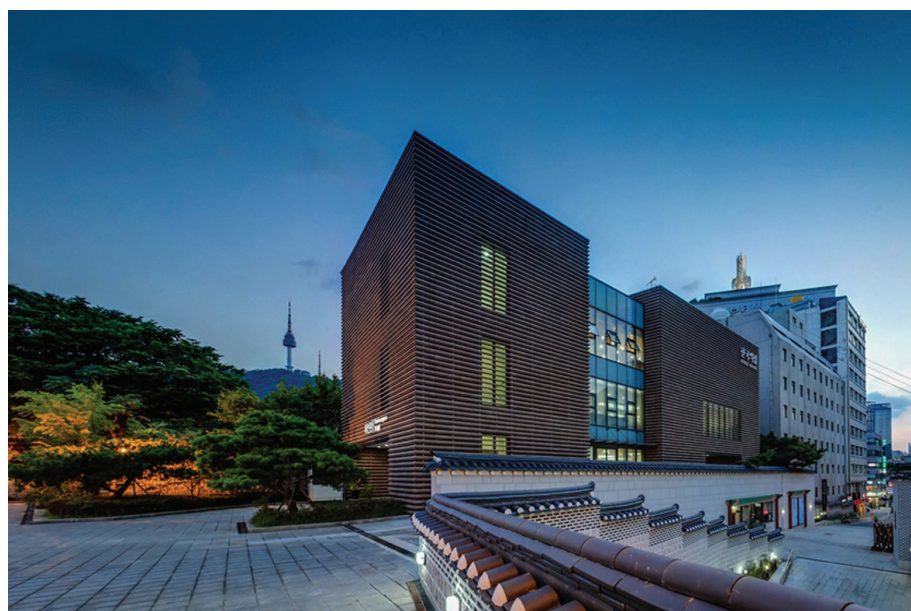
한국의 집 본관 ‘해린관’
(출처-한국의 집)



한국의 집 민속극장
(출처-한국의 집)



한국의 집 마당 ‘중정’
(출처-한국의 집)



2009년 개관한 '취선관'
(출처-한국의 집)

층은 이에 더해 연회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4층은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쿠킹클래스 공간이다. 쿠킹클래스 외에도 전통공예 체험, 전통무용, 예능 체험, 한복 복식 체험까지 4가지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의 집을 천천히 돌고 문향루 앞에 선다. 여기는 박팽년의 집이 있었던 터다. 옛 집은 사라지고 없지만 새로 지은 집이라도 박팽년이 살았던 집 같다.

집이 참 단아하다. 허튼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올곧다는 느낌이 든다. 마치 박팽년의 곧은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둥의 주련이 시선을 끈다. 시 두 수가 제비처럼 날렵한 글씨로 적혀 있다.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스프르 이끌려 그 앞에 선다.

巡簷共索梅花笑 (순첨공색매화소)

飛簷遙聞荳蔻香 (비잔요문두구향)

처마 끝을 돌면서 매화꽃 웃는 모습 찾아보고

술잔을 들고 있으니 멀리 두구(풀이름) 꽃향기가 풍겨 온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朴齊家)의 시다. 참으로 그윽한 풍경이다. 향기를 맡는 누각 문향루, 이 이름과 조화를 이루는 시.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질이는 듯하다.

또 다른 한 수를 본다.

縱橫宇內苦蓑屨 (종횡우내고사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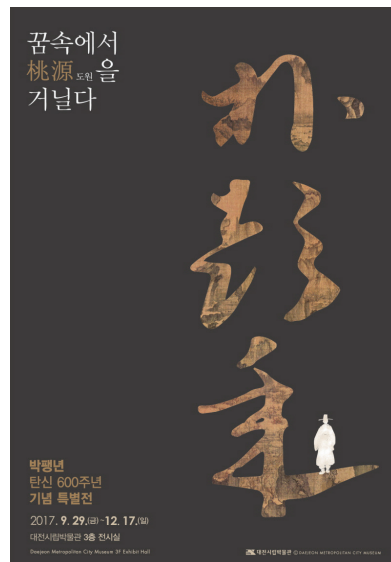
磊落胸酒中千鐘 (뇌락흉주중천종)



박팽년 집터에 자리한 '문향루'
(출처-한국의 집)

우주 안을 두루 다니니 나그네 신이 고달프고
 확 트인 가슴에는 천잔 술이 들어간다.

조선 말기 한학자 강위(姜瑋)의 시다. 이 시를 보니, 그렇지! 절로 탄성이 나온다. 처마 끝에는 매화꽃이 웃고 저 멀리서 두구 꽃향기 풍겨오는데 어찌 술이 빠지리. 게다가 세상도 아니고 우주를 두루 돌고 온 나그네의 가슴에 꽃향기가 안기니 더불어 한잔 술이 없으면 무슨 맛이랴. 한잔에 한잔 그렇게 백잔 천잔이라도 들어가리니.



박팽년 탄신 600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 (2017년)



박팽년 특별전에서 공개된 친필 옥판 (출처-대전시립박물관)

향기에 취해, 시에 취해 문향루를 나선다. 취하기는 향기와 시에 취했는데 정말로 술에 취한 듯하다.

유유자적 거닐며 한국의 집을 나서니 정문 앞에 표석 하나가 오롯이 앉아 있다. 박팽년 집터를 알리는 표석이다.

우두커니 표석을 본다. 한참을 보고 있으려니 말 하나가 떠오른다. '집대성(集大成)', 여럿을 모아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종합하거나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박팽년을 가리켜 집대성이라 불렀다. 유교의 경서를 연구하는 학문인 경술(經術)은 물론이고 문장과 필법이 모두 뛰어나 그렇게 불렸다. 그 뛰어남으로 세종과 함께 집현전에서 한글을 창제하고 사서(史書)를 편찬하며 이제 막 태동한 조선의 기틀을 확립했다. 그 뛰어남에 세

하지 않았던가.

2017년은 박팽년이 탄생한 지 600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해 대전시립박물관은 박팽년 특별전을 열었다. 이때 박팽년의 친필 옥판(玉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집대성이라 불렀던 그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았다.

'박팽년, 꿈속에서 도원(桃源)을 거닐다', 박팽년 탄신 600주년 기념 특별전 이름이다. 포스터에는 박팽년 이름을 한자로 크게 써놓고, 그의 모습을 '해 年' 자에 표표히 거니는 듯이 올려놓았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굽히지 않고 선비의 삶으로 절의정신을 남긴 박팽년, 그를 기리며 경건히 두 손 모아 마음으로나마 한잔 술을 올린다.

7. ‘사람길’로 재생되는 퇴계로 대표 상가

서울 양대 꽃시장 ‘진양상가’

한국의 집을 둘러보고 길을 건넌다. 퇴계로의 명물 진양상가를 향해.

진양상가, 퇴계로 하면 일단 이곳부터 떠오른다. 애견거리, 오토바이거리와 더불어 퇴계로를 대표하는 상가다.



진양상가

진양상가 앞에 섰다. 조금은 퇴색한 건물 여기저기에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다. 그럼에도 어디 한 군데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다. 이래 봐도 한때는 이 거리의 랜드마크였다는 걸 과시라도 하듯 우뚝 서 있다.

뛰니뛰니해도 진양상가 하면 꽃부터 떠오른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꽃상가와 더불어 이곳은 서울을 대표하는 꽃상가다.

꽃가게들이 들어서 있을 3층으로 향한다. 예전에는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꽃향기가 진동했는데, 지금은 그 향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럿하다. 그만큼

예전보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일 테다. 아무려나 좋다. 꽃향기가 진동을 하건 여럿하건 꽃을 보러 가니까.

마음속에 박힌 못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마음속에 박힌 말뚝을 뽑아

그 자리에 꽃을 심는다

꽃이 인간의 눈물이라면

인간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꽃이 인간의 꿈이라면

인간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 정호승의 시 '꽃'

시인의 노래처럼 꽃이 사람의 눈물이라면, 사람의 꿈이라면 우리는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지만 안치환의 노랫말처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잘난 놈 못난 놈 서로 부대끼며 사는 삶이 꽃보다 아름답다. 고통과 외로움, 따뜻한 정으로



진양꽃상가 실내

함께 나누며 사는 인생이 꽃보다 아름답다. 산다는 것은 마음속에 꽃 한 송이 피우는 일이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슬픔 많은 사람끼리 살아가며 아름답게 꽃 한 송이 피우는 일이다.

3층에 다다라 문을 연다. 여윌했던 향기가 진하게 번지면서 꽃내음이 와락 안긴다. 동양란과 서양란, 관엽들, 그리고 각종 화환과 꽃다발, 꽃바구니. 식물원처럼 따스한 온기가 실내를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그 속에서 한가로이 꽃들을 둘러본다.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 '세운상가군'

진양상가는 종로부터 퇴계로까지 약 1km에 이르는 세운상가군의 하나다. 세운상가군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풍전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이렇게 7개 건물로 길게 나 있다.

세운상가군이 들어서 있는 자리는 일제강점기 때 소개공지(疏開空地)였다. 조선시대에 종로는 동서로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 시전행랑(市廛行廊)이 상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뒤쪽으로도 작은 상가와 집들이 들어차 있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연합군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공습에 대비해 종로에서 남산 기슭까지 상가와 마을을 철거하고 남북을 가로

지르는 길이 1km 폭 50m의 거대한 공터를 만들었다. 이 땅은 광복 후 한국전쟁 때까지 방치돼 있었다.

버려지다시피 한 땅이 사람의 땅으로 돌아온 건 한국전쟁이 끝나면서부터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과 월남한 이주민들이 판잣집을



세운상가군 신축 당시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언제부턴가 종로 3가 후미진 뒷골목에 '종삼(鐘三)'이라 부르는 사창가가 생겼다.

서울을 대표하는 종로 한복판에 들어선 판잣집과 사창가는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을 위해서도 방치하면 안 될 터. 이에 서울시는 1966년부터 이 일대의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세운상가군의 시작이었다.

세운상가군의 첫 작품은 세운상가였다. '세운(世運)'은 '세상의 기운을 모으다'라는 뜻이다. 이 말처럼 설계부터 완공까지 세상의 기운을 다 모아 최첨단 주상복합 타운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군은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준공 초기의 세운상가
(출처: 동아일보)

세운상가군은 한국 건축계에 큰 업적을 남긴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다. 그의 설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김수근은 세운상가군을 단지 기다랗게 연결된 건물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담은 건물로 만들고 싶었다. 건물에 초등학교와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시설은 물론 공중정원까지 만들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 길은 양쪽 공중 길로 연결한 뒤 외벽은 유리로 하여 하나의 이상적인 도시로 설계했다.

그러나 이 설계는 공사를 하면서 경제적 논리에 밀려 대폭 바뀌었다. 공공시설은 만들지 않았고, 유리 외벽은 비싸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건물 양쪽으로 설계한 공중 길도 줄여버렸다. 김수근이 그렸던 이상적인 건물 대신에 무허가 집들을 치우고 들어선 하나의 거대한 건물에 그친 것이다.



과거 웅장했던 세운상가군 모습
(출처: 나무위키)

세운상가군은 1966년 9월 세운상가부터 착공해 진양상가까지 1972년에 모두 완공을 보았다. 비록 김수근이 꿈꾸었던 건물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타운답게 분양 초기에는 고위층 인사와 대학 교수, 연예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로 이름을 날렸다. 서울 시내 한복판 거대하고도 독특하게 선 최신식 건물에 남산과 북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 당시로서는 드문 가스보일러와 엘리베이터까지 선망의 대상이었다.

세운상가군은 또 1980년대까지 전기·전자·기계금속 등 제조업 산업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하늘을 찌르던 위세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과 함께 꺾이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명성도 1987년 용산전자상가가 등장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속절없이 빛을 잃어가는 중에 그나마 세운상가군의 위상을 지켜준 것은 진양상가였다. 진양상가는 제조업 중심의 세운상가와 다르게 늘 활기찼다. 3층에 꽃향기로 가득한 꽃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시장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건물 양쪽으로 길게 난 공중 길에는 항상 자동차로 가득했다. 온갖 화환을 실은 트럭들은 카 리프트 앞에 줄 지어 차를 기다렸고, 꽃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과 그 꽃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꽃시장을 둘러보고는 공중 길로 나와 선다. 인적이 별로 없는 길이 썰렁하다. 아마도 김수근은 꽃향기로 활기찼던 진양상가처럼 그런 세상을 꿈꾸

며 세운상가군을 설계했을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과 풍경, 애초에 설계대로 지었다면 이 거대한 건물은 지금도 생생하게 숨 쉬고 있을 것이다.

유리벽을 그려본다. 종로부터 퇴계로까지 이어진 건물의 외벽이 유리벽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장관이리라. 그 투명한 유리벽 속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은 공중정원에서 여유를 즐기며 산책을 한다. 생각만 해도 아름답다. 어둠이 깔리면 환하게 켜진 유리벽의 가로등 불빛이 도시를 물들이리라.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불빛 따라 거니는 사람들.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아니 홀로라도 좋으리라. 이보다 행복한 풍경이 또 어디 있을까.



김수근
대한민국 현대 건축 1세대로 한국 건축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영화 '도둑들'의 무대 진양상가

진양상가를 올려다본다. 화려하게 태어났을 건물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안쓰럽다. 감상적인 위로는 필요 없다는 듯 우뚝 서 있지만 세월은 거스를 수 없는 것, 주변의 첨단 건물 속에 조금은 예스럽다. 하지만 그 맛이 또 좋다. 첨단도 좋지만 이렇게 진양상가처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있어야 미적인 조화를 이룰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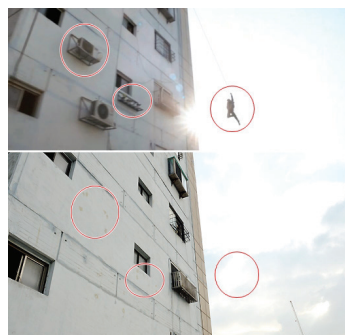
그리고 보니 이 건물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도둑들'의 무대였다. 그것도 영화 후반 클라이맥스인 총격전을 여기서 찍었다.

이 영화는 마카오 박(김윤석)을 비롯한 한국과 중국의 10인의 도둑이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치는 내용이다. 영화의 배경은 부산이지만 촬영은 주로 인천의 아파트에서 했다. 그리고 건물은 서울 진양상가와 대림상가를 활용했다.

영화는 마카오 박의 복수가 시작되면서 절정에 이른다. 홍콩의 직원들



영화 '도둑들' 포스터



영화 '도둑들' 클라이맥스 액션 신
충격전으로 초토화된 진양상가 외벽에 촬영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출처-TV리포트)

과 생사를 넘나들며 벌이는 액션 신. 마카오 박의 부산 아파트 내부에서 시작돼 복도와 계단까지 이어지는 충격전.

액션의 끝판왕은 아파트 외벽 신이다. 무수한 총알 세례를 받으며 유리창을 뚫고 도망친 마카오 박은 건물 외벽을 타고 결투를 한다. 충격에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지고 화분이 폭파되는 등 단 1초의 시간도 주지 않고 퍼붓는 총알 세례를 전깃줄을 몸에 감고 이 집 저 집 창문을 타며 날아다닌다. 만약에 마카오 박의 벽 타기 솜씨를 스파이더맨이 본다면 뭐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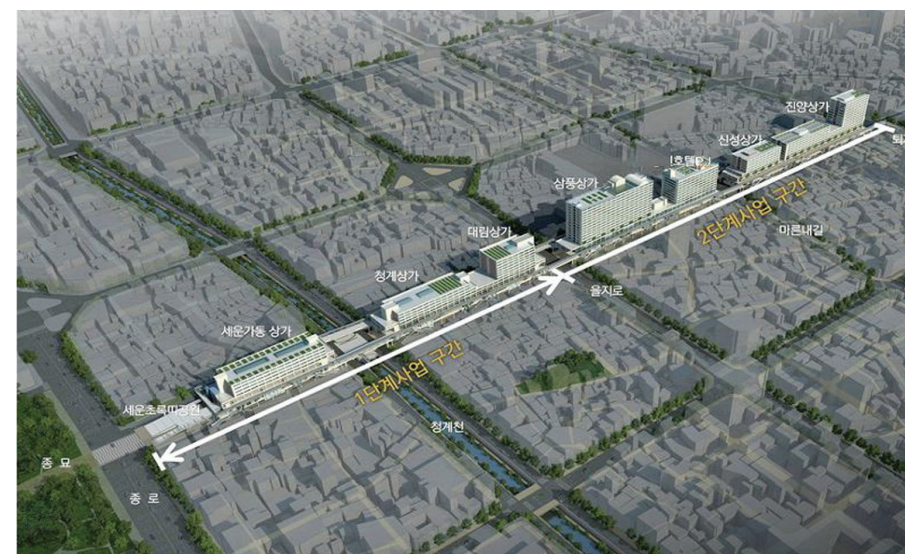
충격전으로 초토화된 건물 외벽, 바로 진양상가 7층이다. 지금도 건물을 자세히 보면 촬영을 하면서 폭파한 흔적이 남아 있다. 충격으로 너덜너덜해진 창문과 에어컨 실외기는 없지만 설치한 자국은 남아 있다. 마카오 박이 몸에 감고 싸웠던 전깃줄도 보존돼 있다.

‘도둑들’에서 진양상가 외벽은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이었다. 영화의 후반부 스토리와 충격전의 배경으로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진다. 건물 외벽이 클라이맥스의 화끈한 액션 신을 살렸다고나 할까. 그런데 진양상가는 이 미친 존재감을 2020년에도 다시 드러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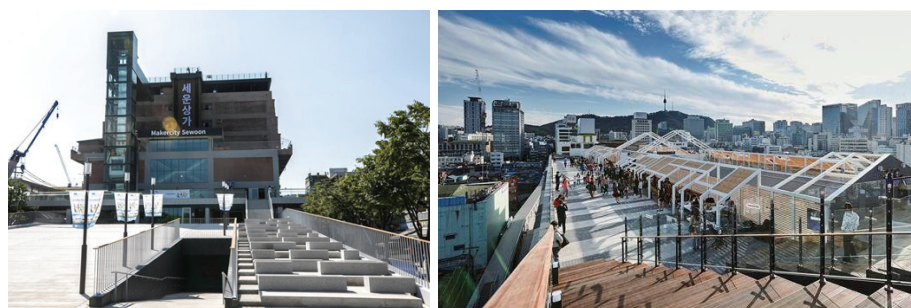
입체보행 랜드마크로 변신하는 진양상가

2020년 진양상가는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보행 재생 · 산업 재생 · 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7개 건물로 이루어진 세운상가군의 지하보도와 지상보행로, 공중보행교를 연결해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서울 도심의 남북 보행 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이름은 ‘세상의 기운을 다시 모아, 다시 걷는 세운, 다시 찾는 세운, 다시 웃는 세운’이다.

2014년부터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2017년 9월에 1단계로 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를 잇는 보행 재생을 마쳤다. 2005년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끊어졌던 세운상가와 대림상가 사이의 공중보행교(세운보행교)를 12년 만에 다시 만들고 양쪽 날개에는 길이 500m, 3층 높이의 보행데크를 설치했다. 대림상가부터 을지로 지하상가까지 바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계단을 새로 만들어 청계천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세운상가 쪽으로 이끌고 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 1·2단계 구간



새 단장을 한 세운상가와 전망대로 탈바꿈한 옥상

현재는 삼풍상가-호텔PJ-인현상가-진양상가를 잇는 2단계 보행 재생을 하고 있다. 2007년에 철거된 대림상가와 삼풍상가의 공중보행로를 다시 만들어 잇고, 삼풍상가와 호텔PJ는 12년 만에 보행데크로 연결한다. 그리고 호텔PJ와 인현상가 사이를 가로지르는 마른내길 위에는 공중보행로를 새로 만든다.

2단계 구간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지명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이탈리아 건축가 조르지오 마르토시아의 ‘열린 도시 플랫폼(A City Open Platform)’을 선정한 뒤 공사를 하고 있다.

2단계 구간의 핵심은 삼풍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데크와 공중보행교 주변의 공공 공간을 재정비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 서울 역사 도심의 중심인 북악산-종묘-세운상가군-남산을 잇는 남북 보행 중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새로이 탄생할 세운상가군

심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2단계 구간은 2020년 11월에 마무리된다. 그러면 세운상가군은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입체보행 랜드마크로 변신한다. 무엇보다 진양상가는 옥외주차장인 3층 서측 데크를 꽃을 테마로 한 공중보행로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인데, 이 보행로가 완성되면 종묘 앞 세운상가에서 남산이 내려다보이는 진양상가에 이르는 1km 구간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보행특별시 서울’을 선포하고 서울 전역에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서울로 7017과 세운상가군의 보행 네트워크도 그 연장선에 있는데,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이 일대를 창의적 제품 생산·판매, 주거, 상업, 문화가 하나로 연결된 ‘메이커 시티(Maker City)’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시절 걸었던 세운상가. 공중에 떠 있는 길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걸곤 했었다. 그러면 때때로 아저씨들이 “학생, 좋은 것 있는데” 하며 붙잡았다. 물론 모른 척하고 계속 걸었다. 어떤 친구는 그 ‘좋은 것’을 사서 들여보니 좋은 것은 없고 그냥 드라마였다나. 피 끓는 학창시절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법 비디오와 야한 책. 그걸 사려고, 사지는 않아도 괜히 기웃거리보고 싶은 호기심. 그래서 세운상가는 한편으로는 어설픈 욕망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런 공간이 진양상가로 가면 다른 모습으로 반겼다. 거기에는 ‘좋은 것’ 대신 꽃이 있었다. 지금이야 알지만 그때는 몰랐었다. 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건물과 건물을 이으며 공중으로 나 있는 길을 걷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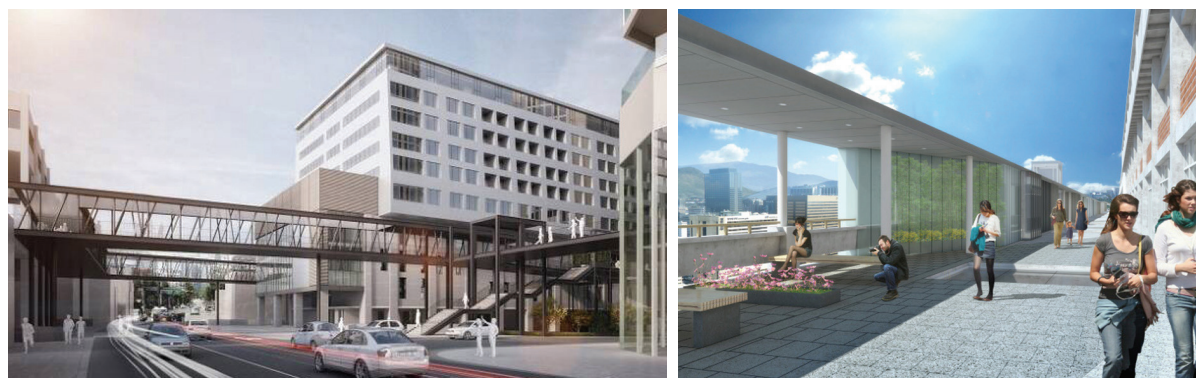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어설픈 욕망의 공간이었던 세운상가 보행길

것도 좋았다. 길 밑으로 바빠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 그 위를 걷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도 재미있었다. SF 영화의 미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중 길을 호젓이 걸었던 그 시절 추억은 잊을 수 없다.

이제 그 길이 다시 난다고 한다. 도심 경치를 즐기면서 일상의 휴식을 취하는 보행테크, 근사할 것이다. 카페와 음식점, 서점 등 젊은 감각의 상점들이 들어서고, 보행테크 밑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큐브'를 설치해 인쇄나 화훼업과 관련한 스타트업 창작 공간이 들어선다. 공방과 전시관, 주민 공동시설도 만든다. 건물 한 층은 아예 전면을 통유리로 입혀 퇴계로 일대를 볼 수 있는 전망대로 한단다.

세운상가군을 설계했던 김수근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분이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 예전의 설계와 지금의 설계가 다르겠지만 '사람길'을 만드는 건 같다.

이제 곧 다시 태어날 진양상가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종묘에서 시작해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그리고 남산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중 길이 완성되면 이 거리는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다. 주름진 이마를 걷어내고 화사한 웃음꽃이 필 것이다.



세운상가군 공중 보행로 조감도
서울 도심과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있다.
(출처-서울특별시)

애완동물의 메카 '애견거리'

꽃으로 특화된 퇴계로의 대명사 진양상가를 지나 애견거리를 거닌다. 이 거리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애견인들이라면 모르는 이들이 없는 애완동물의 메카.

구한말 서울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 조지 길모어는 거리에서 눈에 띄게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있었다고 한다. 바로 개였다.

서울의 한 가지 특징은 개를 많이 기르는 것이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어느 집이고 대문 아래 구멍이 나 있다. 즉 어느 집이고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개들의 행동은 외국인들에게 큰 흥미거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개들이 길거리에서 한국인들은 본체만체하다가 외국인만 보면 꼬리를 감춘 채 도망쳐 문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문구멍에서 보이는 안전한 곳에 서서 지나는 외국인을 향해 무시무시하게 짖는다.

- 조지 길모어의 『서울에서 본 한국』(1892) 중에서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예전에는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적어 놓은 집들이 많았다. 또 개가 드나드는 '개구멍'도 흔했다. 파란 눈의 선교사는 이 개구멍이 신기했나보다. 대문마다 개구멍이 있고, 거리에 셀 수 없이 많은 개들이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한국인들은 본체만체하는 개가 외국인만 보면 개구멍으로 속 들어가 짖는 그림을 떠올리니 빙긋 웃음이 나온다. 무시무시하게 짖어대는 개를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

어느 집이고 한 마리 이상은 개를 기르던 시대는 갔다. 이제는 도심에서 마당에 개를 풀어놓고 키우기가 어렵다. 바야흐로 세월이 흐른 지금은 애완견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퇴계로의 애견거리는 이 애완견 시대를 열었다.

애견거리는 1950년대 서울 명동에 있던 국내 최초의 애완동물센터 ‘애조원’이 명동 개발에 밀려 퇴계로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하나둘 가게가 생기면서 1960년대에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애견거리가 형성되었다.

전성기는 1980년대였다. 당시 정부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적극 추진했는데 이때 자녀를 하나만 둔 부모들이 애완견을 사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거기에 영화의 메카 충무로와 인접한 덕도 톡톡히 보았다. 애완견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영화배우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배우들과 젊은 층들이 찾으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 애견거리는 충무로역에서 퇴계로 4가와 5가를 지나 충무초등학교까지 약 300m에 걸쳐 있었다. 애완견 판매점과 애견센터, 동물병원, 애견미용실, 애견용품 전문점 등 50여 곳이 밀집해 있었고, 시추, 몰티즈, 푸들 등 소형견부터 도베르만, 시베리안허스키 등 대형견까지 모든 개는 다 여기서 볼 수 있었다. 또한 전국의 애완견 거래가 집중되는 경매시장도 3곳이나 있었는데, 애완견과 관련한 모든 시설이 집중돼 있었다.

‘애완견을 사려면 퇴계로 애견거리로 가라’, 그때는 이 말이 공식이었다.



애견거리

이 말처럼 애견거리는 2000년대에 들어설 때까지 화려한 시절을 누렸다. 1990년대까지 전국 반려견 입양 수요의 80%를 감당했고, 2000년대까지 애견 가게 40여 곳과 동물병원, 애견용품점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중구청은 애견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해 이 거



애견거리 축제(2001년)

리를 더욱 활성화했다. ‘애견거리 축제’를 열어 애견인 노래자랑, 훈련견 시범, 애완견 콘테스트, 무료 애견미용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애완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잡아끈 것이다.

그러나 애견거리는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빛을 잃기 시작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와 더불어 ‘펫숍 시대’가 열리면서 그 명성도 바래갔다.

2010년대에 들어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애견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잇달아 ‘반려동물’ 판매에 뛰어들었다.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강아지는 물론 앵무새, 곤충까지 대형 마트에서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2,700여 개(2014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의 펫숍이 들어서면서 애견거리는 쇠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인 지금 반려동물 산업은 소셜 공간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애견거리라는 골목상권이 대기업의 공세로 뿌리째 흔들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 밀려 조금은 썰렁한 애견거리를 지키고 있는 한 가게 앞 유리창으로 푸들 한 마리가 표정도 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다. 복스러운 털이 참 귀엽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반려동물을 거래한다. 그건 그냥 물건을 사는 것이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접시 귀에 소기름이나 소뿔등잔에 아즈카리 기름을 켜는 마을에서는 겨울밤 개 짖는 소리가 반가웁다

이 무서운 밤을 아래웃방성 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있어 개는 짖는다

낮배 어니메 치코에 꿩이라도 걸려서 산너머 국수집에 국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서 개는 짖는다

김치 가재미선 동치미가 유별히 맛나게 익는 밤

아배가 밤참 국수를 받으러 가면 나는 큰마니의 돌보기를 쓰고 앉아 개 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 백석(白石)의 시 '개'

시인의 노래처럼 개 짖는 소리는 정겨웠다. 호롱불 켜는 마을의 겨울밤에는 개 짖는 소리가 반가웠고, 방꾼이 아래웃마을로 다니면서 방(榜)을 외치는 밤에는 개 짖는 소리에 무서움이 줄었다. 한낮에 그물로 꿩을 잡아 국수를 받으러 가는 길에는 덩달아 개도 신나서 짖었고, 김치를 묻어둔 움막의 동치미가 맛있게 익어가는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곧 밤참으로 국수를 가져오는 소리였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던 백구(白狗).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귀여운 강아지를 낳고, 골목으로 동산으로 운동장으로 함께 뛰놀던 백구. 낯선 사람을 보면 멍멍 짖으며 집을 지켰고, 친구들과 싸우면 내편을 들며 짖었던 백구.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개가 있었다. 시골이든 도시든 사람과 개는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펫숍의 시대, '애견'이 아니라 '애완견' 시대다. 애견이든 애완견이든 '사랑 애(愛)'자가 붙은 건 같지만 그 의미는 같지 않다. 펫숍 시대 애완견에는 '개는 가족'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지금 이 거리에는 10여 곳의 가게밖에 없다. 호황을 누렸던 예전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이 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애견' 거리로 남을 것

이다. 이 거리에 훗날 가게가 하나도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개는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말하며 퇴계로의 명소 애견거리로 잊히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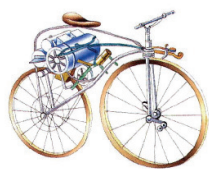
대한민국 오토바이 1번지, 세계 최대 '오토바이 거리'

애견거리와 함께 퇴계로를 대표하는 것은 오토바이거리다. 충무로역부터 퇴계로 6가까지 도로 양쪽과 그 뒷골목까지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오토바이거리는 고가 브랜드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과 국내외 오토바이 브랜드를 비롯해 오토바이와 관련한 부속품과 용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빼곡하다. 약 100여 곳에 달하는 이 상점들은 판매는 물론 정비와 수리, 조립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와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오토바이 1번지'로 통하며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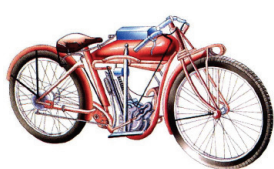
이 거리는 꼭 오토바이를 사려는 게 아니더라도 구경삼아 와보는 것도 좋다.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거리에까지 내어놓은 각종 오토바이를 구경하는 재미는 또 다른 볼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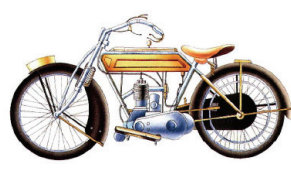
오토바이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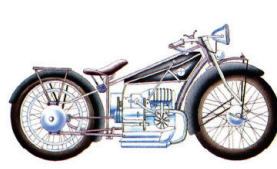
미쇼의 증기 오토바이
(프랑스, 1869년)
(출처-천재교육)



선빔(영국, 1914년)



베엠베(독일, 1923년)



웨스퍼(이탈리아, 1950년대)

오토바이의 명칭은 ‘모터바이시클(motor bicycle)’이다. ‘모터사이클(motor cycle)’, ‘모터바이크(motor bike)’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모터가 달린 자전거’, 즉 가솔린 엔진을 원동기로 장치해 동력을 얻는 자전거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오토바이(オートバイ)’ 또는 ‘바이크(バイク)’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오토바이를 명칭으로 쓴다. 일제의 잔재 같아서 그닥 좋지는 않지만 이미 굳어져 국어사전에도 표준어로 실려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는 동호회 사람들은 ‘바이크’라 한다.

오토바이의 시초는 1869년 프랑스의 미쇼가 개발한 증기기관을 단 오토바이다. 그때는 자전거에 증기기관만 장착한 것이었다. 모터바이시클이란 이름대로 그저 모터가 달린 자전거였다. 최초의 모터사이클은 1885년에 등장한다. 독일의 다임러가 가솔린 엔진을 달아 개발했는데, 실제로는 1900년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생산을 시작하면서 차츰 대중화되었고, 1910년 이후 널리 확산되었다.

오토바이는 남자의 로망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토바이 마니아들은 그 로망을 누리며 스스로를 ‘자유인’이라 말한다.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질주하는 자유, 그걸 즐긴다는 것이다. 때때로 세상이 눈총을 주더라도 아랑곳없이 오토바이를 즐기는 건 바로 그 자유의 맛 때문이라.

그런데 그 로망은 누가 실현시켜주지? 바로 이 오토바이거리다. 자유인이라 자처하는 마니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오토바이는 이 거리에서 탄생한다.

내가 찾는 오토바이, 오토바이거리에 없으면 어디에도 없다

오토바이거리는 1970년대 중구청 뒤쪽에 오토바이 판매상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그때는 가게에 오토바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약이 몰렸고, 사람들은 돈부터 지불하고 순서를 기다렸다.

이처럼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것은 무엇보다 일반 대리점보다 싼 가격에 최신형 오토바이를 팔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거리에 오면 오토바이를 사고파는 것은 물론 수리와 정비까지 요즘 말로 원스톱(one stop)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였다. 여기만 오면 오토바이에 관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어찌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 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오토바이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찾는 오토바이가 퇴계로에 없으면 국내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다.

오토바이거리는 퇴계로 말고도 대전과 대구에도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정비-부품-액세서리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직계열화는 퇴계로밖에 없었다.



골목까지 가득한 오토바이 상점



오토바이거리

한마디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퇴계로 오토바이거리는 감쪽한 50cc 스쿠터부터 대형 오토바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국산 메이커는 물론이고 일본의 3대 메이커 혼다·아마하·스즈키를 비롯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타이완, 중국 등 없는 것이 없다. 100만 원 밑인 저가부터 수작업으로 만든 초고가 오토바이도 있고, ‘오토바이 명가’ 할리 데이비슨도 다양한 모델로 마니아들을 유혹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연예인 마니아들도 이 거리에서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거리도 시대의 흐름은 어찌지 못하고 예전만 같지 않다. 무엇보다 값싼 중국산 오토바이가 쏟아져 들어와 인터넷으로 거래되면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 100만 원 안팎의 저가 제품은 거의가 중국산인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젊은 층은 중국산을 선호한다. 안전을 생각하면 중국산을 멀리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싼값에 사가는 손님들을 어찌할 수 없다. 게다가 인터넷 직거래까지 활기를 띄면서 이 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오프라인 시대가 기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거래는 모든 업종의 판매 구조를 바꾸고 있다. 그러니 시대에 맞

춰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취미삼아 타는 장난감이 아니다. 오토바이는 생명과 직결돼 있다. 무조건 싼 제품만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리와 정비,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거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다. 그런 면에서 이 거리는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결코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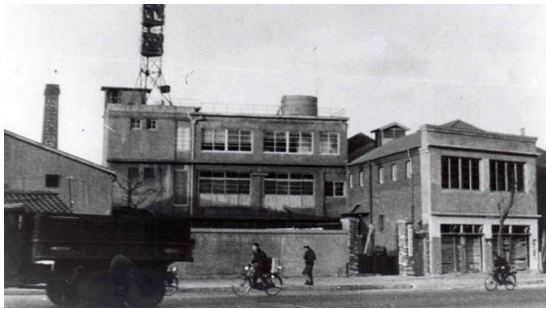
걷기 편한 거리로 변모하는 퇴계로

각양각색의 오토바이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며 늘어선 거리를 걷는다. 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 든다. 특히 퇴계로 4가는 예전 모습이 희미할 정도로 변화했다.

걷다 보니 남산센트럴자이 아파트 앞이다. 그 뒤로는 서울 중구청이 있다. CM송 하나가 떠오른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사먹는 간장 시대를 열며 ‘간장=샘표’라는 공식을 만든 샘표 간장 CM송이다. 라디오 시대였던 1960년대 이 CM송은 전국의 어린이들이 부르고 다닐 정도로 인기였다.

오늘날 간장을 가리키는 보통명사 ‘진간장’은 샘표에서 비롯되었다. 1966년 샘표에서 ‘진하고 구수한 맛을 가진 간장’이라는 의미로 ‘샘표 진간장’을 선보였는데, 국내 1등 간장으로 메가 히트를 하며 시판 간장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굳은 것이다.

샘표 간장은 우리나라에서 상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50년대 이후 진로 소주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 상표다. 샘표 간장을 만든 ‘샘표식품’은 1946년에 창업해 지금의 남산센트럴자이 아파트 자리에 공장을 짓고 장류 전문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1959년에는 도봉구 창동에 제2 공장을 짓고 그때까지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간장을 대량 생산·판매하



사먹는 간장 시대를 열며 장류 업계를 선도한 '샘표 간장' 공장

면서 국내 장류 업계를 선도했다. 이후 샘표식품은 퇴계로에 있던 공장과 본사를 1969년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했다.

샘표 간장이 나올 당시만 해도 가난과 배고픔은 일상이었다. 그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에 날달

걔를 풀어 간장에 비벼먹는 게 최고의 별식이었다. 그런데 집에서 간장을 담가 먹으려면 보통 큰일이 아니었다. 그때 나온 샘표 간장은 식생활을 근대적으로 변화시키며 장류도 누구나 편하게 사 먹는 시대를 열었다.

공장 자리에 우뚝 들어선 아파트가 마치 퇴계로 4가의 랜드마크 같다. 이 거리의 랜드마크 하면 중구청도 빼놓을 수 없다. 건물 전면을 유리로 하여 청사 전체를 열린 마당으로 새로이 단장한 중구청은 서울의 중심답게 중구를 정비하며 글로벌 명품 도시로 만드는 데 한창이다.

중구는 경제·문화·언론·유통의 중추 기능이 집중된 수도 서울의 심장부다. 퇴계로와 을지로, 청계천로, 남대문로, 왕십리길 등 간선도로가 관통하면서 지하철 1~6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주·야간 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거기에 600년이 넘는 역사 도시답게 재래식 가옥과 현대식 고층 빌딩이 혼재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데, 중구청은 이를 재개발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구청은 현재 서울시와 함께 퇴계로를 걷기 편한 거리로 꾸미고 있다. 차로는 줄이고 보행로는 넓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산책하기 좋은 거리로 만들고 있다.



공장이 자리했던 예전 모습을 말끔히 지워내고 변모한 퇴계로 4가 일대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성의 사대문 안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하여 도심 공간을 재편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국 최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이미 새문안로와 종로, 소월로 등의 차로를 줄여 보행로를 넓혔다. 퇴계로 또한 회현역부터 퇴계로 2가까지 1단계 사업을 마쳤다. 지금은 2단계로 퇴계로 2가부터 광희동 사거리까지 1.5km에 이르는 길을 쾌적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먼저 도로는 퇴계로의 왕복 6~8차로를 왕복 4~6차로로 줄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행로가 넓어지는데, 1.2~3m 정도의 보행 공간이 6m까지 넓혀진다. 그리고 여유 공간에는 상인들과 방문객들의 정차 공간을 만든다. 상거래 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진양상가와 애견거리, 오토바이거리 구간에 조업정차 공간 5개소, 이륜차 1개소를 만들고, 버스정류소 부근은 버스가



청사 전체를 열린 마당으로 새로이 단장한 현재의 중구청과 옛 모습

정차하기 쉽도록 보도 쪽으로 들어간 버스베이 공간을 만든다. 또 차도를 건너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했던 진양상가 앞 구간을 비롯해 여러 곳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한다.

새로 조성한 거리에는 따릉이 대여소 4개소와 나눔카 대여점 3개소가 들어선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전용도로도 설치한다.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는 띠녹지로 분리하고, 자전거와 차량 사이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그리고 거리에는 가로수를 추가로 심어 대기질을 개선하고 녹색교통 공간을 조성한다. 또 광희동 사거리의 교통섬은 썸지(소규모)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한양도성 안의 녹색교통 이용 공간을 2배로 늘려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한다는 것이다.

퇴계로는 남대문과 동대문, 남산, 명동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를 연결한다. 그런데 보행로가 좁고 불편해 통행 여건이 썩 좋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퇴계로의 도로 공간 재편사업이 마무리되면 녹색교통으로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적인 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서울로 7017,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되는 도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 완료 후의 퇴계로 조감도
(출처-서울특별시)

로 새롭게 단장돼 조금은 침체돼 있는 진양꽃상가와 애견거리, 오토바이거리도 활기를 찾을 것이다.

8. 예술통, 서애로의 푸른 밤

필동 골목 축제 '예술통'

해마다 가을이면 필동과 서애로는 남녀노소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필동에서는 골목 축제 '예술통(藝術通)'이, 서애로에서는 '서애로의 푸른 밤'이 거리를 신명난 축제로 물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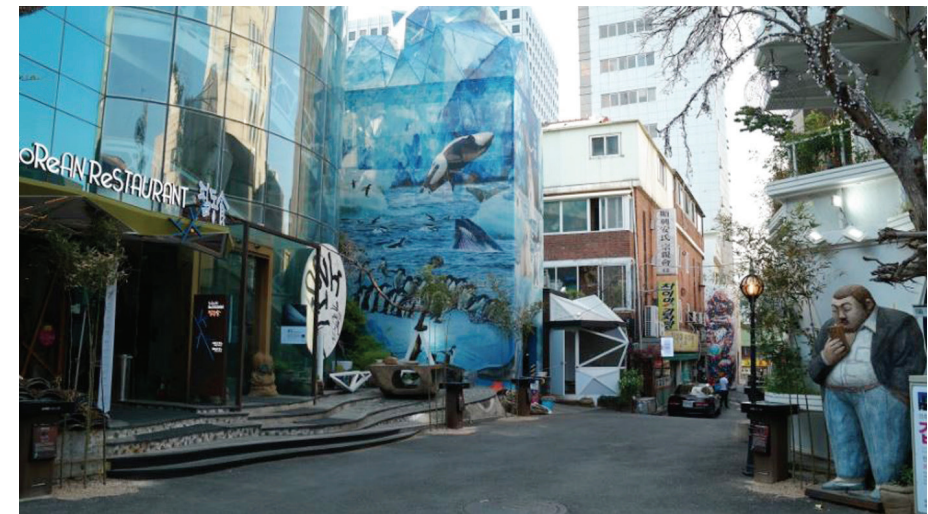
가을은 어디를 가나 축제다. 꼭 축제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기면 그것이 곧 축제다. 거리엔 선선한 바람이 불고 길고도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온 가로수는 저마다 색색의 옷으로 갈아

입는다. 마음도 가을처럼 울긋불긋해지면서 어디 단풍놀이라도 가고 싶다. 하지만 단풍처럼 어여쁜 노을이 지고 밤거리에 하나 둘 불이 켜지며 골목 여기저기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이 축제의 장이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어느 밤 필동으로 들어선다. 느긋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들어가



필동 문화 예술 거리 '예술통'
(사진-서울 중구 블로그 홍보단 권수진)



예술통 삼거리

니 언덕 위에서 화가 셋이 앉아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다. 화가가 시키는 대로 참하게 앉은 손님이 조금 쑥스러운지 배시시 웃는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구경을 한다. 말없이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의 손놀림이 부지런하다. 가을 저녁 기우는 햇살 속에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 고즈넉하다.

그 풍경에 한참을 젖어 있다가 펄쩍 정신이 든다. 다시 걸음을 옮겨 축제의 장으로 들어선다.

골목 곳곳은 축제 이름 그대로 예술통이다. 거리 미술관인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으로 꾸며진 골목을 따라 돌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걷다가 멈추고, 보다가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이 작은 골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골목 한가운데에는 무대가 꾸며져 있다. 축제는 역시 음악이 있어야지!



선비의 마을 필동 골목에 피어난 예술꽃

선비의 마을 필동에서 축제를 열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주민들이 스스로 ‘예술통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중구청이 후원하는 가운데 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축제를 열었다. 그러니까 필동 축제는 관에서 주도해 만든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필동 축제는 골목 축제다. 광장이 아니라 중구 필동 24번가 골목 일대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름은 골목이 아니라 광장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예(藝)와 술(術)이 통하였느냐’, 그리하여 축제 이름이 예술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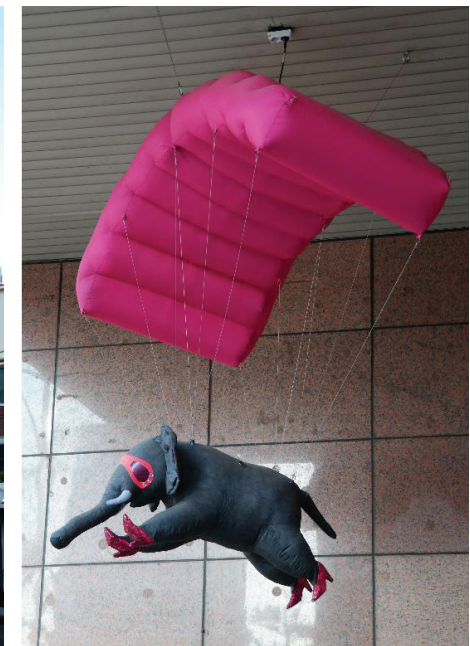
제1회 필동 골목 축제 예술통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미술·음악·문학·음식 4가지 테마로 열렸다. 첫 축제부터 선비 마을 필동 골목골목에 예술인들이 몰려들었는데, 120여 명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필동의 역사에 현대적 감각을 입혀 골목마다 어울리는 테마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골목문화예술’을 탄생시켰다.

그 중 눈길을 사로잡은 테마는 필동 골목을 전시 공간으로 만든 미술이었다. 필동의 경사진 골목길과 남산골 한옥마을 골목 자투리에 전시 공간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킨 스트리트 뮤지엄 8개를 설치하고 미술 작품을 선보였다. 이정운 작가의 ‘하늘을 나는 코끼리’, 사공영환 작가의 ‘연필벽화’ 등 예술가들의 작품이 필동 거리와 벽을 채우고 사람들 발길을 붙잡았다.

실제와 가상을 넘나드는 한성필 작가의



한성필 작품 'Let me introduce our pol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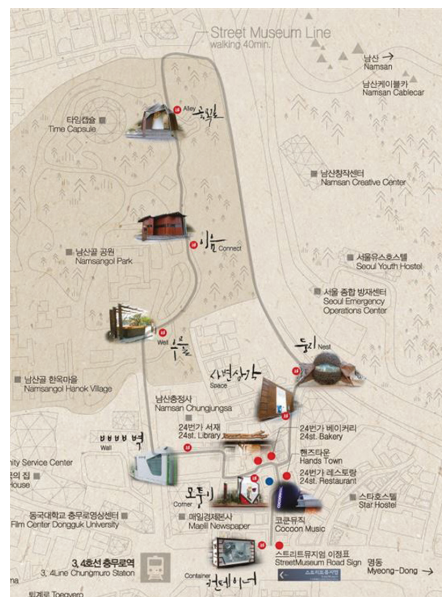


이정운 작품 '하늘을 나는 코끼리'

‘파사드’, 국내외 주요 미술관 전시와 미디어 어워드 대상을 휩쓴 박제성 작가의 건물을 배경으로 펼친 대형 미디어 작품은 압권이었다. 강병인 작가의 ‘캘리포퍼먼스’, 김종구 작가의 ‘씻가루 산수화’, 강주리 작가의 ‘볼펜드로잉’ 등 필동 골목을 장식한 작품들 또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그냥 가게 놔두지 않았다.

미술이 눈을 즐겁게 했다면 음악은 귀를 흥겹게 했다. 세속을 벗어나 풍류를 즐겼던 옛 선비 마을답게 음악도 골목길을 흠뻑 적셨다. 재즈와 클래식, 사물놀이, 비보이, 비트박스 게릴라 공연 등 장르도 다양했다.

특히나 다양한 문화협업을 지향하는 공연장 ‘코쿤뮤직’은 관객들을 음악의 세계로 푹 빠지게 했다. 박재천의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첼리스트 김규식, 정가 정마리, 피아니스트 김지애를 비롯한 뮤지션들이 흥을 돋웠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도 월드투어 도중에 먼 길을 날아와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제1회 필동 골목 축제 예술통 지도(2016년)



코쿤홀
특이한 조각과 벽화, 장식들로 꾸며진 코쿤홀은 외관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사진-서울 중구 블로그 홍보단 권수진)



남학당
예술통 안내 센터를 겸하고 있는 남학당은 예술통 관련 가이드도 해준다.
(사진-서울 중구 블로그 홍보단 권수진)

문학은 축제를 찾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예술을 함께 나눴다. 조선의 중등기관인 남학당 터였던 필동의 역사를 살려 '24번가 서재 남학당'을 열고 문인들과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펼쳐졌다. 특히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유명한 김난도 교수는 남학당에서 서재를 전시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잼마 교수의 미술 강연 '예술과 세상이 소통하는 이야기', 한국 전통주의 대가 박록담의 한국 술에 대한 역사와 스토리 '한국 전통주의 철학과 나눔의 미학'은 색다른 재미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와인전문가 장홍 박사의 릴레이 강연, 세계적인 작가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과 '인생학교'를 운영 중인 손미나 아나운서의 '쿡 톡 여행의 기억', 우리의 문화예술을 이어가는 조태권의 '문화톡' 등도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빠지지 않았다. 필동 중심에 자리한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펍 등 F&B 전문점들은 축제 내내 다양한 먹거리와 마실 거리를 제공했고, 커피의 명품으로 알려진 '루소커피'에서는 무료 커피

로 즐겁게 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누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한 필동 축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소통'으로 문화를 전파했다. 단순히 보여주는 축제가 아니라 주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이벤트였다. 아티스트와 관객이 만든 드로잉 파우치, 밴드와 관객이 함께 연주한 팝업뮤직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경매한 미술 옥션과 더불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건물을 이용한 침단 영상 쇼, 거리의 불빛과 소음으로 함께 만들어낸 작품들은 축제를 찾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흥겨운 예술 마을 필동

올해도 축제는 흥겹다. 특히나 올해는 가을에 해서 운치까지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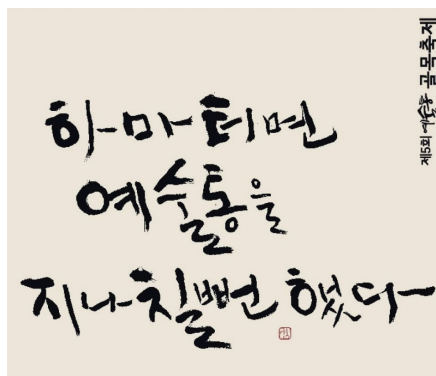
한 아티스트가 병을 세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밸런싱 아티스트 변남석,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쓰러질 듯 위태위태한 병들을 균형을 잡아가며 세운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바람이 불어도 오로지 병에만 집중한다. 퍼포먼스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온다. 병을 세울 때는 오



예술통 안내 센터
(사진-서울 중구 블로그 홍보단 권수진)



곳곳에 예술로 가득한 예술통 골목
(사진-서울 중구 블로그 홍보단 권수진)



제5회 필동 골목 축제 예술통 포스터(2019년)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우는 신명난 풍물놀이
(출처-예술통 페이스북)

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무조건 된다는 믿음으로 공연을 한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그는 믿음으로 병을 세우는 퍼포먼스로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어디선가 바비큐 냄새가 코를 찌른다. 뿌리치지 못하고 밤늦도록 신나는 골목 테이블에 앉는다. 가슴까지 시원한 맥주 한 모금에 바비큐 한 점, 세상 부러울 게 없다.

필동 축제 예술통은 지난 3년간 이 골목을 확 바꿔놓았다.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 만들었던 스트리트 뮤지엄은 그대로 있다. 몇 개가 더 늘어난 스트리트 뮤지엄은 이제는 필동 골목을 상징한다. 공연장과 남학당 서재도 지금까지 고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공연과 강연이 이어져 문학과 미술, 음악의 향기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



골목 축제 예술통 공연과 퍼포먼스

필동(筆洞)은 조선시대 한성부 5부 중 하나였던 남부의 부청이 있어 부동(部洞)이라 하였다. 그런데 부동을 ‘붓동’으로 읽으면서 ‘붓골’이 되었고, 이를 ‘붓 筆’자로 잘못 표기하면서 이름이 유래했다.

하지만 어쩌랴, 이제 필동은 그야말로 붓 筆자의 동네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의 문예의 장이었고, 현대에 와서는 충무로와 더불어 영화예술인들의 전성시대를 연 무대였다. 그리고 지금은 골목마다 아티스트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예술 마을이 되었다.

옛 선비의 마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로운 골목문화를 꽃피운 필동. 전시관이나 갤러리, 박물관처럼 한정된 공간이 아닌 작은 동네 골목을 예술 공간으로 승화시킨 필동의 골목 축제는 필동처럼 역사성을 지닌 다른 동네의 잠들어 있는 예술혼을 깨울 것이다.

청춘이 빛어내는 ‘서애로의 푸른 밤’

필동의 골목 축제 예술통이 아티스트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축제라면 서애로를 대표하는 축제 ‘서애로의 푸른 밤’은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젊음의 축제다.

서애로(西厓路)는 중구 충무로 5가부터 필동 3가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다. 길이는 375m로 그리 길지 않다. 도로명은 남산골에 살았던 유성룡의 호 ‘서애’를 따서 지었다.

청춘이 빛어내는 축제 서애로의 푸른 밤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와 ‘서애길상인회’가 2015년부터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 서애로에서 젊음을 발산하는 학생들이 서애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들과 뜻을 모은 것인데, 해마다 가을에 동국대학교 축제인 ‘대동



서애길 안내판



'서애로의 푸른 밤' 포스터(2018년)



젊음을 발산하는 '서애로의 푸른 밤'

제'와 맞추어 축제를 연다.

축제는 동국대학교 후문부터 서애로 삼거리까지 거리에서 펼쳐진다. 이 거리는 중구에서 전선 지중화와 함께 차도를 줄여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보행 공간을 늘려 걷기 편한 길로 조성한 구간이다.

축제가 열리면 서애로는 푸른 청춘의 광장으로 변신한다. 캠퍼스 밖으로 나온 학생들의 재기 넘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상인들의 넉넉한 할인 이벤트가 더해져 그야말로 젊음의 광장이 된다. 축제의 내용도 해마다 업그레이드되어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축제는 학생 동아리에서 준비한 힙합·밴드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동국대 학생들이 자유롭게 끼를 발산하는 '동국 잭탈런트'로 서애로의 가을 밤을 달군다. 저녁에는 다채로운 메인 공연이 펼쳐지면서 절정으로 치닫는



서애로의 푸른 밤

각종 이벤트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재미를 더하고 상인회에서는 음식을 제공한다.

다. 학생들이 준비한 자유 공연과 뮤지션들의 공연, 초대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로 뜨거운 열기는 밤새 식을 줄 모른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는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가죽 공예, 수제 쿠키, 천연 비누 만들기, 네일 아트 등 무료 체험 부스도 열고, 동국대 동아리는 폴리마켓을 운영한다. 더불어 서애로에 있는 상점들은 축제 동안 30% 할인 이벤트로 풍성한 먹거리를 책임진다.

대학생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신나게 노는 축제, 세대를 허물고 즐기는 축제. 그리고 보니 필동은 축제 풍년이다. 가을이면 두 번이나 축제를 여니 참 넉넉한 동네다.

아스팔트 걷어내고 '대학문화거리'로 변신한 서애로

서애로는 축제가 아니더라도 젊음의 거리로 변신중이다. 중구는 현재 서애로를 '대학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애로를 제2의 대학로로 만든다는 목표로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시설을 들여 서애로를 중심으로 남산골 한옥마을, 충무로, 동국대학교를 한데 묶어 학생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



말끔하게 새단장한 서애로



대학문화거리로 탈바꿈한 서애로

겨 찾는 명소로 만들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서애로를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한 뒤 도로 환경을 개선해 서애로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리 확 달라졌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있는 구역 등을 선정해 차도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히는 식으로 도로를 개편했는데, 그 결과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했다.

서애로는 원래 양방향 차로였다. 이를 1차로 일방통행으로 축소하고 보행로를 배 이상 넓혔다. 이전에는 차로가 7이고 보행로가 3이었다면 지금은 보행로가 7이다. 뿐만 아니라 전봇대처럼 걷기를 가로막는 것들도 싹 치웠다.

걷는 길이 넓어지니 길 전체가 환하고 예쁘다. 사람들도 여유 있고 편하게 보인다. 서애로는 그렇게 알려진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젊음의 축제를 열면서 청춘 남녀들의 데이트 코스가 되었다. 보기만 해도 멋지고 근사한 카페와 상점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골목상권도 살

아나고, 희망과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와 동네가 밝은 기운으로 반짝인다.

도로를 걷기 편한 길로 바꾸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도로 하나를 사람의 길로 만들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부른다. 숨 가쁜 일상에 눌러 별 것 아닌 일에도 뽕뽕 소리를 내며 달리는 자동차 대신에 미소 띤 얼굴로 걷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사람의 향기 은은하게 퍼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들이 들어선다. 그러면서 누리는 소박한 기쁨, 작지만 큰 일상의 행복.

좋은 길은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런 길이 많아야 좋은 도시다.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없는 길, 그런 길이 많은 도시는 아무리 크고 화려하도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다.

걷기 좋은 길로 다시 태어난 서애로는 지금 활기에 차 있다. 넓고 오래된 길이 사람의 길로 변하면서 동네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이 길은 이제 머지않아 대학로와 홍대 앞처럼 대학문화거리로 거듭나 파릇한 청춘들이 숨 쉬고 노니는 공간이 될 것이다.

9. 한국 대표 · 최초 · 원조가 많은 퇴계로

한국 침례교단의 모교회 '서울침례교회'

동국대학교 후문에 자리한 파riba게트부터 서애로를 따라 걷는다. 서애로의 푸른 밤 축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름도 잘 지었다. 서애로의 푸른 밤, 참 시적이며 낭만적이다. 이름에 젊은 청춘들의 낭만이 물씬 묻어난다.

그 옛날 선비들이 거닐었을 이 거리를 이제는 학생들이 걷는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선비와 학생도 같을지니, 조화롭기도 하다.



서울침례교회

느긋하게 걷다보니 서애로 끝자락 퇴계로 4가 교차로다. 오래된 교회가 눈에 들어온다. 서울침례교회다.

퇴계로에는 광희문 같은 역사유적도 많지만 유서 깊은 교회도 많다. 그 중 서울침례교회와 경동교회, 광희문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다.

서울침례교회는 원산에서 월남한 안대벽·이순도 부부가 1946년 9월 자택(필동 2가 101-1번지)에서 수요예배를 보면서 시작되었다. 그해 12월에는 장일수 목사를 초빙해 '필동침례교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1949

년 9월 미국 남침례회 코우던(B. J. Cauthen) 박사가 한국 침례교회의 실정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입국해 한국 침례회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대한기독교침례회 서울필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서울필동교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 '부산충무로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보았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서울로 올라와 미군 침례교 종군목사들과 한국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1954년 12월 지금의 건물을 준공하고 '서울침례교회'로 개칭했다.

서울침례교회는 남침례교단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교회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단의 모교회(母教會)라 할 수 있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서울침례교회는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래는 세계'라는 표어 아래 1974년 종로침례교회를 시작으로 답십리교회·미아리침례교회·선천침례교회·남서울침례교회·시온침례교회 등의 지교회를 설립하며 한국 침례회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한국 교회의 토착화운동을 선도한 '경동교회'

광희동 사거리 인근에 자리한 경동교회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김재준(金在俊) 목사가 설립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대표적 교회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국 개신교 교파 중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받는다. 경동교회는 한국 교회의 청년운동과 토착화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을 주도한 교회로 유명하다.

경동교회의 시작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김재준 목사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인수한 일본 천리교 건물(장충동 1가)에서 예배를 보면서부터다. '선한 이웃이 되는 형제들'



경동교회

이란 뜻을 가진 '선린형제단(善隣兄弟團)' 단원들과 이북 출신의 학생, 청년 30여 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 교회 이름은 '성(聖)야고보 전도교회'였는데, 1947년 '서울의 동쪽에 있는 교회'란 뜻의 경동교회(京東教會)로 이름을 바꾸었다.

경동교회는 1958년 김재준 목사를 이어 강원용(姜元龍) 목사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운동가이기도 한 강원용 목사는 1959년 '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를 결성하고 1960년 4·19혁명 때는 청년들과 의거에 참여하는 등 197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 인해 김재준 목사와 강원용 목사는 물론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탄압을 받았는데, 1976년 청계천 노동자를 위한 야학 설립, 1990년 경동도서실 개관, 1993년 어린이집 개원 등 굴하지 않고 시민사회운동을 펼쳐나갔다.

경동교회는 또 한국 교회의 토착화운동을 선도했다. 1974년 추석 때는 강강술래 합창과 탈춤을 추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1995년에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전통식으로 디자인한 예배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996년에는 기존의 찬송가와 전통 찬송가를 묶은 '경동찬송가'를 출판했다. 또한 통일운동에도 적극 나서 1995년 교인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인간띠잇기대회'를 열었다.

경동교회는 독특한 건축미로도 유명하다. 지금의 교회는 옛 건물을 허물고 1980년부터 이듬해까지 새로 지었는데, 교회라면 서양의 고딕 건축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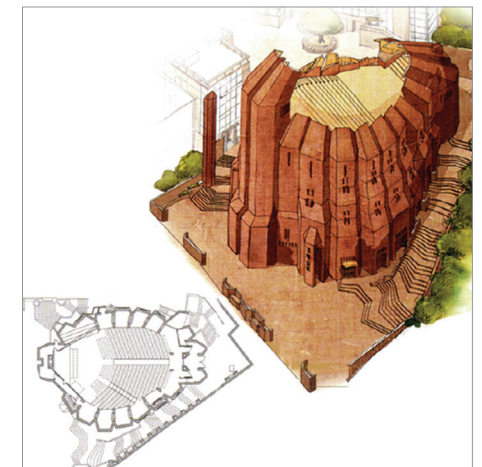
식부터 떠올리는 고정관념을 깨버린다. 건고한 성채 같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는 이 건물은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주자 김수근의 작품이다.

이 건물의 특징은 밖에서 십자가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물은 기도하는 손 모양처럼 보이고 건물 입구는 뒤로 돌아가야 나온다. 건물 바깥뿐 아니라 내부도 평범하지 않은데, 교회 안 정면의 거대한 십자가와 어두침침한 분위기는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을 연상시킨다.

김수근은 포근한 어머니의 모태를 경동교회를 통해 형상화했다고 한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마치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기 바랐던 것이다.

교회 곳곳에 김수근의 공간철학이 묻어 있는 경동교회는 김수근이 두 번째로 설계한 교회 건축이다. 김수근은 마산의 양덕성당, 경동교회, 불광동성당을 설계했는데, 그의 종교 건축은 오랫동안 한국 교회 건축의 전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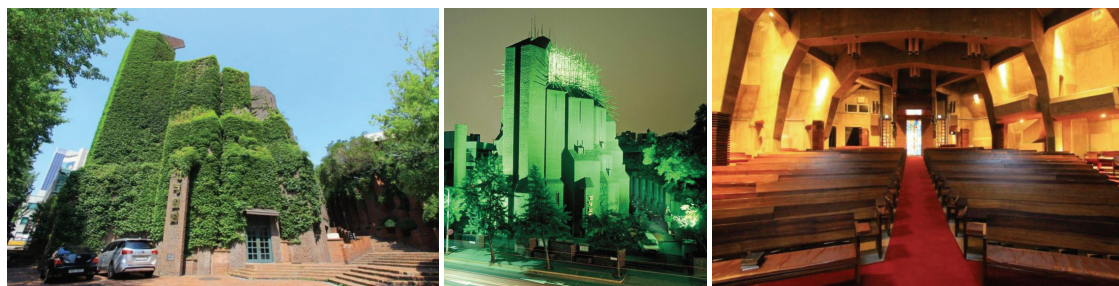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 물음과 응답으로 행동했던 경동교회.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의 도심에서 오늘도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는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한 경동교회 단면도
(출처-경동교회)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광희문교회'

시구문시장을 조금 지나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광희문교회는 남감리교에서 서울에 가장 먼저 세운 감리교 교회다. 1897년(고종 34년) 미국의 선교사 리드(Reid, C. F.)가 세운 이 교회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한국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꼽히는 경동교회 내·외부



광희문 성곽에서 바라본 광희문교회

광희문교회의 산실은 선교사 리드의 사택이었다. 1895년 한국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한 리드는 1897년 경기도 고양에 교회를 설립하고 사택에서 처음 예배를 보았는데, 이는 광희문교회의 시발이었다. 이후 리드는 서울에서 가옥을 사들여 수리한 뒤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업을 펼쳤다. 교세가 확장되면서는 1904년 오장동으로 이전해 ‘수구문교회’를 세웠고, 1916년 광희동에 아담한 양옥 2층 교회를 새로 짓고서 1924년 광희문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광희문교회는 민족 항일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던 1942년 일제의 종교 탄압으로 담임목사 전효배가 검거되고 강제 폐쇄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해 1956년 지금의 자리에 교회를 신축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광희문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청소년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업도 활발하게 펼쳤다. 1911년 광희문여학교를 설립해 청소년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학교는 훗날 배명중고등학교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제일병원’

해마다 새해 첫 아침이 밝아오면 제일 먼저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다. 12월 31일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이 울리면 1월 1일 제일 처음 태어나는 아기를 보여주는 뉴스다.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언론을 장식한 새해 첫 아기는 ‘제일병원(第一病院)’에서 낳은 아기들이었다.

제일병원은 서울침례교회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1963년 12월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으로 개원했다. 처음에는 ‘제일산부인과의원’이었다. 20개의 병상을 갖춘 작은 개인병원이었다. 1980년 4월에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11월 의료법인이 되었다. 이후 1996년 삼성그룹에 편입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제일병원으로 독립했다.

제일병원은 1987년 11월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를 분만한 병원이다. 사립병원으로는 드물게 시험관아기연구·유전학연구실을 설치해 임상과 의학 연구를 꾸준히 한 결과였다.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 지원병원으로 지정되었고, 1990년에는 헌혈혈액원을 개설해 국민건강 진흥에 기여했다.

1999년부터는 산부인과 외에도 내과·일반외과·소아과·성형외과·정형외과·안과·피부과·신경정신과·비뇨기과 등 10개 과목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제일병원은 사단법인 서울부인암센터를 설치해 여성 암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연 병원이다. 시험관아기 시술과 쌍태임신



제일병원



제일병원 ‘여성암센터’

(쌍둥이) 시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다른 산부인과에 비해 노령의 산모들이 많이 찾았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전국의 산부인과 중에서 분만건수 1위를 지켰다. 또 드라마 ‘대장금’으로 한류문화 열풍을 일으킨 배우 이영애도 이 병원에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런 인연으로 오랫동안 제일병원 홍보모델로 활동했다. 그만큼 이 병원은 한국 여성 병원의 선구자였다.

고향의 맛 살아 있는 ‘오장동 냉면거리’

발길 따라 둘러보니 출출하다. 어디로 가서 한 끼를 해결할까 고민할 것도 없이 오장동 냉면거리로 향한다.

오장동 냉면거리는 중구청 사거리와 오장동 사거리 중간에 있다. 오장동(五壯洞)은 옛날 이곳에 힘이 센 다섯 장사가 살았다고 해서 ‘오장삿골’이라 불렀다. 동명은 여기서 유래하는데, 이런 곳에 냉면거리가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오장동은 전쟁이 끝나고 월남한 실향민들이 많이 살았다. 집이며 살림살이며 모든 것을 북에 두고 맨손으로 월남한 사람들은 어떡하든 살아야만 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 해먹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 중 하나가 냉면

이고, 1953년부터 함흥식 냉면을 팔던 집이 ‘홍남집’이다. 그러니까 오장동 냉면거리를 만든 원조인 셈이다.

홍남집과 함께 ‘오장동 함흥냉면’도 유명하다. 함흥에서 피난을 와서 함흥냉면집이다. 1958년 이름도 없이 시작했지만 함흥냉면을 잘하는 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집의 조리장이 독립해 차린 ‘신창면옥’도 빠지지 않는 맛집인데,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홍남집



오장동 함흥냉면



오장동 신창면옥

오장동 함흥냉면은 일반적인 함흥냉면과 맛이 다르다. 함흥냉면은 보통 홍어회무침을 얹은 매콤한 회냉면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장동 함흥냉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면에 가오리 양념 회무침을 고명으로 얹는다. 그래서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다르고, 참기름과 식초, 겨자, 양념장 등을 입맛에 맞게 넣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거기에 사골을 우려 만든 구수한 육수를 곁들여 마시면 냉면으로 차가워진 속이 따뜻해지면서 맛이 더욱 살아난다.

오장동 냉면거리는 2015년 케이블 채널 tvN의 ‘수요미식회’에 홍남집이 소개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탔다. 수요미식회 제작진은 방송이 끝나고는 공식 페이스북에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가장 맛있는 함흥냉면집’이라고 극찬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희망으로 실향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진 고향의 맛이니 당연할 터, 이런 맛을 놓치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

10. 퇴계로 대표 역사유적 광희문

물이 나가는 '수구문', 상여가 나가는 '시구문'

퇴계로의 대표적인 역사유적 광희문(光熙門)은 한양도성 팔대문의 하나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백악산(북악산)과 낙타산(낙산), 목격산(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한양도성을 쌓았다. 전체 길이가 18.627km에 달했는데, 구한말 근대화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평지 구간의 성벽은 대부분 철거되고 지금은 13.370km의 성벽만 남아 있다. 하지만 세계에 남아 있는 수도 성곽 중 가장 길다.

자연의 형상과 일체화하여 지은 한양도성은 사대문(四大門)과 사소문(四小門) 등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8개의 성문을 두었다. 사대문은 도성의 큰 성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돈의문(敦義門)·숭례문(崇禮門)·숙청문(肅淸門)이며, 사소문은 홍화문(弘化門)·소덕문(昭德門)·광희문·창의문(彰義門)이다. 사대문의 동·서·남 세 문은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仁義禮智)에서 이름을 지었고, 북문인 숙청문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이름을 지었다.

광희문은 1396년(태조 5년)에 지었다. 1711년(숙종 37년)에 고쳐 쌓았고, 1719년(숙종 45년)에는 문루를 짓고 광희문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광희문은 수구문(水口門) 또는 시구문(屍口門)이라고도 한다. 수구문은



광희문

이름 그대로 도성의 물이 나가는 문이라는 뜻인데, 남산에서 발원한 계곡 물이 지대가 낮은 광희문 일대로 흘러나갔기 때문이다.

도성의 모든 하수 모여드는 곳 (國城有尾閭)

조그만 바위 구멍 광희문일레 (光熙小石竇)

사람의 혈맥 같은 수많은 개천 (溝瀆如縢絡)

밤낮으로 이곳을 새어나가고 (日夜此中漏)

- 정약용 『다산시문집』 1권, '동성의 노래(東城吟)'

도성의 모든 하수가 모여드는 곳 광희문, 사람의 혈맥 같은 수많은 개천의 물이 광희문을 통해 나간다고 했다. 이를 보면 광희문이 왜 수구문이며, 그 기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다.

광희문의 또 다른 이름 시구문은 시신이 나가는 문이라는 뜻이다. 광희문은 '빛 光' 자에 '빛날 熙' 자를 써서 이름 그대로 '빛나는 광명(光明)의 문'



1890년대의 광희문



1900년경 광희문 밖 공동묘지

이다. 이처럼 빛나는 광희문이 시구문으로 불린 까닭은 상여가 나가는 ‘저승문’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금령(禁令)을 내려 상여는 사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상여나 시신은 소의문과 광희문으로만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광희문을 통해 나가는 시신은 신당동, 왕십리, 금호동 방면에 묘지를 잡았다. 그래서 광희문 밖 신당동 일대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고, 신당(神堂)을 중심으로 무당촌을 이루고 있었다. 신당동 지역을 흐르는 신당천(新堂川)을 중심으로 무당들이 많이 살았는데, 신당천은 응봉(鷹峰)에서 흘러 내

려와 청계천에 합류하는 지천이었다.

신당천은 원래 동활인서천(東活人署川)이었다. 조선 후기 신당동에 동활인서가 자리하여 그렇게 불렸다. 신당천은 1950년대부터 불렀는데, 이 지천변의 약수동에는 위장병에 효능이 좋은 약수가 있어 약수천(藥水川)이라고도 불렸다. 신당천은 응봉에서 시작해 다산로를 따라 흘러 신당동 떡볶이골목, 무학동을 지나 광희초등학교 앞, 성동공업고등학교 서쪽을 거쳐 청계천으로 흘러갔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광희동 1가와 광희동 2가를 연결하는 다리를 ‘무당다리’라 불렀다. 이 일대에 무당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현재의 신당동은 원래 한자는 ‘神堂洞’이었는데 갑오개혁 때 지금의 표기인 ‘新堂洞’으로 ‘신’자가 바뀌었다.

광희문 밖은 처음에는 민가가 별로 없었다.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니 그

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세종 때부터였다.

한성부에서 계하기를,

“도성 안에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서 대체로 집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딴 사람이 일찍이 받은 땅을 혹은 빈 터라 하며 혹은 집 짓고 남은 땅이라 하여, 백단(百端)으로 다투어서 송사가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동대문 쪽 수구문 바깥에 있는 집 짓기에 적당한 곳을 남대문 바깥 반석방(盤石坊), 반송방(盤松坊)의 예(例)에 의거하여, 본부(本府)에서 호조와 함께 살펴, 한계와 동리 이름을 정해서 집 없는 사람에게 떼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1424년(세종 6년) 4월 18일

이를 보면 도성의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백성들이 살 집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광희문 밖에 민가를 이루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 백성들에게 집터를 나누어주자고 청을 한 것이다. 세종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 동대문과 광희문 밖의 땅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살도록 했다. 이렇게 형성된 민가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갔다.

광희문에 어려 있는 숨은 이야기들

광희문은 역사적 사실 말고도 숨은 이야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광희문은 한때 성돌의 돌가루가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다. 광희문이 시신을 내보내는 문이다 보니 죽은 이들의 병으로 단련되어 광희문 돌가루가 영험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한양으로 올라가는 이들이 있으면 광희문 돌가루를 긁어오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광희문과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성벽에는 오간수문(五間水門)이 있었다. 도성의 물이 흘러 빠져나가는 수문이었는데, 문이 5칸으로 이루어져 오간



오간수문

수문이다. 이 수문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쇠창살로 막아놓았지만 도둑이나 죄인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의적으로 꼽히는 임궁정도 관군에 쫓길 때 이 수문으로 도망을 잤다.

양주 백정 임궁정은 연이은 흉년에도 관리들의 수탈이 누그러들지 않자 무리를 이끌고 황해도 구월산 등지를 소굴로 삼아 의적이 되었다.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관아와 한양의 부잣집을 털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양은 물론 전국 5도를 다니면서 관군을 괴롭히며 민심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자 명종은 각 도에 임궁정을 잡는 책임자를 임명하고 거짓 보고를 한 군사들은 사형에 처하면서까지 임궁정을 잡아들이라고 독려했다.



모형으로 복원한 오간수문

임궁정이 조그마한 도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도 오래도록 법을 피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치욕만 당하고 쉽게 잡지 못하니, 이는 오로지 경외(京外)가 무비(武備)를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1561년(명종 16년) 12월 18일 명종이 각 도에 무예를 단련하라며 내린 전교다. 임궁정이 출몰하는 황해도는 물론이고 평안도와 함경도, 강원도, 경기도 등 각 도에 대장을 한 명씩 임명하고서 임궁정을 책임지고 잡으라 하였는데도 번번이 놓치고만 있으니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임궁정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전옥서(典獄署)를 습격해 옥에 갇힌 가족을 구출하고는 관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오간수문으로 빠져나갔다. 창살로 막혀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수문이었지만 힘이 장사인 임궁정에겐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다.

명종실록에 임궁정은 '대적(大賊)'이라 쓰여 있다. '국가에 반역한 큰 도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궁정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임궁정을 의적(義賊)이라 불렀고, 임궁정이 나타나도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고석정

임궁정은 '임거정(林巨正)' 또는 '임거질정(林居叱正)'이라고도 한다. 고석정은 임궁정이 은거했다는 곳으로 훗날 임궁정을 기리는 이들이 정자를 지었다.



조선일보에 연재된 임궁정 제1회(1928년 11월 21일)

숨겨주었다.

하지만 임꺽정은 끝내 붙잡히고 말았다. 관아와 부잣집을 터는 도적이 임꺽정이라고 정체가 밝혀진 지 3년 만이었다. 그렇게 체포된 임꺽정은 15일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임꺽정이 죽은 뒤에도 백성들은 의적으로 떠받들며 무수한 이야기를 낳았다. 이러한 임꺽정을 벽초 홍명희는 대하장편소설로 재미있게 풀어냈는데,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 『임꺽정』이다.

오간수문은 동대문에서 을지로로 가는 성벽 아래 청계천 6가에 있었다. 지금의 오간수문은 2003년 청계천 역사유적을 발굴하면서 그 이듬해에 복원하여 재현해 놓은 것인데, 이곳을 지날 때면 관군을 따돌리고 사라진 임꺽정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벽초 홍명희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설 『임꺽정』
소설 『임꺽정』은 현재 새로이 출판돼 판매하고 있다.

인조가 피신한 통한의 문

광희문은 통한의 문이기도 했다. 광희문은 왜국(倭國) 사신이 드나들던 문이었다. 서울을 왕래하는 외국 사신들은 팔대문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했다. 조정에서 지정한 문으로만 출입했다. 조선의 정문인 숭례문은 중국



병자호란 항전도



남한산성(남문)

사신만 드나들 수 있었고, 왜국 사신은 두무개(豆毛浦, 지금의 옥수동) 나루로 한강을 건너 광희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 수 있었다.

이처럼 왜국 사신이 드나들던 문이어서 그랬을까, 병자호란 때 인조는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다.

병자호란은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굴욕의 역사였다. 1636년 12월 청나라 태종은 2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다. 명분은 조선이 정묘호란(1627) 때 약조한 형제지맹(兄弟之盟)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조선을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조선은 오랑캐와의 형제지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청나라가 군신지의(君臣之義)까지 강요하자 화친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청나라 태종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온 것이다.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한양 근교에 이르렀다. 그러자 인조는 강화로 몸을 피하려고 숭례문까지 나왔는데 이미 청군이 이르렀다는 보고에 늦은 밤 광희문을 통해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군의 포위 속에 흑한과 싸우며 버티다가 이듬해 1월 30일 송파 삼전도(三田渡)에서 항복하고 말았다. 그리고 아홉 개의 계단 위 높은 단상에 앉아 있는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는 항복 의식을 행했는데, 이를 두고 '삼전도의 치욕'이라 한다.



삼전도의 치욕

또한 1624년(인조 2년)에는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광희문을 통해 도망을 갔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공신들 간의 알력이 심했는데, 이괄은 아들이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무고를 당하자 반란을 일으켰다. 1만 2,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을 점령한 이괄은 선조의 아들 흥안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며 반란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과주 길마재에서 크게 패하여 반란은 실패했고, 야밤을 타 광희문을 통해 도주하다가 그의 수하들에게 참살되고 말았다. 그리고 보면 인조는 반란군의 수장이 야밤에 도주한 광희문을 통해 도읍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으니 광희문과 인연이 많다.

광희문에는 치욕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다.

구한말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튼은 광희문 밖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를 해주었다. 네 살 난 어린 딸 별단 이와 광희문 밖에서 구걸을 하며 살던 여인이었다. 치료를 받은 여인은 다



1887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
보구여관은 고종 황제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하사했다.
(출처-이화여대 의료원)



보구여관의 한국인 학생 간호사들과 환자들(1904년)
(출처-대한간호협회 '한국군대 간호역사 화보집')

행히 3주 만에 회복을 했다. 그 뒤 여인은 패티(Patie)라는 세례명을 얻고 10여 년간 스크랜튼의 가정부로 일했다. 그의 딸 별단 이도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 간호사가 되어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일했다. 이 보구여관은 오늘날 이화의료원의 전신이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 스크랜튼은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의 설립자다.

광희문에 서려 있는 영혼들

광희문 현관을 바라본다. '광희문' 석 자가 굽적하니 남다른 기상을 품고 있다. 이런 문을 통해 임금이 몸을 피하고 반역자가 도주를 했다. 태생이 그래서였을까, 광희문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태어나 시구문이라는 슬픈 운명을 견뎌왔을 생각을 하니 팬스레 마음이 시리다.

광희문에 오면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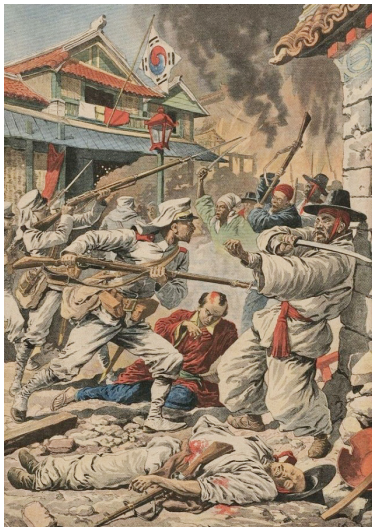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에
자결한 박성환 대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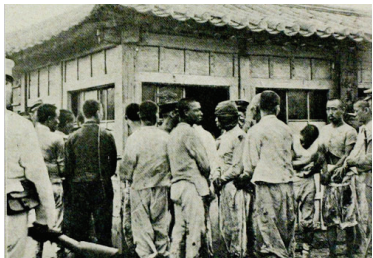
광희문 일대는 구한말 대한제국 군대가 일본에 맞서 결사항전한 역사적인 곳이다. 1907년 8월 1일 일본은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날 대대장 박성환은 군대 해산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권총으로 자결하고 말았다. 그러자 장병들이 분연히 일어나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장병들이 일본에 맞서 싸운 곳이 바로 광희문 일대와 숭례문이었다. 장병들은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200여 명이 사상당하고 500여 명이 체포되는 등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군대는 강제로 해산되었다.

일본군과 최후의 일전을 벌인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광희문과 함께 역사에 살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또 한 사람, 우리는 이 사람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석수(石手) 안이



프랑스 언론 '르 프티 주르날'에 실린 남대문 전투



대한제국 군대 해산 당시 일본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대한제국군

토리(安二土里), 그리고 한양도성을 쌓은 사람들.

한양도성 성벽에는 드문드문 글자들이 새겨진 성돌이 박혀 있다. 한양도성을 쌓은 사람과 날짜, 담당 군현(郡縣), 축성구간을 새겨놓은 것이다. 이 글자들을 보면 한양도성을 언제, 누가 쌓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글자가 새겨진 성돌을 한양도성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 한다. 쉽게 말해 각자성석은 글자를 새겨놓은 한양도성의 성돌을 말한다.

한양도성 각자성석은 중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중구에는 모두 96개의 각자성석이 있는데, 이는 전체 288개 중에서 1/3을 차지한다.

한양도성 각자성석에 새겨진 글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다. 도성을 쌓은 시기와 사람들을 그려볼 수 있는 역사다. 두어 자가 새겨져 있든 그보다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든 성돌에 새겨진 글자에는

도성을 쌓은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다.

금위영에서 계를 올려 말하기를,

“수구문을 개축할 때 홍예석(虹霓石)을 자리 잡으면서 저희 영의 석수 안이토리가 돌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모로 치료를 하였지만 끝내 운명하였습니다. 지극히 놀랍고 참담합니다. 저희 영에서 약간의 쌀과 포목을 지급하여 엄을 하고 장사를 지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계를 올립니다.”

임금이 알겠다고 답을 하고, 담당 호조에 홀전(恤典)을 행하라 명하였다.

- 승정원일기, 1711년(숙종 37년) 4월 8일



한양도성 각자성석



국립극장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한양도성 순성길의 '안이토리' 각자성석

‘안이토리’는 한양도성을 수축할 때 참여한 석수다. 석수이니 성돌을 깎고 다듬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광희문을 개축하는 공사를 하다가 돌에 깔려 죽었다. 아마도 홍예석에 깔린 것 같은데, 이 돌도 안이토리가 깎고 다듬었다면 자신이 다듬은 성돌에 깔려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안이토리의 이름이 새겨진 각자성석은 세 곳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는 국립극장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볼 수 있다. 이 길로 들어서서 조금만 올라가면 ‘금도청감관이수지오수준(禁都廳監官李秀枝吳首俊) 석수편수안이토리(石手邊首安二土里) 경인삼월일(庚寅三月日)’이라 새겨진 성돌이 나온다. 1710년(경인년, 숙종 36년) 3월에 금위영 도청 감관이수지와 오수준이 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도성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도 거기서 100미터 정도 올라가면 볼 수 있다. ‘도청감관조정원 오택윤상후(都廳監官趙廷元吳澤尹商厚) 편수안이토리(邊首安二土里) 기축팔월일(己丑八月日)’이라 새겨져 있다. 1709년(기축년, 숙종 35년) 8월에 도청 감관 조정원, 오택, 윤상후 세 사람이 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도성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또 하나는 백악 마루 밑 도성의 바깥 체성에 있다. 여기에는 ‘정해칠월일(丁亥七月日) 감관이준강김홍석□□조(監官李俊綱金興錫□□祚) 편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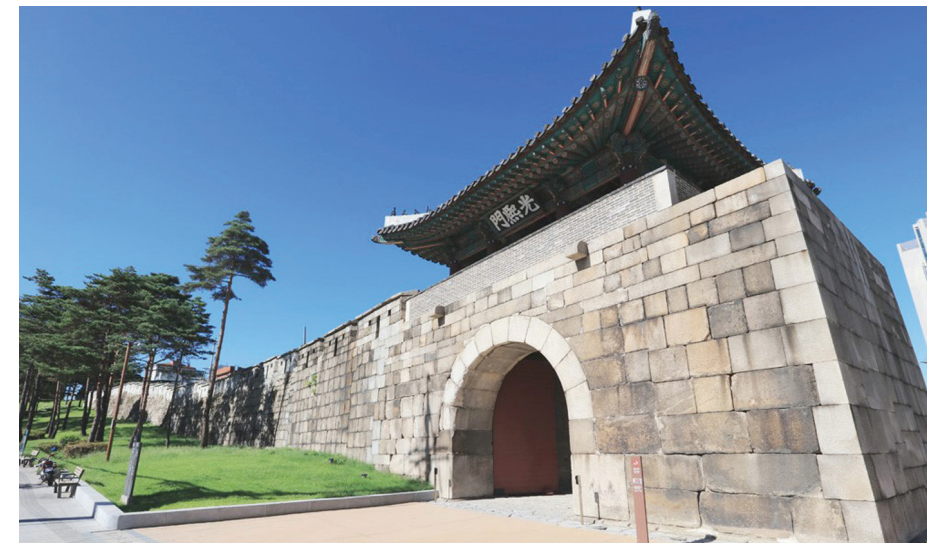
이토리(邊首安二土里)'라 새겨져 있다. 1707년(정해년, 숙종 33년) 7월에 감관 이준강, 김홍석이 감독을 맡고 석수 책임자 안이토리가 도성 공사를 하였다는 뜻이다. 감독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앞의 두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이 '□□조'라고 새겨져 있어 이름은 알 수 없다.

이를 보면 안이토리는 1707년 7월에 백악 구간의 도성 공사에 참여한 뒤 1709년 8월과 1710년 3월 2년에 걸쳐 남산 구간의 도성 공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남산 구간의 공사를 한 지 1년 만인 1711년 4월 광희문 개축 공사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만약 그가 사고로 죽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쳤다면 광희문에도 '신묘사월일(辛卯四月日) 편수안이토리(邊首安二土里)'라 새겨진 성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돌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이토리가 언제 태어나 어떻게 가정을 꾸렸고, 자식은 몇이고 살림살이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금위영에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 약간의 쌀과 포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신임이 두텁고 기술이 좋은 석수였을 것이다. 도성을 공사할 때마다 성돌에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장인(匠人)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은 날벼락 같은 비보에 목 놓아 울었을 터, 하지만 슬픔도 잠시, 가장이 없는 살림과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다.

역사는 민중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민중이 만들어간다. 한양도성 또한 안이토리 같은 수많은 민중이 만들었다. 이름 없는 민중들이 한양도성을 오늘날까지 있게 했다.

현재의 광희문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은 것이다. 광희문은 일제강점기에 전차 선로를 놓으면서 도성을 허물 때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문루가 파괴되었고, 한동안 방치돼 있었다. 지



주변을 녹지화하여 쉼터로 꾸며 놓은 광희문

금 모습으로 복원한 건 1975년이다. 문루를 새로 짓고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15m 옮겨 놓았다. 그리고 광희문 주변은 661m²를 녹지화하여 쉼터로 꾸며 놓았다.

안이토리가 공사를 무사히 마쳤다면 광희문 어딘가에 있었을 각자성석을 그려본다. 어디쯤이 좋을까, 마치 성돌을 놓을 것처럼 광희문을 둘러본다. 안이토리뿐만 아니라 그 옛날 한양도성을 쌓은 사람들의 숨결과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그려진다. 찌는 더위에도, 혹한의 추위에도 얼어터진 손을 부비며 도성을 쌓았을 사람들. 그래서 광희문에 오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11. 광희문 달빛로드

광희문 문화마을 달빛거리



제1회 광희문 문화마을 축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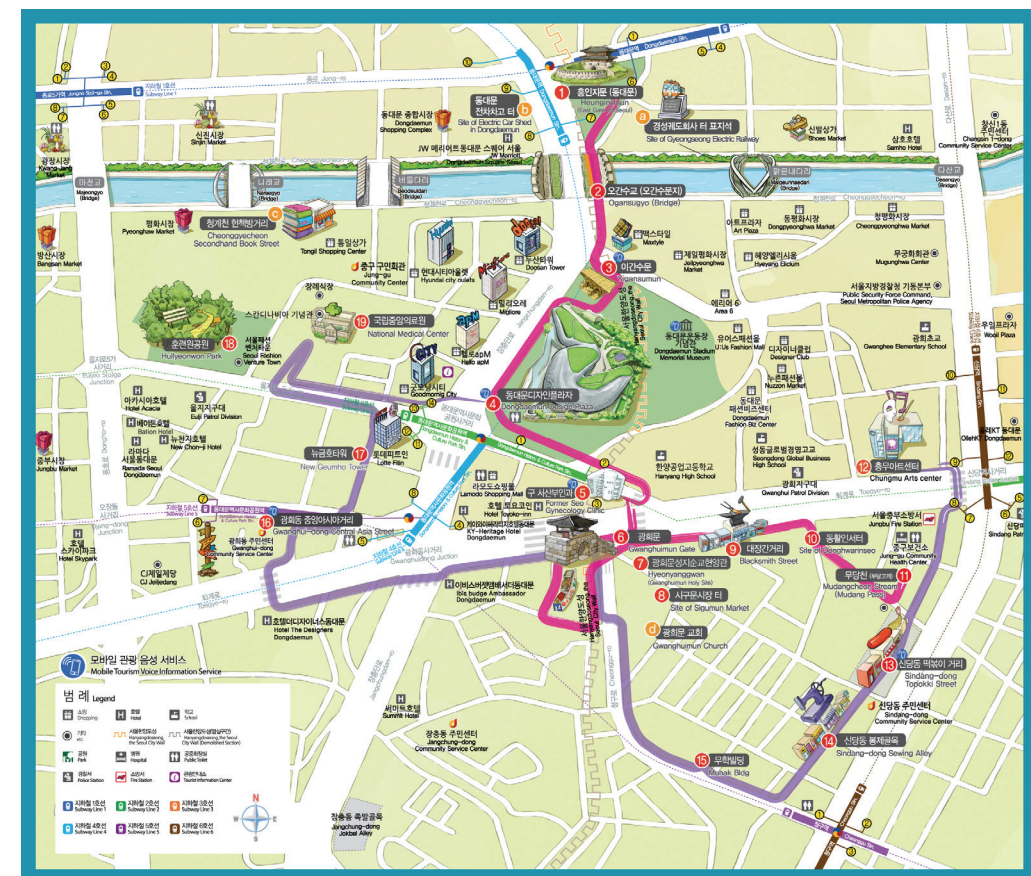
광희문 일대는 돌아볼 곳이 참 많다. 그래서 중구는 2016년 ‘광희문 문화마을 달빛거리’를 조성하고 광희문 일대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이 거리를 조성한 2016년 12월에는 광희문부터 광희문교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 두 달 동안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밤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광희문 일대의 수목에 걸린 달을 형상화한 ‘달빛 트리’, 광희문과 달의 형상을 표현한 야간 포토존 ‘광희문 게이트’, 광희문이 배경인 조선시대 풍속화 ‘대궐도’ 등 조형물들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다.

중구는 ‘광희문 달빛로드’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매주 화·목·토요일에 주민 해설사와 함께 광희문과 신당동 일대의 역사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탐방 투어는 두 코스다. 먼저 1코스는 광희문과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흥인지문(동대문)에서 출발해 오간수문(오간수교), 이간수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구)서산부인과와 그 옆 성곽 흔적, 광희문, 광희문 벽화거리, 현양관(광희문 천주교 순교성지), 시구문시장



광희문 달빛거리
(출처: 중구청)



광희문 달빛로드 코스
(출처: 중구청)

터, 대장간거리, 동활인서 터, 무당천(무당고개)을 차례로 돌아본다.

2코스는 광희동과 신당동의 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투어다. 충무아트센터에서 시작해 신당동 떡볶이거리, 신당동 봉제골목, 무학빌딩, 광희문,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 뉴 금호타워, 훈련원 공원,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차례로 돌아본다.

광희문 달빛로드와 그 주변의 명소는 대부분 퇴계로와 인접해 있다. 이 명소들을 둘러보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천주교 순교성지 '현양관'

광희문 밖은 한국 천주교 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의 시신이 버려지고 매장된 성지다. 천주교는 이를 기리기 위해 광희문 밖을 순교성지로 정하고 광희문 바로 앞에 현양관을 세웠다.



현양관

현양관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당시 포도청과 의금부, 전옥서에서 처형돼 광희문 밖에 버려진 794위 순교자를 기리는 공간이다. 이들 중에는 최경환(프란치스코), 민극가(스테파노), 현석문(가롤로) 등 성인 20위와 심아기(바르바라), 김이우(바르바라) 등 복자 5위, 황석지(베드로), 최영수(필립보), 이윤일(안토니오) 등 하느님의 종 25위가 포함돼 있다.

현양관은 2016년 4월 첫 삽을 뜬 이후 2년 만인 2018년 4월에 지상 4층 규모로 완공했다.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부이

자 순교자 김대건(金大建) 성인의 유해를 안치한 성당과 전시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고, 매주 순교자 현양 미사를 봉헌한다.

현양관을 완공한 날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중구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식을 열었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조선시대 시신을 내보내던 죽음의 문이었던 광희문이 순교자들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문이 됐다”고 축복했다. 그 말대로 절망과 죽음의 문이었던 광희문은 순교자들을 통해 광명의 문이 되었고, 광희문 밖은 순교자들의 깊은 영성을 새길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



광희문 천주교 순교자 현양관 축복식(2018년)

사람 사는 냄새가 흐르던 '시구문시장'

현양관 바로 옆으로는 시구문시장이다. 비탈진 작은 골목시장이라 이 동네에 살았던 이들이 아니라면 모르는 시장이었다. 시장 주변에는 좁은 골목을 따라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작은 시장이었지만 있을 건 다 있었다. 생필품부터 과일과 채소, 고기와 생선, 빵튀기 장사에 문방구까지. 빵튀기를 튀겨 팔았던 아저씨는 다른 데처럼 미리 해놓고 팔지 않고 꼭 주문을 해야 빵튀기를 튀겨주었다. 문방구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길에 어김없이 들르는 코스였다.

이제 시장은 흔적만 있다. 얼마 전까지 젊은이들이 몇 들어와 호기롭게 장사를 하기도 했다. 예쁜 화덕구이 피자집도 있었고, 마카롱을 파는 카페도 있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처럼 연노랑으로 단장한 카페는 눈에도 확 띄었지만 거기서 파는 시트롱 마카롱이 온라인을 타고 제법 알려져 멀



시구문시장



광희문에서 바라본 시구문시장

리서도 찾아오는 맛집이었다.

수많은 죽음이 넘나들던 광희문 앞 시구문시장, 사람 사는 냄새가 잔잔히 흘렀던 작은 시장이 그림다.

벽화를 즐기며 도란도란 걷는 즐거움, '광희문 벽화거리'

광희문 주변으로 촘촘히 이어진 집들 담장에는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구름인 듯 물결인 듯 춤추는 문양들,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덩달아 신난 강아지도 멍멍 짖으며 따른다. 이 벽화는 광희문을 찾는 이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넓고 허름한 거리를 동심의 세계로 만든 광희문 벽화거리는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2014년 새봄 중구청은 광희문 벽화거리 조성 프로젝트를 세웠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참사랑봉사단'에 벽화를 그려줄 것을 청했다. 참사랑봉사단은 한국화 전공 학부생 8명으로 벽화팀을 꾸리고 준비에 들어갔다. 벽화팀은

중구청과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스케치를 그리면서 수정을 거듭했다. 마침내 도면이 결정되었고, 이듬해 봄 1년 만에 벽화 그리기에 들어갔다.

벽화를 그리는 작업도 시간을 충분히 두었다. 분필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만 반나절이 훌쩍 넘었다. 완성된 밑그림에 색을 입히는 작업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그 사이 주민들은 물론 광희문을 찾은 관광객들도 즐거이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에 벽화팀은 흥겨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

넉넉한 준비기간과 수차례의 스케치 보완, 구슬땀을 흘리며 그려낸 벽화. 시간을 다투지 않았기에 더욱 완성도 높은 벽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벽화는 칙칙한 골목을 환하게 밝혔다. 훈훈한 그림에 동네 분위기도 좋아졌다. 벽화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림을 보는 즐거움으로 방문객도 늘었다. 벽화를 보면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걷는 즐거움, 이야말로 어여쁜 '소확행'이다.



벽화를 그리고 있는 동국대학교 '참사랑봉사단' (출처: 동국대학교)



광희문 벽화거리



근대를 뚫고 피어난 현대의 꽃 ‘(구)서산부인과’

광희문을 시작으로 현양관, 시구문시장, 광희문 벽화거리를 차례로 둘러 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퇴계로의 명물이자 서울의 명물인 작품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구)서산부인과다. 광희문 길 건너편에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은 한국 현대건축의 선구자 김중업의 작품이다.

“이 자그마한 병원도 강한 몸짓으로 눈길을 끈다. 둥근 면에 뚫린 구멍들이, 살짝 붙여 돌아가는 발코니들이, 삶에의 희열 또는 태어나는 새 삶에의 찬가를 부른다.”

“어찌되었든 ‘서산부인과 의원’은 걸작임에는 틀림없다. 뛰어난 평면 구성과 디자인력은 김중업의 예술성을 드러내준다.”

- 윤혜정 외 지음, 『김중업 서산부인과 의원 : 근대를 뚫고 피어난 꽃』 중에서

‘병원의 강한 몸짓이 태어나는 새 삶에의 찬가를 부른다’는 말은 김중업의 노트에서 옮겨졌다. ‘서산부인과 의원은 걸작’이라는 찬사는 건축역사가이



정면과 좌우 측면에서 바라본 (구)서산부인과

자 예술사가인 김원식의 평이다. 서산부인과를 설계하고 지은 김중업이나, 이를 보고 극찬한 김원식 두 사람 모두 이 건물이 매우 흡족했나 보다.

이 건물은 1965년에 설계를 시작해 1966년에 준공했다. 당시 산부인과의로 이름을 날리던 서병준 원장이 김중업과의 친분으로 설계와 건축을 맡겼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서병준 원장이 병원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1층은 진료실, 2~3층은 병상, 4층은 주거공간으로 설계했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것은 건물이 아기가 태어나는 병원이라 남녀 생식기를 이미지화해 설계했다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파격에 큰 화제였다. 또 건물 벽면과 바닥 이음새 부분은 등글게 마감하고, 환자가 쉽게 다니도록 계단 대신에 경사로를 놓았다. 이 역시 김중업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였다.

이 건물은 현재 산업디자인 회사 ‘아리움’이 쓰고 있다. 건물은 이 회사 덕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1995년 서병준 원장은 병원을 접고서 건물을 내놓았다. 건물이 워낙 독특하고 유명해서 너도나도 사자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병준 원장은 모두 물리치고 건물을 지켜줄 사람을 찾았다. 돈을 아무리 싸들고 와도 소용없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옛 것이라고 허물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지켜줄 사람, 그렇게 찾은 사람이 아리움의 정인훈 대표였다.

“자네라면 이 건물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 건물을 넘기면서 그동안 고이 간직한 건물의 설계도 청사진과 공사시방서 등을 함께 전하며 서병준 원장이 남긴 말이다. 건물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한국 현대건축의 선구자 김중업



서산부인과 왼쪽의 성곽 흔적
서산부인과 건물 바로 옆에는 흥인지문에서 이간수문을 거쳐 광희문으로 연결되는 한양도성 성곽 일부가 남아 있다.
(출처: 중구청)

이후 정인훈 대표는 외환 위기로 회사가 기울었을 때도 건물을 지켰다. 어려움이 닥쳐도 곳곳이 물리치며 2017년에는 문화재청에 이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김종업 건축물 중 처음이었다. 정인훈 대표는 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해 한양도성과 동대문디자인

인플라자 등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안내하는 컴퓨터 꾸밀 계획이다.

이 건물 바로 옆에는 한양도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흥인지문에서 이간수문을 거쳐 광희문으로 연결되는 성곽 일부다. 현재는 건축물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로 쓰이고 있다.

건축은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자연이다.

- 김종업

건축이란 인간이 인간의 삶을 위해 만드는 자연이라는 것이 김종업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과 삶’을 건축의 키워드로 했다. 그런 그가 설계한 이 건물은 서 있는 위치가 의미심장하다. 그 옛날 시신을 내던 문, 천주교 신자 수백 명을 처형하고 내다버린 시구문 바로 옆에 있다. 죽음의 문과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부인과 병원, 아마도 김종업은 커켜이 쌓인 죽음의 기운을 새 생명의 찬가로 승화시키려 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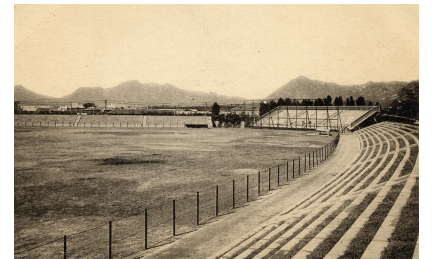
역사와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구)서산부인과 뒤편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재미로 가득하다. 광희문 달빛로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만을 탐방하는 해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한다는데, 그 인기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다.

낮이나 밤이나 상상하는 이상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여기를 보고 있으면 추억의 레슬링이 떠오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선 자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기대회장인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다. 1925년에 준공한 이 운동장은 처음에는 ‘경성운동장’이었다. 1945년 광복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다가 1984년 잠실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서 동대문운동장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었다. 갑신정변 때는 고종이 파견했던 자리이기도 하며,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군사 5,000명이 진을 치기도 했던 곳이다.

동대문운동장은 잠실종합운동장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운동장이었다. 주경기장인 축구장을 비롯해 육상경기장, 야구장, 수영장, 배구장, 연식정구장 등을 갖추고 있었고, 국제축구대회와 국제육상대회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는 모두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잠실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서 한국 대표 운동장이란 타이틀을 넘겨주었고, 국제대회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옮겨가면서 명맥만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 육상경기장을 시작으로 야구장과 축구장을 철거하고 200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조선명소(朝鮮名所)’ 옆서에 실린 경성운동장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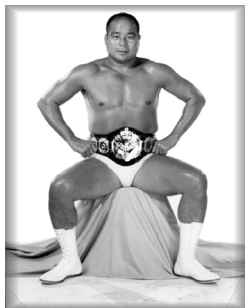


철거되기 전의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야구장

지금은 사라진 이 운동장 한 편에서는 그 옛날 특설 링을 설치하고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리곤 했다. 특히나 ‘박치기 왕’ 김일(金一), 일본 최고의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가 한 판 대결을 하는 날에는 구름 관중이 몰려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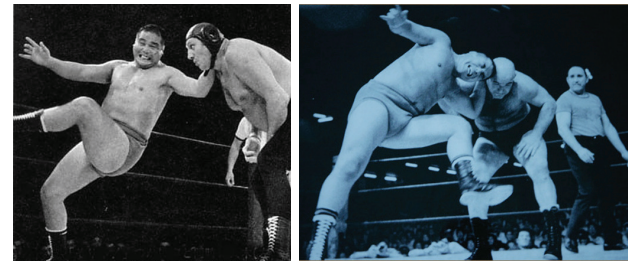
프로레슬링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최고의 스포츠였다. 딱히 즐길 만한 것이 없었던 그 시절 프로레슬링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프로레슬링 1세대로 활약한 김일은 일본에서도 박치기 왕으로 이름을 날릴 정도로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다. 아무리 센 선수와 대결을 해도, 공세에 몰려 비틀비틀 금방 쓰러질 것 같아도 마지막 박치기 한 방으로 상대를 쓰러뜨렸던 김일. 그 박치기 한 방에 국민들은 짜릿한 전율에 빠져들었다.

어린 시절 김일과 안토니오 이노키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무조건 동대문



한국 프로레슬링 1세대 ‘박치기 왕’ 김일

1963년부터 20여 번이나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그는 30여 년간 3,000여 경기를 치렀다. 은퇴 후 레슬링 후유증과 고혈압으로 쓰러져 투병생활 끝에 2006년 세상을 떠났다. 1994년 국민훈장 석류장, 2000년 체육훈장 맹호장, 2006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고, 2018년에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대한체육회)되었다. 고향인 전남 고흥군에 김일기념체육관이 있으며, 매년 그를 추모하는 프로레슬링 대회가 열리고 있다.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박치기를 날리는 김일

운동장 바로 옆 한양공업고등학교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옥상에서는 경기가 열리는 링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맛은 링 주변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였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리치며 김일을 응원하면서 언제쯤이나 박치기를 날릴까 애태우며 보았던 추억, 그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자리에는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섰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2014년에 문을 열었다. 약칭인 ‘DDP’는 ‘Dongdaemun Design Plaza’의 약자이면서 ‘꿈꾸고, 만들고, 누린다(Dream, Design, Play)’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처럼 DDP는 디자인·예술·역사·문화 등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며, 2015년 뉴욕타임스가 ‘꼭 가 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하나로 선정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DDP는 여성 건축가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건축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작품이다. ‘건축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아 ‘환유의 풍경(metonymic landscape)’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했다. 여기서 ‘환유(換喻)’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다른 말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박재조 작품 2014년)



마치 도심 한복판에 착륙한 우주선처럼 독특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최인석 작품 2016년)

DDP의 환유는 역사·문화·사회·경제를 하나로 아우르는 풍경이며, 그 풍경을 DDP라는 거대한 건물로 지었다.

DDP는 마치 도심 한복판에 착륙한 우주선 같다. 그만큼 생김새가 독특하다. 바깥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더 독특한 예술 세계가 기다린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런 세계를 탐험하듯 즐기는 맛은 그야말로 흥미롭다. 자연처럼 물 흐르듯 나선 형태로 이어진, 때로는 유연하고 때로는 역동적으로 굽이치는 통로를 따라 걸으면 정말로 미지의 세계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DDP를 탐험하는 것은 상상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놓칠 수 없는 색다름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DDP까지 돌아보고 출출한 허기가 밀려 온다면 DDP 대각선 건너편 중앙아시아거리를 추천한다. 이색적인 풍경과 허한 속을 채워줄 음식이 반겨줄 것이다.

퇴계로에 접한 이 거리는 광희문 사거리와 오장동 사거리 중간에 있다. 그래서 한가로이 퇴계로를 거닐면서 애견거리와 오토바이거리를 죽 지나쳐 둘러보고 찾아도 좋다.

골목에 형성된 이 거리는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러시아 키릴 문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상점들 간판마다 적혀 있는 문자들부터 이색적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거리는 1980년대 러시아의 보따리상들이 동대문에 몰려들면서 시작되었다. 동대문 패션타운을 찾아온 이들이 의류도매상과 거래를 하면서 경비를 아끼려고 값싼 여관과 식당을 찾아 들어온 곳이 바로 이 거리였다. 그



중앙아시아거리 입구



중앙아시아거리

뒤부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 다양한 이들이 들어와 터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타운이 생겼고, 1990년대에 들어서 러시아와 수교를 맺으면서 중앙아시아거리가 형성되었다.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코리아타운이라고 한다. 코리아타운은 외국 속의 한국이라 할 정도로 한국적 색채가 강하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앙아시아의 거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향취가 가득하다. 게다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거리가 저마다 다른 분위기로 형성돼 있고, 인근의 '뉴금호타워'는 '몽골타워'라 불리며 몽골타운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거리는 서울의 실크로드라 할 수 있다. 무역중개업체부터 음식점, 식료품점까지 150여 업체가 밀집해 있는데, 이곳을 모르고 골목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이색적인 풍경에 또 다른 흥미를 선사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리의 즐거움은 다양한 음식이다. 달콤하고 쫄깃하면서도 향이 짙은 우즈베키스탄 양고기 꼬치와 바비큐, 중앙아시아의 진한 고기 육수가 일품인 국수, 몽골식 양고기 구이 호르호그, 우유와 차를 섞은 수테차이 등은 인기 만점인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즐거움이다.



먹거리 가득한 중앙아시아거리

풀무재, 신당동 대장간거리

중앙아시아거리에서 재미도 보고 배도 채웠다면 광희문을 지나 신당동 쪽으로 가볼 차례다. 이제는 역사로 남은 대장간거리를 지나 신당역 사거리로 향하면 동활인서 터, 무당천(무당고개), 신당동 떡볶이거리와 함께 퇴계로를 대표하는 공연장 충무아트센터를 만날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가볼 곳이 있다. 대장간거리와 이어지는 풀무재다.

퇴계로 5가 교차로,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속에 예쁘게 치장한 길이 눈길을 잡는다. 충무초등학교 통학로다. 이 학교는 1956년 목정국민학교로 설립돼 3년 뒤인 1959년 개교를 하면서 충무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국민학교, '충량한 일본 국의 신민'을 만든다는 일제강점기의 명칭이다. 이 명칭은 광복 이후에도 반세기가 가까이 유지되었는데, 개명 여론과 논의 끝에 1996년 초등학교로 개칭되어 충무초등학교도 이때 이름을 바꾸었다.

학교 정문 주변으로 늘어선 가로수, 웅벽에도 식물을 심어놓았다. 높이에 따라 조화롭게 심어놓은 꽃과 나무가 재잘거리며 지나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웅하듯 손을 흔든다.

지금은 꽃길로 단장한 이 길이 풀무재다. 충무초등학교 북쪽에 있던 고개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할 당시 서울에는 고개가 많았다. 한양을 둘러싼 남산과 인왕산, 북악산의 산줄기가 청계천 쪽으



충무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 조성된 녹지



풀무재 표석(충무초등학교 옆문 쪽)



신당동 대장간거리



대장간 앞에 진열된 공구들

로 뺀어내려 있었고, 산줄기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사람들이 살면서 산을 깎아 길을 내어 그 많던 고개들이 낮은 언덕으로 변하거나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남산에서 북쪽으로 뺀 산줄기가 있었던 이곳은 풀무재였다. ‘야현(冶硯)’이라 불렀던 풀무재는 장충동 동국대학교와 목정동 엠버서더호텔을 지나 을지로 5가까지 닿아 있었다. 그래서 광희문으로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

풀무재는 구한말 청일전쟁 때까지만 해도 풀무질을 해서 쇠를 달궈 연장을 만드는 풀무간(대장간)들이 몰려 있었다. 그래서 고개 이름이 풀무재다. ‘대장고개’라고도 한다.

이 고개 일대에는 일제강점기만 해도 100군데가 넘는 대장간이 있었다. 광복 후에도 이 고개 언저리는 물론 지금의 한양공고 앞 신당 1동에 이르기까지 대장간이 줄지어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장간 그러면 신당동을 떠올릴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신당 1동을 ‘대장간거리’, ‘대장장이 마을’로 불렀다.

그러나 유명세를 떨쳤던 대장간거리는 1980년대 들어서 재개발과 도로 건설, 지하철이 들어서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2호선 공사를 하기 전이었을 때만 해도 70여 곳의 대장간이 있었는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대장장이들이 하나둘 새 동지를 찾아 떠난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면서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지고 광희문 끝자락에 세 곳만 남았다. 시설도 기계식으로 바뀌고 이름도 대장간이 아니라 철공소라 불렀다. 기계화와 더불어 금속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값싼 수입품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에 밀려 전통적인 대장간은 잊혀져 갔던 것이다.

이제 대장간은 사라지고 없다. 있다 해도 희소성으로 유지될 뿐이지 경쟁력이 없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로 갈아 만든 시퍼런 무쇠 낫을 벽에다 척 걸고서 진열해 놓았던 대장간은 수없이 찍어내는 플라스틱처럼 무가치한 삶을 돌아보게 한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쇠망치를 내려치던 대장장이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든 무쇠 낫이 공장에서 간단하게 찍어낸 힘없는 낫보다 백배 천배 더 가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쉽다. 명맥을 잇지 못하고 사라진 그 많은 대장간들이.

축구 명가 ‘한양공업고등학교’

DDP는 동대문 주변의 상권을 되살리며 그 일대를 쇼핑의 메카로 만들었다. 쇼핑뿐 아니라 각종 공연과 전시로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로 만들었다.

DDP 뒤편, 대장간거리 맞은편에는 또 다른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가 있다. 한양공업고등학교와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다. 퇴계로에 있



한양공업고등학교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한양공업고등학교 축구단

는 대표적인 고등학교다.

한양공고는 1945년에 개교했다. 설립자는 한양대학교를 세운 교육자이자 작곡가 김연준(金連俊)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청산에 살리라’를 비롯해 1930년대부터 수많은 가곡을 만들며 일생을 교육과 음악에 매진했다.

한양공고는 개교 당시 토목과·건축과·광산과·기계과 4개 학과에 6년제 한양공업중학교였다. 1951년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과를 늘리고 한양공업고등학교로 개편했다. 1961년에는 산업교육 강화 시책에 따라 1부(주간부) 34학급 2부(야간부) 5학급을 두었는데, 이때부터 대표적인 실업계 고등학교로 이름을 날렸다.

한양공고는 축구로 유명하다. 개교와 함께 창단한 축구부는 우리나라가 첫 출전한 1954년 스위스월드컵 때 국가대표였던 강창기, 이상권, 함홍철 선수를 비롯해 최은택, 김정남, 이세연, 신현호, 유동춘, 서원상, 이관우 등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또한 전국축구대회와 전국체전 등에서 우승을 휩쓸며 전성기를 구가했고,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에도 많은 선수가 발탁돼 우승에 기여하는 등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다.

‘기능 한국’ 위상을 떨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한양공고 바로 옆에 자리한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는 1961년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로 출발했다. 2008년 서울시교육청의 MD분야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2009년 지금의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로 변모했다.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여성 CEO 육성’이다. 이에 걸맞게 이 학교는 성동여실 시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물론 국제기능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기능 한국’ 위상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최고의 실업고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2019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학생들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로 변신한 현재는 글로벌경영과·세무행정과·금융정보과·문화콘텐츠디자인과·패션디자인과 5개 교육과정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메르세데스 벤츠 패션위크(2019 Mercedes Benz Fashion week in Moscow, Russia)’에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와 함께 한국 대표로 참여해 우리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해외 유명 패션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의상 작품을 선보이고 K-pop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펼쳐 뜨거운 호응을 받은 것이다.

이 학교는 역사의 한 장면에도 등장한다.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성동여실 합창단이 참여해 광복절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기념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터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축사를 할 때 범인인 문세광이 저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총탄은 대통령이 피하면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맞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총격전이 일어나면서 한 학생이 숨졌는데, 성동여실 합창단 장봉화(2학년) 양이었다.

병자와 빈민을 구제한 '동활인서 터'

조선 후기 광희문 밖에는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자리하고 있었다. 활인서는 가난한 병자와 전염병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기관이다. 도성의 동쪽과 서쪽 두 곳에 설치했는데, 동활인서는 처음에 동부(東部) 연희방(燕喜坊, 지금의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다가 조선 후기에 광희문 밖 신당동으로 옮겼다.



동활인서 터 표석(한성대입구역 근처)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두고서 도성의 병자들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여 치료하고 옷과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이후 동서대비원은 1414년(태종 14년) 동서활인원으로 개편되었고, 1466년(세조 12년)에는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해 활인서(活人署)로 개편되었다. 활인서는 1882년(고종 19년) 폐지될 때까지 병자들과 빈민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했다.

활인서는 공공 의료기관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휼 기관이었다. 찜질과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전염병이 돌 때는 무당으로 하여금 역귀(疫鬼)를 퇴치토록 했다. 구호사업을 병행하면서 병이 들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도 했는데, 시체 매장을 담당하는 오작인(仵作人)과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무당도 두었다.



동활인서 터에 자리한 대추나무 포차
(신당동 304-303)

이 터에는 지금 실내 포장마차가 들어서 있다. 대추나무 포차, 이름도 정겹다. 소슬한 저녁 딱 한잔 걸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가벼운 주머니 걱정할 것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구찜, 코다리찜, 닭볶음탕에 삼겹살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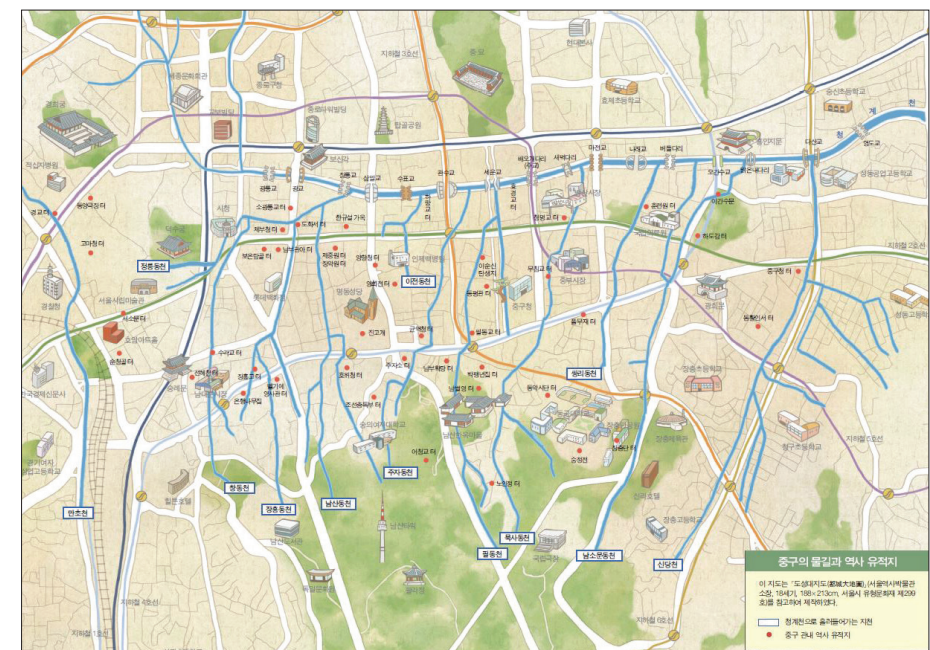
무당들이 많이 살았던 '무당천'

동활인서 터부터 신당동 떡볶이거리 입구까지는 무당천이다. '무당고개'라고도 한다. 왜 무당천이고 무당고개일까? 이를 알려면 그 옛날 서울에 흐르던 물길을 살펴봐야 한다.

서울의 중심부 중구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청계천(淸溪川), 인왕산과 안산에서 발원한 만초천(蔓草川), 응봉에서 내려오는 신당천(新堂川), 이렇게 남산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12개의 지천(支川)이 있다. 청계천은 2005년 서울시가 복원했지만 나머지 지천은 복개돼 도로가 되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도로와 교통, 주거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선이었다. 중구의 물길도 주로 남산에서 흘러 내려와 청계천에 합류했다.

남산에서 발원한 중구의 청계천 지류는 창동천(倉洞川), 장흥동천(長興



중구의 물길

洞川), 남산동천(南山洞川), 이전동천(履塵洞川), 주자동천(鑄字洞川), 필동천(筆洞川), 목사동천(墨寺洞川), 쌍리동천(雙里洞川), 남소문동천(南小門洞川) 이렇게 9개였다.

창동천은 남대문시장을 거쳐 시청 쪽으로 흘렀고, 회현동에서 발원한 장흥동천은 남대문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으로 흐르다가 창동천과 합류해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 남산동천은 장통교에 이르러 청계천으로 흘렀고, 중부경찰서 부근에서 발원한 이전동천은 청계천 3가와 입정동을 지나 청계천에 합류했다. 예장동 남산 1호터널에서 시작되는 주자동천은 주자서터와 균역청 터를 거쳐 청계천으로 흘렀고,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발원한 필동천은 필동교를 거쳐 영풍교를 지나 청계천에 합류했다. 먹적골에서 이름을 딴 목사동천은 필동 2가에서 흘러 내려와 중부시장 부근 무침교를 거쳐 흘렀고, 쌍리동천은 남산공원길에서 동국대학교를 거쳐 흘렀다. 남소문의 이름을 딴 남소문동천은 타워호텔에서 흘러 내려와 광희문을 지나 DDP가 자리한 이간수문을 통해 청계천에 합류했다.

응봉과 정동, 인왕산, 안산에서 발원한 지천은 신당천, 정릉동천(貞陵洞川), 만초천 이렇게 3개였다.

응봉에서 발원한 신당천은 1950년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신당천은 응봉



무당천(무당고개)

에서 시작돼 지금의 다산로(茶山路)를 타고 흘러 광희초등학교, 떡볶이거리, 무학동을 지나 성동공업고등학교를 거쳐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 정동의 옛 러시아공사관 부근에서 발원한 정릉동천은 덕수궁과 서울시청을 지나 창동천과 합류해 청계천으로 흘러들었다. 무악재에서 발원한 만초천은 무악재 부근에서 서대문 사거리, 서부역, 청파로, 용산전자상가, 원효로를 지나 원효대교 북쪽에서 한강으로 흘러들었다. 만초천은 조선시대에 만초(蔓草)라고 불릴 만큼 풀이 많이 자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당천은 신당동 지역을 타고 흘렀던 신당천의 일부다. 신당천 좌우편은 조선시대에 무당들이 많이 살아 '무당개울'이라 했는데, 개울 중간에 무원교(巫院橋)가 있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뒤로 넘어가는 나지막한 고개가 바로 무당고개다. 이 고개에는 1960년대 말까지 무당집이 많았는데, 쾌자와 남옷을 입고 북과 장구 소리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추는 무당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무당천은 지금 복개되어 볼 수 없다. 1976년에 서울시가 약수동 사거리에서 동화극장까지 신당천 구간 828m를 완전히 복개한 것이다. 동화극장은 떡볶이거리 초입에 있었던 극장이었다. 극장쇼와 영화를 동시에 상



옛 동화극장 건물
지금은 문구점과 식당, 원룸텔이 들어서 있다.

영하는 재개봉관이었다. 그래도 750석 규모로 재개봉관 중에서는 큰 편이었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신당동 주민들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문을 닫은 이 극장 자리에는 떡볶이집이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다.

석전, 무당천에서 벌어졌던 민속놀이

무당천에서는 한겨울이면 민속놀이였던 석전(石戰)이 벌어지곤 했다. 말 그대로 돌을 던지고 싸우는 놀이였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까지 함께했던 마을 대항 민속놀이였는데, ‘편싸움’ 또는 ‘변전(邊戰)’이라고도 했다. 늦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성행했던 놀이였고, 연날리기와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속놀이였다.

그런데 석전은 민속놀이라고 하기에는 특이했던가보다. 구한말 미국의 선교사 조지 길모어는 한국에 와서 석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특이한 국민에게서 보는 가장 특색 있는 구경’을 못 보는 것이라고 했다. 석전을 보지 못하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놀이였을까. 이는 그의 기록을 보면 석전이 어떤 놀이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진격을 할 때에 일제히 큰소리로 ‘가’ 하고 외치는데 까마귀 떼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들리면 상대방은 일제히 뒤로 물러난다. 그러다가 자기편 앞줄에 용감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쪽에서 다시 호응하여 ‘가’ 소리를 지르고 반격한다.

내가 본 가장 큰 석전은 2,000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참가한 편싸움인데, 먼저 한편이 공격해서 상대방을 그들의 마을로 반이나 몰아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별안간 사람들이 모이고 신호에 따라 진격해 나와 단번에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였다. 조금 휴식을 취하더니 돌격은 다시 시작되어 처음에 공격해 오던 편은 집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분을 참고 내다볼 뿐이었다.

그동안에 반격해간 편은 상대방에 표지를 해놓기 위해서 돌을 던져 바깥채 한 채를 부숴버린다. 이렇게 되면 감정을 상하여 어떤 사람은 이튿날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못된 짓을 한 자를 때리겠다고 하기도 한다.

석전이 벌어지면 여러 곳에서 모인 구경꾼들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 그러나 잘못 던진 돌이 구경꾼 쪽으로 날아오는 수가 있다. 석전에서 부상자가 없는 것은 솜을



한겨울이면 석전이 벌어지곤 했을 무당천 거리

넣은 겨울옷을 입은 때문인 것 같다.

- 조지 길모어의 『서울에서 본 한국(Korea From Its Capital)』(1892) 중에서

이 글을 보면 석전이 어떤 놀이인지 생생하게 그려진다. 석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과 마을의 대결이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닌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한 큰 놀이였다. 2,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참여했을 정도면 아마도 마을의 자존심을 걸고 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즐기는 놀이가 아니라 마을의 체면과 위신이 달린 한 판 승부였다.

석전은 낮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 공터에서 아이들 몇이 석전을 벌인다. 그러다가 차츰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싸움 판이 벌어진다. 서로가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세를 과시한다. 농담 섞인 조롱도 빠지지 않는다. “지금 몸이 성할 때 어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걸!” 상대도 가만있지 않는다. “헛소리하지 마! 너희들이나 다치지 말고 꺼져!”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들까지 합세한다. 이제부터는 놀이가 아니라 마을의 명예를 건 싸움이다. 자연히 싸움은 격렬해진다.

석전은 돌을 던지고 싸우는 놀이였지만 새끼로 만든 투석기(投石機)도 사용하고 때로는 몽둥이까지 썼다고 한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그냥 놀이로 하는 싸움 정도가 아니라 큰 싸움이다.

석전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치는 게 상례였다. 하지만 조지 길모어의 기록에서 보았듯이 서로 감정이 상해 다음날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시작은 서로 웃으며 좋은 낮으로 했지만 싸움이 벌어지면 끝장을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다치면 감정이 격해져 앙금이 남을 테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터.

석전은 마을의 크기에 비례했는데 많을 때는 한쪽이 800명 내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조지 길모어도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싸우는 석전을 보았다 하니 이 놀이가 얼마나 큰 놀이였는지 짐작이 간다.

석전은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옛날에는 군역을 치를 장정을 뽑을 때 어느 마을이 가장 힘세고 용감한 장정들을 많이 배출하는지 경쟁을 했다. 석전은 바로 이런 습속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마을이 대개 산을 끼고 있는데, 마을과 마을 사이 평지인 공터에서 석전을 하며 힘겨루기를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당시의 문물제도와 세시에 관해 기록한 풍속지『경도잡지(京都雜誌)』에는 “서소문 밖의 만리재 위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면 아현 사람들과 맞서 석전이 행해졌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문



신당동 떡볶이타운 앞
이곳에서도 석전이 치열하게 벌어졌을 것이다.

신 홍석모가 연중행사와 세시풍속을 정리한 풍속지『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서울에는 관수동의 비파정(琵琶亭) 부근, 도동의 우수현(牛首峴)이 석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고, 동대문 밖의 안감내, 신당동의 무당천도 석전을 하던 곳이라고 기록돼 있다.

옛 풍속지에 기록될 정도면 석전을 크게 벌였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무당천이 달리 보인다. 지금은 연인과 함께 다정히 떡볶이를 먹고 오가는 이 길이 해마다 겨울이면 돌이 무수히 날아다녔던 석전 터였다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마을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그려보니 신기하기만 하다.

떡볶이의 대명사 ‘신당동 떡볶이거리’

무당천을 지나 떡볶이거리로 들어선다. 입구에 ‘신당동떡볶이타운’이라고 떡하니 설치돼 있는 큼지막한 간판이 반갑다.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듯하다.

‘신당동 떡볶이’는 이제 떡볶이의 대명사가 되었다. 떡볶이 하면 무조건 신당동 떡볶이다. 맛도 으뜸이요, 분위기도 으뜸이다. 더하여 역사와 전통도 으뜸이다.

신당동 떡볶이 역사는 70년이 다 되어간다. 전쟁의 참화로 잿더미가 된 1953년, 이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팔았다. 동화극장 앞이었다. 떡볶이만 판 게 아니라 옥수수과 감자 등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간단히 한 끼 때울 수 있는 먹거리를 팔았다. 떡볶이는 처음에 그냥 고추장만 넣어 만들었다. 재료가 없으니 당연했다. 별다른 재료 없이 고추장으로 만



신당동 떡볶이타운



안쪽에서 바라본 신당동 떡볶이타운

든 떡볶이, 이 떡볶이가 바로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다.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그 아주머니는 신당동 떡볶이거리를 탄생시킨 '마복림' 할머니다.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복림 할머니는 라볶이와 즉석 떡볶이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퓨전 떡볶이를 탄생시킨 창시자다.

마복림 할머니는 광복 직후 남편과 같이 미군물품 보따리상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을 모시고 중국집에 갔는데, 음식과 함께 나온 떡을 먹으려다가 짜장면 그릇에 떨어뜨렸단다. 그런데 이게 웬일, 짜장면 소스가 묻은 떡이 의외로 맛이 좋았단다. 그러면서 번쩍 떠오른 생각이 고추장으로 떡을 볶아 먹자는 것이었다. 신당동 떡볶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신당동의 명물 떡볶이

그 후 할머니는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신당동에서 가래떡에 야채를 넣고 고추장으로 양념을 해 연탄불로 볶아서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골목이었을까. 신기한 것은 이 골목이 떡볶이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이곳은 원래 무당이 많이 살았던 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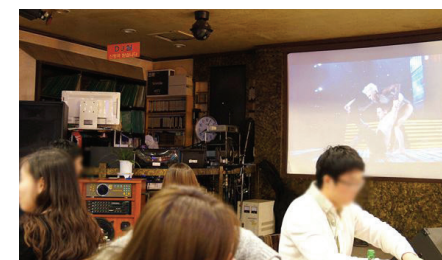
다. 굿판이 벌어지는 것은 일상이었다. 굿판을 벌이려면 상을 차려야 한다. 정성을 들여 각종 음식과 과일을 상에 올려야 하는데,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게 있으니 바로 떡이다. 그리고 굿판이 끝나면 상에 올린 시루떡과 가래떡으로 요기를 했고, 가래떡은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 먹던 것이 마복림 할머니의 볶음 떡볶이로 이어져 이제는 떡볶이의 대명사 신당동 떡볶이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 거리는 신당동 떡볶이거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타고난 운명은 세월이 흐르면서 심심풀이 간식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요리로 거듭난다. 떡볶이에 삶은 계란과 어묵, 당면과 쫄면, 라면사리는 기본이고 물오징어에 새우, 치즈, 튀긴 만두, 양배추까지 곁들여 입맛을 사로잡는 요리로 진화한 것이다. 게다가 춘장과 고추장 양념장으로 불에 올려 조리면 달고 짜고 매운 맛으로 군침을 자극하니 남녀노소 어느 누가 이 맛을 외면할까.

청소년들의 성지 떡볶이거리

신당동 떡볶이거리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나 1970년대 중반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전국에 이름을 알리며 더 유명해졌다. 이때부터 이 거리는 노점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본격적인 타운을 형성하면서 지금의 떡볶이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인기 절정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 시절 떡볶이집은 집집마다 'DJ 박스'가 있었다. 최신 유행의 선글라스를 쓰고 뒷주머니에서 도끼빔을 꺼내 장발머리를 쓸어 넘기며 신청자의 사연과 함께 음악을 틀어



신당동 떡볶이집 'DJ 박스'(2014년)
떡볶이타운의 상징 'DJ 박스'는 최근까지도 남아 있는 곳이 있었다.

주던 멋쟁이 'DJ 오빠'는 신당동 떡볶이거리의 상징이었다.

음악다방에나 있는 DJ 박스가 떡볶이집에 등장한 건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나 롤러스케이트장밖에 오락을 즐길 만한 데가 없었던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최고의 명소였다. 멋쟁이 DJ 오빠가 틀어주는 음악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떠는 재미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줄을 섰고, 빵집에서 미팅을 하고 이성을 만났던 그 시절 신당동 떡볶이집은 곳곳한 10대들의 성지였다.

그뿐이라, 그때는 고교야구의 전성기였다.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고교야구는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스포츠였다. 봉황대기쟁탈전, 청룡기쟁탈전 등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 어느 학교가 출전하고 우승하는지는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래서 인근의 동대문야구장에서 야구 시합이 있는 날이면, 더군다나 영원한 맞수 덕수상고와 선린상고가 한 판 붙는 날이면 경기가 끝나고 모교를 응원하느라 목이 쉬어터진 학생들이 신당동 떡볶이 골목으로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청소년들의 성지였던 신당동 떡볶이거리, 추억에 젖어 골목을 걷는다. 예나 지금이나 골목의 깊이도, 길이도 그다지 길지 않다. 모습도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 옛 모습에 비해 휘황찬란해졌지만 추억의 마음으로 보면 하나도 변함이 없다.

‘이젠 며느리도 알아요’, 광고로 내건 문구가 들어온다. 예전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떡볶이 비결’이었는데, 이 문구를 보니 또 마복림 할머니가 생각난다.

할머니는 1996년에 TV 광고에 출연했었다.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 CF였다. 일반적으로 CF 모델은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쓴다. 그런데 연예인이 아닌 마복림 할머니를 내세웠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그런데 이 CF가 대박을 쳤다. 특히 할머니의 명대사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는 전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 마복림 할머니집

국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이때부터 이 말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을 뜻하는 관용어가 되었다. 이 말은 시대가 바뀐 지금도 유행어처럼 쓴다.

마복림 할머니는 이래저래 대단한 분이다. 신당동 떡볶이를 만들었고, 국민적인 유행어도 남겼다. 그런데 할머니는 CF에서 했던 말처럼 며느리들에게 양념 비법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늘 혼자서 양념을 다 만들었던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제야 며느리들에게 비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 말이 진짜였던 것이다.

마복림 할머니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2011년 92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들이 가게를 이어가고 있다. 그 할머니 집이 그대로 있다.

지역민과 더불어 문화 예술을 창조하는 '충무아트센터'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조명을 환하게 밝힌 충무아트센터가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 여기서 공연을 보았다.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주페의 '시인과 농부'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소프라노 서활란, 테너 허영훈, 색소폰 김태현, 기타 서유덕 등의 협연도 좋았고, 무엇보다 지휘자 금난새의 쉽고 친절한 해설이 곁들여져 보고 듣는 재미가 더했다.

금난새, '난새'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우리말 이름이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름이 근사하다.

금난새는 우리나라 클래식 대중화의 길을 연 사람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한 뒤 1974년 국제 청소년모임 대표로 독일에 갔다가 지휘를 배우고 싶어 무작정 베를린 음악대학 라벤슈타인 교수를 찾아갔단다. 라벤슈타인 교수는 이 당돌한 청년에게 감동한 나머지 수업료도 받지 않고 지휘를 가르쳤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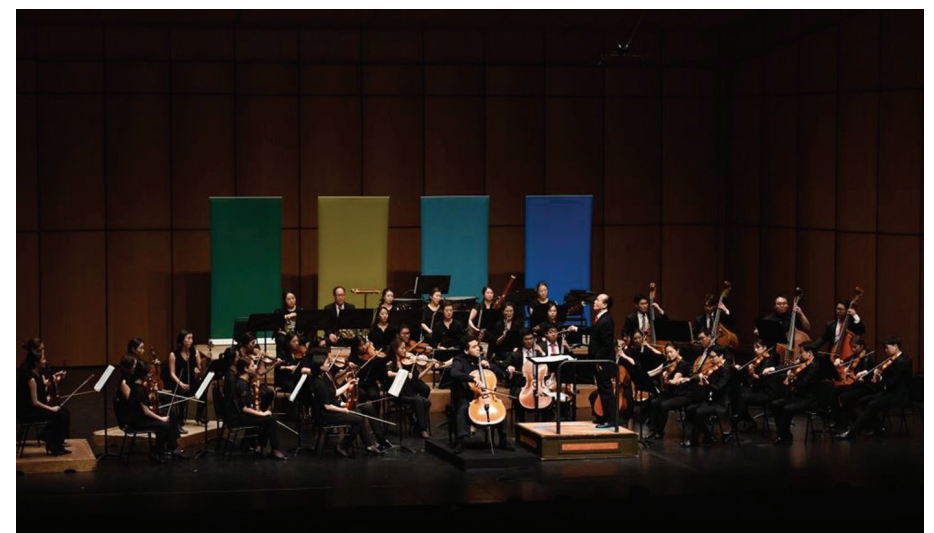
충무아트센터

이렇게 배운 지휘는 빛을 보기 시작한다. 1977년 카라얀 국제 지휘자 콩쿠르에 참가해 3위로 입상한 것이다. 이는 한국 음악계에 지휘자 금난새를 알리는 첫 신호였는데, 당시 음악계에 큰 화제였다.



이후 그는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한국이 낳은 세계적 마에스트로 금난새 예술감독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모스크바 필하모닉, 프라하 방송 교향악단,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다 귀국해 KBS 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경기도립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한국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8년 만에 연간 140여 회의 공연을 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발전시켰다.

금난새는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현재 충무아트센터에 상주하고 있다. 중구문화재단과 더불어 정기적인 공연 말고도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로비 음악회', '도서관 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기획해 장소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연을 하고 있다. 더불어 명동예술극장 앞에 특설무대를



금난새가 이끄는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충무아트홀 공연

만들어 ‘금난새의 클래식 판타지아’ 연주회를 무료로 여는 등 중구민은 물론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쉽고도 재미있게 전파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전문 공연장

충무아트센터는 2005년 3월에 ‘충무아트홀’로 문을 열었다. 2016년 6월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충무아트센터는 단순히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 아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통해 예술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것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충무아트센터는 서울 중구청이 출연한 ‘중구문화재단’이 운영한다. 중구문화재단은 구 단위에서 최초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예술을 오랫동안 꽃피워 왔던 중구의 창조적인 시대정신을 되살려 21세기 문화예술을 새롭게 창조하는 예술의 메카 중구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충무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무아트센터는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문화예술 센터라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문화예술을 통해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문화와 언론,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 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중구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과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충무아트센터 뮤지컬 흥행작 ‘젊음의 행진’(2018년)

충무아트센터는 공공 공연장 중에서는 최초로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 출발한 곳이다. 그래서 개관 이후 현재까지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세계적인 뮤지컬과 품격 높은 클래식, 발레, 오페라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공연예술 허브다. 그리고 예술 창조의 공간으로 중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일깨우며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 중심지다.

충무아트센터는 최첨단의 무대 시스템과 최적의 관람 환경을 자랑한다. 1,255석 규모의 대극장과 325석 규모의 중극장 ‘블랙’, 218석 규모의 소극장 ‘블루’ 등 3개 극장을 비롯해 충무갤러리, 컨벤션센터, 스튜디오(연습실)를 완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외 골프 연습장, 대체육관과 소체육관,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에 놀이방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충무아트센터는 뮤지컬 ‘레베카’, ‘시티 오브 엔젤’, ‘킹 아더’, ‘프랑켄슈타인’, ‘그날들’, ‘팬텀’ 등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대형 뮤지컬과 ‘에쿠우스’, ‘최후진술’, ‘도둑배우’, ‘오만과 편견’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연극을 무대에 올려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휘자 금난새의 클래식 판타지아,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 레미제라블 25주년 특별 콘서트, 영화 ‘오발탄’, 가수 이은미, 김종국 콘서트, 여성 독립운동가 열전 ‘시대를 이끈 10인(人) 10색(色)’, 중구 구립합창단 정기음악회 등 문화예술과 대중문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시민들의 눈과 귀, 마음까지 즐거운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공공극장’으로 변신하는 문화예술센터

현재 충무아트센터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비상(飛上)의 나래를 펴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한 모습으로 더 좋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선사하기 위해 거듭나고 있다.

변화의 시작은 지역민에게 더욱 활짝 문을 여는 ‘공공극장’으로의 변신이다. 지역의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극장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과 교육, 동아리 활동, 공연, 축제 등을 지원하는 생활문화 거점공간 역할을 확대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연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해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구는 물론 서울 도심을 문화도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다. 대형 뮤지컬을 공연하는 대극장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할 목적으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등 중구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도 결실을 맺어 이 무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형 창작 콘텐츠를 기획해 사전에 제작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중극장은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중구의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작 콘텐츠를 개발해 주민들과의 접점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소극장은 지역민을 위한 극장으로 탈바꿈한다. 극장을 무료로 대



주민과 함께하는 충무아트센터
(출처-충무아트센터)

관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씨어터’로 거듭나는 것이다.

‘문화는 장소를 창조하고 만드는 방식을 결정한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창의적 문화 도시’를 주제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 창조’의 세계적 권위자 영국의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의 말이다. 이 말처럼 충무아트센터는 공연의 창작자인 극장과 예술인, 공연의 향유자인 관객과 지역민 모두에게 이로운 문화 서비스로 우리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센터의 기능을 다하며 서울을 창의적 문화 도시로 꿈틀거리게 할 것이다.

12. 서울 3대 전통시장 ‘중앙시장’

전국을 먹여 살렸던 ‘성동중앙시장’

과거와 현대의 역사문화자원이 다양한 중구는 일상으로 지나치는 공간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다. 특히나 사람들의 숨결이 오롯이 배어 있는 시장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들여다보면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중구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오랜 전통을 가진 재래 시장이 많다. 중부시장, 방산시장, 중앙시장, 평화시장, 통일시장, 동화시장, 홍인시장, 덕운시장, 광희시장 등 열거하기도 벅차다. 그 중 중앙시장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과 더불어 서울의 3대 전통시장이다.

중앙시장은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에서 2번 출구까지 드넓게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신당역 사거리부터 성동고등학교 교차로까지 퇴계로를 따라 너르게 퍼져 있다. 그러니까 신당역 일대는 다 중앙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황학동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거의가 논밭이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시장의 역할을 한 중요한 곳이었다. 한양도성의 사대문 중에서 동쪽 관문인 홍인지문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인데, 사대문 밖 변두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 관청과 주민



개설 초기의 성동중앙시장



성동중앙시장(1999년)



현재의 중앙시장

들에게 무와 배추, 야채 등 먹을거리를 수급해주는 자리였다.

이런 곳에 본격적인 시장이 들어선 건 광복 직후인 1946년이다. 그해 5월 1일 ‘성동시장(城東市場)’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시장이 문을 연 것이다.

중앙시장은 개설 초기에는 미곡과 채소가 집산되는 도·산매시장이었다. 독섬과 천호동, 경기도 광주군 일대에서 재배된 야채가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조선시대의 시장을 그대로 이은 것이다.

이처럼 형성된 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양곡 집단거래처로 발전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물자가 부족했던 1950년대 서울 시민이 연간 소비하는 양곡의 70%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되었는데, 주식인 쌀부터 찹쌀, 보리, 밀, 조, 옥수수, 참깨, 들깨, 팥, 콩 등 논밭에서 나는 것이면 모두 매매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쌀과 보리, 콩 등 전국의 각종 양곡이 이곳을 거쳐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도소매상으로 퍼져나갔다. 겉으로는 간이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는 시장에 불과했지만 오랜 경력의 토박이 상인들이 점포를 꾸리고 알차게 장사를 하며 전국의 양곡을 유통하는 거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려한 전성기는 정부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정부미(政府米)’를 방출하면서 저물기 시작했다. 1965년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쌀값을 통제하고 서울 시민들이 먹는 양곡의 수급을 조절해 나갔다. 이는 중앙시장의 미곡 매매량을 1/5로 급격히 감소시킬 정도로 큰 타격을 주었다. 게다가

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미를 일반미와 함께 판매하면서 도매상이었던 미곡상들이 소매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양곡 매매의 쇠락은 중앙시장을 위축시켰다. 하지만 중앙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청계천 주변으로 형성된 황학동 벼룩시장과 더불어 1980년대 가구거리와 주방기구거리가 번성하며 재도약했고, 1990년대에는 골동품거리와 중고품시장이 발전하며 그 위상을 회복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신당창작 아케이드’ 개장 등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진화하며 서울의 3대 전통시장으로서 위상을 지키고 있다.

맛따라 길따라 ‘먹깨비투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역사와 전통은 더 깊어지는 법, 중앙시장이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 해도 여전히 큰 시장이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아무리 공세를 펴도 변함없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장인 것이다.

상점과 노점이 즐비한 인도를 따라 걷는다. 길을 따라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부지런한 모습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을 보는 재미, 누가 뭐래도 사람 내음 가득한 시장 풍경은 그 재미가 제일이다.

시장 입구에 이르렀다. 그런데 걱정이다. 이 너른 시장을 언제 다 돌아보지? 시장통은 말할 것도 없고 미로처럼 얽힌 골목골목마다 다 시장인데, 시장 구경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다. ‘먹깨비투어’를 하면 된다.

먹깨비투어는 중앙시장의 숨은 골목을 찾아다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서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신청을 받아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3시에 한다.

중앙시장은 2015년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는 특별법에 따라 선정한다. 이후 중앙시장은 지난 3년간 인근의 청계천과 동대문패션타운 등 명소와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탈바꿈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으로 새로이 단장한 것이다.

그 덕에 중앙시장은 풍경이 확 달라졌다. 우선은 낙후된 환경부터 개선되었다. 시장 출입구 16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 공간도 만들었다. 시장의 전등은 LED로 교체해 더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매월 중앙시장 소식지 ‘니우스 사방팔방’을 발행해 손님들에게 제공한다. 시장 홈페이지도 만들고, 곳곳에 ICT 기술과 접목한 시장안내도를 설치해 놓았다. 시장안내도에는 노점까지 표기돼 있는데, 시장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세밀하게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먹깨비투어도 이때부터 시작했다.



중앙시장 ‘맛보고 장보고’ 축제(2018년)

2015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시장으로 탈바꿈한 중앙시장은 해마다 ‘맛보고 장보고’, ‘해피 프라이데이’, ‘돼지잡는데이’ 등 다양한 축제로 시민과 함께한다.

(출처:중구청)



중앙시장 '맛보고 장보고' 축제(2018년)
시장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합동 댄스로 시작한 축제는 한바탕 신명난 잔치였다.
(출처-중구청)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의 역사만큼 낡았던 정문과 후문의 메인 간판을 새로 단장하고, 시장의 천장도 말끔하게 청소했다.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한 시장 중앙 통로에는 CCTV도 설치했다. 특히 어두웠던 보리밥 골목과 포목 골목에는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조명을 들여 안전 확보와 더불어 그윽한 분위기까지 연출했다. 그리고 해충방제 시스템을 도입해 식재료 점포가 많은 시장의 위생을 더욱 청결하게 하고, 비가림 시설(아케이드) 기둥에 배너 게시대를 설치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세일 등 각종 행사를 알리고 있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손님들과 어우러지는 축제와 행사도 꾸준히 열었다. 대표적으로 '해피 프라이데이'와 '돼지잡는데이'를 들 수 있다. 해피 프라이데이는 아시아 각국 전통음식 특별전과 세일을 결합한 행사다. 시장에서 아시아 음식도 맛보고 짬뽕에 살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특별한 경험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돼지잡는데이는 이름 그대로 순대와 곱창 등 돼지 부산물을 즐기는 음식 축제다. 이 축제는 호응이 너무 좋아서 시장의 대표 축제로 발전했다.

지금 중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다. 상인들은 해외의 선진 시장을 견학하고 오는 등 시장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섰다. 사람들에게 각인된 추레한 재래시장이 아닌 따뜻한 정이 넘쳐흐르는 시장을 만들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노점실명제를 도입해 마구잡이로 늘어선 노

점을 획기적으로 줄여 쾌적한 보행로를 만들었고, 노점을 정비한 유휴 공간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5팀을 유치해 매대까지 지원하는 등 열린 마음과 자세로 시장의 풍경을 일신하고 있다.

이제 먹깨비투어로 시장을 둘러보자.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게 단장한 시장 구석구석이 어떻게 변했는지 들여다보자.

먹깨비투어는 단순히 시장을 돌면서 구경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역사와 전통, 더하여 숨은 이야기까지 듣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먹깨비투어는 모두 열 군데 코스를 돈다. 시장 안 중앙 통로에 있는 '어울림터'에서 출발해 보리밥 골목, 포목부 골목, 미곡부 골목, 왕십리 가구거리, 황학동 벼룩시장, 주방기구 거리, 곱창 골목, 옛 포장마차 제작거리, 신당창작 아케이드, 신중앙시장까지 시장 전체를 한 바퀴 빙 돌아본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주민해설사와 함께한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처음



중앙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먹깨비투어' 지도

와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시장을 접할 수 있다.

발로는 걷고, 눈으로는 즐긴다. 거기에 먹는 맛까지. 이 모든 기쁨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먹깨비투어, 첫걸음부터 설렌다.

천하일미가 따로 없는 '보리밥 골목'

제일 먼저 들어선 보리밥 골목, 입구부터 구수한 보리밥 냄새가 침샘을 자극한다. 보리밥을 보면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떠오른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혼란했던 시절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겼다.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나면 이듬해 보리가 여물 때까지 춘궁기를 보내며 끼니 걱정을 했다. 불과 50여 년 전이다. 삼시 세 끼 풍족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산업화로 나라 살림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보릿고개를 넘기기는 했지만 그때도 식량 사정이 안 좋아 혼·분식을 장려했었다. 학교에서는 보리밥과 쌀밥을 섞어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지도했고, 혼식 도시락이 아니면 벌을 서기도 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도 보리밥만 먹었다. 쌀밥은 명절 당일에만 먹을 수 있었다. 설날 아침 고봉으로 나온 흰 쌀밥을 먹을 때의 그 감칠맛이라니, 지금도 생생하다.

이랬던 보리밥이 지금은 별미다. 보리밥을 잘한다는 집이라도 있으면 미식가들은 아무리 멀어도 한달음에 찾아가 먹을 정도다. 허나 이제는 멀리 갈 필요가 없다. 바로 여기 중앙시장 보리밥 골목으로 오면 된다. 갓 지은



구수한 냄새 가득한 '보리밥 골목'



서민들에게는 최고의 한 끼를 선사하는 보리밥

밥에 푸짐한 고명, 찜채소와 젓갈까지 더한 보리밥이 단돈 5,000원!

보리밥 골목은 1990년대 웰빙 바람을 타고 부담 없는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자리를 잡았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인근의 직장인과 주민들까지 즐겨 찾아와 골목은 언제나 북새통이었다. 대형 마트와 쇼핑센터로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도 보리밥 골목만은 늘 만원이었다.

이렇게 명성을 쌓아온 이 골목에는 지금 보리밥집 10여 곳이 있다. 전성기에 비해 식당 수가 줄었지만 그 맛과 가격은 변함이 없다. 이제는 메뉴도 다양해 보리밥정식을 기본으로 찜밥정식, 고기정식, 칼국수에 수제비까지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에게는 최고의 한 끼를 선사한다.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호박 등 10여 가지나 되는 야채를 보리밥에 넣고 쓱쓱 비벼서 구수한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천하일미가 따로 없다.

어머니의 숨결이 배어 있는 '포목부 골목'

보리밥 골목을 지나 포목부 골목으로 들어선다. 포목부 골목은 중앙시장 1번지다. 이 골목은 30~40년 전만 해도 옷감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특히나 명절이 가까워지면 어깨를 부딪쳐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포목부 골목

기성복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집에서 온 가족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 우리 어머니들은 설날이나 추석이면 이 골목에서 옷감을 끊어 가위로 재단을 하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과 재봉틀로 옷을 해 입히셨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꼬까옷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현빈이 입었던,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만들었다는 트레이닝복보다

더 멋지고 고왔다.

세월이 흘러 이제 포목부 골목은 쓸쓸하다. 의류산업이 발달하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성복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것이다. 포목을 파는 점포도 볼 수 없고, 칼국수나 가정식 백반을 파는 음식 거리로 변했다. 하지만 꼬까옷을 만들어 입히던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다.

국민의 밥상을 책임졌던 '미곡부 골목'

중앙시장을 전국적으로 알렸던 미곡부 골목, 국민의 밥상을 책임졌던 이 골목은 중앙시장 대표 골목이다.

이곳에는 120여 점포가 있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면서 산지 직거래가 늘고 정부미와 포장미까지 등장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유통과 물류 환경의 변화는 어쩔 수 없었는데, 1980년대에는 80여 점포로 줄어들고 2010년에 들어서는 30여 점포만 남아 명맥을 이었다.

골목에 120여 개나 되는 쌀가게가 양편으로 주욱 늘어서 있다고 상상해 보라.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이다. 전국에서 품질이 좋다는 쌀은 물론이고 보리와 콩을 비롯해 각종 양곡이 죄다 이 골목으로 모였으니 그 풍경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골목은 대부분 가마니로 파는 도매상들이었지만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도 찾아왔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소매점보다는 여기를 찾아와 편지봉투에 쌀 한 홉씩 사갔다. 편지봉투에 쌀을? 믿지 못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다.

이 거리는 지금은 고인이 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꿈과 열정을 불태운 거리다. 정주영 회장은 짐자전거에 쌀을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 골목을 누볐다. 그렇게 일하고 돈을 벌어 세계 굴지의 현대그룹을 일구었



미곡부 골목

고,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01마리의 소떼를 끌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을 방문했다. 실험민으로 성공신화를 쓰며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어 고향을 찾은 것이다.

일명 '정주영 소떼 방북'이라 부르는 이 일은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정주영 회장의 북한 방문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최초로 휴전선을 개방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이날 소떼 방북을 생중계했고, 세계는 대한민국을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에 '평풍 외교'가 있었다면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은 '황소 외교'라 했다. 훗날 이 일은 분단 한국의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를 텃으니 정말 황소 외교를 한 셈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소떼를 몰고, 그것도 1,000마리가 아닌 1,001마리였을까.

정주영 회장은 열일곱 어린 나이에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가출을 했다. 아버지가 누이를 시집보내려고 소를 팔았던 돈을 훔쳐서. 소떼는 도망치듯 떠난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불효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1,001마리는 1,000마리에 한 마리를 더 추가해 나중에도 지속적으로 지



1,001마리의 소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는 차량들(1998년)
(출처-동아일보)



소떼를 이끌고 고향을 찾은 정주영 회장
사진 오른쪽 흰 옷에 화환을 걸고 중절모를 쓴 사람이 고 정주영 회장이다.

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1,001마리가 아니었다고 한다. 마리 수는 1,000마리였는데 1마리는 임신한 소였다고 한다. 또 1마리만 아니라 상당수가 임신한 소였다. 이는 정주영 회장의 깊은 뜻이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헐벗은 동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1,001마리의 1은 그 마음의 상징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이 골목 '복흥상회'에서 일했다. 이곳은 현재의 '태광상회'로 추정된다. 이 골목에 들어서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태광상회를 잠시 들여다보라. 그 옛날 누이의 시집 밑천을 들고 집을 나와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중앙시장에 흘러 들어와 쌀을 배달하며 돈을 벌고, 그렇게 성공해 고향을 찾은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그려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신혼의 추억 '왕십리 가구거리'

이 거리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최고였다. 다른 데보다 값도 싸고 최신 유행 가구가 많았다. 위치도 신당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이 거리로 들어설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왕십리 가구거리

가구거리에서는 축제도 즐길 수 있다. 축제는 사물놀이패의 길놀이로 시작한다. 가구거리를 순회하며 신나게 두드려대는 장단은 절로 어깨춤을 추게 한다. 장기자랑과 경연대회, 풍물 공연과 판소리 공연 등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는 시간을 잊게 만든다. 업소마다 명품 가구도 전시하고,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퀴즈 게임에서 우승하면 혼수용 가구도 증정한다.

이 거리는 역사가 깊다. 구한말부터 장롱과 문짝 등 자재가구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는데, 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다. 자재가구 업소는 한때 30~40개소가 있을 정도로 번성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 가구를 취급하는 거리로 변모했다.

이 거리에 오면 무엇보다 '광천당'을 둘러봐야 한다. 30여 년 역사의 고가구 전문점이다. 조선시대 옛날 가구부터 장식용 소품과 도자기, 문짝과 수레바퀴 등 없는 게 없다. 고풍스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들이나 매장을 고전적으로 꾸미고 싶은 사람, 옛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이들에게는 그만이다. 꼭 물건을 사지 않아도 실컷 눈요기를 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그윽한 정취와 향수에 젖어보라.



고가구 전문점 '광천당'

최근 가구는 우리의 일상 공간에 개성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미학과 철학까지 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비자들도 이런 가구를 찾는다. 그렇다면 '가구 DIY(Do It Yourself)' 체험 프로그램을 권한다. 서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국내 유명한 예술가들과 함께 가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특색 있는 자기만의 가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를 갖고 싶다면 지금 즉시 신청하라.

세상 만물은 다 모여라, '황학동 벼룩시장'

고물을 파는 리어카에서 낡은 도자기 하나를 샀다. 꽃병으로 쓸 생각이었다. 값은 8,000원. 모양이 단아하고 은은해 썩 마음에 들었다. 꽃을 꽂아두고 감상하니 운치가 더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꽃병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꽃병으로 쓰고 있던 낡은 도자기가 조선시대 백자라는 것이다. 감정을 받아보니 정말 그랬다. 감정이 600만 원. 8,000원짜리 낡은 꽃병이 값비싼 골동품으로 환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일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황학동 벼룩시장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다. 이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한 옛 것이 귀중한 보물이 되는 황학동 벼룩시장, 누구라도 한번은 꼭 가보고 싶은 이 시장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다.

이 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청계천 주변으로 피난민과 월남민이 판자촌을

짓고 살면서부터 출발했다. 먹고살려고 중고물품과 고물을 내다팔았는데, 이를 시작으로 황학동 벼룩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시장은 1970년대에 들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한국전쟁의 혼란기가 끝나고 사회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인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문물에서 새로운 문물로 교체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가정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펼쳐진 새마을운동으로 주거 문화와 양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집집마다 쓸모없는 물건들을 처분했다. 이처럼 옛 것은 낡고 추한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골동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골동품들은 청계천을 따라 자리를 잡고 늘어선 황학동 벼룩시장으로 흘러들었다. 이때부터 황학동 벼룩시장은 제대로 된 가치를 미처 따질 겨를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실려 온 골동품들이 집결하는 시장으로 명성을 얻었다. 황학동 벼룩시장으로 온 골동품들도 잃었던 빛을 발하며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했다.

황학동 벼룩시장은 1990년대에 들면서 전기를 맞았다. 전국의 골동품이 모이는 시장에서 중고품 시장으로 변해간 것이다. 이는 도시 재정비사업에 따라 골동품을 취급하던 상점들이 인사동과 장안동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황학동 벼룩시장(1999년)



현재의 황학동 벼룩시장



없는 게 없는 벼룩시장

이때부터 황학동 벼룩시장은 중고품 시장으로 변모했다. 각종 기계와 공구, 전자제품까지 낡지만 고쳐서 쓸 수 있는 온갖 중고품을 취급했다. 책과 음반, 각종 생활용품, 옷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지각색 만물상까지 합세했다. 그래서 골동품 시장의 명성은 잃었지만 중고품 시장으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처럼 두 번이나 전성기를 보낸 황학동 벼룩시장은 2000년대에 들어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황학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때 벼룩시장은 동묘 인근으로 옮겨 갔다. 그래서 지금은 신설동의 풍물시장, 동묘의 벼룩시장, 황학동의 만물시장을 하나로 묶어 황학동 벼룩시장이라 부른다.

벼룩시장은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오래된 물건이 많고, 상인들이 벼룩처럼 뛰어다니며 중고품을 모아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이름처럼 벼룩

시장에는 오래되어 구하기 힘든 진귀한 물건부터 다른 데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들까지 다 있다. 없는 물건도 무조건 황학동으로 나가 벼룩시장을 뒤지면 신기할 정도로 딱 있다.

이 시장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주말이나 연휴에는

방문객들로 미어터지고, 연령층도 다양하다. 연예인에 아이돌까지 웬만한 스타들도 단골로 드나든다. 특별한 무대 의상이나 소품을 구하기에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중고 물품의 메카다.

구제 의류나 골동품, 헌책 등 기기묘묘한 물건들이 펼쳐진 거리의 좌판과 리어카, 상점들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려 그리운 추억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다. 벼룩시장에 나오면 한마디로 즐거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조금은 독특한 시장,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오래된 것들의 가치를 투박하게 일깨워주는 황학동 벼룩시장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주방기구 거리'

황학동 벼룩시장은 한 번에 다 돌아보지 못한다. 그만큼 크고 넓다. 그래서 한 번 오면 두 번 오게 되고, 두 번 오면 세 번, 세 번 오면 네 번 이렇게 중독이 된다. 이 중독된 시장을 나와 주방기구 거리로 들어선다.

이 거리는 1980년대에 들어 리어카와 포장마차를 만들어 팔던 영세 수공업 점포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거리는 주방기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점포들이 들어서면서 주방 가구와 용품, 그릇 등 주방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1997년 IMF 사태 이후부터는 식당을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주방기구를 싼 가격에 사려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몰려들면서 나날이 번창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 거리의 주요 고객은 카페나 식당을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데보다 값이 싸면서 품질도 좋고, 최신 유행품이 다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



주방기구 거리

금이나 똑같다. 카페나 식당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 가격부터 상품 종류, 품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식업 창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도 많아 크고 작은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요식업 창업의 메카이자 원스톱 푸드 마켓인 것이다.

현재 이 거리는 원스톱 서비스로 종합적인 컨설팅도 하고 있다. 나날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주방기구와 가구, 용품 등 밀집된 상권을 극대화해 음식점 창업과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한다. 주방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방기구 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중앙시장 주방기구 거리,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 거리는 앞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생길의 벗 '곱창 골목'

이 거리는 들어서기가 겁난다. 일단 들어서면 소주 한잔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울의 명물 곱창 골목을 어찌 지나치랴. 즐거운 사람과 가벼이 한잔, 사는 게 그런 재미 아니랴.

이 거리는 저 멀리 거리를 두고 있어도 오감을 자극하는 곱창 내음이 바람을 타고 코를 찌른다. 그 내음에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발길이 간다. 저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앉아 술잔을 들고 곱창을 먹는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지 번뜩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어느새 취한다. 대체 이 곱창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홀릴까.

곱창 골목은 1963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송인동에는 우성산업 도축장이 있었다. 이 도축장은 그해 마장동으로 옮겼는데, 도축장 주변으로 소 내장과 돼지 부산물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앙시장의 돼지 부산물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때부터 곱창 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왕십리 일대에서 채배한 야채들과 더불어 판매한 곱창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



곱창 골목

길을 따라 일렬로 줄을 선 이 거리의 포장마차는 세상 풍파를 견디게 해 주는 힘이다. 서울의 한복판,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마시는 한잔 술에 야채곱창은 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맛이다. 양배추와 대파, 양파, 깻잎에 당면까지 버무리진 곱창볶음의 달큰한 맛은 서민들의 주름진 이마를 활짝 펴고 시름을 잊게 한다. 어깨에 무겁게 앉은 짐도 잠시 내려놓게 한다. 그래서 곱창은 평범하지만 특별하다.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인생길의 벗이다.

영세민의 희망 등불 '옛 포장마차 제작거리'

지금은 포장마차를 보는 게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포장마차는 있어도 실내 포장마차다. 중앙시장 곱창 골목처럼 '포장마차촌'이 형성된 곳 아니고서는 쉽게 볼 수 없다.

예전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포장마차가 진을 치고 있었다. 거리를 환하게 밝히며 동이 터올 때까지 서울의 밤을 지켰다. 포장마차의 진수 꿈장어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오징어, 해삼, 명게, 조개에 따끈한 어묵과 우동까지 간이 탁자에 앉아 마시는 한잔 술은 도시의 낭만이였다. 기쁨과 즐거움에 한잔, 슬픔과 괴로움에 한잔, 고독과 외로움에 한잔, 포장마차는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했다.



서민의 시름을 달래며 밤거리를 밝혔던 포장마차

그런데 포장마차는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 도무지 알고 싶은 정보가 뜨지 않는다. 다만 '코네스토가 왜건(Conestoga wagon)'을 포장마차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단다. 코네스토가 왜건은 18세기 미국의 서



옛 포장마차 제작거리

부 개척 시대에 등장했는데, 4~6필의 말이 끌었던 대형 마차다. 마차 위로 는 천 캔버스로 포장을 덮어 그 안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서부영화에서 보았던 '짐마차'다.

서부극의 짐마차,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의 포장마차가 그것과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 같다. 아무려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반갑기는 하다. 서부극과 개척시대, 우리에게는 추억의 서부영화로 남아 있으니 이 또한 낭만이며, 밤거리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부딪치는 것도 낭만이니 정서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낭만 아니랴.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 있다. 이 낭만의 포장마차를 중앙시장에서 많이 만들었다는 사실.

중앙시장 포장마차 제작거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호황이었다. 제작 주문이 밀려서 업체마다 즐거운 비명이 넘쳤다. 그때는 서울 시내 곳곳이 포장마차 촌이었으니 당연했다. 소자본으로 살림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야 하는 영세민들에게는 포장마차가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거리도 옛 영화를 뒤로 하고 많이 저물었다. 그 많던 포

장마차들이 사라지고 없으니 쓸쓸할 뿐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포장마차를 제작하는 곳이 몇 곳 남아 있다. 어두운 밤 포장마차의 30초 누런 전구가 주인장의 스산한 마음을 밝히며 삶의 용기를 주었듯이 지금 남아 있는 제작처도 이 거리를 희미하게나마 밝히며 중앙시장과 함께 삶을 같이 한다.

재래시장의 미래를 그리는 시장 예술촌 '신당창작 아케이드'

지금까지 돌아본 골목과 거리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면 신당창작 아케이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재래시장과 예술촌, 회센터와 공방, 신당창작 아케이드는 거리가 있을 것 같은 두 장르가 함께한다.

신당창작 아케이드는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있다. 1971년 '신당지하상가'로 개장한 이 상가는 서울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보행자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서울 시내 지하상가 가운데 초창기에 만든 1세대 지하상가다. 그래서 개장 당시만 해도 왁자지껄한 장터와는 달리 실내 상가라 이색적인 도심 상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을 형성했다. 날씨에 상관없는 지하상가라 취급품목도 달랐다. 이불, 한복, 주단, 포목, 여성의류 매장이 들어섰고, 수입식료품 가게들과 횡집도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400m의 긴 지하상가에 모두 99개의 가게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단숨에 중앙시장 일대의 중심 상권이 되었다.



개장 초기의 중앙시장 지하상가



신당창작 아케이드

그러나 이 상가 역시 시간의 흐름은 감당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노후화의 길을 걸었고,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퇴락하며 활기를 잃었다.

침체기는 오랜 시간 이어졌다. 1999년까지 99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인 52개가 비어 있었고, 상가의 기능을 잃은 채 낡은 공간 이미지만 남아 있었다.

기운을 잃고 꺼져가던 상가는 2009년 새로이 태어났다. 서울시는 2008년 낙후되어 방치돼 있는 빈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전략을 세우고 2009년 신당지하상가를 그 대상으로 선정해 지금의 신당창작 아케이드를 만들었다.

컬처노믹스는 문화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문화와 지역 경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당창작 아케이드는 문화와 시장의 공존, 그것이다.

신당지하상가는 신당창작 아케이드가 들어서면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공예를 중심으로 한 체험 공방을 테마로 변신을 한 것이다. 비어 있던 점포 중 40곳을 리모델링해 창작공방 39실, 전시실 4실, 공동작업장 2실, 아트마켓, 체험공방, 운영사무실 등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를 통해 도자기, 유리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종이공예, 사진, 일러스트, 미디어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활동하며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어둡고 칙칙했던 지하상가에 문화와 예술을 덧입히자 다시 생기가 돌았다.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사람들의 발길도 이어져 죽어 있던 상가가 부활했다.



서해수산 앞 통로 기둥 홀로그램

신당창작 아케이드는 중앙시장 입구 ‘지하 회센터’로 들어서면 바로 나온다. 예술은 회센터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된다.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에 색색의 벽돌 무늬를 그려 놓았고, 무늬와 무늬 사이로는 물고기들을 그렸다. 회센터를 알리는 벽화다.

지하 실내에도 예술이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다. 천장에는 한지로 만든 동물 모양의 등을 걸어 상가의 기운을 밝히고 있고, 곳곳에 입주 작가들이 작품을 설치해 놓았다. 특히 상가 중간쯤에 자리한 ‘서해수산’은 바다와 물고기로 벽화를 그리고 회집에 어울리는 소품들을 걸었다.

또 서해수산 앞 통로 기둥에는 홀로그램을 설치해 놓았다. 친근한 미소로 반기는 평상복의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변신하는 홀로그램인데, 모델은 서해수산의 주인 아저씨와 상가의 상인 아주머니다. 이 작업은 입주 작가들이 ‘홍+정 가게’ 프로그램으로 했다. 이는 흥(興)과 정(情)이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 작가들이 상가의 점포 한 곳을 꾸며주는 프로젝트였다.

서해수산을 지나면 작가들의 작업실이 나온다. 스튜디오와 전시실, 공방 등 형태도 다양하다. 또 통로의 공간은 전체가 캔버스다. 천장과 바닥, 벽과 기둥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몇몇 장소에는 전시 부스도 설치했다. 대체로 익살스럽고 친근한 그림들이다.



젊은 작가들이 입주해 활동하는 공방과 작품들

작가들이 입주해 활동하는 공방도 그 자체가 예술이다. 40여 개의 공방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꾸며서 각기 다른 공간의 개성이 묻어 있다. 공방마다 소개의 글도 적어 놓아 작가의 작품과 세계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특별하게 좋은 건 모든 공방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로에서 공방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젊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은 이곳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창가 쪽에는 작품을 전시해 관람하는 재미도 있는데, 공방은 작가와 작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원도 갤러리다.

무엇보다 좋은 건 작가들과 관람객의 교류다. 누구라도 작가들의 작품이나 작업이 궁금하면 공방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그러면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설명해준다. 또 작품도 살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다. 17개의 공방은 체험 공방을 겸하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예술 세계로 들어가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작가와 대화도 나누고 예술 창작

도 체험하고, 이야말로 어디서 누려볼 수 없는 일석이조의 행복이다.

작가들은 중앙시장과 연계해 아트 마켓과 아트 페어 등으로 시장과 상인은 물론 지역과도 함께 소통한다. 시장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도 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길뚱’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민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았고, 인디밴드들을 초대해 공연도 했다.

지금 신당창작 아케이드는 ‘시장 예술촌’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장 안에서, 시장 사람들과 방문객들, 주민들과 어우러져 예술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시장문화’를 만들고 있다. 즐거운 일이다. 신당창작 아케이드가 들어선 이후 중앙시장을 찾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는데 이 역시 반갑고 기쁜 일이다.

신당지하상가는 중앙시장의 중심을 관통한다. 시장의 중심 지하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혼을 불태우는 신당창작 아케이드가 있다.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 새로운 풍경이다. 이 새로운 풍경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흥미진진하다. 그 흥미진진한 세계를 만들어갈 신당창작 아케이드. 중앙시장을 넘어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넘어 우리나라 모든 시장의 미래를 아름답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중앙시장의 대표 얼굴 ‘신중앙시장’

시장과 예술이 만나는 공간 신당창작 아케이드를 나와 중앙시장 중앙 통로에 섰다. 시원하고 높은 천정에 양편으로 죽 늘어선 상점들이 깔끔한 인상을 준다. 그 옛날 복잡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시장이 아니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청결하다.

중앙 통로는 시장 안의 또 다른 시장이다. 이름도 ‘신(新)중앙시장’, 새로운 중앙시장이다. 그러니까 중앙시장 안에 또 하나의 새로운 중앙시장이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2016년 100여 개의 노점상을 정비하고 인정시장으로 등록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지난 시절 화려했던 서울의 3대 전통시장 명성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꿈꾸는 이 시장은 이제 중앙시장의 중심이자 상징이다. 골목과 거리, 황학동 벼룩시장까지 방대하게 품고 있는 중앙시장의 얼굴, 한마디로 대표 선수인 것이다.



과거의 중앙시장

중앙 통로를 따라 걸으며 대표 선수의 면면을 살펴본다. 각종 상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장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풍성하다. 45년간 호떡을 구워왔다는 호떡집, 잘 숙성시킨 반죽에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워서



중앙시장의 얼굴 ‘신(新)중앙시장’



시장의 할머니처럼 중앙시장은 시간의 박물관이다. 이 삶의 박물관에서 오늘 하루는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지난 시절 아련한 추억에 젖어볼 일이다.
(서울 중구문화원 사진공모 수상작, 김지웅 작품 2016년)

줄을 서서 기다려야 그 맛을 볼 수 있다. 주먹밥과 어묵, 마늘 등 뭐든지 맛있게 구워내는 로버타 야기도 인기 만점이고, 갈색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한방 족발집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게다가 족발 한 팩에 야채까지 곁들여 만 원이라니, 맛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 그 중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청년창업자의 '홍두병'이다. 팔과 고구마, 슈크림을 꼭 채운 홍두병은 입에 들어가지마자 살살 녹는다.

시장은 노인이다, 예전에 시장은 이랬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청년이다. 번뜩이는 아이템과 젊은 패기로 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새바람을 불어넣

고 있다. 그리고 이 바람은 활력소가 되어 시장을 한 층 더 젊게 한다.

짧은 한날 별 잘 드는

담 밑에서

웃음을 나눌 한 칸

비운다

언젠가는 함께 난전에

꽃비 함께 맞을

봄날을 기다린다

- 박재홍의 연작시 '도마시장' 중에서

신구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시장과 예술이 어우러진 중앙시장, 이제 머지않아 꽃비를 함께 맞을 봄날이 올 것이다. 그 봄날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정겨운 웃음을 나눌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중앙시장은 세월 따라 역사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중앙시장을 보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먹깨비투어를 하며 보았던 보리밥 골목부터 포장마차 제작거리까지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시간의 커를 통해 우리의 근대와 현대를 볼 수 있고, 그 시대를 지나며 변화한 문화와 산업, 삶의 변화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시간의 박물관이다. 이 삶의 박물관에서 오늘 하루는 느린 걸음으로 걷고, 그 옛날 흑백영화를 보듯 아련한 추억에 젖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제2부

퇴계로 변천사



大和...
周九千七百七十五步 高十丈
五部内居民三萬七百三十三戶

江原廣尚金羅...
國民夫七萬九千丁八月始役九月畢役

1. 서울 도시계획 역사

조선시대 이전의 서울

한강 유역에 자리한 서울은 암사동 선사주거지를 통해 보듯이 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채집과 어로, 수렵 등으로 삶을 이어온 생활 터전이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은 시대에 따라 위례성(慰禮城), 한산(漢山), 한성(漢城), 양주(楊州), 남경(南京), 한양(漢陽), 경성(京城)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 야외조형물
한강 유역은 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채집과 어로, 수렵 등으로 삶을 이어온 생활 터전이었다.
(출처-암사동 선사유적 박물관)

삼국시대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수로와 육로 교통이 편리하고 사방을 둘러싼 산으로 인해 군사적 요새지가 된다는 이점으로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세력을 겨루었다.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것이 곧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 서울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다. 기원전 18년에 건국한 백제는 한성(서울)을 도읍으로 정하고 4세기 중반까지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영역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이때 서울은 수도의 면모를 갖추었는데, 475년(개로왕 21년) 고구려의 침략으로 웅진으로 천도할 때까지 약 700년에 이르는 백제 역사에서 500년 동안 수도로 번영을 누렸다.

이후 서울은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전락했다. 고구려는 한성을 차지한 뒤 77년간 지배하면서 전방의 전초기지인 남평양(南平壤)을 설치해 서울을 군사기지로 삼았고, 한강을 경계로 신라와 전쟁을 계속하면서 서울은 도읍의 지위는 물론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고 말았다.

서울이 도시의 면모를 다시 갖춘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였다. 신라는 685년(신문왕 5년) 통일된 국가를 9주 5소경(九州 五小京)으로 나누고 서울을 포함한 지역을 한산주(漢山州)라 하였다. 그리고 757년(경덕왕 7년)에는 군현제(郡縣制)를 실시해 한산주를 한주(漢州)로 고치고 서울에 한양군(漢陽郡)을 설치했다. 이로써 서울은 지방 군현의 하나가 되어 행정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통일신라시대에 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서울은 고려시대에 들어 양주, 남경, 한양으로 변천되며 한때는 도읍이 되어 발전해갔다.

고려는 983년(성종 2년)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하고 양주를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편제한 뒤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어 995년(성종 14년)에는 전국을 10개 도로 나눈 뒤 12개 주에 절도사를 두고 양주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군인 좌신책군(左神策軍)을 설치했다. 그리고



백제 유적 풍납토성 발굴 현장(2011년)
지금은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잔디를 깔아 놓았다.
(출처-서울시)



백제 유적 몽촌토성

1067년(문종 21년)에는 양주에 남경을 설치하고 인접한 군의 군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

남경은 서경(西京 : 평양) 동경(東京 : 경주)과 함께 고려 삼경(三京)이었다. 문종이 남경을 설치한 것은 삼각산 아래 지역이 제왕의 도읍이 될 만하다는 지리도참설(地理圖讖說)에 따른 것이었는데, 남경은 한강의 북부지방을 관할했다. 이후 남경은 도참사상에 따른 길조가 나타나지 않자 폐지되었다가 1101년(숙종 6년)에 궁궐을 짓고 다시 설치되었다.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한 남경은 교통로는 물론 지리적으로 최적의 위치여서 남도 지방을 통치하는 데 중요한 요지였다. 그래서 남경은 재건된 이후 약 2세기 동안 지속되며 도시의 틀을 갖추어 나갔고, 1308년(충렬왕 34년)에는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돼 지금의 고양·양주·포천 등 한강 이북 서울 지방과 그 주변 일대를 관할했다.

남경은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까워서 여러 왕들이 사냥을 즐기고 순행하며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리고 고려 말에는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남경으로 천도까지 했는데 1382년에는 우왕이, 1390년에는 공양왕이 각각 5개월씩 천도를 했다가 개경으로 환도했다. 이처럼 남경은 풍수지리적으로나 군사·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길지였다.



2018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
백제의 왕궁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자리한 송파에서는 해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열고 백제시대 역사와 문화를 전하고 있다.
(출처-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조선 건국과 한양의 도시 설계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조와의 연을 끊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국가를 일신하기 위해 천도를 강력히 추진했다. 새 도읍의 후보지는 한양과 계룡산(鷄龍山), 무악(母岳), 불일사(佛日寺), 적성(積誠) 광실원(廣實院), 선고개(鎭帖), 도라산(都羅山) 등 여러 곳이었다. 그러나 계룡산은 남쪽으로 치우쳐 자리하고 있어 풍수지리상 도읍으로 적당치 않았고, 불일사와 선고개는 터가 좁았다. 적성 광실원은 화물을 실어 나를 배가 드나들기 어려웠고, 도라산은 기운이 습했다.

태조는 무악(지금의 서울 연희동 일대)과 한양 등 도읍으로 알맞은 곳을 찾아 직접 살펴본 끝에 한양을 새 도읍지로 택했다. 한양은 산과 강으로 이루어진 빼어난 지형에 산수의 형세가 훌륭하고, 사방으로 통하는 길은 물론 지류가 발달한 한강이 흐르고 있어 수로와 육로 교통도 이로워 도읍지



수선전도(首善全圖)
조선 후기 고산자 김정호(金正浩)
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
본 서울 지도. 산과 하천, 주요 궁
궐 등은 얇게 채색해 놓았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로는 최적지였다. 전국의 중심에 자리하여 행정력을 남북으로 고루 미칠 수 있고,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군사적으로도 유리했다.

도읍지를 결정한 태조는 1394년 한양으로 천도했다. 그리고 천도와 함께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해 새 도읍의 도시를 설계했다.

도시 설계는 자연지리와 풍수지리에 바탕을 두고 중국의 가장 오래된 기술서인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전조후시(前朝後市) 좌묘우사(左廟右社)’를 원칙으로 삼았다. 전조후시에 따라 주산인 백악(白岳)을 배산(背山)으로 하여 경복궁을 지은 뒤 광화문 앞 도로 양측에 의정부·육조·

한성부 등 관아를 두었고, 경복궁 좌우와 종로 남쪽에 백성들의 주거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좌묘우사에 따라 경복궁 좌측 응봉(鷹峰)을 배경으로 종묘를, 우측의 인왕산 동남쪽 산줄기 끝에 사직단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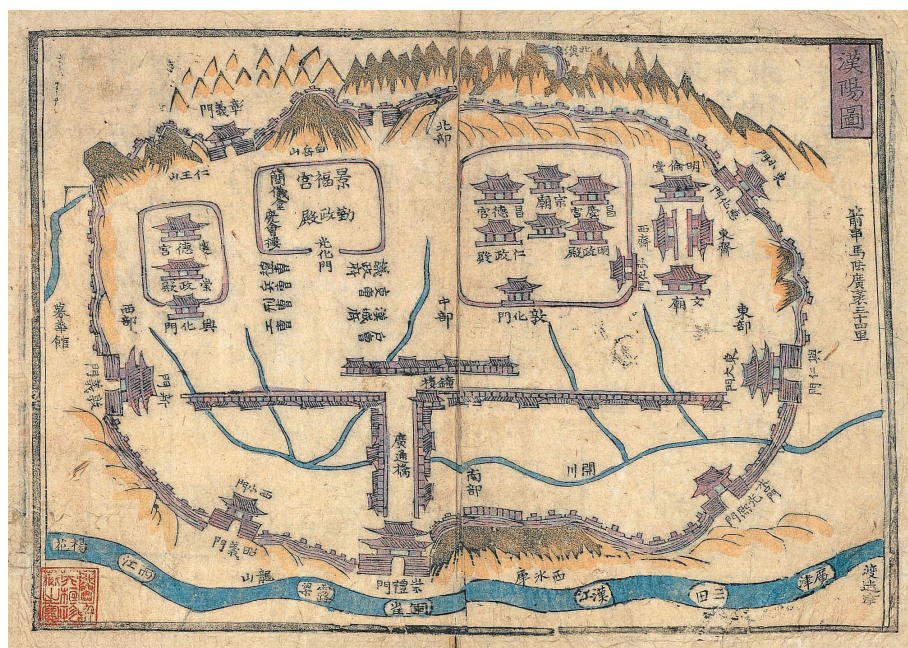
궁궐과 종묘, 사직, 문묘, 관아, 시전 등 주요 시설의 터를 잡은 뒤에는 1396년 행정구역을 설정했다. 행정구역은 도성(都城)과 성저(城底)로 구별했다. 도성은 ‘도성 안’, 성저는 ‘도성 밖’으로 도성으로부터 사방 10리에 이르렀다.

도성은 동·서·남·북·중의 5부(部)를 두고 각 부에는 오늘날의 구(區)에 해당하는 영(令)을 설치했다. 5부는 52방(坊)으로 구분해 그 아래 계(契)·동(洞)·통(統)을 두었다. 성저 10리는 북으로는 북한산, 남으로는 한강 노도(露渡), 동으로는 양주의 송계원(松溪院)·대현(大峴：牛耳川)·중랑포(中浪浦)·장안평(長安坪), 서로는 양화도, 고양의 덕수원(德水院：응암동)·모래내(沙川)를 따라 난지도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양은 조선왕조의 새 도읍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한양도성의 가로망

한양의 가로망(街路網)은 성터와 성문, 궁궐과 종묘, 사직단 등 주요 시설의 입지와 수계(水系)에 따라 조성되었다. 서울은 산악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다. 강북의 중앙에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낙산·인왕산·남산·북악산 등 내사산(內四山)이 있는데, 이 산 각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청계천에 모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굽이쳐 한강에 합류한다. 이러한 수계는 한양의 골격 형성, 특히 가로망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성은 광화문·육조거리의 정치적 중심부와 남대문에 이르는 T자형 상업적 중심부로 구성되었다. 도성 중심부 북악산 앞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배치하고, 경복궁 남문인 광화문 앞 양측에는 의정부와 육조 등 관청을 배



조선시대 한성부 지도
한양도성은 광화문·육조거리의 정치적 중심부와 남대문에 이르는 T자형 상업적 중심부로 설계되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치했다. 그리고 황토현(黃土峴 :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화문까지 경복궁과 관아를 연결하는 대로를 조성하고 황토현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홍인문까지, 서쪽으로 돈의문까지 연결하는 동서관통로(종로)를 조성했다. 또한 도성의 정문인 남대문에서 대광통교(운정가)까지 대로를 연결해 주 진입로를 조성했다.

도성을 짓고 주요 시설의 터를 잡으며 가로망을 조성하기까지는 한양 천도 이후 2~3년이 걸렸다. 이 기간 한양은 조선의 도움으로 새로이 거듭났다. 그러나 한양은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정종이 도움을 개경으로 천도하면서 일시 쇠락했고, 이때 백성들이 도로를 침범해 집을 짓고 길을 막아 가로망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쇠락한 도성은 정종에 이어 즉위한 태종 때부터 재건되었다. 1405년 태종은 한양으로 환도한 뒤 도성을 새로이 건설해 나갔다. 창덕궁을 새로 짓

고 지금의 종로 1~2가인 운종가를 비롯해 도로를 정비하며 가로망을 개선했다. 그리고 10여 년에 걸쳐 개천(開川)을 정비하고 시전행랑(市廛行廊)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다.

지금의 청계천인 개천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할 당시 지대가 낮은 자연 하천이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쳤고, 민가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가 모여 들어 청결하지 못했다. 개천 정비는 이 때문에 하였는데, 1406년부터 이듬해까지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바닥을 넓히고 독을 쌓았다. 그리고 1411년부터는 개거도감(開渠都監, 1412년 開川都監으로 변경)을 설치하고 광통교와 혜정교 등 돌다리를 만들며 정비해 나갔다.

시전행랑은 도성 안 곳곳에 만들어 상인들에게 빌려준 상점이었다. 행랑은 상인들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막기 위해 지었는데, 종로의 육의전(六矣廛)이 유명하다.

행랑은 1412년부터 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지었다. 혜정교에서 창덕궁 동구(洞口), 대궐문에서 정선방(貞善坊), 종루(鐘樓)에서 경복궁, 창덕궁에서 종묘, 종루에서 남대문, 종묘에서 동대문 사이의 간선도로 좌우에 2,020여 칸을 지었다. 그리고 시전행랑을 조성한 도로변에는 배수구를 설치해 1415년(태종 15년)부터는 도로의 너비와 길가의 배수로를 법으로 정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도성 정비는 세종 때에도 계속 이어졌다. 세종은 먼저 도성 수축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다. 천도와 함께 지은 도성은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 구간이 많아서 견고하지 않았고, 자연석에 가까운 돌로 쌓은 석성(石城) 구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토성은 석성으로 고쳐 쌓고 석성은 고



한양도성을 새로이 건설한 태종 어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을 정비한 세종 어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르고 반듯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었다.

도성 수축은 1422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약 40일간 했다. 공사는 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석성으로 고쳐 쌓는 것이었다. 도성은 전체의 1/3 정도가 토성이었는데 이를 석성으로 개축(24,535척)하고 무너진 석성 구간은 보수(3,952척)한 것이다. 도성의 높이도 조정해 험지(險地)의 석성 높이는 처음의 15척에서 16척으로 조금 높였고, 평지의 높이는 25척에서 23척으로 낮추었다. 그동안 개천이 넘치면 천변의 인가가 물에 잠기곤 하여 수문도 좀 더 크게 넓혔고, 서전문을 폐쇄하고 돈의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성벽을 따라 안팎으로 너비 15척의 순심로(巡審路)를 냈다. 순심로는 군사들이 성벽을 따라 순찰을 도는 길이었는데, 성벽이 무너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담당 관아에 알려 보수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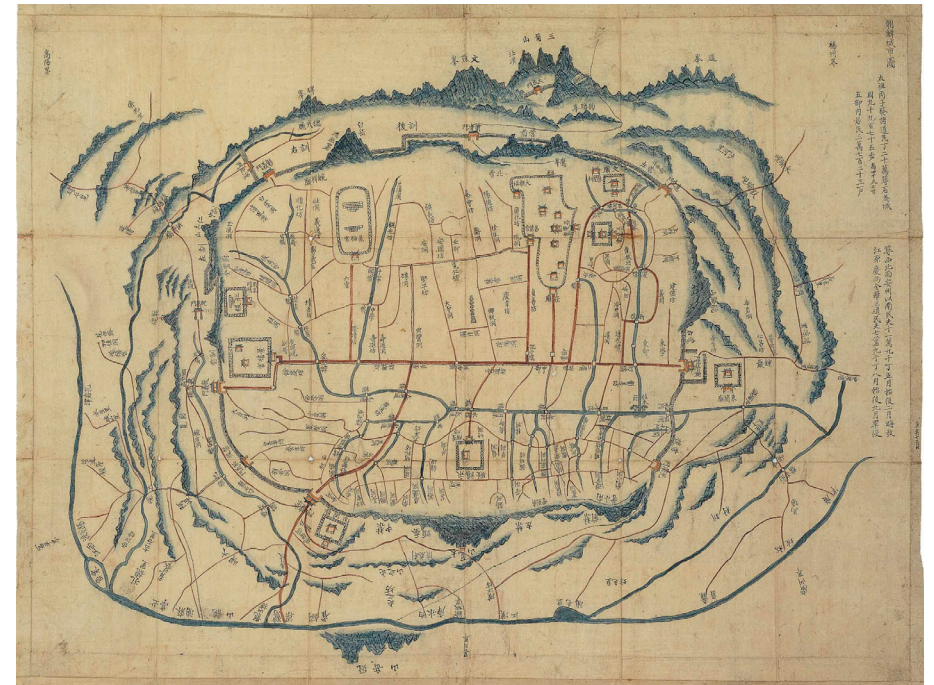
40일간의 수축 공사로 도성은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환도 이후 개천 정비와 도성 수축 공사로 도읍의 면모를 새로이 갖춘 것이다.

한양도성의 가로망 체계

1426년 세종은 도성의 길을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로 구분해 길의 등급을 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가로망 체계는 이때부터 잡혀나갔다.

대로·중로·소로의 규모는 조선시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록돼 있다. 이를 보면 대로는 너비 56척, 중로는 16척, 소로는 11척이었다. 그리고 길 양쪽의 도랑, 즉 배수구는 너비가 2척이었다.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로의 너비는 17.48m, 중로는 5m, 소로는 3.43m이며, 배수구는 62cm 정도 되는데, 이는 세종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규정한 한양의 도로는 대로가 셋, 중로가 여섯이었다.



조선성시도(1830년)

한양도성의 궁궐과 문묘, 사직 등 주요 건축물과 도로망, 하계망(河系網), 다리가 표시돼 있다. 팔대문을 통해 도성 밖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붉은색으로 표시했고, 산과 하계망은 청록색으로 채색했다.
(출처-서울역사박물관)

• 대로

- ① 지금의 광화문 사거리인 황토현에서 경복궁 앞에 이르는 길로, 좌우 양쪽에 의정부와 육조, 사헌부 등 관아가 있었다.
- ② 홍인지문(동대문)에서 경희궁까지의 길로, 동서를 관통했다. 지금의 중로가 중심이었다.
- ③ 숭례문(남대문)에서 광통교(보신각 앞)에 이르는 길로, 백성들이 빈번하게 드나들던 길이었다. 특히 삼남 지방에서 도성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거쳤던 큰 길이었다.

• 중로

- ① 중로 3가에서 창덕궁 돈화문에 이르는 길(돈화로).

- ② 종로 4가에서 창경궁을 끼고 혜화문에 이르는 길(혜화로).
- ③ 을지로 입구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길(을지로).
- ④ 충무로 입구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길(지금의 퇴계로).
- ⑤ 사직단 입구에서 경복궁을 거쳐 보신각에 이르는 길.
- ⑥ 덕수궁 대한문에서 궁궐의 담을 끼고 서대문에 이르는 길.

한양은 크고 작은 산과 구릉으로 둘러싸인 지형에다 산에서 한강으로 흐르는 개천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도로를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고개에 길을 내고 개천에 다리를 놓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누르재·구리개·진고개·풀무재·배고개 등의 고갯길과 도성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청계천·광통교·수표교·효경교 등의 다릿길은 또 다른 길이었다.

이처럼 도로와 고개를 만들고 다리를 놓아 완성한 한양의 가로망은 곧고 바르게 연결돼 통행이 원활했다. 도로의 침식도 법제적으로 규제했고, 도로를 수리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다.

도로는 한양의 행정과 도시를 관할한 한성부(漢城府)가 관리했다. 도로를 보수하는 일은 한성부 백성들을 동원했고, 파손된 도로나 다리는 즉시 수리하고 복구했다. 도로 관리 규칙도 만들어 매우 엄격하게 시행했는데, 도로를 물론 그 양편 도랑에 오물을 버리거나 파손하는 자가 있으면 범법자와 해당 관리까지 책임을 물어 처벌했다.

도성의 관리

조선 건국과 더불어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도성을 짓고 세종 때 이르러 도성을 정비한 시기는 서울의 시가지가 형성된 시기였다. 특히 세종은 1426년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을 설치해 도성을 관리했다.

수성금화도감은 성문도감(城門都監)과 금화도감(禁火都監)을 통합해 설

치한 기관이었다. 1422년(세종 4년) 도성 수축 공사가 끝난 뒤 설치한 성문도감은 도성 안팎으로 순번을 돌며 도성을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1426년(세종 8년)에 설치한 금화도감은 화재 방지와 개천의 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세종은 이 두 기관을 통합해 성벽 수리와 방화 업무를 겸하게 하고, 도로와 교량의 수축 등을 맡게 하였다.



오늘날의 소방관인 조선 후기의 '금화군'

그러나 수성금화도감은 1460년(세조 6년) 관서 개편과 기구 축소에 따라 일시 폐지되었다. 업무도 수성(修城 : 성곽 수리)은 공조로, 금화(禁火 : 소방)는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수성금화도감은 도성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방화가 늘어나면서 도둑질이 많아지자 1481년(성종 12년)에 부활되었고,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상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수성금화사는 조선 후기에 폐지될 때까지 궁성과 도성의 성곽 수리, 궁궐과 민가의 소방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도성의 파괴와 복구

수축 공사와 도로 정비로 시가지의 틀을 갖춘 도성은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 등 거듭된 전란으로 초기의 모습을 잃고 파괴되었다. 특히 7년에 걸친 임진왜란으로 종묘와 궁궐, 종각, 종로 이북의 집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는데, 이를 복구하는 데는 오랜 기간에 걸렸다.

임진왜란으로 훼손된 도성을 고치는 공사는 1612년과 1618년, 1621년, 1623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했다. 1650년에는 광희문과 창의문, 돈의문, 홍



'수성윤음'을 반포해 도성 사수 의지를 천명한 영조 어진
(출처-국립고궁박물관)

인지문을 수리하는 등 크고 작은 공사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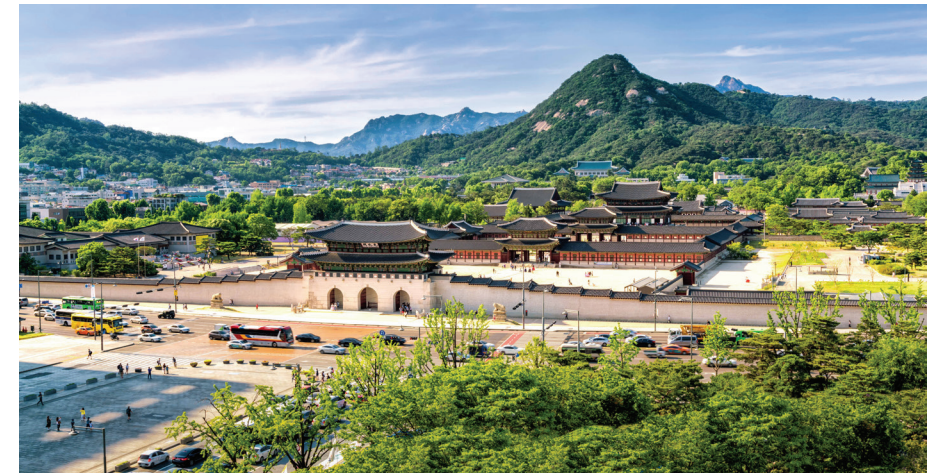
도성 수축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특히 숙종 때 공사를 크게 하였고, 그 뒤를 이은 영조는 성문들을 재건하며 도성의 제 모습을 갖추는 등 마무리를 하였다. 영조는 도성을 관리하는 체제도 정비했다.

숙종은 1704년부터 도성 수축 공사를 시작해 1711년에는 수도 방위를 위해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했다. 이러한 공사는 1712년에 대체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더 이상 외침과 전란으로 고초를 겪지 않기 위해 수도 방위는 물론 국방에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영조는

도성 관리 체제를 정비하며 1751년 수성윤음(守城綸音)을 반포해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수성윤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도성의 방위체제를 확립한 것이었다. 수성윤음을 반포하기 전까지 도성과 도성민은 방어의 대상이 아니었다. 적이 침입하여 도성이 위태로우면 왕은 도성을 벗어나 몽진(蒙塵)부터 했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의주까지 몽진을 했고 병자호란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이는 곧 도성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수성윤음을 통해 밝힌 것이다.

수성윤음은 도성을 지키는 규정을 9가지 조목으로 정리한 수성절목(守城節目)과 함께 반포했다. 수성절목의 주요 내용은, 오부(五部)의 민호(民戶)는 부근의 삼군문에 나누어 배정하고, 각 군문은 맡은 경계에 따라 지도를 만들어 알리며, 만일 위급한 일이 생기면 노약자와 집을 지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와 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한성부 오부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도 방위를 맡고 있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의 삼군문에 소속되어 유사시에는 지정된 위치에서 도성을 방어한다는



1991년부터 20년에 걸쳐 복원한 현재의 경복궁

내용이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복구한 도성은 경복궁을 제외하고 대체로 원상 회복되었다. 그리고 경복궁 중건을 끝으로 도성 복구를 마쳤다.

경복궁 중건은 1865년부터 시작해 1867년 말까지 했다. 한양도성과 함께 조선을 상징하는 경복궁은 『시경(詩經)』의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만년 그대의 큰 복을 도우리라(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에서 마지막 두 자 '景福'을 따서 이름 지었다. 경복궁은 1395년 창건할 때만 해도 390여 칸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태종이 한양으로 환도한 뒤 궁 안에 경회루를 짓고 신하들과 잔치를 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며 정궁(正宮)으로 썼다. 이후 경복궁은 어린 조카를 끌어내리고 왕에 오른 세조가 창덕궁에 기거하면서 임금이 살지 않는 궁이 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모든 건물이 불에 타버리면서 270여 년간 폐허 상태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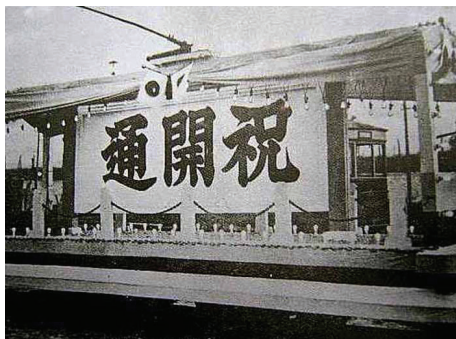
경복궁 중건은 홍선대원군의 강력한 의지였다. 홍선대원군은 왕실의 상징인 경복궁을 그 어느 궁궐보다 크게 지어 위엄을 높이려 했는데, 그 규모를 보면 전체 7,225칸에 후원의 전각이 256칸, 궁성 담장의 길이가 1,765칸이었다. 그러나 경복궁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어 많은 피해를 보았다. 지

금의 경복궁은 1991년부터 20년에 걸쳐 공사를 하여 복원한 것으로, 홍선대원군이 지은 경복궁의 40% 정도를 복원한 것이다.

일본의 도성 훼손과 도시 변화

한양은 조선 중기부터 인구 증가와 더불어 상업이 발달하면서 후기에는 성저십리를 비롯한 도성 외곽 지역에 위성도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위성도시는 17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해 개항 이전까지 번성했는데, 위성도시는 도성의 사대문 안으로 국한되었던 시가지를 확대시키며 도시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시기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자주독립 국가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그리고 왕권의 위상을 높이려 도성을 재정비했는데,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도성은 훼손되기 시작했다.



전차 개통식(1899년)



근대화의 시작 전차

근대화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전차가 도입되고 철도가 건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전차의 등장은 남대문-한강로-한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남북 축을 형성하며 시가지를 확대시켰다. 또한 1898년 서대문에서 종로와 홍인지문을 거쳐 청량리에 이르는 노선이 완공되면서 동서 축이 형성되었고, 1899년에는 남북 축 노선이 종로에서 남대문까지 확장된 데 이어 1901년 용산까지 연장되었다.

전차 노선은 도성을 지을 때 설계한 기존의 T자형 가로망을 따랐다. 또한 전차 궤도가 남대문과 동대문을 통과했지만 성문

을 없애거나 성벽을 헐지 않고 성문을 돌아나가게 선로를 놓았다. 근대화 과정에서도 도성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런 노력은 1907년 일본이 '성벽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를 설치하고 도성을 훼손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도성을 비롯해 성곽이 있는 도시들의 교통 왕래를 원활히 한다는 명분으로 설치한 기구였다. 그러나 목적은 도성을 훼손하는 데 있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도성을 단순한 장애물로 인식하고 훼손했다. 1907년 3월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권중현은 동대문과 남대문이 수레와 말들이 복잡하게 드나들고 전차까지 그 복판을 가로질러 다녀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교통의 편리를 위해 도성의 일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과 남대문 문루의 좌우 성벽을 8칸씩 헐고 전차 선로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어 6월에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탁지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이병무가 동대문과 남대문 좌우의 성벽을 헐고 남은 것들이 장애가 되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이들의 주장대로 1907년부터 동대문 성벽과 오간수문, 남대문과 소의문 성벽을 철거하고 철거한 성벽의 부재는 도로와 건축 공사의 재료로 사용했다.

성벽처리위원회는 1908년 9월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성벽을 처리하는 일은 내부(內部)의 지방국(地方局)과 토목국(土木局)으로 이관되어 도성은 물론 지방의 성곽까지 대상으로 하여 훼손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전차 선로를 놓기 위해 좌우 성벽이 헐린 남대문(1911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2. 일제강점기 경성 도시계획

도성 파괴와 도시 개조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데 이어 1910년 8월 강제로 병합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점 하에 기나긴 식민지배에 들어갔다.

일본은 한일병합 이후 노골적으로 한양도성을 훼손했다. 특히 1914년에는 도성 밖까지 경성부로 포함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해 한양도성은 그 의미를 잃고 말았다. 또한 서울을 경성(京城)이라 칭하고 도시를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경성시구(京城市區) 개정사업을 실시하며 도성과 성문을 본격적으로 헐기 시작했다. 1914년에는 소의문을, 1915년에는 돈의문을 헐었고, 1926년에는 일본 황태자의 결혼식을 기념해 경성운동장을 지으면서 동대문과 광희문 사이의 성벽을 파괴하고 성벽 하단부의 석재는 관중석을 만드는 데 썼다. 이때 이간수문도 헐었고, 1938년에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혜화문 육축을 철거했다.

일본은 도성을 훼손하면서 성문을 매각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1914년 소의문을 헐 때는 경매에 붙였는데, 보전하는 데 경비가 들 뿐만 아니라 보전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15년 돈의문을 헐 때도 목재를 경매에 붙여 205원 50전에 팔아치웠고, 석재 일부는 도로를 고치는 데 썼다.



일제강점기에 헐린 돈의문(1898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1925년 일본은 조선신궁(朝鮮神宮)과 참배로를 만들면서 남산 주변의 성벽을 대거 훼손했다. 구한말 도성을 개방하면서 서울로 들어온 일본인들은 충무로와 필동 등 남산 일대에서 집단으로 살았다. 이들은 1910년 남산에 한양공원(漢陽公園)을 만들었는데, 조선신궁은 그 공원에 들어섰다.

경복궁에서 마주 보이는 남산은 조선시대 신령스러운 산이었다. 태조는 도읍을 정한 뒤 한양의 수호신사로 북악산에 북악신사(北岳神祠)와 남산에 목멱신사(木覓神祠)를 두었다. 목멱신사는 조선의 국사당(國師堂)이었다. 국사당에서는 사사로운 치성은 할 수 없었고 오로지 국가와 관련된 제를 올렸다. 이러한 국사당을 일본은 강제로 철거하고 남산에 일본 천황을 모시는 신사(神社)를 지었다.

이렇듯 일본은 한양도성을 파괴하며 서울의 도시 구조를 바꿔나갔다. 그 시작은 경성시구개정사업이었다.

경성시구개정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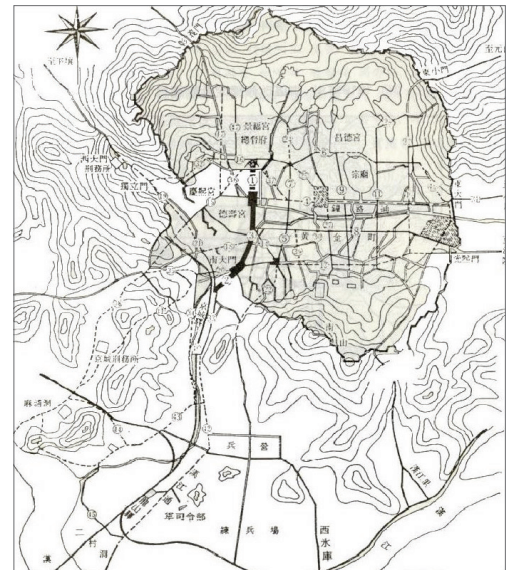
1912년 조선총독부는 경성시구 개정을 통해 시가지를 정비하며 도성 안의 도시 구조를 격자형(가로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맞추어 바둑판 모양으로 짠 형식) 가로망과 방사형(중앙의 한 지점에서 사방으로 바퀴살처럼 죽죽 내뻗친 모양) 가로망으로 개수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추진한 사업은 노선 직선화와 노폭 확장, 주요 도로의 보도·차도 분리와 포장 등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성을 파괴하며 시가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쳤다.

경성시구개정사업은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남대문 좌우의 성벽을 철거한 뒤 도로를 개설하고, 전차를 개통하며 남대문과 서울역을 잇는 도로를 확장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하던 사업을 1912년 11월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29개를 고시하고 경성 전역에 걸쳐 도로 개수에 착수한 것이다. 이때부터 한양도성은 본격적으로 철거되었다.



경성시구개정사업으로 도로 개수를 마친 남대문통 조선은행 앞 광장
(출처-서울역사박물관)

시구개수예정노선계획은 광화문·을지로 3가·안국동·시청을 중심으로 한 광장 조성 계획과 방사선 도로 계획이 특징이었다. 이후 일본은 1917년 이미 고시한 노선에 2개 노선을 추가한 뒤 1919년에는 방사선 도로 계획을 격자형 패턴으로 바꾸고 용산과 마포 지역까지 확장·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1922년, 1925년, 1928년 세 차례에 걸쳐 노폭을 확장하고 노선을 추가해 1928년 최종 47개 노선을 결정했다.



경성시구개수노선도
(출처-서울시)

경성은 시구개정사업으로 도시 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도성 안으로 국한되었던 도시가 외연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도로가 확장되면서 건축물의 중·개축과 신축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경성도시계획

경성은 시구개정사업으로 도시의 외곽이 확장되고 점차 과밀화되어 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역(市域)을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필요했다.

1918년 조선총독부는 내무성에 '도시계획조사회'와 '도시계획과'를 설치하고 1919년 도시계획조사회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조사요강 및 도시계획법안', '시가지 건축물법안'을 제정했다. 또한 1921년에는 장래 100만 명을 포용하는 경성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경성도시계획연구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조사·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경성도시계획』

자료조사서』(1927), 『경성도시계획조사서』(1928), 『경성도시계획』(1930),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1932) 등을 발간했다.

1928년 경성도시계획

경성부가 1928년에 발간한 『경성도시계획조사서』의 도시계획과 가로망 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당시 경성 시가지는 남대문-서울역-삼각지-용산 신시가지로 이어지는 남향 축, 동대문과 광희문에서 신설동-청량리-왕십리로 뻗어가는 동향 축으로 향하는 역 ‘ㄱ’자 패턴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지형적 조건과 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인구, 인접 면과의 관계,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상공업 발달 추세, 주변 자연환경, 행정구역 등을 고려했다.

가로망계획

가로망은 1928년 경성시구개수에정계획으로 결정한 47개 노선망의 골격과 규모를 유지했다. 다만 구역이 넓어지고 도시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장래 교통량을 감안해 계획을 세웠다. 당시 설정한 가로망의 특징은 도심 부에서 청량리역까지 동쪽을 향해 격자형 구조로 설정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남북 축과 외곽순환도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1930년 경성도시계획

1930년에 발간한 『경성도시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성 시가도(1927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 도로공사 일람도(1935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도시계획

1930년의 경성도시계획은 영등포면 영등포리·당산리·북면 번대방리·신길리·도림리·양평리·양화면 양화리·염창리를 추가해 1928년의 계획구역보다 더 확장되었다.

가로망계획

도시계획구역을 자연지세에 따라 7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현재의 시청 앞 광장을 도심으로 하여 각 구역의 중심을 잇는 가로를 설정하고, 각 구역의 중심 상호 간을 잇는 노선을 설정해 이를 주요 간선으로 한 뒤 나머지 노선을 배치하는 교통계를 세웠다. 또한 도로의 폭원을 따라 광로(廣路)·1등대로(제 1·2·3류)·2등대로(제 1·2·3류) 등 도로의 위계를 확립했다.

경성시가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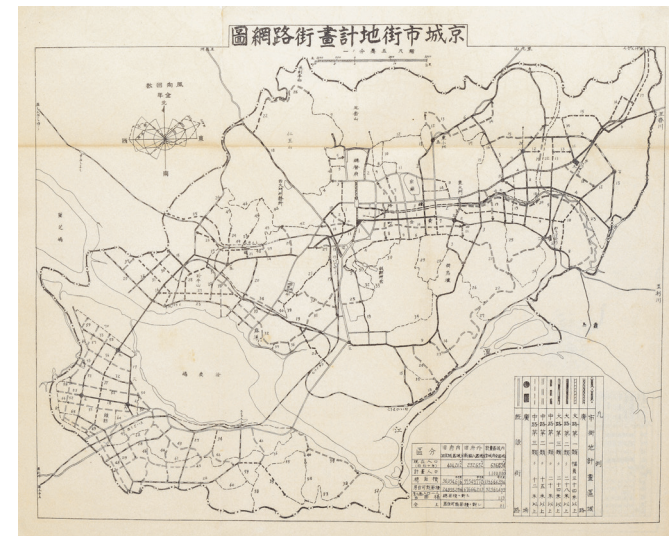
1934년 일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공포하고 이를 근간으로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을 수립한 뒤 시가지를 정비해 나갔다.

계획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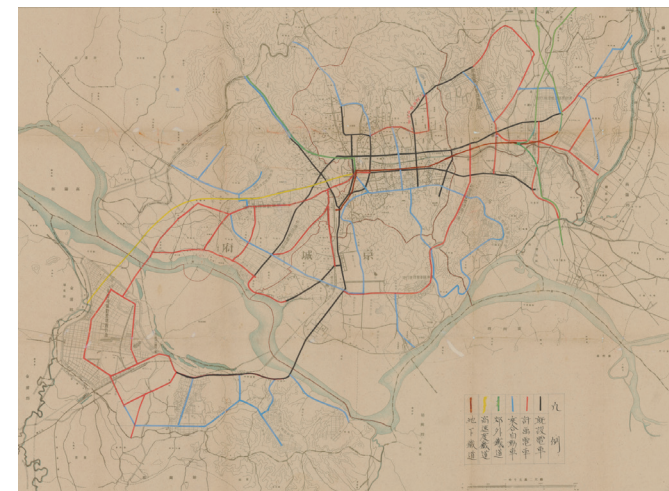
계획구역은 1930년 계획안의 구역 범위와 비슷하나 부분별로는 약간씩 범위가 늘어났다. 경성부 일원 186개 정(町)·동(洞) 전역에 고양군·시흥군·김포군과 영등포읍·은평면 등 8개 면(面)이 포함되었다.

가로망계획

일제는 1936년 12월 26일(총독부고시 제722호) 220개 노선의 가로망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경성부의 재정 사정과 제2차 세계대전으



경성 시가지 계획가로망도(1938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경성 교통계획도(1942년)
(출처-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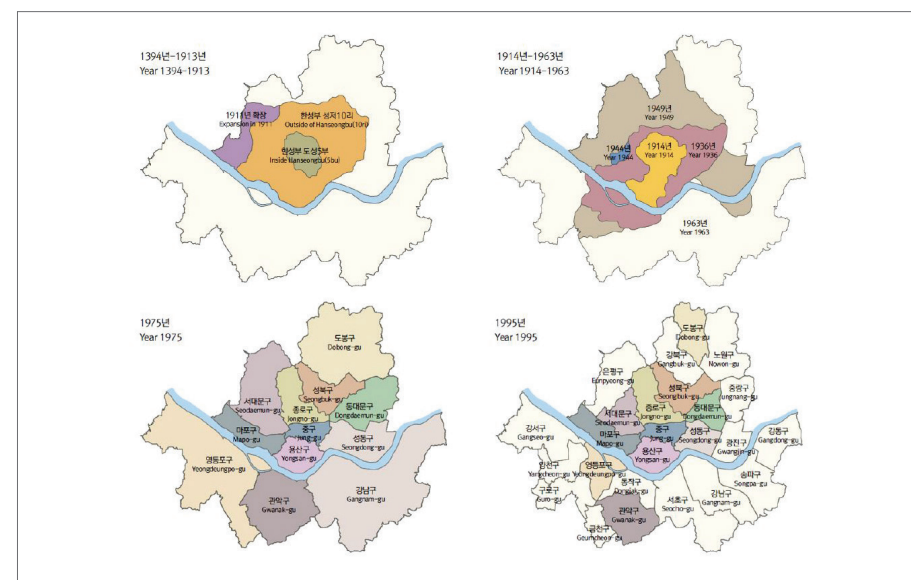
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광복 후인 1955년부터 이 가로망계획이 시행되어 1960년대 이후까지 인계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간선도로망의 바탕이 되고 있다.

3. 광복 이후 서울 도시계획

1960년대 서울 도시계획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 다시 태어났다. 이듬해 서울은 경기도에서 분리돼 1946년 9월 28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되었고, 1949년 8월 15일 행정구역을 확장하며 현재의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서울특별시로 개칭될 당시 서울은 인구 150만 명의 대도시였다. 그러나 서울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서울시 행정구역 변천도(1934~1995년)

수도로서의 기능은 되찾았지만 폐허 상태였다. 150만 서울 시민 중 110만 이상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왔을 정도로 피해는 막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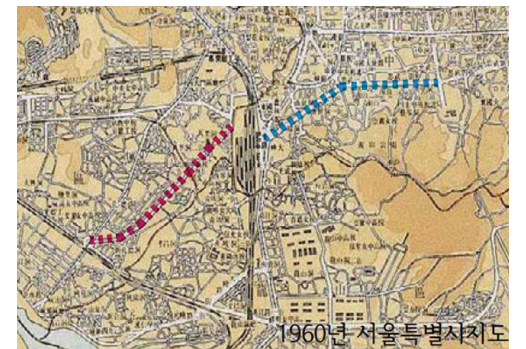
서울 도시계획은 전쟁 중인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파괴된 서울을 재건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였다.

1962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서울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가지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1963년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서울의 면적이 2배 이상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는 1963년 도시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도심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4개 지구(은평·송인·구로·뚝섬 지구)로 구분해 기능을 분산시켜 나갔다.

서울을 재정비하는 계획은 1966년 수립해 발표한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이어졌다. 이 계획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실질적인 마스터 플랜이었다. 1985년을 목표연도로 하였고, 인구 500만 명이 거주하는 현대적 도시를 건설한다는 종합적 장기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도심과 용산을 정치행정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창동·천호·강남·영등포·은평 등을 부도심으로 계획했다. 도심과 부도심 주변부의 주택지는 고층화를 유도했고, 가로망 패턴은 도심을 중심으로 부도심과 연결되는 방사 형태의 집중형으로 계획했다. 교통은 위성도시와의 연결도로, 도심과 부도심의 주요 기능을 연계하는 도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1960년대의 퇴계로(파란 선)

1970년대 서울 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조정에 따른 서울시 가로망 계획(1970년)
(출처-서울시)

실질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72년 ‘시정종합계획’으로 이어졌다.

시정종합계획은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물리적 계획과 사회·경제적 계획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이었다. 주요 내용은 과밀·집중된 도심

의 인구와 기능을 부도심(미아·청량리·천호·영동·영등포·화곡·은평)에 분산시키고, 부도심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순환도로를 확충·정비하고, 도심부와 부도심을 연결하는 방사선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 서울 도시계획

서울시는 1980년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갔다. 이 계획은 ‘중기개발계획’(1980~1986년)과 ‘구조계획’(1987~2000년)으로 구분해 수립되었다. 전반기 중기개발계획 기간에는 도시 정비와 도시 개발 사업을 설정하였고, 후반기 구조계획 기간에는 분야별 사업을 포용하는 고밀토지 이용, 다핵구조화, 생활권계획, 도시환경 정비 등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이 계획은 광역도시권 계획을 포함해 수도권인 인구 편중 현상을 지양하는 개발을 도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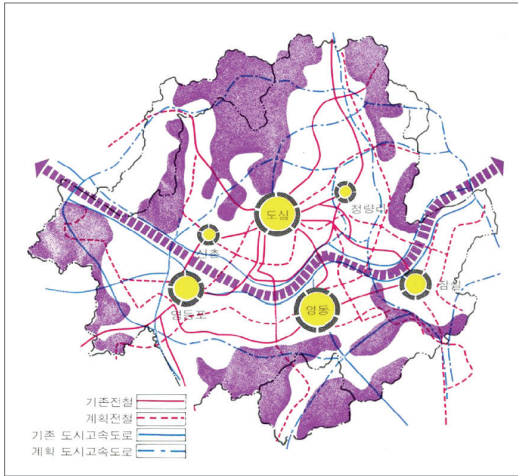
1984년 서울시는 다가올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서울의 기본계획 방향과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성·재정비 계획을 제시한 이 계획은 2001년 계획인구를 1,000만 명으로 설정해 ‘천만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확립한 최초의 계획이었다. 도시공간은 도시중심지를 1주핵·3부핵·13부심·50지구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했고, 생활권은 일상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하여 소·중·대 생활권으로 구분했다. 또한 도심부의 제1순환선 내부-신설동-상왕십리-을지로 6가를 잇는 구역을 재개발 지정해 보행자 전용도로망을 구축했다. 그리고 1991년까지 강남 개발을 유도하고 1991년 이후는 강북을 선별적으로 개발한다는 신개발 비전도 제시했다.

1990년대 서울 도시계획

서울시는 1980년대부터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따라 1990년 최초의 법정계획인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도시 공간의 구조를 개편해 위계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 도시 구조의 다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 도심 1개 : 사대문 안
- 부도심 5개 : 신촌·청량리·영등포·영동·잠실
- 지구중심 58개 : 미아·천호·화곡·연신·신림·용산·한남·망우·가락·길동 등

또한 도시 공간을 강북과 강남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격자형 가로와 전철망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교외 지역과 부도심 개발을 위해 지하철·전철 노선 확충, 고속도로망 구성, 격자형 간선도로체계



사대문 안 중구·종로를 중심으로 하여 수립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1990년)
(출처·서울시)

구축 등을 통해 도로망의 연결성을 제
고했다.

1997년 서울시는 두 번째 법정계획
인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공고했
다.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이 계획은 6개의 우선추진과
제, 6개의 지속추진과제 등 모두 12개
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추진과제는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저공해 교통수단을 개
발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문화·편의 시설 확충, 지구 공공시설 확충 등 문화·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로 복지·교통·환경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추진과제

- 교통환경 개선
- 환경오염 저감
- 문화·복지 증진
- 생활환경 개선
-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 방지
- 도시 방재체제 구축

지속추진과제

- 다핵도시 구조로의 개편
- 도시 기간교통망 및 통합결절점 시설 확충
- 환경친화적 도시로의 개편
- 공원·녹지 확충
- 시가지 개발의 계획적 관리
- 지역경제 기반 및 도시경쟁력 제고

4. 2000년대 서울 도시계획

2000년대에 들어 서울은 인구 구조의 변화, 지방자치제 정착, 시민 참여 강화, 대도시권 광역화 진전 등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21세기 서울의 미래상·생활상·도시상·지역상을 재정립하여 환경친화적인 미래 도시를 만드는 기본 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을 수립해 추진했고, 이를 이어 현재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2000년대 초의 퇴계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01년 3월 서울시는 인터넷을 통해 서울의 미래상 슬로건을 공모했다. 이 공모에는 680여 건이 참여했는데, 서울시는 이를 분석해 미래상 이미지(인간·역사·자연)를 도출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울의 현안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와 자유게시판을 통한 의견 개진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미래상·목표 정립·부문별 계획을 만들고 2002년 4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구분(2006년)
(출처-서울시)

월 최종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3년 시장단 보고,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 청취, 설명회를 거쳐 2005년 12월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완성했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설정한 서울의 미래상과 목표, 중점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 **서울의 미래상**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
- **목표**
 - 고도성장기의 도시 문제 치유
 - 서울의 역사와 자연환경 회복
- **4대 계획목표**
 - 생태도시 · 복지도시 · 문화도시 · 세계도시

• 4대 계획목표별 중점추진방향

- 생태도시 : 공기가 맑은 도시, 물이 깨끗한 도시, 자연이 풍부한 도시, 환경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도시
- 복지도시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시민복지가 향상된 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룬 도시
- 문화도시 :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문화적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 지역별 고유문화를 간직한 도시
- 세계도시 : 기업 활동이 편리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경관이 수려한 도시, 첨단정보 도시, 외국인도 살기 좋은 도시, 행정이 투명하게 열린 도시

2030 서울플랜

2030 서울플랜은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 수렴, 분야별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0년 5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듬해 5월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 계획과제를 새로이 도출했다. 그리고 '203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참여단이 설정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반영해 2014년 5월 203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2030 서울플랜은 핵심 이슈 중심의 전략 계획이다. 1개의 비전, 5개의 핵심 이슈, 17개의 목표를 설정해 방대한 계획을 집중과 선택으로 수립한 전략적인 계획인 것이다. 또한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며,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거쳐 전략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2030 서울플랜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계획 대상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서울대도시권이다. 2030 서울플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2030 서울플랜은 시민참여단이 설정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반영해 수립되었다. (사진은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회의, 2020년)
(출처-서울시)

과 같다.

• 2030 서울플랜 미래상

서울의 미래상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설정했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와 토론, 홈페이지 의견 개진 등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결정했다.

• 2030 서울플랜 계획과제

시민참여단의 논의를 통해 교육·복지·일자리·소통·역사문화 및 경관·기후변화 및 환경·도시개발 및 정비 등 7대 계획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핵심 이슈별 계획 목표와 전략에 반영했다.

• 2030 서울플랜 핵심 이슈

핵심 이슈는 5가지로 설정하여 목표를 정했다.

핵심 이슈 1.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 중심 도시

- 목표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 마련
 -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 터전 조성
 -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
 -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핵심 이슈 2.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 도시

- 목표
-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제 도시 도약
 -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 경제 실현

핵심 이슈 3. 역사가 살아 있는 즐거운 문화 도시

- 목표
-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 역사 구현
 -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 경관 관리
 -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 문화 창출

핵심 이슈 4.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 도시

- 목표
- 공원 선도형 생태 도시 조성
 -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실현
 -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2030 서울플랜으로 수립한 서울의 미래상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다.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결정되었다. (사진은 제1회 2040 서울 미래포럼 토론 모습, 2020년)
(출처-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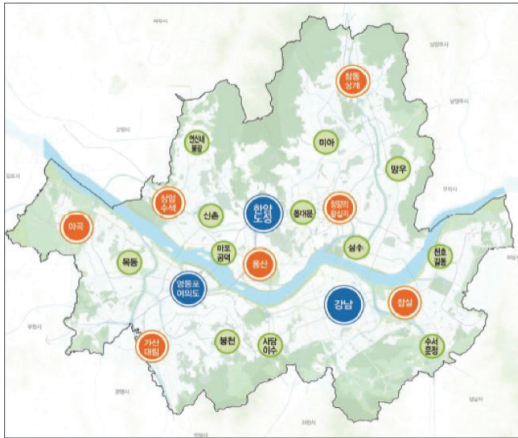
핵심 이슈 5.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 목표
-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 재생 추진
 -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 환경 조성
 -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 공간 확대

2030 서울플랜은 2030년 미래상을 반영하여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다음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서울의 고유한 자연·역사 문화 자원이 밀집한 한양도성 내부를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특성 및 정체성을 강화한다.

둘째, 기존의 도심인 한양도성 외에도 강남 지역을 글로벌 업무 중심으로, 금융 기능이 집적된 영등포·여의도를 국제 금융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3도심 체계를 마련한다.



2030 서울플랜 중심지 체계
(출처-서울시)

셋째, 서울시 행정구역 내부를 중심으로 한 공간구조에서 경기·인천 중심지와 연계한 발전 축을 설정해 대도시권 확장에 따른 광역화에 대응한다.

서울의 중심지 체계는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의 단핵구조였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권역 간 격차 해소, 서울 대도시권 광역화 등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30 서울플랜은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다핵구조로 전환하여 중심지별 특화·육성, 중심지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해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

• 도심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서울의 공간구조를 반영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3도심 체제로 하였다.

- 한양도성(역사 문화 중심지) : 서울의 역사 도심으로 국제적인 문화 교류 기능 담당
- 영등포·여의도(국제 금융 중심지) : 증권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 기능 담당
- 강남(국제 업무 중심지) :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 담당

• 광역중심 : 기능적으로 특화된 중심지를 육성하여 권역별 균형 발전 도모

광역중심은 업무, 상업·문화, 관광, R&D,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특화된 광역 고용기반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광역철도 연계성, 신성장산업 집적도, 대규모 개발가능지 등을 고려해 기존 5부도심에 4개를 추가하여 7개를 선정했다.

- 기존 부도심 : 용산(도심권), 청량리·왕십리(동북권), 상암·수색(서북권)
- 신규 부도심 : 창동·상계(동북권), 마곡(서남권), 가산·대림(서남권), 잠실(동남권)

• 지역중심 : 생활권별 고용기반 마련 및 자족성 강화

지역중심은 자족성 제고를 위해 지역 고용기반을 형성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상업·문화 중심 기능을 담당할 12개 지역을 기존의 지역중심지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 연신내·불광, 마포·공덕, 사당·이수, 수서·문정(전략중심지) 등은 개발 현황과 향후 잠재력을 반영해 기존 중심지 범위를 확장하여 설정
- 동대문 성곽과 연결한 창신동과 황학동 일대를 동대문 지역중심으로 신규 선정

• 지구중심 :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지구중심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에 지정하는 중심지로, 기존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지구중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자치구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5. 퇴계로의 변천

소화통, 퇴계로의 탄생

조선시대의 도로는 대부분 하천의 흐름과 방향을 따라 발전했다. 그래서 대로와 중로는 직선이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로는 대부분 직선 보다는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이는 시대가 변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도로 정비와 재개발 사업으로 일부 도로 체계가 변하기는 했지만 골격은 그대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구처럼 광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광장문화’ 대신에 ‘도로문화’ 또는 ‘골목문화’가 발전해왔다. 골목길부터 대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도로는 단순히 사람과 차량이 다니는 통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골목길은 동네 사람들이 삶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하는 생활의 한 공간이었다. 이는 도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서울은 ○○로, ○○가, ○○길 등으로 도로를 구성하고 있다. 중구를 보면 청계로, 을지로, 남대문로, 회현로, 퇴계로, 충무로, 태평로, 서소문로 등을 비롯해 충무로 ○가, 퇴계로 ○가, 을지로 ○가, 그리고 칠패길, 장충단길, 왕십리길, 애오개길, 명동길, 마른내길, 남산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길들은 대부분 조선시대부터 있던 길이다.

조선시대 중로 중 하나였던 퇴계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 9월 18일(총독부고시 제757호) 처음 명명되었다. 명명된 이름은 ‘소화통(昭和通)’이었다.

1934년 일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공포하고 경성의 시가지를 정비해 나갔다. 그리고 1936년에는 경성시가지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2월 26일 220개 노선의 가로망 계획을 고시했다. 퇴계로는 이 계획에 따라 탄생되었다.

소화통은 서울역-양동-회현동 2가 구간(중로1류 4번, 폭 20m 길이 1,130m)과 회현동 2가-쌍림동-신당동 구간(중로1류 6번, 폭 20m 길이 2,820m)을 잇는 총연장 3,950m 구간이었다. 이후 소화통은 일본이 패망을 앞둔 1945년 상반기에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서울역부터 신세계백화점 앞까지 너비를 40m로 확장했는데, 이는 방공용 공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광복 이후의 서울

광복 당시 서울 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제가 파놓은 방공호와 소개도로(疏開道路)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매우 무질서했다. 또한 서울은 광복과 함께 미군정 치하에 들어가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도로사업은 미군정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도로를 정비하고 포장이 안 된 흙길을 포장하는 응급 보수공사가 전부였다. 이는 미군의 군사장비와 차량



광복 직후의 서울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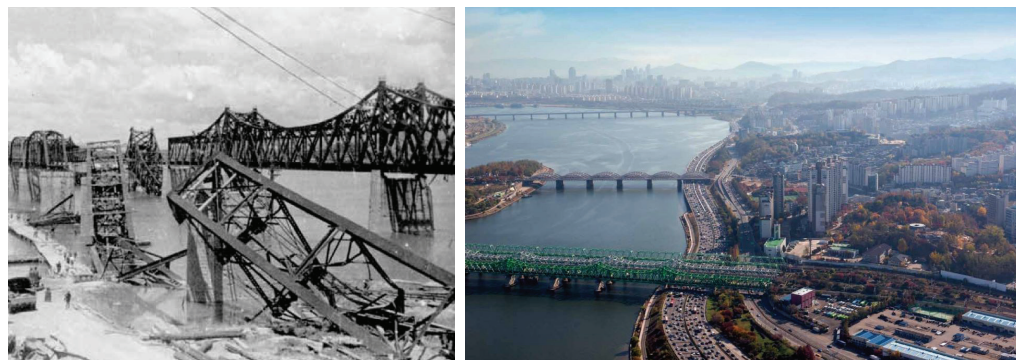
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그래서 1945년 말 서울의 도로는 약 927km로 도로율이 불과 4.6%에 불과했다(서울시 『시세일람(市勢一覽)』, 1948년). 도로도 전차가 다니는 일부 구간만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었다. 당시 서울의 도로 상황은 독립신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일제의 장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온갖 시설은 낡고 파괴되어 골목골목의 하수도는 막히고 터져서 더러운 물이 범람하고 대간선도로를 빼고는 대부분이 인도나 차마도의 포장이 벗겨져서 날이 맑은 날은 홍진이 만장하야 행인이 눈코를 뜰 수 없고, 비나 오는 날은 진흙으로 발을 옮길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동대문에서 청량리나 노량진 가도 등은 첫 여름을 당하면서 더욱 심하여 음식점은 문을 열 수가 없는 형편이며, 비 오는 날은 행인의 대부분이 자동차 바퀴에서 튀는 진흙탕의 세례를 받는다.

- 독립신보, 1946년 5월

폐허가 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은 미군 공병단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각종 도로공사용 중장비를 지원받아 도로 포장과 보수개량 공사를 시행했다. 미군은 우리 기술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도와 강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1947년부터는 미국의 원조 계획인 마샬 플랜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한강철교와 현재의 한강철교

(Marshall plan)이 이루어지면서 서울-부산 간 국도를 비롯한 주요 노선과 교량에 대해 개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로사업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시 중단되었다.

한국전쟁은 서울 시가지를 크게 파괴했다. 특히 군의 보급로였던 도로와 교량은 집중 공격을 받아 한강인도교와 한강철교 등 서울의 교량은 절반 이상 파괴되었고, 정비하고 있던 도로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의 퇴계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서울시는 도시 재건과 가로망 복구에 노력했다. 1952년 3월 25일 서울시는 '서울 도시계획 가로 변경 토지구획 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이는 한국인이 계획한 최초의 도시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한국전쟁 이후 서울에 자동차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규모가 방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9개의 계획가로를 신설하고, 기존의 계획가로 6개는 폐지하고 18개는 너비를 크게 넓힌다는 것이었다.

이때의 계획가로는 폭에 따라 크게 광로(廣路)·대로(大路)·중로(中路)로 나누었다. 그리고 너비에 따라 광로를 2종(100m·50m)으로, 대로를 제1류 2종(40m·35m), 제2류 2종(30m·28m)으로, 중로를 제1류(20m), 제2류(15m), 제3류(12m)로 분류했다.

노선 계획은 도심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망은 기존 도로를 넓혀 광로와 대로를, 노량진부터 신길동·도림동 일대와 마포구 전역에는 새로운 도로망을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계천과 소개도로였던 지금의 세운상가 자리에는 폭 50m의 광로를 건설하고, 일제강점기 때 소개공지대로 조성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왕십리 연결구간을 개설해 퇴계로를 개통한다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소개도로였던 퇴계로는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대표적인 길이 되었다.
(사진-이유상)

광로는 세종로 · 청계천 · 종묘 앞 3군데를 계획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도로를 신설 · 확장 계획가도로 정했다.

- 광화문 사거리에서 중앙청 앞까지 길이 500m 도로를 종전의 53m 너비에서 100m로 확장 : 지금의 세종로
- 광화문 사거리에서 오간수교까지 길이 2,750m의 가로를 청계천 복개를 통해 종전의 12m 너비에서 50m로 확장 : 지금의 청계천로
-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역까지 종전의 길이 800m 너비 34m를 길이 1,500m 너비 50m로 확장 : 지금의 태평로
- 종묘 앞에서 필동까지 1,450m를 너비 12m에서 50m로 확장 : 지금의 세운상가
- 서울역 광장에서 한강 인도교까지 너비 35m에서 40m로 확장 : 지금의 한강로
- 서대문 광장에서 동대문 광장까지 4,000m를 너비 28m에서 40m로 확장 : 지금의 새문안길-종로

- 서울역 광장에서 서대문 광장까지 너비 30m를 40m로 확장 : 지금의 의주로
- 서울역 광장에서 신당동(광희문)까지 길이 870m 너비 20m를 길이 3,500m 너비 35m로 확장 : 지금의 퇴계로

한국전쟁 이후의 서울 복구와 도로사업은 재정이 어려워 외국의 원조를 받았다. 원조자금으로 시멘트와 철근, 목재, 강관, 아스팔트 등 공사용 자재비를 충당한 것이다.

복구 작업은 파괴된 도로의 포장과 확장, 교량 복구를 주로 했고 종전 후부터 1957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때 한강에서 중앙청에 이르는 5,500m의 간선도로를 전면 개수했는데, 이는 광복 후 처음으로 실시한 대대적인 공사였다. 또한 소개도로였던 서울역-신당동 간 3,500m의 길을 신설해 종로 · 을지로와 함께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또 하나의 길 퇴계로를 만들었다.

퇴계로 가로명 제정

1946년 서울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가로명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의 동명과 가로명을 개정하는 일에 착수했다.

1880년대 초부터 서울에 들어와 집단으로 살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거주지에 일본식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들은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명칭으로 공인됐다. 일본인이 가장 먼저 정착한 동네는 혼마치[本町], 일본공사관이 있던 자리는 다케조에마치[竹添町], 일본 육군대장이 서울로 입성한 길은 하세가와마치[長谷川町] 등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이렇게 청계천 북쪽은 한국식 동(洞)으로, 남쪽은 일본식 마치(町)로 부르다가 1936년 이후 모든 행정구역 명칭이 마치로 통일되었다.

1946년 10월 1일 가로명 제정위원회는 일제 때 가로명의 뒷말인 통(通)을 로(路)로, 정목(丁目)을 가(街)로 바꾸고 가로명에 역사적 위인의 이름과



일본인이 가장 먼저 정착한 '혼마치(충무로)'



일제강점기의 '고카네초오(을지로)'

시호를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대왕과 충무공(이순신), 을지문덕, 불교계 대표 인물인 원효대사, 순국선열의 대표 인물 충정공(민영환)의 이름과 시호를 붙여 세종로 · 충무로 · 을지로 · 원효로 · 충정로 등의 가로명을 제정했다.

일본인들의 중심이었던 혼마치를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의 시호를 따 충무로로 하고, 임오군란 직후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고카네초오[黃金町]를 살수대첩의 명장 을지문덕의 이름을 붙여 을지로로 한 것은 이순신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그림자를, 을지문덕으로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의 자취를 지우겠다는 뜻이었다. 또한 일본공사관이 있던 다케조에마치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최초로 순절한 민영환의 시호를 따 충정로로 바꾸었다.

이 개정에서 특기할 것은 퇴계로를 제정한 것이었다. 이는 가로명과 행정구역명이 분리되기 때문이었다. 퇴계로는 조선시대 성리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퇴계 이황의 호를 따 제정한 것인데, 논의 끝에 1946년 12월 18일 확정함으로써 서울의 가로명은 행정구역 명칭과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1946년에 개정된 가로명은 모두 12개였다. 이는 서울시 고시로 시행하였는데, 가로명은 다음과 같다.

- 세종로
- 종로
- 신문로
- 을지로
- 태평로
- 남대문로
- 충무로
- 퇴계로
- 충정로
- 의주로
- 원효로
- 한강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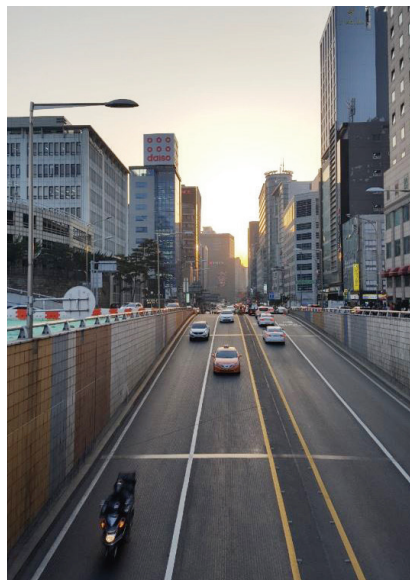
퇴계로의 구간 변천

퇴계로는 광복 후 여러 번 구간이 조정되었다. 먼저 1952년에는 서울역 광장부터 신당동(광희문)까지 구간을 조정하고 도로 폭도 35m로 확장되었다. 1966년에는 서울역 광장부터 명동 입구까지(450m)의 구간을 단축하고 도로명도 '광희로(光熙路)'로 바뀌었다. 그러나 1972년 도로명이 퇴계로로 환원되었고, 1984년에는 서울역 광장부터 광희문까지 구간이 다시 연장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왕십리길'이었던 한양공고 삼거리부터 도로교통공단 사거리까지의 구간을 편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퇴계로의 약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퇴계로 약사

- 기점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
- 종점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 1939년 : 조선총독부 고시 제757호(9월 18일)로 서울역에서 지금의 신당역 사거리 구간을 '소화통'으로 명명.
- 1945년 : 상반기에 미군 공습에 대비해 방공용 공터를 확보할 목적으로 서울역~신세계 앞까지 너비 40m로 확장.
- 1946년 : 일본식 동명 정리에 따라 소화통을 '퇴계로'로 변경.
- 1952년 : 서울역 광장에서 광희문까지 구간 변경, 길이 870m 너비 20m를 길이 3,500m 너비 35m로 확장.
- 1966년 : 서울역부터 명동 입구까지 구간 단축(450m), '광희로'로 개칭.
- 1967년 : 광희고가차도 개통(10월 9일).

- 1970년 : 서울역고가도로 개통(8월 15일).
- 1971년 : 퇴계로지하차도 개통(8월 15일).
- 1972년 : 지명을 퇴계로로 환원.
- 1977년 : 회현고가차도 개통(6월 30일).
- 1984년 : 서울역부터 광희문(한양공고 삼거리)까지 구간 연장.
- 2009년 : 회현고가차도 철거(8월 23일).
- 2010년 : 왕십리로(구 왕십리길)의 한양공고 삼거리부터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구간을 퇴계로에 편입(4월 22일).
- 2011년 : 광희고가차도 철거(8월).
- 2015년 : 서울역고가도로 폐쇄(12월 13일).
- 2017년 : 서울로 7017 개통(5월 20일).



퇴계로지하차도

퇴계로의 노선은 서울역 광장부터 도로교통공단 사거리까지 이어진다. 주요 노선은 다음과 같다.

서울역 - 회현역 - 회현 사거리 - 명동역 - 퇴계로 2가 교차로 - 충무로역 - 진양상가 교차로 - 퇴계로 4가 교차로 - 퇴계로 5가 교차로 - 광희동 사거리 - 한양공고 앞 교차로 - 신당역 사거리 - 신당역 - 성동고교 교차로(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이 노선은 성동고교 교차로에서 '왕십리로'로 이어진다. 주요 교차도로는 한강대로 · 세종대로 · 통일로 · 소공로 · 삼일대로 · 소파로 ·

충무로 · 동호로 · 장충단로 · 을지로 · 다산로 · 난계로 등이다.

퇴계로는 종로 · 을지로 · 청계로와 같이 서울의 도심부를 동서로 연결한다. 퇴계로의 북쪽으로는 충무로가, 남쪽으로는 남산 연변에 접한 남산동 · 회현동 · 필동 · 묵정동 · 쌍림동이 자리하고 있다.

퇴계로의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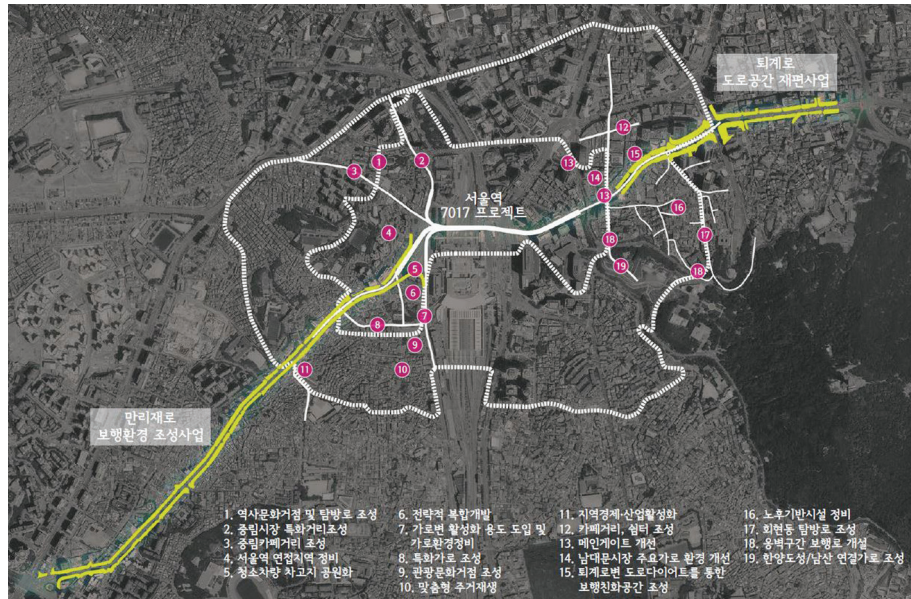
2030 서울플랜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기성 시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 재생을 추진해 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회 · 경제적 분야가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중심지인 한양도성 내부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계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본다.

퇴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1단계)

퇴계로의 도로 공간 재편사업은 2단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그 1단계는 회현동부터 필동까지 총연장 1.1km에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보도를 확장해 포장 · 식재 · 시설물을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보행 편의와 더불어 서울로 7017과 연계된 공간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시행되었다.

1단계 사업 구간인 회현동~필동은 일률적으로 도로변에 늘어서 있는 가로수와 띠늑지가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가로 포장이 낙후해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서울로 7017이 시작되는 인접 부근은 전반적으로 공간감을 향상시키고, 가로수와 시설물을 재배치해 보행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은 '보행 편의 중심의 열린 가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했다.



중구청은 만리재로와 더불어 퇴계로의 도로 공간 재편사업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에 걸쳐 수행했다.
(출처:중구청)

1단계 사업 현황(회현동~필동)

-가로 포장

○공사 이전

-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포장재와 패턴이 혼재해 연속적인 보행 경험을 주지 못함
- 민간 영역 포장재는 대체로 상태가 양호해 공공부분과의 질적 차이가 확연함
- 전체적인 색상 톤은 회색이 주종임

○공사 이후

- PC콘크리트 등 보행감이 우수한 포장재 도입
- 시공 때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듈 설계
- 섬세한 구배 설계와 배수 등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포장
- 새로 포장한 지 얼마 안 되어 교체 필요가 없는 부분은 존치
- 향후 노후화로 교체할 때는 1단계 포장 구간의 설계를 따라 일관성 유지



퇴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정비한 인도(변경 전과 변경 후)
(출처:중구청)

-시설물 및 가로수

○공사 이전

-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의 시설물들이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 많음
- 가로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띠녹지가 보행로를 더 좁히고 있음
- 보도를 확장할 때 불필요한 펜스가 각종 적치를 유도함

○공사 이후

- 산발적인 시설물들을 통합하고 도로 쪽으로 이동시켜 시원하고 열린 가로 조성
- 가로 포장, 식재와 연계된 시설물 계획
- 펜스는 제거하고 가로등은 도로변으로 수평 이동
-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띠녹지 제거
- 수목보호판 교체

-식재

○공사 이후

- 클러스터링 식재를 통해 새로운 가로수 흐름 형성
- 일률적인 가로수 식재로 인해 생겨나는 민원 발생 최소화
- 보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식재

퇴계로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2단계)

2단계 사업은 퇴계로 2가부터 광희동 사거리까지 총연장 약 1.5km 구간에 걸쳐 9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졌다.

한양도성 내부는 2017년 3월 15일 국내 최초로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지역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의 녹색교통 이용 공간을 2배로 늘려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온실가스 배출량은 40%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퇴계로·을지로·세종대로·충무로·창경궁로를,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도심권 도로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도로 공간을 재편하여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이런 배경에서 '보행 폭 확장에 따른 포장·식재·시설물 설계를 통해 보행 편의 개선 및 퇴계로만의 상징성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퇴계로는 서울로 7017부터 동대문까지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보행 축이다. 그리고 상업·주거·업무·녹지의 다양한 시설지가 연접해 있다. 2단계 사업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사회적 공간을 조성하고, 균형적인 배치를 통해 보행 공간을 특화했다.



퇴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정비한 시설물(변경 전과 변경 후)
(출처:중구청)

2단계 사업 현황(퇴계로 2가~광희동 사거리)

-가로 포장

○공사 이전

- 다양한 종류의 포장재와 패턴이 혼재해 연속적인 보행 경험을 주지 못함
- 부분적으로 교체가 진행되어 민간 영역과 더불어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존재함
- 대체적으로 색상은 회색 톤이 주종임

○공사 이후

- 퇴계로 1단계 구간과 조화로운 포장 패턴으로 연속성 확보
- 주변 가로와 만나는 일부 구간은 특화 포장을 적용해 장소성 부여

-시설물 및 가로수

○공사 이전

-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의 시설물들이 보행을 방해함
- 가로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띠녹지 정리가 필요함
- 전체적으로 수목보호대가 각기 다르고 노후해 미관상 통합 디자인이 필요함

○공사 이후

- 확장된 보도 폭을 활용해 녹지 연결성을 확보하고 보행 쾌적성 증진
- 기존 가로수 이외에 추가 보식을 통해 숲터널 조성 및 녹시율 증대
- 수목보호덮개 및 띠녹지 등 통합 디자인을 통해 미관성 증진

-주요 거점 현황

○공사 이전

- 건축물의 공개 공지(광장형) 및 공원이 주변에 분포해 있으나 가로변 쉼터 공간 확충 필요
- 특화거리, 도시 재생 및 보행 루트 연결부에 휴식·만남 등의 사회적 공간 마련 필요

○공사 이후

- 특화거리, 도시 재생 및 보행 루트 연결부에 휴식·만남 등의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 보행 유도 및 주변 거리 활성화
- 유동인구 분석을 통해 보행친화 공간 조성



보행친화공간 재편사업으로 말끔하게 단장한 퇴계로
(출처-중구청)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퇴계로는 남산과 동대문 등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주요 관광지를 동서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서울역과 서울로 7017, 남대문시장과 명동, 중앙시장과 황학동 벼룩시장,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 이어져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남산옛길 탐방로 조성사업,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황학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등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을 확산하는 한편, 향후 자생적 도시재생 롤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거점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부터 시작해 2021년 12까지 수행된다.

도시재생거점시설은 서계동 4개소, 중림동 1개소, 회현동 3개소 등 모두 8개소가 있다. 이 시설들은 현재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회복사업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위치도
(출처-중구청)

도시재생거점시설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거점시설	대지면적	연면적	기본구상(안)
		(㎡)	(㎡)	
서계동 (4개소)	감나무집(서계동 33-202)	200.6	146.32	공유서가 및 회의실, 공유부엌 등
	은행나무집(서계동 33-283)	75.7	59.73	문화예술 관련 전시장
	빌라집(서계동 33-218)	102.5	280.14	목공방, 마을관리사무소, 공유 오피스 등
	청파언덕집(서계동 33-232 외)	139.2	150.32	베이킹 카페
중림동 (1개소)	창고(중림동 441-1)	265.6	267.26	전시장, 팝업스토어, 주민공동이용시설
회현동 (3개소)	근대가옥집(회현동 1가 100-116 외)	241.2	188.11	공동육아시설, 강의실, 회의실
	계단집(회현동 1가 150-1)	86	66.11	마을 카페
	검벽돌집(회현동 1가 100-145)	177.9	310.45	F&B 복합공간 및 카페, 방송 스튜디오 등

남산옛길 탐방로 조성사업

이 사업은 '남촌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발굴한 회현동 자원으로 탐방로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일감 있는 탐방로를 조성해 역사 문화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탐방로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회현동 은행나무에서 회현시민아파트, 남산으로 진입하는 남산옛길에 보행 중심 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2017년 1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회현동 일대(총연장 1,440m, 면적 506,000㎡)에 약 23억 원을 투입해 2019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자산 · 지역거점 등을 잇는 탐방로 코스 개발
- 재생사업 거점, 주요 시설, 지역자산 등 탐방을 위한 안내 시스템 조성
- 쉼터 설치, 보행로 및 차선 정비,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등 보행 환경 개선
- 은행나무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주변 교통체계 재편(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개선해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중구는 새롭게 조성한 남산옛길 탐방로에서 '남산옛길 세대공감 걷기 여행'을 개최한다.
(출처:중구청)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이 사업은 남산 예정자락 일대에 공원을 조성해 퇴계로와 명동, 남산을 연결하는 접근성을 개선하고, 남산의 경관을 회복해 지역 상권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에 시작되었다. 예정동 4-1번지 일대(부지 면적 22,833㎡)에 5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원(15,154㎡)과 주차장, 남산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로, 2020년 12월에 마무리된다.

현재 남산 역사 탐방로는 완료한 상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회에 걸쳐 역사 자원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2019년 8월 29일 일제강점기 통감관저 터부터 조선신궁 터까지 약 1.7km 구간에 탐방로를 만들고 개통했다. 지금은 건축과 조경 등 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1년 3월부터 개장할 예정이다.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조감도

황학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중앙시장과 벼룩시장이 자리한 황학동 상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옛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구청은 황학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사는 중앙시장의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을 지하 통로로 연결해 시장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1983년 9월 16일에 준공한 지하철 2호선 신당역(폭 24m, 연장 230m)은 주변에 중구종합복지센터, 유락사회복지관, 중앙시장 등이 자리해 이동 인구가 많다. 1970년 9월 4일에 준공한 뒤 개장한 신당지하상가(폭 12m, 연장 391m) 또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러나 중앙시장과 신당지하상가는 상가와 지하철을 통로로 연결하는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 지어져 신당역과 분리돼 있다. 이는 중앙시장을 비롯해 그 일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이 공사는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이 공사는 2019년 11월에 시작되었다.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 역사의 구조, 승객 동선, 보행 연결통로 공간 확보 등 타당성을 조사해 실행 가능한 최적안을 도출하는 가운데 2020년 4월에 설계를 추진한 뒤 2020년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해 신당역 지하철 역사와 중앙시장 지하상가 중앙통로를 연결한다.

퇴계 이항

서울시는 현재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2040 서울플랜은 서울의 미래상으로 다음 4가지를 설정했다.

01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적 서울 지향

02 이야기가 있는

다채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서울 지향

03 지속가능한

회복탄력성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 지향

04 쾌적 도시 서울



'2040 서울플랜' 시민 미래상 제안서 전달식(2020년)
(출처-서울시)

친환경적 발전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 지향

2020년에 확정되는 이 플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더불어 사는 서울을 지향한다. 그리고 도시 재생은 이 플랜이 지향하는 서울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퇴계로 재생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의 관문 서울역에서 남대문시장, 명동, 영화인들의 숨결이 배어 있는 충무로역, 애견거리와 오토바이거리, 역사가 숨 쉬는 광희문을 거쳐 서민들의 희로애락이 함께하는 중앙시장과 벼룩시장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사람길'인 퇴계로는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퇴계로의 이름을 있게 한 퇴계 이항을 들여다보자. 서울 남산공원에는 이항을 기리는 동상이 서 있다. 그래서 퇴계로에 오면 산책 삼아 둘러보기도 좋다.



퇴계 이황

이황은 조선시대 성리학을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학자다. 성리학을 체계화해 발전시켰고, 주리론적 사상을 형성해 영남학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사림의 종장으로 추앙받았다.

이황은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다. 1501년(연산군 7년)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570년(선조 3년)에 세상을 떠났다.

7남 1녀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황은 세상에 나온 지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자랐다. 어머니는 생활이 곤궁해도 자식 교육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황은 여섯 살부터 글을 읽기 시작해 열두 살에 『논어』를 배웠다. 그리고 뒤로는 대부분 독학을 했는데, 스무 살 무렵에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독서와 성리학에 몰두했다.

이황은 1527년(중종 22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1534년(중종 29년) 문과에 급제하면서 벼슬길에 올랐다. 승문원 부정자로 출발해 박사, 전적, 지평 등을 거쳐 세자시강원 문학, 충청도 어사 등을 역임했고 1543년(중종 38년)에는 성균관 사성이 되었다. 그러나 1546년(명종 1년) 관직을 사퇴하고 고



도산서당
퇴계 이황이 거쳐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나고 건립된 사당과 서원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향으로 돌아와 낙동강 상류 토계(兔溪)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서 토계를 '퇴계'라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호로 삼았다.

이황은 1548년 다시 관직을 받았다. 하지만 부패하고 문란한 조정을 떠나고 싶어서 외직을 청하여 단양군수로 봉해졌는데, 형이 충청감사로 온다는 것을 알고 경상도 풍기군수로 옮겼다. 풍기군수로 있을 때는 전임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편액(扁額)과 서적, 학전(學田)을 내려줄 것을 조정에 청하여 실현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사액서원의 시조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이다.

1549년 이황은 병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퇴계의 서쪽에 한서암(寒棲庵)을 짓고서 독서와 사색으로 구도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1552년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되어 다시 벼슬 생활을 했고, 이후로도 홍문관 부제학, 공조참판 등 여러 차례 관직을 받았으나 고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1560년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서 이로부터 7년간 독서와 수양, 저술에 전념하며 많은 제자를 길렀다.

이후 이황은 선조의 간절한 바람을 물리치지 못하고 1568년(선조 1년) 68세의 노령으로 대제학 지경연(知經筵)을 맡아 진강(進講)을 하며 그의 학문의 결정인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저술해 선조에게 바쳤다. 그리고 1569년(선조 2년)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연구와 저술, 후진 양성에 힘쓰다가 이듬해 우환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일흔 살의 나이로 이황이 죽자 선조는 이를 슬퍼하며 3일 동안 정사를 폐하고 애도했고, 영의정에 추증했다.

이황의 『성학십도』는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道)에 관한 학문을 도식으로



성학십도(태극도)
퇴계 이황이 1568년(선조 1년) 왕에게 올린 상소문.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군왕의 도에 관한 학문의 요체를 도식으로 설명했다.
(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 후 일본으로 반출돼 일본의 유학사상 학파인 ‘기몬학과[崎門學派]와 ‘구마모토학과[熊本學派]’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존송을 받았다.

이황은 중국의 개화기에 정신적 지도자들에게도 크게 존송을 받았다. 1926년 북경의 상덕여자대학(尙德女子大學)은 대학의 기금을 확장하기 위해 『성학십도』를 목판으로 복각해 병풍을 만들어 널리 세상에 알렸다. 이때 중국 개화기의 대표적인 사상이 량치차오(梁啓超)는 이황을 찬양하는 시를 써 발표했는데 이황을 ‘아득하셔라 이부자(李夫子) 님이시여’라 하였다. 공자나 맹자처럼 성씨 뒤에 ‘자(子) 자’를 붙여 이부자, 곧 ‘이자(李子)’라 하며 성인이라 한 것이다.

주자가 작고한 뒤 도(道)의 정맥은 이미 중국에서 두절되어 버렸다. 퇴계는 한결같이 성인의 학으로 나아가 순수하고 올바르게 주자의 도를 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만한 인물을 볼 수 없다. 실로 주자 이후의 제일인자이다.

- 조선 중기 문신 조호익(曹好益)

이처럼 이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양 3국에서 도의철학(道義哲學)의 건설자이자 실천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국제적 규모로 이황을 연구하고 있는데, 1970년에는 서울에 ‘퇴계학연구원’이 창립되었고 일본 동경에도 ‘이퇴계연구회’가, 대만에도 국립사범대학에 ‘퇴계학연구회’가 설립돼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하와이에 ‘이퇴계연구회’가 있고, 독일의 함부르크와 본에도 ‘퇴계학연구회’가 있다. 또한 1985년에는 ‘국제퇴계학회’가 결성돼 해마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홍콩 등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퇴계 선생 임종하신 방 한구석에

매화분 하나 놓여 있다

매화분에 물 주거라

퇴계 선생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소중히 받들기 위해

매화분에 매화는 피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는데

나는 통장의 돈 찾아라

한마디 남기고 죽을까봐 두려워라

- 정호승의 시 '매화' 중에서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매화는 한평생을 춥게 살아가더라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 안락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황은 세상을 떠나는 날 아침 평소에 사랑하던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킨 후 병석에서 일으켜 달라고 한 뒤 단정히 앉은 자세로 죽음에 들었다고 한다.

이황의 삶은 매화의 삶이었다. 일생을 향기를 팔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다. 그러면서 ‘섬김’의 정신을 남겼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은 이황은 자질만 있으면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제자로 들였다. 학문적 교류도 신분의 귀천과 차별을 두지 않았고, 아무리 신분이 귀하고 높더라도 학문적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황은 학문을 닦는 사람을 벗으로 대했다. 한 예로 성리학자 기대승(奇大升)과 논쟁을 벌인 일은 유명하다. 이들은 무려 12년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였는데 예의에 벗어남이 없었다. 당대 최고의 학자임에도 이황은 스물여섯 살이나 어린 후학 기대승의 학문을 높이 보고 단 한 번도 윗사람 노릇을 하지 않았다. 만약 이황이 기대승을 아랫사람이라 하여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면 조선의 유학은 발전이 더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퇴계 이황 동상(남산도서관 입구)

이황은 상대의 학문을 경애의 마음으로 대했고, 그 결과 그들의 논쟁은 조선 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황은 제자들 또한 사제지간이 아닌 벗으로 대했다. 곤궁한 제자를 보면 곡식을 보내주어 학문을 닦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이처럼 제자를 벗으로 대하고 학문적 이견을 가진 사람까지 경애하며 후학을 양성한 이황은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은 수많은 제자를 불러 모으며 훗날 조선 최고의 학파 '영남학파(嶺南學派)'를 탄생시켰다.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수평적인 나눔을 행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섬김은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황이 걸었던 나눔과 섬김의 길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러

준다. 섬김은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황의 정신이 깃든 21세기 서울 퇴계로, 이 길을 걸으면 퇴계 이황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한번쯤은 마음으로 그를 기려볼 일이다.

참고자료

권오봉, 2013,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김선평, 2001, 『중구의 구전설화』, 서울중구문화원

김선평, 2004, 『중구의 축제』, 서울중구문화원

김선평, 2007, 『중구의 세시와 풍속』, 서울중구문화원

김재희 외, 2015, 『소설가 구보씨 중구를 거닐다』, 서울시 중구청

노주석, 2014, 『서울 택리지』, 소담출판사

문동석, 2013, 『서울 중구 12경, 살아 있는 전통을 만나다』, 서울중구문화원

문동석, 2015, 『한류의 중심 서울 중구, 그 뿌리를 찾아서』, 서울중구문화원

박경룡 외, 1986, 『서울의 가로명 연혁』, 서울특별시

박경룡 외, 2003, 『명동변천사』, 서울중구문화원

박경룡 외, 2005, 『영화의 메카 충무로』, 서울중구문화원

박경룡, 2000, 『중구의 시장 어제와 오늘』, 서울중구문화원

박경룡, 2011, 『청계천, 중구의 물길 따라』, 서울중구문화원

박경룡, 2017, 『번영의 상징 을지로』, 서울중구문화원

서울역사편찬원, 2015, 『서울 역사 2000년』, 서울역사편찬원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2018, 『한양도성과 중구의 각자성석』, 서울중구문화원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2, 『동명연혁고(2) 중구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0, 『서울의 고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서울의 누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서울의 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 『서울 도시계획 연혁 20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지역생활권계획 중구)』, 서울특별시

서울학연구소, 2015, 『중구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사업』, 서울시 중구청

신승철 외, 1999, 『서울 중구, 도심 속으로의 역사기행』, 서울중구문화원

유홍준, 201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9 서울편(1)』, 창비

유홍준, 2017,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서울편(2)』, 창비

이이화, 2013, 『이이화의 인물한국사』, 주니어김영사

이재근, 1998, 『남산의 역사와 문화』, 서울중구문화원

조영하, 2012, 『서울, 도성을 품다』, 서울역사박물관

중구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 1997, 『중구 사화』, 서울중구문화원

한동수 외, 2009, 『서울 중구, 남겨진 풍경 지나간 흔적』, 서울중구문화원

2040 서울플랜 <https://2040seoulplan.com>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남대문시장 www.namdaemunmarket.co.kr

남산골 한옥마을 <https://www.hanokmaeul.or.kr>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100.daum.ne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

문화역 서울 284 <https://www.seoul284.org>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서울로 7017 <http://seoullo7017.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kr>

서울역사편찬원 <https://history.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중구청 <http://www.junggu.seoul.kr>

서울학연구소 <http://seoulstudies.uos.ac.kr>

예술통 <http://yesultong.allthru.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충무아트센터 <http://www.caci.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의 집 <https://www.koreahouse.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서울 중구 퇴계로를 걷다

중구향토사자료 제19집

발행처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장

기획 중구문화원 사무국장 김동주

집필 윤 구

감수 김광시

발행일 2020년 1월 31일

제작 이지컴(02-512-5038)

ISBN 979-11-954622-4-7 03980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원 [비매품]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1층)

전화 02-775-3001 **팩스** 02-775-3068

홈페이지 <http://www.junggucc.or.kr>